

더 ^{THE} 개념 블랙라벨

정답과 해설

B L A C K L A B E L



I 개념 ○X

1장. 고전 문학

1장-A 고전 시가의 원리

원리 1 채움

본문 15쪽

01 가시리✓가시리✓있고 (나논)

보리고✓가시리✓있고 (나논)

(위 증증가 대평성티) //

날러는✓엇디✓살라 하고

보리고✓가시리✓있고 (나논)

(위 증증가 대평성티)

02 이 몸이✓주거 주거✓일백 번✓고쳐 주거

백골이✓진토되여✓넉시라도✓있고 업고

님 향훈✓일편단심이야✓가실 줄이✓이시랴.

03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닷곤딤 아즐가) 닷곤딤✓쇼성경✓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04 엇그제✓저멋더니✓흐마 어이✓다 늘거니

소년 행락✓생각하니✓일러도✓속절업다.

늘거야✓서른 말숨✓흐자니✓목이 멘다.

01 「가시리」는 고려 가요로,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이때 '나논', '위 증증가 대평성티'는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여음구이므로, 음보를 나눌 때 제외한다.

02 「단심가」는 시조로, 4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03 「서경별곡」은 고려 가요로,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이때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는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여음구이므로, 음보를 나눌 때 제외한다.

04 「규원가」는 가사로, 4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원리 2 채움

본문 18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09 「천석고황」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여 생긴 병(病)'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 '연하고질(煙霞痼疾)'이 있다.

12 「녹양방초」는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을 의미한다. 「상춘곡」과 같이 봄의 계절을 드러낼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원리 3 채움

본문 21-22쪽

01 A 02 A 03 A 04 A 05 B 06 B

01~03 화자('디날 손')는 식영정에 들러 식영정의 주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화자는 '창계 흰 물결이 정자 알피 둘러시니', '눈 아래 헤딘 경이 철철이 절노 나니'와 같이 식영정의 주변 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엇디 한 강산을 가디록 나이 녀겨 / 적막 산중의 들고 아니 나시난고.', '천변의 떴난 구름 서석을 집을 사마 /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과 엇더한고.', '산중의 책력 업서 사시를 모르디니'에서 식영정 주인이 자연에 묻혀 살며, 자유롭게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흠모하고 있다. 또한 주인의 삶을 '선간'에 비유하며 예찬함으로써 '성산의 풍경과 식영정 주인에 대한 예찬'이라는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04~06 초장에서 화자는 죽음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 이 작품은 수양 대군에 의해 단종이 왕위를 빼앗긴 상황에서 지어진 시라고 했다. 따라서 종장의 '백설이 만건곤(흰 눈이 가득 찬)'한 상황은 단종이 왕위를 빼앗긴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며, 이와 대비되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인, '낙락장송'의 이미지를 통해 단종에 대한 화자의 절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장의 '독야청청허리라'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1 A 02 B 03 A 04 B 05 A 06 A

07 A

01~03 「안민가」는 향가에 속한다. 1~4행에서는 임금을 아버지께, 신하는 어머니께, 백성은 어린아이에게 비유하며 각자의 역할을 가정에서의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5~8행에서는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통치의 근본임을, 9~10행에서는 임금, 신하, 백성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나라가 태평해짐을 말하고 있다.

04 「서경별곡」은 고려 가요에 속한다. 1행의 ‘서경이 아즐가’는 리듬을 맞추기 위해 ‘서경이’를 반복하고 ‘아즐가’라는 여음구를 넣은 것이므로, 음보를 따질 때에는 본래의 가사만 고려하면 된다. 따라서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V 서울히 V 마르느’의 3음보로 나눌 수 있다.

05 화자는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는 여음구로, 시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06~07 「한림별곡」은 경기체가에 속한다. 역대 뛰어난 문장가들과 시인들을 나열하며 과거 시험을 치르는 이들의 학식과 재주를 예찬하고 있다. 또한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에서 화자를 포함하여 과거 시험을 치르는 계층, 곧 신진 사대부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01 A 02 A 03 B 04 A 05 A 06 A

01~03 화자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잘라 내어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가, 사랑하는 임이 오신 날 밤에 굶이 굶이 퍼졌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가 ‘밤’을 ‘구뵈구뵈’ 퍼졌다고 하는 이유는 추운 밤에 넣어 둔 것을 꺼냄으로써 밤을 길게 하여 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며, ‘밤’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이불처럼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랑하는 임이 부재하는 데서 오는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04~06 화자는 짭방석 대신 낙엽, 술불 대신 달빛,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 대신 맛이 변변하지 못한 술과 산나물(‘박주산채’)로 만족하고 있다. ‘낙엽’이나 ‘달빛’은 자연에서 절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짭방석’이나 ‘술불’은 일부러 만들어 내야 하는 인위적인 것들이다. 이처럼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대조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01 A 02 A 03 A

01~03 「만분가」는 유배 가사로, 귀양살이의 역을 함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현재 임과 떨어져 사는 처지로, 임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가]에서는 ‘만장송’, ‘금강산 학’, ‘매화’와 같은 자연물이 된다고 가정한 뒤, 그에 따라 임이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학’은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까지 솟아오를 수 있는 상상의 이미지를 지니며, 멀리 떨어져 있는 임에게 닿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은 임과 떨어져 사는 슬픔과 임과 함께 지내고 싶은 소망으로 볼 수 있다.

원리 1 채움

본문 44쪽

01 이생은, 한편, 밤중이, 이튿날, 그 후, 어느덧

01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의 한 장면이다. ‘이생은 가족을 데리고 ~’ 이하는 새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흥건적의 난으로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중 이생과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 이하는 새로운 사건이면서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흥건적의 난으로 부인이 죽고 이생 홀로 옛집과 아내의 집을 방문하며 슬퍼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밤중이 거의 되자 ~’ 이하는 죽은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므로 새로운 사건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 이하는 공간의 변화와 함께 전단으로 인한 상황을 수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 이하는 이생의 태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어느덧 두서너 해가 지난 ~’ 이하는 여인이 이별을 고하며 상황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원리 2 채움

본문 49쪽

01 ○: 숙향 △: 사향, 승상

01 제시된 장면만으로 등장인물들을 선-악으로 분류해야 한다. ‘사향’은 부인의 물건을 훔쳐 숙향의 그릇 속에 감춘 뒤, 숙향이 부정한 짓을 했다는 모함을 하고 있으므로, 악한 인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향으로 인해 누명을 쓴 숙향은 선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승상의 경우, 사향의 말만 믿고 숙향을 내쫓아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선-악의 인물로 분류할 때에는 악한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원리 3 채움

본문 54쪽

01 A 02 B 03 B

01~03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김덕령은 왜장 청정과 그의 군사들을 무찌르는 활약을 펼친 인물이다. 그런데 병조 참판 이옥은 덕령이 국가를 위해 싸우지 않고, 왜장 청정과 밀약을 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고, 이에

임금은 덕령을 잡아 국문하기에 이른다. 덕령은 반심이 없음을 호소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에게 ‘만고충신 김덕령’이라 써 붙여 달라고 부탁한 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준다. 따라서 이옥과 임금은 고통을 주는 자이고, 덕령은 고통받는 자로 볼 수 있다. 또한 덕령을 잡아 엄형을 가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충심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덕령과, 덕령이 역심을 품었다고 생각하는 임금 사이의 갈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원리 4 채움

본문 59쪽

01 A 02 B

01~02 호국의 장수 용율대는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므로, 악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용율대가 피화당으로 달려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나무들이 일시에 군사로 변하는 등의 일이 일어난 것은 전기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기성으로 인해 용율대는 패배를 인정한 뒤 자결하고, 계화(우리나라)와 용율대(호국) 간의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병자호란으로 고통받은 당대 조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다.

원리 5 채움

본문 65~66쪽

01 ③ 02 ③ 03 ②

01 총렬이 노승을 만나 병서를 탐구하고 도술, 검법을 수련하는 부분이므로, ③ ‘조력자를 만나 도술, 검법을 수련함.’에 해당한다.

02 구름이 걷히고 호승이 사라진 뒤, 성진으로 돌아와 이전의 일들이 꿈이었음을 깨닫는 부분이므로, ③ ‘꿈에서 깨어남. (각몽)’에 해당한다.

03 사씨 부인이 교 씨의 아들 장지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므로, ② ‘첩의 모함’에 해당한다.

1. 정읍사 (어느 행상인의 아내)

집중 훈련 OX

본문 68~69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 읽기 현전하는 백제 가요로, 한글로 기록된 가요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여음구를 제외한 기본 시행만으로 보면 3연 6구의 형식이 되고, 각 연이 3음절 또는 4음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음구를 제외한 구절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2행'은 '부탁-소망', '5~6행'은 '의문-근심', '8~9행'은 '부탁-근심'으로 각각 대응된다.

중심 내용

- 1~4행: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
- 5~7행: 남편의 안위에 대한 염려
- 8~11행: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원

주제 남편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중심 시어 및 시구

- 돌(달): 화자와 대상(남편) 사이를 이어 주고 좁혀 주는 매개체이다. 남편의 무사 안전을 도와주는 절대자로서 화자의 기원의 대상이다. 소망과 기원의 원형적 이미지
- 존 디(진 곳): 위험한 곳
- 내: 내 입(남편)으로 볼 수도 있고, 화자 남편과 화자를 모두 가리키는 말로 볼 수도 있음.

특징

-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고 있음.
- '달(밝음)'과 '진 곳(어둠)'의 대조적 이미지가 두드러짐.

㉠

화자는 '돌'을 향하여 높이높이 돌아서 멀리멀리 비취 주기를 기원하고 있다. 달에게 이러한 기원을 하는 까닭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대상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초월적 대상에게 소원을 바란다는 점에서 주술적 성격을 띠고 있다.

㉡

화자는 현재 부재하는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 화자를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볼 때,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은 행상일을 하는 남편으로 볼 수 있다.

㉢

㉠에서 화자는 남편의 소재지를 추측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남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저재'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화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존 디'(위험한 곳)를 디딜까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존 디'는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진 곳이나 도적의 무리, 산짐승, 남편을 유혹하는 여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에서 화자는 남편이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려워하고 있으나, 자신이 남편 대신 위험한 곳을 지나고 싶다는 바람은 드러내지 않는다.

㉥

㉤은 남편 자신이 어느 곳이든 짐을 놓고 오더라도,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당부를 담고 있다.

㉦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시상이 전개되었으므로,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점칠툄세라'라며 길이 저물어 어두워질까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불안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내가 화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은 '내가 살아갈 길이 저물어 어두워질까 두렵습니다.' 또는 '남편을 마중 가는 길이 저물어 어두워질까 두렵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화자는 달에게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달빛을 멀리 비취 주기를 기원하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다.

10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남편과의 재회를 바라는 것이다.

11

화자가 남편의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으나, 남편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2

‘비취오시라’(비취 주십시오)를 통해 화자가 ‘달’에 대한 공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ներին Կօյօ’(가 계신가요?)를 통해 화자가 남편에 대해서도 공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느이다 노코시라’는 명령이 아닌 당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3

‘돌하’라며 달에게 말을 건넨다는 점에서 ‘돌’을 시적 청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돌’은 남편의 무사 귀가를 이루어주는 기원의 대상이지, 현재 부재하는 남편과 동일시하는 대상은 아니다.

14

‘돌’은 남편이 돌아오는 길을 밝게 비취 남편이 화자(아내)와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15

높이 떠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달의 속성을 통해, ‘돌’이 위험한 곳을 비추는 광명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반면 ‘즌 Դի’는 위험한 곳을 의미하며, 어둠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돌’과 대조되고 있다.

16

화자는 자연물인 ‘달’(달)에 의탁하여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소원을 비는 대상인 ‘돌’은 초월적 존재로서, 화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

17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는 모두 여음구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18

‘저재 ներինԿօյօ’에서 남편에게 시장에 가 있는지 묻고 있으나, ‘즌 Դի’를 드Դիլլեթ라’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없다.

19

화자는 남편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며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심리는 ‘-Կօյ’과 같은 접사나 ‘-ըթեթլ’과 같은 어미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어순의 도치가 드러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0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으며, 그리움의 정서가 점차 고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1

화자가 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드러나나, 대화의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부분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2. 제망매가 (월명사)

집중 훈련 OX

본문 70~71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작품 읽기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지은 10구체 향가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비유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1~4행’에서는 누이의 죽음으로 맞서게 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어린 나이에 요절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고, ‘5~8행’에서는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 ‘9~10행’에서는 슬픔을 종교적 신앙심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심 내용

- 1~4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
- 5~8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무상감
- 9~10구: 슬픔의 종교적 승화(재회 다짐)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죽음에 대한 종교적 승화

중심 시어 및 시구

- ‘이른 바람’: 일찍 찾아온 시련, 즉 어린 나이에 죽음을 의미함.
- ‘떨어질 앞’: ‘앞’을 통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가 죽었음을 알 수 있음.
- ‘한 가지’: 화자와 죽은 대상이 혈육 관계임을 알 수 있음.
- ‘미타찰’: 극락세계. 누이와의 재회가 가능한 곳

특징

- 뛰어난 비유적 표현으로 삶과 죽음을 노래함.
-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가 나타남.

01

고전 문학은 작품의 제목이 작품의 내용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제목 ‘제망매가(祭亡妹歌)’는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는 노래’라는 뜻이라고 하였으므로, 작품에서 죽은 대상은 ‘누이’일 것이며,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2

[A]에서 화자는 이승(‘예’)에 있으나, 대상은 죽음의 길로 갔다고 했으므로, 화자는 대상의 죽음으로 인해 대상과 헤어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이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간 것으로 보아, 갑작스럽게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생사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에서 화자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화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어찌 갑니까’에서 화자는 대상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이기보다는 대상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것이다.

05

[A]에서 ‘나는 간다’는 말은 죽은 대상이 화자에게 죽기 전에 건넬 하직 인사이다. 그러나 이를 건네지도 못하고 갔다는 것으로 보아, 대상이 갑작스레 죽었음을 알 수 있다.

06

‘이른 바람’/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에 빗대어 화자의 누이가 ‘이른 바람’, 곧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07

‘바람’으로 인해 잎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바람’은 ‘잎’을 가지에서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상의 죽음을 빗댄 것으로 볼 때, ‘바람’은 개인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

08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에서 화자와 대상이 ‘한 가지’(한 부모)에 났다는 점에서 혈육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09

[B]의 ‘가는 곳 모르온저.’(가는 곳을 모르겠구나.)에서 화자는 대상이 죽은 사실을 탄식하며, 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10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에서 한 가지에서 나왔음에도 결국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삶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깨달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미타찰’은 극락세계를 의미하며, 화자는 이곳에 이르기 위해 ‘도’를 닦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타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타찰에 만날 나’에서 ‘미타찰’은 죽은 대상과 재회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12

화자는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번민을 ‘기다리겠노라.’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구도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3

화자는 대상과 갈등을 빚지 않았으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에 순응했다기보다 이를 종교적으로 초극한 것이다.

14

[A]와 [B]에서 화자는 누이(대상)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C]에서는 이를 구도적 태도로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5

[A]의 ‘머뭇거리고’, ‘어찌 갑니까’에서 갑작스럽게 죽은 대상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C]에서는 ‘미타찰’에서 만날 때까지 도를 닦으며 기다린다고 말함으로써, 생사의 문제를 초극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6

[A], [B]에서 화자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C]에서는 미타찰이라는 초월적 세계에 바탕을 두고 현실에서 죽음으

로 인해 이별하게 된 누이와 재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7

생과 죽음을 겪는 유사점에 기대어 인간의 삶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18

‘아아’는 여음이 아닌 감탄사이며, 화자의 슬픈 감정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적 고뇌가 종교적 초극으로 승화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19

‘떨어질 앞’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죽음을 빗대며, 작품의 분위기를 무겁게 형성하고 있다.

20

‘아아’라는 감탄사를 통해 영탄적 표현은 드러나 있지만,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21

대구의 방식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화자가 대상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정서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2

<보기>에서 이 작품을 부르니 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놓아둔 돈이 서방 정토가 있는 서쪽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작품이 하늘을 감동시켜 누이의 혼을 극락세계로 데려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작품에 담긴 주술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산별곡 (작자 미상)

집중 훈련 OX

본문 72~73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작품 읽기 총 8연으로 구성된 고려 가요로, 현실적인 고독과 비애,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청산’과 ‘바다’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연마다 내용과 관계없는 여음구가 이어져, 오랜 기간 노래로 불리다가 후대에 문자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전되다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5연과 6연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은 고도의 상징과 비유를 구사하여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청산에 대한 동경
- 2연: 삶의 비애 토로
- 3연: 속세에 대한 미련
- 4연: 고독과 비탄
- 5연: 비극적 운명에 대한 체념
- 6연: 바다에 대한 동경
- 7연: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
- 8연: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주제 삶의 비애와 고독,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중심 시어 및 시구

- ‘청산(청산), 바루(바다)’: 자연, 현실 도피적 공간
- 2연의 ‘새’: 감정 이입의 대상. 화자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인 객관적 상관물
- 3연의 ‘가던 새’: 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사래. 경작지를 잃은 유랑민의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여 줌.
- ‘돌’: 비극적 운명, 괴로움의 원인
- ‘설진 강수’: 삶의 고뇌를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해소책

특징

- 울림소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함.
- 상징적 시어와 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짐.

①

화자는 ‘청산’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치고 있을 뿐(‘살어리랏다’), 실제로 ‘청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산’은 ‘멀위, ㄷ래’와 같은 열매를 먹으며 현실의 고뇌를 달랠 수 있는 소박하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척박한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02

‘살어리랏다’를 ‘살고 싶구나’로 해석한다면, ‘청산’은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 곧 동경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살어리랏다’를 ‘살아야만 하는구나’로 해석한다면 ‘청산’은 화자가 어쩔 수 없이 머무는 부정적 공간이다. 대체로 ‘살어리랏다’는 ‘살고 싶구나’로 해석한다.

03

2연에서 화자는 새에게 ‘울’라고 말하며, 시름이 많은 자신도 운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슬픈 감정을 ‘새’에게 투영하고 있다.

04

‘울음’을 통해 희망 없이 시름하는 비애가 드러나고 있을 뿐, 이를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

05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라면, 2연의 ‘가던 새’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곧 떠난 임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이 작품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화자가 ‘가던 새’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속에서 권력을 취하며 당쟁을 일삼는 무리’로 보기는 어렵다. ‘가던 새’는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며 바라보는 대상이므로, 자연과 속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날아가는 새’로 해석할 수 있다.

07

‘물 아래 가던 새(날아가는 새 또는 갈던 밭) 본다’를 통해 화자가 예전(속세)의 생활에 미련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8

화자에게 낮과 밤은 모두 외로운 상황을 견뎌 내야 하는 시간이다. 다만, 화자의 외로움은 밤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9

‘돌’은 인간의 비극적 운명, 곧 고통스러운 운명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유 없이 돌을 맞아 운다는 표현을 통해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며, ‘마자서 우니노라’와 같이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0

‘청산’과 동일하게 이상적인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청산’과 ‘바를’ 모두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다. 한편 ‘청산’, ‘바를’과 대조되는 공간은 2연의 ‘물 아래’로 볼 수 있다.

11

‘사슴이 짚대에 올라서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노라.)’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기적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8연에서 화자는 누룩 향기에 이끌려 술을 마시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시적인 해소이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로는 볼 수 없다.

13

㉠ ‘돌’은 화자의 서러움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 ‘강수’는 화자가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것으로, 비애와 고통 속에 있는 화자의 ‘흥’을 고조시키고 있지는 않다.

14

화자가 현실에서 고독과 비애를 느끼고 있는 것은 드러나나, 화자가 과거에 어떤 정서를 느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부분 역시 찾을 수 없다. 참고로 2연의 ‘물 아래 가던 새 본다.’에서 속세의 생활에 미련을 보인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독백조이나, 2연에서 화자는 ‘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16

구체적으로 자연을 묘사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으며, 현장감을 부여하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17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살어리 살어리랏

다 바르래 살어리랏다’에서 시어를 반복, 변주하면서 ‘청산’과 ‘바를’에 살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18

후렴구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주고 있다. 또한 후렴구는 ‘o, r’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19

이 작품은 고려 가요로, 전체적으로 3음보의 율격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살어리/살어리/랏다’, ‘청산애/살어리/랏다’, ‘멀위랑/드래랑/먹고’, ‘청산애/살어리/랏다’와 같이 3음보의 율격으로 읽을 수 있다.

20

상승 이미지는 대체로 힘차고 희망적인 느낌을 주며, 초월적 세계와 관련되기도 한다. 반면 하강 이미지는 어둡고 슬픈 느낌을 주며, 죽음 등과 관련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는 찾을 수 없다.

21

갈던 밭을 보고, ‘잉 무슨 장굴’(이끼 묻은 쟁기)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는 오랜 기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민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갈던 밭’을 잃고 이상적인 공간인 ‘청산’이나 ‘바를’에서 살고자 한다는 점에서, 화자는 난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지배층의 착취로 토지를 빼앗기고 떠도는 유랑민으로 볼 수 있다.

2강-B

조선 전기 ~ 중기

1-1. 수양산 바라보며 (성삼문)

집중 훈련 OX

본문 75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작품 읽기 조선 전기의 평시조로, 수양 대군의 단종 폐위에 항거한 작가의 의지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수양산에 들어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며, 그보다 더욱 굳건한 절개와 의지를 지니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심 내용

- 초장: 이제에 대한 한탄
- 중장: 이제의 행위에 대한 질책
- 종장: 지조와 절개의 정신

주제 죽음을 각오했던 굳은 지조와 절개

중심 시어 및 시구

- 수양산: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 무왕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들어가 지냈던 산. 이 작품에서는 ‘수양 대군’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어 수양 대군을 섬기지 않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드러냄.
- 그 뉘 싸해 낫드니.: 비록 사소한 채소일지라도 주나라의 땅에서 난 것이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제의 행위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함.

특징

- 수양산과 수양 대군을 종의적으로 표현함.

①

이제는 주나라 무왕의 지배를 피해 수양산에 들어가 주나라의 곡식 먹기를 거부하고 채미를 하며 살았다. 그러나 화자는 종장의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싸해 낫드니.’를 통해 고사리도 주나라의 땅에서 난 것이니 먹지 않았어야 한다면 이제가 채미를 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화자는 이제가 새로운 왕조에 호의적이지 않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나라의 영토인 수양산에서 채미를 하며 살아간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③

화자는 이제가 채미를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과거와 다른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의 고사를 활용하여 그때와 유사한 현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제를 통해 자신의 굳건한 절개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이제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으며, 연민의 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초장에서 의문을 던지지 않았으므로 중장은 이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 중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듣는 이의 판단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대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⑥

수양산에 들어간 이제에 대한 고사를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⑦

중장의 '주려 주글진들 재미도 흐는 것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이제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다.

⑧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화자는 중의적 표현과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⑨

'수양산'은 중국 고사에서는 백이와 숙제가 절개를 지키며 살았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수양 대군'을 떠올리게 하는데, 화자가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수양 대군'은 권력을 찬탈한 부정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

10

이제는 새로운 왕조를 거부하고 옛 왕조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 하고 있고, 화자도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더욱 굳건히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 둘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제를 통해 현실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 십 년을 경영하여 (송순)

집중 훈련 OX

본문 76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작품 읽기 조선 중기의 평시조로,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담양에 내려가 면양정과 석림정사를 짓고 독서와 시작(詩作)에 몰두하던 시기에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면양정을 짓는 데 걸린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이를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자연과 벗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초장: 초려삼간을 지음.
- 중장: 자연에 동화되어 사는 삶
- 종장: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과 여유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 안빈낙도

중심 시어 및 시구

- 초려 삼간: 세 칸짜리 작은 초가집으로, 속세에서 물러나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냄.

특징

-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자연에 둘러싸인 모습을 묘사함.
- 물아일체와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가 드러남.

①

초장에서 화자는 십 년을 계획하여 자연에 거하기 위한 '초려 삼간'을 지었다고 하였으므로, 자연에 거하는 삶을 오랜 기간 준비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초려 삼간'은 세 칸짜리 조그마한 초가집으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안빈낙도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자연을 즐기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자연에서의 풍류를 누리는 공간으로도 볼 수 있다.

③

의인법을 사용하여 달과 청풍에 자신의 집을 한 칸씩 맡긴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달', '청풍'과 물아일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04

‘강산’도 ‘달’, ‘청풍’과 같이 자연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종 장에서는 집을 둘러싼 강산 역시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대 상임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가 아직 다다르지 못한 이 상적 삶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5

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여타 작품들과 달리, 자연을 소재로 하거나 자연에 거하는 삶을 표현하는 작품들은 긍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내적 고뇌 없이, 자연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연을 즐기며 유유자적 살아가는 풍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6

화자는 작품 전체에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연 물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뿐,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07

초려 삼간을 지어 달과 청풍을 각각 한 칸씩 들이고, 강산은 밖에 둘러놓고 보겠다는 표현에서 ‘근경(초가 삼간 안) → 원경(초가 삼간 밖)’의 시상 전개가 드러난다.

08

반어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 반어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09

<보기>에서 작가 송순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물렀다고 하였고, ㉠에는 자연에 거하는 삶을 오랜 기간 준비했음이 드러날 뿐, 세속에 대한 미련은 작품 전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1-3. 뫇버들 같이 것거 (홍량)

집중 훈련 OX

본문 7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작품 읽기 조선 중기 평시조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뫇버들’에 담아 보내고 있다. ‘뫇버들’은 임이 화자의 분신처럼 여겨 주길 바라는 징표로, 뫇버들처럼 항상 임의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연정가이다.

중심 내용

- 초장: 임에게 뫇버들을 보냄.
- 중장: 임이 뫇버들을 보기를 소망함.
- 종장: 임에게 자신을 잊지 말라고 당부함.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중심 시어 및 시구

- 뫇버들: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 화자의 분신

특징

- 도치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냄.

01

화자는 뫇버들을 골라 꺾어 멀리 있는 임에게 보내려 하고 있다. 따라서 ‘뫇버들’은 임이 떠나갈 때 화자에게 준 정표가 아니라, 화자가 임에게 주고자 하는 정표이다.

02

화자는 임에게 뫇버들에 새잎이 나면 자신을 본 것처럼 여겨 달라고 했으므로, 뫇버들을 보는 주체는 임이다. 따라서 화자가 뫇버들을 보며 임이 돌아올 날을 기다린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화자는 종장의 ‘뫇뫇에 새넛갯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에서 임에게 뫇버들을 보며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임도 화자를 잊지 않고, 사랑을 지속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04

‘뫇버들’은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05

꺾어 보낸 버들가지에 새잎이 움트는 것을 통해, 자신의 지조와 사랑이 지극함을 입에게 전달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06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시조는 생각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초장에서 화자가 뫼버들을 보내는 이유는 종장에서 드러난다. 이는 입이 뫼버들을 보며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07

화자가 현재 처한 부정적 상황은 입이 곁에 없다는 것이다.

08

입이 떠나간 이유는 드러나지 않으며,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09

뫼버들을 사람처럼 여기거나, 말을 건네는 등의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10

부정적 종결 어미가 아니라, ‘-쇼셔’라는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입과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1-4. 강호사시가 (맹사성)

집중 훈련 OX

본문 78-7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작품 읽기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사계절에 따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각 연마다 통일된 형식으로 계절의 특성을 노래한 뒤 ‘역군은이삿다’로 마무리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제1수: 강호의 봄-시냇가에서 풍류를 즐김.
- 제2수: 강호의 여름-초당에서 한가로움을 즐김.
- 제3수: 강호의 가을-고기잡이를 하며 유유자적함.
- 제4수: 강호의 겨울-눈 쌓인 풍경 속에서 안분지족함.

주제 자연에서 한가로운 생활을 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중심 시어 및 시구

- 강호: 자연, 화자가 묻혀 있는 곳
- 역군은이삿다: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라는 뜻.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도 임금의 덕이라는 사대부들의 유교적 이념이 드러남.

특징

- 사계절에 따라 한 수씩 구성됨.
- ‘강호에 ~이 드니’로 시작하여 ‘역군은이삿다’로 끝나는 형식상의 통일성을 보임.

01

<춘사>의 ‘미친 흥’은 즐거움이 지극하여 참을 수 없는 지경임을 의미한다. 중장을 통해 이러한 즐거움은 자연에 거하는 한가함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2

<춘사>에서는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즐거움과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연물과 교감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03

<하사>의 초장 ‘초당에 일이 없다.’는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04

<하사>에서는 강 물결이 보내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지내는 삶에 만족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다. 여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5

고기마다 살이 올라 있으나, 화자는 그물을 흐르는 물에 띄워 놓고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 자연의 풍요로움을 제시하고 있을 뿐, 화자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화자가 자연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찐 ‘고기’를 제시하며, 이러한 풍요로움 가운데 한가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임금의 은혜임을 드러내고 있다. ‘고기’가 백성을 상징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드러나지 않는다.

07

<동사>의 초장에서 쌓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고 하여 눈이 많이 왔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빙설로 꾸며진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묘사나 그에 감탄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8

화자는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누역으로 옷을 삼아 춥지 않게 지내는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역으로 옷을 삼은 것이 추위를 피하기에 완벽하지는 않음에도 춥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방어적 표현이 아닌 화자의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09

각 수 초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한 후, 중장과 종장에서 제시할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고 있다.

10

각 수의 중장은 화자가 계절마다 즐기는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봄에는 시냇가에 앉아 금린어를 안주 삼아 먹으며, 여름에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고 있다. 또한 가을에는 작은 배에서 그물을 띄워 놓고, 겨울에는 누역으로 옷을 삼아 눈이 내린 강호를 거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자연에서 누리는 삶이 임금의 은혜라고 말함으로써, 임금이 다스리는 속세와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주며, 유교적 가치관인 ‘충(忠)’을 드러내고 있다.

12

<춘사>에서는 ‘미친 흥이 절로 난다.’라며 화자의 내면적 감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하사>~<동사>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13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 소박하고 평화로운 자연에서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화자가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4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라면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공간이어야 하나, 이 작품에서 자연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공간, 시원한 바람을 쐬는 공간, 흐르는 물에 배를 띄워 낚시를 즐기는 공간, 눈이 내리는 공간과 같이 한가롭게 완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다.

15

이 작품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인 ‘충(忠)’이 드러난다. 그러나 자연물이 가진 속성을 활용하여 유교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한가하움, 서늘하움, 소일하움, 출처 아니하움)을 제시함으로써 임금의 선정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다.

16

초장에서는 ‘강호에 ~이 드니’를, 종장에서는 ‘이 몸이 ~하움도 역군은이샷다’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다.

17

봄에서 겨울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화자의 정서는 일관되게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고 있다.

18

독백조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9

<보기>에서 정계에서 물러난 사대부가 개인적으로 강호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나 선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작품에서 ‘강호’ 역시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1-5. 어부가 (이현보)

집중 훈련 OX

본문 80-81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작품 읽기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래 「어부가」를 개작한 연시조로, 「어부단가」라고도 한다. 자연 속에서 조각배를 띄워 놓고 한가로이 즐기는 어부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 속 어부는 실제 고기 잡는 어부라기보다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는 선비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수에서는 자연에 묻혀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중심 내용

- 제1수: 자연에서 인세를 잊고 살아가는 어부의 생애
- 제2수: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느끼는 무심함
- 제3수: 자연의 참 의미를 아는 이가 적응에 대한 탄식
- 제4수: 자연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은 소망
- 제5수: 속세에 대한 근심과 염려

주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어부의 한가로움

중심 시어 및 시구

- 일엽편주, 만경파: 한 척의 조그마한 배, 넓은 바다
- 십장홍진: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 어지러운 세상사를 묘사함.
- 일반청의마: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알고 있는 이가 적응을 탄식하고 있음.
- 무심코 다정한: 욕심이 없고, 정이 많음. 자연의 속성을 의미함.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자연을 노래한 작품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자연 속에서도 현실 정치와 완전히 무관할 수만은 없었던 삶을 반영함.

특징

- 선인들의 운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 줌.
- 한가롭고 담담한 어조로 내용을 전개함.

①

이 작품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부의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는 어부처럼 배를 타고 낚시를 하지만, 실제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는 어부가 아니라 낚시를 하며 유유자적 살아간다는 점에서 ‘가어옹’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②

<제1수>에서 ‘인세’(인간 세상)를 잊고 어부의 생애를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은 드러나고 있으나, 화자가 인세를 떠나게 된 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제2수>에서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은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이 ‘십장홍진(속세)’을 가려 속세와 단절된 곳인 ‘강호’(자연)이다. 화자는 ‘십장홍진이 언제나 ㄱ렛노고’라며 속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공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제3수>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며,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을 뿐,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제4수>에서 화자는 ‘한운’과 ‘백구’의 욕심이 없고 다정한 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들을 좇아 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도 한운과 백구처럼 근심을 잊고 한가롭게 지내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화자는 ‘북궐이 천 리로다’라며 속세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천’이라는 숫자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화자가 속세와 거리를 두는 것이지 속세가 화자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속세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지 않는다.

⑦

‘장안’은 속세를 의미하며, ‘어주’는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강호를 의미하므로, 이 둘이 대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장에서 화자는 ‘니즌 스치 이시랴’라며 북궐을 향한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북궐’을 향한 미련이 남아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8

㉠에서 무심하고 다정한 한운과 백구를 좇고 싶다고 말한 데에서, 화자가 무심하고 다정하지 못한 데에서 시름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어지는 <제5수>를 통해 자연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속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도 세상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09

‘인세’, ‘십장홍진’, ‘장안’은 모두 속세를 나타내며, 혼탁해진 정치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화자는 속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0

<제2수>의 ‘더욱 무심하야라’나 <제4수>에서 무심한 한운과 백구를 좇는다는 부분에서 화자가 무심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외에도 ‘업스니’, ‘니젯거니’, ‘업스라’ 등의 시어를 통해 무심(無心)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11

‘일엽편주’는 나뭇잎같이 작은 배이며, ‘청하’는 연잎으로, 모두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12

‘월백’은 속된 세상을 가리키는 ‘십장홍진’과 대비되어,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인 자연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13

<제2수>의 시간적 배경이 밤임은 알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시상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뚜렷한 기준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화자의 사고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제2수>에서 ‘구버논 천심녹수’와 ‘도라보니 만첩청산’이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제4수>에서 ‘산두에 한운이 기고’와 ‘수중에 백구 비이라’가 대구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속세와 단절되어 자연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15

자연물인 ‘천심녹수, 만첩청산’과 ‘십장홍진’이 색채 대비를 이루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6

<제4수>에서 화자는 ‘한운’과 ‘백구’의 무심하고 다정한 태도를 좇아 시름 없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어지는 <제5수>를 통해 화자가 여전히 시름을 해소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7

자연과 속세를 비교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제3수>에서 ‘일반청의미를 어닌 부니 아랴실가’라며 자연에 거하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18

‘날 가는 주를 알랴’, ‘어닌 부니 아랴실가’, ‘제세현이 업스라’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에 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19

<보기>를 통해 작가는 자연을 완상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평성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대부로서의 소명 의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에서 화자가 누리는 것은 ‘어부의 생애, 일반청의미(자연에서 누리는 본질적인 즐거움), 어주’ 등이며, 사대부로서의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복궐, 제세현’이다.

20

<제5수>에서 화자는 자연에 거하면서도 ‘복궐’을 생각하며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지만, 종장에서 사대부로서의 소명은 ‘제세현’이 할 것이라며, 자연을 완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서 ‘제세현’은 세상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덜어 주는 존재로, 현명한 신하를 의미한다.

1-6. 도산십이곡 (이항)

집 중 훈 련 OX

본문 82-85쪽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 ⑥ 6 ○
 ⑦ 7 ○ ⑧ 8 ○ ⑨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작품 읽기 이 작품은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고향인 안동에서 도산 서원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며 자신의 심경을 읊은 총 12수의 연시조이다. 주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과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시조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다. 총 12수가운데 전(前) 6곡은 '언지(言志)'로, 후(後) 6곡은 '언학(言學)'으로 나뉘는데, 전 6곡인 언지는 자연을 보고 느낀 감흥을, 후 6곡인 언학은 학문 수양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중심 내용

- 제1수: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
- 제2수: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삶
- 제3수: 순박한 풍속과 어진 인품에 대한 믿음
- 제4수: 연군지정의 자세
- 제5수: 자연을 멀리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 제6수: 한계가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 제7수: 학문의 즐거움
- 제8수: 진리 터득의 중요성
- 제9수: 옛 성현의 길을 따르는 삶
- 제10수: 벼슬을 버리고 학문에 정진함.
- 제11수: 학문 수양에의 의지
- 제12수: 학문에 정진하는 삶

주제

- 전 6곡: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 후 6곡: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중심 시어 및 시구

- 초야 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연에 묻혀 사는 화자를 소박하게 이르는 표현임.
- 천석고황: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병과 같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임.
- 피미 일인: 화자가 그리워하는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자연에 묻혀 살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유교적 정신이 드러남.

특징

- 교훈적 성격을 띠.
- 대구의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함.

01

‘초야 우생’은 자연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

미로,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02

<제1수>에서 화자는 ‘천석고황을 고쳐 모습혀료’라며 자연 속에 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생활을 노래하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환기하고 있다.

03

<제2수>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 머물며 허물 없이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연에 살게 된 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04

‘연하’(안개와 노을)와 ‘풍월’(바람과 달)은 자연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 허물이나 없는 것을 바란다며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다.

05

<제2수>에서는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 일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3수>에서는 화자가 바라는 사회의 순박하고 후덕한 풍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사회 일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06

종장의 ‘이 중에 피미 일인을 더욱 닮디 못혀애.’에서 화자가 피미 일인, 곧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제5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는 자연을 묘사하며, 종장에서 이러한 자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교교백구’, 즉 현자를 비판하고 있다.

08

봄과 가을의 자연 경치에서 사계절의 흥으로, 천지조화의 오묘함으로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09

화자는 ㉠ ‘유란’이 듣기(향기를 맡기) 좋다고 여기며, ㉡ ‘백운’이 보기 좋다고 여긴다. 이처럼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대상을 심미적 대상이라고 하며, 화자는 이를 즐겨 구경하고 있다.

10

㉠은 자연 속에서 무심한(욕심 없는) 이상적 존재이지만, ㉡은 이런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11

총 12수 중 <제1수>~<제6수>는 자연을 묘사하고, 그러한 자연을 완상하며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12

각 수는 초장과 중장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종장에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제5수>를 보면, 초장에서 산과 물의 경관을, 중장에서는 갈매기 떼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제시한 후, 이를 통해 종장에서 이러한 곳에 마음을 멀리하는 ‘교교백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3

<제1수>의 ‘~엇더호료’, ‘~므슴호료’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 속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14

<제4수>와 <제5수>에서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고, 흰 구름이 산에 걸려 있으며, 산과 대와 물이 연이어 펼쳐진 공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5

<제7수>에서 화자는 자연에 머물며 ‘만권 생애’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과 학문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16

<제8수>에서 ‘뇌정’은 ‘농자’가 듣지 못하는 소리이고, ‘백일’은 ‘고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우리는 이목 총명 남자로 놓고 궂지 마로리.’라고 하여 ‘농자’와 ‘고자’를 부정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가 <제7수>부터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뇌정’과 ‘백일’은 진리로 볼 수 있고, ‘농자’와 ‘고자’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뇌정’과 ‘백일’이 ‘농자, 고자’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로 볼 수는 없다. <제8수>는 진리 터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7

<제9수>와 <제10수>에서는 각 장의 끝말을 다음 장의 앞말로 가져오는 연쇄적인 표현법을 통해 고인들의 길을 따라 학문 수양의 길에 설 것(제9수)과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제10수)를 드러내고 있다.

18

<제10수>에서는 ‘녀턴 길’, 즉 가던 길을 버려 두었던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어 ‘어디 가 든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를 통해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녀턴 길’은 학문을 닦는 삶을 가리키며, 학문 수양을 버려 두고 벼슬살이를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9

<제11수>에서는 ‘청산’은 변함없이 푸르고, ‘유수’는 변함없이 흐르는 것을 통해 자연의 변함없는 속성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학문을 닦을 때에도 자연을 본받아 변함없이 꾸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자연과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0

<제12수>에서 화자는 학문의 세계는 어리석은 자도 할 수 있을 만큼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성인도 못다 할 만큼 그 경지에 이르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끊임없이 학문을 하겠다고 말할 뿐, 어리석은 자나 성인의 길 중 하나를 택하려는 것이 아니다.

21

㉠은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겸손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22

옛 성현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3

흐르는 물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흐르는 것은 한결같은 속성을 드러내지만, 이는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위한 것이지, 속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4

<제9수>와 <제10수>의 ‘녀던 길’은 학문 수양의 길을 일컫는 말이며, 쉽든 어렵든 간에 화자는 학문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사대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5

<제9수>의 ‘녀던 길 알찍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제10수>의 ‘어디 가 둔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녀던 길(학문 수양의 길)’을 걷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6

<제8수>, <제11수>, <제12수>는 초장과 중장에서 대구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제9수>는 초장에서 대구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7

<제7수>~<제12수>는 학문 수양의 길을 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도산십이곡」 중 ‘언학(言學)’에 해당하며, 「도산십이곡 발」에 제시된 작품의 창작 의도를 고려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7. 고산구곡가 (이이)

집중 훈련 OX

본문 86~8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작품 읽기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고산 석담에 정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는 시기에 지은 연시조이다. 총 10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마다 구곡의 아름다움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중심 내용

- 제1수: 고산구곡담에서의 삶의 포부(고산구곡가를 짓게 된 동기)
- 제2수: 관암의 아침 경치(일곡)
- 제3수: 화암의 봄 경치(이곡)
- 제4수: 취병의 여름 경치(삼곡)
- 제5수: 송애의 저녁 경치(사곡)
- 제6수: 은병에서의 강학과 영월음풍(오곡)
- 제7수: 조협에서의 풍류(육곡)
- 제8수: 풍암의 가을 경치(칠곡)
- 제9수: 금탄의 밤 경치(팔곡)
- 제10수: 문산의 겨울 경치(구곡)

주제 자연에 대한 예찬과 학문을 깨우치는 즐거움

중심 시어 및 시구

-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흐리랴: 무이산에서 주자가 후학을 가르치며 학문을 연구한 것을 본받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강학도 홀연이와 영월음풍 학을이라: 자연 속에서 학문을 닦는 동시에 풍류를 즐기자 하는 유학자다운 태도를 드러냄.
- 유인은 오지 안이하고 볼 셋 업다 흐드라: 속세 사람들이 자연에 와 보지도 않고 볼 것 없다 하는 태도를 비판함.

특징

- 주자의 「무이구곡가」를 본떠 지었음.
- 하루의 경과와 사계절의 경과가 모두 드러나 있음.

01

<제1수>에서 시적 배경으로 제시한 ‘고산구곡담’을 이어지는 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산구곡담’은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공간인 동시에 학문을 수양하는 공간이다.

02

‘벗님넋’은 고산구곡담에서 살아가는 화자를 좇아 온 사람들이다. 화자는 자연에서 학문을 하고자 하므로, ‘벗님넋’ 역시 자연을 즐기고 학문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 곧 화자의 후학들로 볼 수 있다.

03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흐리라.’에서 화자가 ‘고산’에서 ‘주모복거’한(터를 잡은) 후에 주자를 따라 학문에 정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04

<제2수>에서는 관암의 풍경을 ‘그림’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경관을 벗이 온 것처럼 반갑다고 여기는 것이지, 벗과 함께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05

‘녹준’은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수단으로, 풍류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제2수>에서 ‘녹준’과 ‘벗’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 두 시어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06

‘야외’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승지’와 대조된다. 화자는 꽃 핀 바위에 봄이 가득한 ‘승지’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으로써 ‘승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07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야외’에 전하고자 하며,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연에 만족하고 있을 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곳(꽃)’은 세상 사람들이 승지를 알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08

<제4수>에서는 종장의 ‘반송이 수청풍흔이 녀름 경이 업세라.’를 통해 한가하게 바람을 맞으면서 여름의 경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농사일을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9

화자는 ‘흥을 계워 하노라’라며 자연을 즐기며 느끼는 흥겨움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산구곡담에 머무르는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10

<제2수>에서는 오전, <제5수>에서는 오후의 시간적 흐름이, <제3수>에서는 봄, <제4수>에서는 여름의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제1수>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나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11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자연 속 삶을 누리면서도 주자학을 공부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제3수>에서 ‘곳(꽃)’을 ‘야외’에 보내므로, 현실과 단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주로 드러날 뿐, 안빈낙도의 삶을 사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연에 거하며 여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자가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12

초장에서는 화자가 즐기는 고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시하고, 중장이나 종장에서 그에 대한 감상이 대응되고 있다.

13

‘-노라’와 같은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4

각 연의 초장에서 ‘~은 어드미고’라는 질문과 대답이 대응을 이루며 반복되고 있어 통일성을 주고 있다.

15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6

<제4수>에서 ‘취병’, ‘녹수’의 시각적 이미지와 산새들이 지저귀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여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17

‘승지’는 경치가 좋은 곳으로, 화자가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곳이다. <보기>에 따르면 고산구곡은 자연을 완상하는 동시에 학문을 수양하는 공간이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극한 경치를 가리켜 ‘승지’라고 표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

‘이 중에 강학도 흥연이와 영월음풍학올이라.’를 통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동시에 학문을 닦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 수양보다 자연을 즐기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제7수>에서 화자는 낚시를 하고 있지만 고기를 많이 낚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즉 자연을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자연과 함께 노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20

화자는 가을 산의 모습을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다고 묘사하며, ‘한암에 혼자 안자서’ 경치를 완상하고 있다.

21

‘금수’는 ‘비단’을 의미하므로, 계절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제8수>에서는 ‘풍암, 추색, 청상’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22

<제9수>에서 화자는 시냇가에 달이 밝은 곳에서 거문고로 곡조를 타고 있다. 그리고 ‘혼자 읊어 흐노라’라며 홀로 풍류를 즐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3

화자는 ‘구곡’을 자연의 아름다움과 학문의 즐거움을 드러내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10수>에서 화자는 문산에서 해가 저무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을까 봐 아쉬워하고 있을 뿐, ‘눈’을 부정적인 것을 덮어 주는 위대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24

‘유인은 오지 안이하고 불 켜 었다 흐드라’에서 화자는 속세 사람들이 와 보지도 않고, 볼 것 없다고 하는 세태를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다.

25

<제6수>에서는 시간이나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제7수>에서는 저녁의 시간, <제8수>에서는 가

을의 계절이, <제9수>에서는 밤의 시간, <제10수>에서는 겨울의 계절이 드러나고 있다.

26

화자는 생업을 위해서 자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며 학문 수양을 하고 있다. ‘낙대’(낙신태)나 ‘옥진금휘’(거문고)는 모두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수단이다.

27

물아일체는 자연물과 자아가 하나가 되어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를 말하는데, ㉠에서 화자와 물고기가 어우러져 누가 더 즐거운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아일체의 경지를 엿볼 수 있다.

28

화자는 거문고의 곡조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으며 혼자서 듣고 즐기고 있는 것이지, 풍류를 즐기지 않는 세태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29

<제10수>의 ‘유인은 오지 안이하고 불 켜 었다 흐드라.’에서 문산의 겨울 풍경을 보지도 않고 볼 것이 없다고 하는 속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30

‘~은 어드미고’의 반복을 통해 ‘고산구곡’의 굽이를 하나씩 언급하며, 각 굽이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31

<제9수>의 거문고 소리는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흥취를 돋우는 풍류적 요소이다.

32

<제6수>에서 ‘강학도 흥연이와’를 통해 학문 수양에의 의지가 드러나나,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33

<제7수>~<제10수>는 ‘흐노라’, ‘잇노라’, ‘흐드라’와 같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어조 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 수마다 ‘고기, 절벽, 옥진금휘, 기암괴석’ 등으로 소재를 바꾸어 가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2-1. 상춘곡 (정곡인)

집중 훈련 OX

본문 90~92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작품 읽기 조선 전기의 가사로, '봄 경치를 즐기는 노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은 물아일체의 경지와 강호가도를 표현함으로써 사대부들의 자연관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삶으로서의 안빈낙도를 추구하고 있다.

중심 내용

- 서사: 풍월주인이 되어 누리는 지극한 즐거움
- 본사: 봄을 맞이하여 자연에서 누리는 풍류와 물아일체
- 결사: 안빈낙도의 삶

주제 봄 경치를 즐기는 강호가도와 안빈낙도

중심 시어 및 시구

- 흥잔: 자연과 대조되는 공간인 속세를 뜻하는 말. 자연에 묻혀 사는 화자는 속세의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음.
- 도화, 무릉: 중국 진나라 때 한 어부가 복숭아꽃을 따라간 곳에 지상 낙원이 펼쳐졌다는 고사가 전해짐. 지상 낙원, 별천지를 일컬어 '무릉도원'이라고 함.
- 새: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아양을 떠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음. 이는 화자 자신이 봄날에 느끼는 흥취를 못 이기는 모습을 객관적 상관물인 새에 투영한 감정 이입의 표현임.
- 공명, 부귀: '공명'과 '부귀'가 날 꺼린다고 하였으나, 화자가 공명과 부귀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나타낸 주객전도의 표현임.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음.
- 단표누항: 변변하지 못한 음식과 누추한 거처를 일컫는 말로,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가리킴.

특징

- 설의법, 대구법 등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됨.
- 무릉도원 고사를 인용하여 봄의 아름다움을 묘사함.
- 색채 이미지와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①

‘흥잔’은 고전 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로, ‘속세’를 의미한다. [가]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흥잔’과 대조되는 ‘산림’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풍월주인’은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자연의 주인이 되어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③

[나]의 ‘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를 통해 화자는 ‘수간모옥’에서 ‘정자’로 공간을 이동했지만, 여전히 혼자 봄 풍경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석양’은 봄의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 쓸쓸한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다.

⑤

[다]에서 화자는 ‘답청으란 오늘 흐고, 욕기란 내일 흐새.’, ‘아침에 채산흐고, 나조히 조수흐새.’ 등 자연 속에서 할 일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루 동안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단지 자연 속에서 즐길거리가 많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⑥

[다]에서 화자는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라고 말하며, 산중 생활에서의 흥취를 이웃들과 공유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속세 사람들을 이끌려는 표현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⑦

[라]에서 화자는 ‘시냇’에 앉아 떠내려 오는 ‘도화’를 보며, ‘무릉이 갓갑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화자는 자신이 있는 곳이 도가에서 이상향을 가리키는 ‘무릉’과 가깝다고 하며, 자연에서의 풍류를 즐기고 있다.

⑧

[라]에서 화자는 ‘시냇가’에서 ‘봉두’로 이동하고 있지만, 공간이 점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⑨

[마]에서 화자는 ‘공명’과 ‘부귀’가 자신을 꺼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청풍명월’을 벗 삼고 ‘단표누항’에 잡스러운 생각이 없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공명’과 ‘부귀’에 대한 미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10

‘넷 사람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풍류 생활이 선인들의 풍류 생활과 유사하다는 자부심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11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화자는 술을 마시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후각적, 시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12

‘백년행락이 이만흔들 엇지헝리.’에서 화자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에서 한평생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13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가 봄기운을 못 이겨 즐거워하는 모습을 ‘새’가 아양을 떠다고 표현한 것이다.

14

작품 전체적으로 봄을 맞아 꽃이 피어나고 새가 우는 등의 흥겨움과 이로 인한 들뜬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15

[가]의 ‘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헝고.’와 [다]의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를 통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니웃’(이웃)은 산중 생활에서 흥취를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16

[마]의 ‘공명도 날 썩우고, 부귀도 날 썩우니’는 주체(화자)와 객체(공명, 부귀)가 바뀌어 표현된 것이다. ‘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꺼린다고 표현한 것은 곧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상이 마무리된다고 볼 수 없다.

17

봄에 피는 꽃과 수풀, 새가 우는 모습 등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8

[다]의 ‘화풍이 건듯 부러 녹수룰 건너오니 /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푸른색과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19

작품 앞부분에서부터 화자는 자연 속에 묻혀 풍류를 즐기며 자연과 교감하고 있으므로, 화자와 자연이 이질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0

[마]의 ‘단표누향’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모습을 가리키므로, ‘단표누향’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곧 자연은 ‘단표누향’하며 ‘백년행락’할 수 있는 곳이며,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이다.

2-2. 면양정가 (송순)

집중 훈련 OX

본문 93~97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작품 읽기 은일 가사이자 강호 가사로, 작가 송순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남 담양에 내려간 뒤, 면양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경치와 그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다.

중심 내용

- 서사: 제월봉의 형세와 면양정의 모습
- 본사 1: 면양정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
- 본사 2: 면양정의 사계절 경치
- 본사 3: 강호에서의 풍류
- 결사: 자연에서 느끼는 호탕정회

주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풍류, 임금의 은혜(군은)에 대한 감사

중심 시어 및 시구

- 산람, 세우: 봄을 나타내는 여휘로 자주 사용됨.
- 녹양, 황양: 여름을 나타내는 여휘로 자주 사용됨.
- 서리, 황운: 가을을 나타내는 여휘로 자주 사용됨.
- 빙설, 경궁요대, 육해은산: 눈 덮인 산의 모습을 묘사함.
- 인간을 써나와도 내 몸이 겨울 업다: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자연을 즐기느라 한가할 틈이 없다는 뜻임.

- 회황: 복희 황제 때의 태평성대를 말함.
- 호탕정화: '넓고 큰 마음'이라는 뜻으로, 화자의 호연지기를 엿볼 수 있음.

특징

- 의인, 과장, 열거, 반복 등으로 자연의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함.
- 대구,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풍류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 '상춘곡'에서 자연 친화의 사상을 이어받아, 정철의 「성산별곡」과 「관동별곡」을 잇는 교량적 구실을 함.

01

[가]를 통해 무등산에서 뻗어 나온 제월봉에 지은 정자(면양정)라는 시적 공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02

[가]에서는 무등산의 한 줄기인 '제월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가운데 구비는 굽고 든 늘근 농이 / 선준을 꺾 켜야 머리를 안쳐시니'에서 제월봉의 가운데 굽이를 높은 용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가]의 '정자'는 제목의 면양정을 말하는데, 면양정의 모습을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친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04

[가]에서는 '므습 짐작 호노라'라며 제월봉을 생각을 하는 주체로 의인화하고 있다. 한편 '정자'는 화자와 동일시된 존재가 아니라, 화자가 머물며 자연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청학'에 비유되어 있을 뿐 의인화되어 있지는 않다.

05

[나]에서는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쌍룡이 몸을 뒤틀고 긴 깃(비단)이 펼쳐져 있는 모습에 비유하여 역동적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06

[나]에서는 흐르는 물을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פת는 듯'이라며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다]에서는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훗트락'한 기러기의 움직임을 묘사하며 자연 경관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07

[라]에서 정자 주변의 산봉우리들을 '병풍, 그림'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고, 주변에 보이는 여러 산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한 산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산람'(산 아지랑이)과 '세우'(가랑비)는 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휘로, [마]에서는 면양정 주변의 봄 경치를 묘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즉 '산람'과 '세우' 역시 화자가 완상하는 자연의 하나이다.

09

[바]에서 화자는 아양을 떠는 '황앵'에 감정을 이입하여 여름 흥취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0

[사]에서는 넓은 들판에 곡식이 익어 가는 가을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고기 잡는 어부의 피리 소리는 가을의 흥취를 더욱 북돋우고 있다.

11

[아]에서는 소박한 자연이 아닌, 눈 쌓인 겨울 풍경의 화려함을 노래하고 있다. '건곤도 가을열샤 간 대마다 경이로다.'를 통해 화자가 설경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가]~[마]까지는 면양정 주변의 자연 경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화자의 풍류 생활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3

[마]에서는 산 아지랑이가 피고 가랑비가 내리는 봄의 경관을 묘사하고 있고, [바]에서는 푸른 버드나무 아래에서 꺾꼬리가 울고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여름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사]에서는 가을 경관을, [아]에서는 겨울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마]의 '세우조츠 썩리느다'는 봄의 경치를 드러내며, [아]의 '초목 다 진 후의'는 겨울의 경치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마]와 [아] 모두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묘사하는 부분이므로, 쓸쓸한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15

[나]와 [라]에서는 ‘-는 듯’을 반복하여, [다]와 [마]에서는 ‘-락’을 반복하여 면양정 주변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16

[나]에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쌍룡’의 역동적인 모습에 비유하고 있지만, 이는 생동감을 부여하려는 장치이지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17

<보기>에서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은 면양정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면양정의 모습을 청학이 두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으므로, 면양정이라는 공간을 통해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수양하고자 하는 작가의 이상과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18

[자]에서 ‘인간을 썬나와도’라고 하였으므로, ‘인간’은 과거에 화자가 머물렀던 공간이며, 현재 화자가 있는 자연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은 번거로운 속세를 의미한다.

19

[자]에서는 분주할 만큼 자연을 즐길 것들이 많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인간을 떠나 자연을 택해 살아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화자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이나, 이에 대한 아쉬움은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20

‘인간을 썬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를 통해 화자는 쉴 새 없이 자연을 구경하느라 여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월석이 업거든 길히나 전후리아.’에서 화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면양정에 찾아오는 길을 알려 줄 시간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즐기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내적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분주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다.

21

[차]에서 화자는 술과 음악, 시와 함께 자연에서 풍류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자연을 벗으로 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벗지라 없슬소냐’에서 ‘벗’은 이후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게 하고, 해금을 켜게 하고, 방울을 흔들게 한다는 점에서 자연이 아니라 함께 풍류를 즐기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22

[차]에서 화자는 ‘벗’과 함께 자연에서 풍류 생활을 즐기며 흥을 느끼고 있다.

23

[차]에서 화자는 ‘신선이 었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라며 자신의 모습을 ‘신선’이라 표현하고,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사는 현재의 생활을 ‘희황’, 즉 태평성대에 견주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4

[차]에서 ‘블늬며 툇이며 헤이며 이아며 / 온가짓 소리로 취흥을 비야거니’와 ‘을프락 폭람호락’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에서의 흥취를 누리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5

[카]에서 화자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에서의 호연지기를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뜻은 드러나지 않는다.

26

[카]의 ‘이 몸이 이렇금도 역군은이샀다.’에서 자연을 즐기며 회포를 느끼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인식하는 것이다.

27

작품 전체가 4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가사 갈래의 특징이기도 하다.

28

이 작품의 대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9

[카]의 ‘악양루 상의 이태백이 사라 오다 / 호탕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냐.’에서 화자는 자신이 이태백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30

이 작품은 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을 통해 망양정 주변 경관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외부 세계와 내면 의식을 대비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1

‘역군은이샅다’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면서도 사대부로서의 유교적인 정신을 잊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말로, 풍류객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32

[자]의 ‘아침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홀소냐,’ ‘오늘리 부족커니 내일리라 유여하랴.’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 즐길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속세의 사람들에게 자연에 귀의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3

[카]의 ‘강산풍월 거늘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 호탕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냐.’에서 호탕정회는 자연을 거느리고 평생을 누리면 찾아오는 가치임을 알 수 있다. <보기>와 관련지를 때 화자는 자연을 즐기는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경지’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자]에서는 밤을 즐기고, 고기를 낚으며, 사립문을 쓸면서도 자연에서 만족하는 모습을 통해 안분지족의 삶이 드러나고 있다. [차]에서는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카]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현재 삶에 대한 자부심과 군은을 드러내고 있다.

2-3. 관동별곡 (정철)

집중 훈련 OX

본문 98~101쪽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작품 읽기 정철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느낀 것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한 충성, 백성에 대한 선정 등 위정자로서의 포부를 두루 담고 있다. 조선 시대의 가사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중심 내용

- 서사: 관찰사 부임 및 관내 지역 순회
- 본사 1: 금강산 유람
- 본사 2: 관동 팔경 유람
- 결사: 망양정의 월출과 신선적 풍류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과 풍류

중심 시어 및 시구

- 동산 태산이 어느냐 놉듯던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거이고.: 동산과 태산에 올라 천하를 좁게 여긴 공자의 경지를 예찬하며, 자신은 그 지위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
- 노룡: 화룡소를 비유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함.
- 삼일우, 음에에 이온 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모습을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풀에 비를 내려 주는 것에 비유하고 있음.
- 니덕선. 녀산: 이적선(이백)의 시에 여산 폭포를 극찬한 것과 비교하여 관동의 풍경도 이에 빗댄 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음.
- 취선: 취한 신선. 풍류를 즐기는 화자 자신을 가리킴. 작가의 도가 사상이 드러남.
- 은산, 빙설: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을 색채 이미지로 묘사함.
- 뱃년화 훈 가지를 ~ 놉대되 다 뵈고져, 이 술 가져다가 ~ 다 취케 뵈근 후의: 정철의 애민 정신이 드러남.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도 미치기를 바라며, 자연을 즐기는 일보다 백성들에게 베푸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함.
- 명월: 밝은 달, 임금의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함.

특징

- 구체적인 지명과 관련된 경험과 소회를 드러냄.
- 비유와 은유를 통해 자연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01

‘오르디 못허거니 내려가미 고이홀가.’에서 오르지 못할 산이니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비로봉 꼭대기까지 오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02

[가]에서 화자는 높이 솟은 비로봉을 바라보며 공자의 높은 경지를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지가 자신이 오르지 못할 만큼 높으며, 오르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화자는 체념적 태도가 아닌, 예찬과 겸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03

‘화룡소’의 물을 ‘노룽’에, ‘천심 절벽’을 ‘은하수’에 비유하여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04

[다]에서 화자는 십이 폭포를 보며 ‘천심 절벽을 반공에 세여’ 둔 것과 같이 폭이 깊음을 드러내며, ‘은하수 한 구빅를 촌촌이 버혀 내여 / 실ㄱ티 플터이서 뵈ㄱ티’ 걸어 둔 것처럼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여산 폭포보다 십이 폭포가 낫다고 말하며, 십이 폭포의 아름다운 장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폭포를 보며 곧은 절개를 연상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5

[다]의 ‘니덕션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 녀산이 여괴도곤 낫단 말 못 허려니.’에서 화자는 이적선(이태백)이 지금 살아 있더라도 이태백이 머문 여산보다 여기가 낫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역사적 인물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완상하는 십이 폭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남여’는 양반 계층 중 남성이 타고 다니는 두껍 없는 가마를 이른다. 따라서 화자가 양반 계층임을 알 수 있다.

07

화자는 ‘녕농 벽계’와 ‘수성 데도’, 곧 시냇물과 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산영루를 떠나는 화자의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08

말을 타고 가는 이는 화자이므로, ‘취선’(자연에 취한 신선)은 곧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상황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화자는 ‘빅구’에게 ‘네 버딘 줄 었디 아논’(내가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이라며, ‘빅구’와 하나된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09

[가]에서 화자는 비로봉을 바라보고 있고, [나]에서는 사자봉을 찾아가 화룡소를 바라보고 있다. [다]에서는 불정대에 올랐고, [라]에서는 동해로 가고 있다. 이처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0

[가]~[라]에서 화자는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비유와 반복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뒤, 그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전달하고 있다.

11

여행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 역시 순차적이다. 역순행적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12

[나]에서는 화룡소의 굽이치는 물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라]에서는 새들의 울음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관동 지방의 경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자연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13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14

화자는 높이 솟은 비로봉을 보며 공자의 말을 떠올리고, 자신이 미처 도달하지 못했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예찬하고 있다.

15

‘음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와 연결해 보면, 굶주린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행위를 ‘삼일우(비)’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16

‘음애에 이온 풀’(그늘진 벼랑에 시들어 버린 풀)을 다 살려 내고 싶다고 하고 있으므로, ‘음애에 이온 풀’은 화자가 연민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자가 관찰사로 임명을 받고 유람하는 길에 쓴 것임을 고려할 때, ‘음애에 이온 풀’은 화자가 다스릴 험벗고 굶주린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7

‘망양정의 올은말이’를 통해 화자가 망양정에 올랐음을 알 수 있고, ‘바다 바근 하늘이니 하늘 바근 무서신고’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어지는 부분은 바다의 파도 모습을 묘사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8

‘오월 당턴’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 아닌, 봄에서 초여름 사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래’는 파도의 움직임, ‘은산’과 ‘빅셀’은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19

[마]는 파도가 치는 모습을 성난 고래에 빗대고, 물보라 치는 바다의 모습을 은산을 꺾어 내어 내리는 눈으로 표현하고 있다.

20

‘밤이 드러’에서 ‘계명성 돛도룩’(새별이 돛도룩)으로 흐르면서 시간이 점차 경과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21

‘명월을 기다리니’를 통해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달’임을 알 수 있다. ‘서광 천당이 보이는 듯 숨는고야’에서 달이 뜨려다가 다시 사라졌지만, ‘빅년화 혼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고’에서 화자가 오랜 시간 기다린 후 달이 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후 ‘들드려 무론 말이’ 등을 통해 화자가 기다리는 달을 만나서 풍류를 즐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기다리는 대상인 달을 만났으며, ‘빅년화’(흰 연꽃 같은 달덩이)는 기다리는 대상인 달을 빗댄 표현임을 알 수 있다.

22

화자는 달에게 ‘영웅은 어딴 가며 스선은 귀 뉘러니’라며 신선 세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23

[바]에서 화자는 달밤에 술을 마시며 신선과 같은 풍류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아름다운 달밤을 보며 ‘일이 요흔 세계 늑대되 다 뵈고져.’라며 좋은 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 주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세속에서 비롯된 갈등을 드러내거나 벗어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4

[사]의 ‘그딴 내 모랴 상계에 진선이라. ~ 저근덧 가디마오 이 술 혼 잔 머거 보오.’에서 화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이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화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은 신선으로, 화자가 경서 한 글자를 잘못 읽어 인간 세계에 내려온 참 신선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신선과 같은 삶을 동경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5

[사]의 ‘이 술 가져다가 스희에 고로 눈화 / 억만 창싱을 다 취케 텅근 후의’에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술’을 취하게 하겠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나 있다. 이는 화자의 애민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삶과 관리로서의 삶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26

[사]의 ‘명월이 천산만낙의 아니 비췌 디 업다.’는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을 비춘다는 의미이다. 작품만으로는 이러한 비유적 뜻을 찾기 어렵지만, 조선 중기 가사가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사대부들이 창작한 점, 여타 가사들이 작품 말미에 임금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점 등에 기대어 마지막 구절에 담긴 유교적 가치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7

화자는 꿈속에서 신선과 나눈 대화를 통해, 관리로서의 책임감을 다한 후에 자연을 즐기겠다는 다짐을 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나도 줌을 썬여 바다홀 구버보니, / 기피를 모르거니 7인들 엇디 알리.’라고 하며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인간으로서 바다의 끝을 알 수 없다는 인식일 뿐, 화자의 허망한 심정을 드러낸 구절이라고 볼 수 없다.

28

[바]에서 어느덧 밤이 되어 달맞이를 하고 있으므로, 공간과 시간의 변화가 주된 시상 전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보기>를 통해 이 작품은 ‘신선 세계’를 동경하는 도가 사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천상에서 인간 세계에 내려온 ‘신선’이었다는 점에서도 도가 사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화자는 꿈에서 신선과 술을 마시며 백성을 취하게 만든 후에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있다. 즉 관리로서의 책임을 다한 후 자연을 즐기겠다는 다짐으로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2-4. 사미인곡 (정철)

집중 훈련 OX

본문 102~105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작품 읽기 작가가 정계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에 내려가 지낼 때 지은 작품이다. 우리말 묘사가 뛰어나며 표현이 세련되어 속편인 「속미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 작품은 「연군지사」의 하나로,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마음을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 노래하고 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깊어 가는 화자의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임을 향한 변함 없는 충정과 임에 대한 지극한 정성, 임의 선정에 대한 갈망, 임에 대한 염려와 고독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중심 내용

-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 본사: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재회에 대한 기원
- 결사: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연군의 정)

중심 시어 및 시구

- 무심헌 세월은 물 흐르듯 흐느고야: 임금이 자신을 불러 주지 않는 채로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함.
- 댜화: 임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주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 산, 구름: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조정의 간신들을 의미함.
- 북극: 임금이 계신 곳을 상징함.
- 범나뉬: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 계신 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특징

- 점층적 표현 기법으로 연군의 정을 심화함.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서를 표출함.

①

‘광한던’을 통해 화자가 본래 천상에 거하던 존재임을 알 수 있으며, ‘하계에 느려오니’를 통해 하계, 곧 지상에 내려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한던’은 천상의 공간이자 임이 계신 곳이며, ‘하계’는 지상의 공간이자, 임이 부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대비되고 있다.

②

‘외오 두고 글이느고(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에서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나, 이별의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③

‘평생에 원하요되 혼디 네자 하얏더니(평생에 원하기를 임과 함께 살자 하였는데)’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름도 그지업다’라며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댜화’는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으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며 나아가 화자의 분신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뉘’는 화자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로, 화자는 이를 보며 ‘님이신가 아니신가’라고 하였으므로, ‘뉘’는 임(임금)을 의미한다.

⑤

‘나위 적막하고, 슈막이 뷔여 있다.’에서 임이 부재하는 상황과 외로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⑥

[다]의 ‘웃’은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며 만드는 것이므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나]의 ‘댜화’ 역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므로 두 시어가 대응되고 있다.

⑦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물시고.’에서 ‘산’과 ‘구름’은 화자가 임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화자와 임의 관계를 신화와 임금의 관계로 볼 때, ‘산, 구름’은 간신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⑧

‘동산의 뉘’와 ‘북극의 별’ 모두 화자가 임(임금)을 떠올리

는 자연물이다. 또한 [라]에서는 입과의 인연을 강조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는 [가]의 ‘흔싱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에서 입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09

‘청광’은 화자가 입에게 부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입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를 소망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선정에의 포부가 아닌 입금의 선정을 갈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쇼상 남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 옥누 고쳐야 더욱 닐너 모습 흐리.’에서 화자는 자신이 있는 남쪽의 추위가 이렇게 심한데 북쪽 높은 곳에 계신 입의 추위는 더욱 심할 것이라며, 입을 염려하고 있다. 처지의 대조를 통해 입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1

[마]의 ‘일모 슈둑’(해 저물 무렵 대나무에 기댐.)에서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고 있으나, 화자는 여전히 ‘썸의나 님을 보려’ 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여전히 입을 그리워하고 있지, 입과의 재회를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는 입에 대한 걱정이 병이 되었을 만큼 입을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지, 입을 원망하는 구절이 아니다. 또한 이어지는 구절에서 입을 죽어서라고 따르겠다는 말하고 있으므로, 입을 원망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13

[바]에서 화자는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라며,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어서라도 입 계신 곳에 가 입을 좇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4

[나]에서는 ‘동풍’과 꽃이 핀 ‘뒷화’를 통해 봄이, [다]에서는 ‘녹음’을 통해 여름이, [라]에서는 ‘서리’를 통해 가을이, [마]에서는 ‘빅설’을 통해 겨울이 계절적 배경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계절이 변해도 화자가 입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15

‘연지분 잇늑마는 늘 위훤야 고이 홀고,’ ‘굿득 시름 한딛 날은 었디 기뻛던고,’ 등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입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16

㉠에서는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간다는 관용적 표현을 통해 입과 이별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에서는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와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입을 그리워하는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17

‘천 리 만 리’는 화자가 입과 떨어진 거리로, 이는 화자가 입과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18

㉢에서는 겨울밤에 원앙을 수놓은 이불을 혼자 덮고 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차갑다’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19

작가는 실제 남성이다. 그러나 여자들이 사용하던 화장품인 ‘연지분’이나 여자들이 입는 ‘홍상’(붉은 치마)을 통해 화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여성을 화자로 내세워, 입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20

실제 군신 관계를 그려야 하나, 서로 사랑하다가 이별한 남녀 관계로 치환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도 입은 천상에 존재하며, 화자는 지상에 내려와 입에게 정성을 바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화자와 입을 대등한 존재로 설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2-5. 속미인곡 (정철)

집중 훈련 OX

본문 106~108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작품 읽기 신하가 임금에 그리워하는 정을, 임을 이별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에 의탁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두 여인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미인곡'의 속편에 해당하여 '속미인곡'으로 불리며, 순우리말 표현이 두드러져 문학성이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신연주지사' 계열의 작품으로, 연군의 정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서사: 백옥경을 떠난 이유에 대한 질문과 임과 이별하게 된 사연
- 본사: 위로와 임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
- 결사: 죽어서도 임을 따르겠다는 다짐과 그에 대한 위로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연군의 정)

중심 시어 및 시구

- 텃상 빙옥경: 임금이 계신 궁궐을 옥황상제가 머무는 천상계에 비유하고 있음.
- 조물의 타시로다: 표면적으로는 상황을 이렇게 만든 조물주를 탓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있음.
- 구름, 안개: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간신을 의미함.
- 빈 박: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
- 쉼, 계성: 꿈에서라도 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마저도 방해를 받음.
- 낙월, 구준비: '낙월'은 임 계신 곳을 비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자의 소극적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구준비'는 임에게 주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 분신이라고 할 수 있음.

특징

- 점층적 표현 기법으로 연군의 정을 심화함.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서를 표출함.

①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에게 어찌하여 이별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고 물어, [나]의 화자가 이별하게 된 사연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의 말을 통해 [나]의 화자가 '텃상 빙옥경'에서 임과 함께 살았었음이 드러나, [가]의 화자의 처지는 드

러나지 않으므로, [나]의 화자와 동질감을 드러내는 부분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 이리야 교퓌야 어즈러 이 구똥쨌디'에서 화자가 지나치게 행동한 것이 이별의 원인임이 드러나며, 자신의 죄로 임과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한 서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있고, 이와 함께 '조물의 타시로다'라며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있다.

⑤

[라]에서 화자는 임의 안위를 염려하며 임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것이 자신의 부재로 인해 임이 겪을 고통을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⑥

[마]에서 화자가 임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것은 임에 대한 염려 때문임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상황을 '산천이 어둡거나 일월을 었디 보며 / 지척을 모르거든 천 리를 바라보라.'라고 표현함으로써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⑦

[마]에서 '구름'과 '안개'는 뒤편에 올라 임의 소식을 들으려는 화자를 방해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바람'과 '물결' 역시 물궂에서 임의 소식을 들으려는 화자를 방해하는 존재이므로,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모두 장애물의 기능을 한다. 한편 작품의 창작 배경을 고려할 때, 이들은 간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⑧

임에게 좀 더 가까이 가려는 화자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이지, 재회를 성사시키는 공간은 아니다.

⑨

[바]에서 화자는 꿈에 임을 보고 '옥 궂ᄃᆞᆫ 얼굴이 반이나마 늘거세라.'라고 하며 임의 얼굴이 상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은 하고 있지 않다.

10

‘꿈’은 화자가 입을 만나게 했으므로, 입과의 재회를 성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 ‘꿈’은 현실과 구별되기 때문에, 이는 현실에서는 입과의 재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11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라고 하여 입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입을 만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꿈에서 화자는 입을 보고 눈물이 나서 아무말도 하지 못했으므로, 화자가 입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볼 수 없다.

12

‘어와 허스르다. 이 님이 어딤 간고.’에서 화자는 탄식조의 혼잣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과 이별한 상실감을 보여 주고 있다.

13

‘낙월’과 ‘구준비’는 죽은 이후에 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낙월’과 ‘구준비’는 입의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이다.

14

‘낙월’은 밤에만 입과 만날 수 있으나, ‘구준비’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월’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준비’는 ‘낙월’보다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입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슬픔을 더 잘 드러내고, ‘낙월’보다 입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15

이 작품에서 화자는 [가], [다], [아]를 말하는 보조 화자와 [나], [라]~[사]를 말하는 중심 화자 간의 대화로 구성되고 있다.

16

‘산 → 물가 → 집’으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며, ‘밤둥’을 통해 시간의 흐름 역시 드러나고 있다.

17

시간적 배경이 해가 저물어 가는 무렵과 밤으로 제시되면서 입과 이별한 상황과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18

‘턴상 빅옥경’은 화자가 입과 함께 지내던 공간으로, 입금이 계신 궁궐을 상징한다. 한편 ‘모첩’은 입과 떨어져 화자 홀로 지내는 공간으로, 화자가 현재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공간이다.

19

‘빈 비’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엿븐 그림자’(가없는 그림자)는 입과 이별한 채 살아가는 화자의 그림자이므로, 홀로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뿐, 화자를 위로하는 것은 아니다.

20

‘지척을 모르거든 천 리를 바라보라’와 같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1

이 작품은 여성 화자(‘며 각시’)가 입과 이별한 후의 슬픔을 토로하고,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창작 배경을 고려하면 화자는 작가 정철의 입장을 대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작가의 입금을 향한 충성심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2-6. 규원가 (허난설헌)

집중 훈련 OX

본문 109~111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작품 읽기 규방 가사의 선구적 작품으로, 봉건 제도하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의 한스러운 생활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독수공방의 외로움으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체념하는 등의 복합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

중심 내용

- 서사: 늙음에 대한 한탄
- 본사: 임에 대한 원망과 서글픈 신세 토로
- 결사: 임을 기다리며 운명에 대한 한탄

주제 봉건 사회 규방 부인의 삶과 정한

중심 시어 및 시구

- 소년 행락: 어린 시절에 즐겁게 지내던 일을 떠올림으로써 현재 화자의 초라한 처지를 강조함.
- 삼생의 원업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을 자신의 업보와 팔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한탄함. 원망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해 있음.
- 옥창: 규방의 창
- 실술: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통해 화자의 설움을 드러내고 있음.
- 꿈: 꿈에서라도 임과 재회하고자 하나 여러 장애물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음.
- 약속: 건너기 힘든 전설 속의 강을 언급하며, 화자와 임의 거리를 표현함.

특징

-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함.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봉건 제도하 규방 여성들의 한을 노래함.

①

‘옛그제 저멋더니’와 ‘흐마 어이 다 늘거니’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서른 말습’이라며 늙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②

‘장안 유협 경박자’와 같은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낼 뿐, ‘군자 호구 원하더니’에서 부모님 역시 화자가 훌륭한 배필을 만나기를 기대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임과 만난 것을 전생에 지은 죄와 부부의 인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에서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다]에서 임은 ‘곳 피고 날 저물 제 정처 업시 나가 잇’는 등 방탕하게 행동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을 화자 자신 때문으로 여기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는 임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움, 원망,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⑤

[다]의 앞부분에서는 집 밖에 머물며 다니는 임에 대한 원망을, 뒷부분에서는 긴 시간 동안 임을 기다리는 처지에 대한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인연(因緣)을 굿쳐신들 칭각이야 업슬소나 /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에서 임에 대한 원망과 기다림의 양면적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⑥

‘열두 세’와 ‘설흔 날’은 화자가 임을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깊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괴로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⑦

[나]의 ‘삼춘 화류 호시절의 경물’은 ‘봄날 온갖 꽃 피우고 버들잎이 돌아나는 좋은 시절’을 의미하므로,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⑧

화자는 거문고를 연주하며 시름을 달래고 있지만, ‘뉘 귀에 들리소니’라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리가 임에게 들리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다.

⑨

화자는 현실의 괴로움으로 인해 차라리 꿈에서라도 임을 보려 하지만, ‘디는 님’과 ‘우는 잠생’이 잠을 깨워 꿈에서도 임을 만나지 못한다. 따라서 화자가 꿈을 통해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0

[다]의 '실솔'과 [마]의 '새'는 화자가 슬픈 감정을 이입한 자연물이지만, [마]의 '풀 속에 우는 짐생'은 '바람의 디는 뉘'과 함께 입을 만나기 위해 잠을 자려는 화자를 깨우는 방해물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니다.

11

‘천상의 견우직녀~소식조차 쓰쳤는고.’에서 화자는 입이 가신 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1년에 한 번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 견우와 직녀보다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12

[라]의 '세상의 서운 사람 수업다 흐려니와'에서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지만 자신만큼 서운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들을 청자로 삼고 있지도 않다.

13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아픔이 심화되고 있지만,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14

[나]에서는 화자가 자라서 입을 만나기까지의 과거 회상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현재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에서는 겨울과 여름, 봄과 가을의 변화를 통해 외로움과 서러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15

‘죽림 푸른 고딧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한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16

‘엇그제V저멋더니V흐마 어이V다 늘거니’와 같이 4음보의 율격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에서 화자는 젊을 때와 달리 늙고 추해진 현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독수공방하는 신세에 대해 누굴 원망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18

화자는 입을 원망하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소극적이고 수

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기>를 통해 당시 조선 시대의 봉건 윤리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로 볼 수 있다.

3-1. 이생규장전 (김시습)

집중 훈련 OX

본문 112~115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작품 읽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 중 하나이다. 전반부에서는 살아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환신한 최 여인과의 죽음을 넘어서 사랑을 다룸으로써 진실한 사랑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작가의 진보적 애정관을 반영하고 있다.

등장인물

- 이생: 최 여인(최낭)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다가 전쟁으로 최 여인이 죽은 후에도, 환신한 최 여인을 변함없이 사랑함.
- 최 여인: 이생의 부인으로, 목숨을 잃은 후 환생하여 이생의 곁에 돌아왔다가 다시 저승으로 떠나게 됨.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특징

- 작가의 진보적 애정관이 드러남.
-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등장시킨 점에서 자주 의식이 드러남.
- 인간의 욕망 성취라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소망을 잘 반영함.

①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이생과 여인은 당대 관습에서 벗어나 우연한 만남 뒤에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점에서 자유연애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하느님께서 이 몸을 환신시켜 잠시 낭군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를 통해 이생과 여인은 흥건적의 난으로 헤어지지만, 이생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자비를 통해 여인이 환생하여 다시 만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이생과 여인은 혼인을 했으나 흥건적의 난으로 헤어지고,

여인은 끝까지 정절을 지키다가 도적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형애’, 곧 홍건적의 난은 이생과 여인이 헤어진 원인이자 여인이 죽임을 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04

이생과 여인은 혼인 전의 사랑과 혼인으로 사랑을 나누고, 죽은 여인이 환신하여 다시 사랑을 나누는 세 번의 인연을 이어 가고 있다.

05

여인이 이별이 다가왔다고 말하자, 이생이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라고 반응하는 것으로 볼 때, 이생은 여인과 이별할 것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06

이생과 여인은 서로 사랑하고자 하나, 홍건적의 난으로 여인이 죽으면서 이별하게 되고, 환신한 여인도 끝내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면서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07

이생은 전쟁을 겪고 여인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평범한 선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이생과 여인은 재주와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인 재자가인형 인물로 볼 수 있다.

08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은 이승과 저승의 대결이 아니라, 홍건적의 난과 죽음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거기에 맞서는 이생과 여인 사이의 갈등이다.

09

여인은 이승과 저승이 구별되어 있음을 알려 주고 있을 뿐, 생사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이생과 갈등을 빚고 있지는 않다.

10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죽은 사람이 환신하여 살아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는 점에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11

죽은 여인이 환신하여 이생과 재회한다. 그리고 명부의 법에 의해 여인이 다시 사라지고, 이생 역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 결말을 맺고 있다.

12

대부분의 고전 소설이 그렇듯이 이 작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생과 여인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다.

13

꿈을 통한 서사 전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환몽 구조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간사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있지도 않다.

14

환신한 여인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이원적 공간 구도가 나타나지만, 여인의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에 위반됩니다.’라는 말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질서가 서로 다르게 움직임을 알 수 있다.

15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고, 인물의 심리 변화의 계기를 암시하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생과 여인의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다.

16

여인이 남긴 노래에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생과 헤어지는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7

노래의 삽입을 통해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 소설의 특징이기도 하다.

18

여인의 말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과정과 홍건적의 난으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한 사건을 상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

19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이생과 여인은 혼사 전에 이생 아

버지의 반대로 시련을 겪었다는 점에서, 혼사 장애 모티프가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여 혼인한 뒤에도 여인의 죽음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

20

<보기>를 통해 여인이 전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지만 환신한다는 점에서, 전쟁이라는 세계의 횡포에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원생몽유록 (임제)

집중 훈련 OX

본문 116~119쪽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작품 읽기 몽유록계 소설은 '현실 - 꿈 - 현실'의 구조를 취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느꼈던 소외감이나 불만을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진술한다. 이 작품도 꿈속에서 원자허가 단종과 사육신으로 짐작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을 표출하고 있다.

등장인물

- 원자허: 가난하지만 정의로운 선비. 꿈속에서 임금과 신하들을 만나 흥망의 도를 토로함.
- 해월거사: 원자허의 벗. 원자허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인간사의 부조리에 대해 비판함.
- 임금과 신하들: 원자허가 꿈속에서 만난 인물들. 왕위 찬탈에 대한 비분한 마음을 토로함.

주제 역사와 정치에 담긴 인간사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

특징

-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을 모티프로 함.
- 삽입 시를 통해 사건을 제시함.

①1

원자허는 '강개한 선비'이며, '기개와 도량이 넓고 커서 시대에 용납되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그가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음에 불구하고 현실에서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2

'일찍이 역사서를 보다가 역대의 위태로워 망할 지경에 처하거나 국운이 옮겨 가거나 운세가 떠나가는 곳에 이르면,

책을 덮고 눈물 흘리며 마치 자신이 그 시대에 처하여 망해 가는 것을 보고도 힘으로 부지할 수 없는 것처럼 애태우지 않은 적이 없었다.'를 통해 원자허가 역사의식이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3

원자허가 꿈속에서 휘파람을 불고 시를 읊는 사이에 호남아 한 사람이 나타나 원자허를 임금에 있는 정자까지 안내하고 있다.

④4

복건을 쓴 사람이 선양을 한 옛 임금을 비판하자, 임금은 '네 임금에게 어찌 죄가 있겠는가. 도리어 빙자하거나 명분으로 삼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임금은 선양을 한 옛 임금을 비판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5

임금이 신하들과 술을 마시고 '목메어 흐느끼며', 원통함을 서술해 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왕위 찬탈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을 드러내고 있지,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⑥6

기이한 사내는 임금 곁에 있는 다섯 사람을 향해 "애달프다. 썩은 선비들이, 그대들과 무슨 대사를 꾸몄단 말인가."라고 하며 원통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다섯 사람이 옛 임금 곁에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이한 사내는 옛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은 선비들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기이한 사내는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은 다섯 사람과 대사를 도모했다가 실패한 점을 원통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이한 사내는 역사적 인물인 무신 '유응부'를 가리키는데, 기이한 사내가 한 말은 유응부가 세조를 살해할 거사를 치르려고 할 때 성삼문과 박팽년이 이를 말렸다가 실패한 사건을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다.

⑦7

원자허가 해월거사에게 꿈속에서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지만, 각자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준 것은 아니므로, 꿈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몽유록계 소설은 몽자류 소설과 달리 현실의 중심인물과 꿈속의 중심인물이 동일 인물이며, 현실과 꿈이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08

등장인물은 모두 부당하게 왕좌에 앉은 이에 대한 분함과 원통함을 내비치고 있으므로, 내적 갈등보다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09

원자허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은 지니고 있지만,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으며, 꿈속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지도 않다.

10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독자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원자허나 기이한 사내의 인물됨을 전달할 때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고 있다.

11

여러 인물이 발언을 하고 있지만, 서술자는 달라지지 않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를 전달하고 있다.

12

서사 전개 후 해월거사의 말을 덧붙여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해월거사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생각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원자허는 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금과 충신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왕위가 찬탈된 현실에 대한 슬픔을 나눌 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14

현실 세계와 꿈속 세계의 원자허는 동일 인물이며, 부당하게 왕위를 빼앗긴 상황도 동일하므로 두 세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5

‘한(원한)이 장강에 들어 목메어 못 흐르는데’에서 화자는 ‘장강’에 한 많은 감정을 이입하고 있으며, ‘갈대꽃 단풍잎에 찬바람 우수수 부네’를 통해 자신의 쓸쓸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6

[B]는 어떤 기이한 사내가 부르는 노래로, 무인으로서 충심을 드러내는 한편 문인들과 일을 도모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왕위 찬탈을 막지 못한 원자허의 죄책감을 덜어 주려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7

‘키가 훨씬 크고 용맹이 뛰어났으며, 얼굴은 포갠 대추와 같고, 눈은 셋벌처럼 번쩍었다.’에서 사내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용맹함과 기개를 드러내고 있다.

18

꿈속에서 만난 임금과 신하들은 단종과 사육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세조가 왕위를 빼앗은 사건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꿈’은 현실에서 금기로 여겼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1-1. 국화야 너는 어니 (이정보)

집중 훈련 OX

본문 121쪽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작품 읽기 조선 후기의 평시조로, 나뭇잎이 다 떨어진 추운 계절에도 홀로 꽃을 피우는 국화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꽃 피우기 좋은 시기인 '삼월 동풍'과 꽃 피우기 어려운 시기인 '낙목한천'을 대비하여, 서릿발에도 굴하지 않는 국화의 고고한 절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지조와 절개를 지닌 국화를 예찬함으로써 화자의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중심 내용

- 초장: 다른 꽃과 달리 봄에 피지 않는 국화
- 중장: 추운 계절에 홀로 피는 국화
- 종장: 국화의 절개 예찬

주제 국화의 높은 지조와 절개

중심 시어 및 시구

- 삼월 동풍: 일반적으로 꽃이 피는 계절인 봄을 가리킴.
- 낙목한천: 나뭇잎이 다 떨어진 추운 계절로, 국화는 다른 꽃들과 달리 이때 꽃을 피움.
- 오상고절: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절개라는 뜻으로, '국화'를 비유하는 표현임.

특징

- 대조의 방식으로 대상을 예찬함.
- 국화를 의인화함.

①

삼월 동풍은 꽃이 피는 계절인 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봄에 피지 않고 추운 늦가을에 피는 국화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중장의 '낙목한천에 네 홀로 피었느다.'를 통해 국화는 다른 꽃들과 달리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국화를 예찬하고 있을 뿐, 자신과 국화를 대응시키고 있지는 않다.

④

화자는 따뜻한 봄에 피는 다른 꽃들과 달리 나뭇잎이 다 떨어진 추운 계절에 피는 국화의 속성에서 '오상고절'(서리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절개)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⑤

초장에서 '국화야~'로 시작하며, 국화를 '너'로 지칭하는 등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⑥

국화를 '너'로 지칭하며 절개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중장의 '너뿐인가 흥노라.'에서 절개를 지닌 국화를 예찬하고 있다.

⑦

삼월 동풍에 피는 꽃들과 낙목한천에 피는 국화를 비교하여 국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⑧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진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⑨

'오상고절'은 '심한 서릿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높은 지조와 절개를 예찬할 때 사용하는 시어이다. <보기>의 '아치고절' 역시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라는 뜻으로, 대상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시어이다.

1-2. 강산 조흔 경을 (김천택)

집중 훈련 OX

본문 122쪽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작품 읽기 조선 후기 가객의 작품으로, 속세에서는 서로 다투지 않고 제 힘과 제 분수로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만은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중심 내용

- 초장: 자연을 다투어 차지하는 상황(가정)
- 중장: 자연을 다투어 가질 힘이 없음.
- 종장: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김.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

중심 시어 및 시구

- 닻 힘과 닻 분으로 어이하여 엇들쏘이.: 자연을 힘센 사람과 다투어야 얻는 것이라면 힘도 분수도 없는 자신은 얻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겸양의 태도가 드러남.

특징

-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01

중장을 통해 ‘강산’은 화자가 즐기는 대상으로, 강산을 즐기는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강산’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02

중장에서 화자는 자신의 ‘분’으로는 ‘힘센 이’와 다투어서 강산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힘센 이’와 다투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분’(가난한 처지)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03

화자는 자신의 힘과 분으로는 ‘힘센 이’와 다투어 강산을 얻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힘센 이’와 대조되는 화자의 가난하고 미약한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 작가 김천택이 가객임을 고려할 때, ‘힘센 이’는 권력자를 의미하고, 화자는 중인 정도 계급의 처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04

종장에서 ‘나도 두고 논이노라.’라며 자연을 즐기고 사는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05

힘센 이와 다투어서는 강산을 얻지 못한다는 인식 속에는, 권력자가 많은 것을 차지하며 사는 속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작가를 중인 계급이라고 볼 때, 당대 신분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6

‘강산 죠흔 경’은 힘이 있든 없든, 분이 높은 미천하든 관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있는 평등하고 너그러운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07

화자는 ‘힘센 이’와 다투는 필요도 없고, ‘진실로 금흐 리’도 없어서 강산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화자와 대조되는 처지에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작품에서 화자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중장의 ‘어이하여 엇들쏘이.’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화자의 안도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9

‘강산V죤흔 경을V힘센 이V닷톨 양이면’과 같이 4음보의 율격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3.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작자 미상)

집중 훈련 OX

본문 12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작품 읽기 위기에 빠진 까투리, 도사공의 절박한 심정과 입을 잃은 화자의 심정을 비교와 과장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기발한 착상에 비교, 과장, 점층, 열거 등의 수사법, 감정 이입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중심 내용

- 초장: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 중장: 바다 한가운데 위기에 처한 도사공
- 종장: 입과 헤어진 화자의 절박함

주제 사랑하는 입을 여인 절망

중심 시어 및 시구

- 엇그제 님 여힌 내 안하야 엇다가 ㄱ을헝리요.: 아무리 절박해 보이는 까투리와 도사공도, 엇그제 입을 잃은 자신의 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참담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음.

특징

- 열거와 과장으로 상황을 묘사함.
- 평시조에 비해 중장이 길어진 사실시조 갈래에 속함.

01

화자는 ‘가토릭’과 ‘도사공’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가토릭’과 ‘도사공’을 관찰한 것이 아니다.

02

화자는 입을 잃은 자신의 심정을 과장하여, 도사공의 절박한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절망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03

중장의 ‘엇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입을 여윈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토릭’과 ‘도사공’을 끌어들여 자신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5

화자는 입과 헤어진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다고 한탄할 뿐,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06

중장에서는 도사공의 절박한 상황을 열거와 점층의 방법으로 늘어놓고 있지만,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07

‘가토릭’과 ‘도사공’은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화자는 이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8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충도 근코 대도 것고 ~’에서 조사 ‘도’, 어미 ‘-고’를 반복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09

이 작품은 평시조에 비해 중장이 매우 길게 늘어난 사실시조로, 일반적인 갈래의 형식이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다.

1-4. 붉가버슨 아해 | 들리 (이정신)

집중 훈련 OX

본문 124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작품 읽기 조선 후기의 사실시조로, 서로 속고 속이며 모해(謀害)하는 각박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은유적 표현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으며, ‘발가벗은’ 아이들과 ‘발가숭이(잠자리)’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해학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

중심 내용

- 초장: 개천을 왕래하는 발가벗은 아이들
- 중장: 잠자리를 속여 부르는 아이들
- 종장: 악육강식의 세태 풍자

주제 서로 모해하는 세태에 대한 풍자

중심 시어 및 시구

-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그럴싸한 말로 남을 속여, 서로 모해하는 세태를 묘사하고 있음.

특징

- 풍자적 은유와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암시함.

01

화자는 발가벗은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각박한 세상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형으로 표현된 점을 통해서도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2

초장에서 ‘붉가버슨 아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는데, 이는 중장에서 ‘붉가숭이(잠자리)’를 잡기 위한 행동임이 밝혀지고 있다.

03

‘거미줄 테’는 붉가숭이(잠자리)를 잡기 위해 붉가버슨 아해들이 이용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04

중장에서 ‘붉가버슨 아해’들은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라고 거짓말하며 ‘붉가숭이(잠자리)’를 유인하고 있다.

05

종장에서 ‘세상 일이 다 이러흔가 호노라.’라고 하였으므로, ‘세상 일’은 초장과 중장에서 언급된 잠자리를 속이는 세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약육강식의 세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06

화자는 ‘붉가버슨 아해’들의 거짓 회유와 ‘세상 일’이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남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세태에 대해 화자는 비판적 태도와 개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체념적 태도는 ‘~할 수밖에 없다’와 같이 희망을 잃고 단념하는 태도로, 이 작품에서 체념적 태도를 찾기는 어렵다.

07

초장과 중장에서는 아이들이 잠자리를 회유하여 잡는 일상의 구체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고, 종장에서는 이를 통해 전반적인 세태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08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붉가송이가 붉가송이를 잡으려 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황에 따라 남을 속이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하는 각박한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09

잡는 자와 잡히는 자가 모두 ‘붉가송이’라는 점에서 동음이의어인 ‘붉가송이’를 이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나고 있다.

10

민중들이 주로 향유한 사실시조라는 점에서, 작가가 자신의 정치적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작품을 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대 민중들의 세태를 개탄하기 위해 창작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5. 어부사시사 (윤선도)

집중 훈련 OX

본문 125~127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작품 읽기 사계절을 각각 10수씩 읊은 총 40수의 연시조로, 작가가 67세 이후 전남 보길도에 은거하며 지은 작품이다. 고려 때부터 전해 온 「어부가」를 이현보가 「어부가」로 개작하였고, 이것을 다시 윤선도가 후렴구를 넣어 40수로 개작한 것이다. 이현보의 개작가에서 한시구를 순우리말로 바꾸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낸 작품으로, 계절마다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취가 잘 드러나 있다.

중심 내용

- 춘사: 봄에 고기잡이를 하며 풍류를 즐기는 어부의 생활
- 하사: 여름에 소박하게 즐기는 어옹의 생활
- 추사: 가을의 풍요로운 자연과 자연에 동화되어 사는 삶
- 동사: 겨울의 자연을 즐기는 흥과 세속을 멀리하는 마음

주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부의 여유와 흥취, 강호정정(江湖閑情)

주요 시어 및 시구

-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봄에 부는 바람을 가리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음.
- 낙대를 두러메니 기쁜 흥을 금 못 홀다: 낚시하러 나가는 화자의 흥취가 드러남.
- 무심헌 백구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사심 없는 갈매기와 화자가 하나임. '물아일체'의 삶의 자세를 드러냄.
- 물와: 속세를 벗어난 곳. 자연을 말함.
- 어옹: 화자를 가리킴. 그림마다 고기 잡는 노인이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음.
-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속세와 멀어질수록 좋음. 세속적 삶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함.
- 선계냐 불계냐 인간이 아니로다: 어촌 풍경을 신선, 부처의 세계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드러냄.

특징

- 대구의 방식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 줌.
- 속세와 자연을 대비해,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을 드러냄.

01

<춘사 3>에서 화자는 배를 타고 동쪽 호수에서 서쪽 호수로 이동하는 중에 봄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과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타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02

<춘사 4>에서는 ‘벽구기’가 울고 ‘버들숲’이 푸르게 우거져 있고 고기가 날뛰는 모습을 통해 봄의 생명력 넘치는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03

<하사 1>에서 화자는 굶은비가 멈추고 시냇물이 맑아오자 배를 띄우며 물가로 나아가는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다. 격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화자는 연잎에 밥을 싸고, 반찬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또한 샷갓을 쓰고 도롱이를 가져왔느냐고 묻고 있다. 이는 소박한 가운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지, 항해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05

화자는 어부의 생애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면서, 자신과 같은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고기 잡는 노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걸어 둔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세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6

화자는 고기마다 살찐, 가을의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라며 세속과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세속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동사 1>에서 화자는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내리쬐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며, ‘턴디 폐식호디 바다흔 의구호다’라며 눈과 얼음으로 막힌 천지와 달리, 생기를 잃지 않고 비단같이 물결이 펼쳐져 있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있다.

08

화자는 ‘간밤의 눈 갠 후’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장에서 ‘인간이 아니로다.’라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겨울 바다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09

‘스시 흥이 흥가지나 추강이 음듬이라.’나 ‘선계니가 불계니가 인간이 아니로다.’ 등을 통해 <춘사>와 <동사>에서

화자가 자연에 몰입하여 흥취를 즐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춘사>와 <하사>에서도 역시 화자는 자연에서 흥취를 즐기고 있다.

10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제시된 부분은 동풍이 부는 봄에서부터, 눈이 내린 겨울까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1

일반적인 시조와 달리 ‘초장-여음-중장-후렴구-종장’의 구조를 보이며, 시조의 형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12

‘돌 드라라 돌 드라라’, ‘이어라 이어라’ 등 배를 물기 위해 돛을 달고, 노를 젓는 행위를 여음으로 사용하였고, 노 젓는 소리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후렴구로 사용하여 배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3

이 작품은 화자가 머무는 자연과 인간(세속)의 대비가 드러날 뿐, 육지와 바다가 대비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

14

<춘사 4>의 ‘프른 거시 버들숲가.’에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색과 대비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청각적 이미지인 ‘우는 거시 벽구기’와 함께 봄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5

화자는 배를 타고 물 위를 다니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은 배가 이동함에 따라 뒷산이 나아오는 장면을 나타낼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물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16

‘물외’는 속세를 벗어난 곳을 가리키며, 물외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삶을 ‘조흔 일’로 여기고 있다.

17

겨울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 <동사 1>에서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은 겨울에도 생

기를 잃지 않은 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다.

18

‘압희는 만경류리 뒤희는 천텃옥산’에서 간밤에 내린 눈으로 온통 하얗게 덮힌 경관의 웅장함을 대구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19

‘선계ㄴ가 불계ㄴ가 인간이 아니로다.’에서는 반복과 영탄을 통해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인간이 아니로다.’를 통해 화자가 자신이 속한 공간을 이상향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보기>에서 작가는 어부의 삶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화자는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어부가 아니라, ‘가어웅’(가짜 어부라는 뜻으로, 속세를 떠나 강호에서 낚시를 하며 풍류를 즐기던 양반을 이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 전체에서 어부의 생애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므로, 어부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견회요 (윤선도)

집중 훈련 OX

본문 128~129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 읽기 조선 후기의 연시조로, 작가가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견회’는 ‘시름을 쫓다’, ‘회포를 풀다’, ‘마음을 달래다’라는 의미로, ‘견회요’는 유배지에서서의 시름을 달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유배지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정을 잃지 않는 연군의 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

중심 내용

- 제1수: 신념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
- 제2수: 충심에 대한 하소연과 결백 주장
- 제3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다짐
- 제4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 제5수: 충과 효의 일치를 통한 연군지정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중심 시어 및 시구

- 내 몸의 허울 일만 달고 달글 뿐이언명: 소신껏 간언을 한 것에 대해 후회 없이 떳떳한 태도가 드러남.
- 이 막음 어리기도 남 위헌 타시로쇠: 자신의 행동이 임금을 위한 것이었음을 호소함.
- 아막 아모리 날러도 남이 해여 보쇼셔: 간신의 모함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임금이 직접 헤아릴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시내: 밤낮없이 흐르는 속성을 가진 시어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빗대어 표현함.
- 외기러기: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짝 잃은 기러기가 우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함.
- 남군 향흔 뜬도 하늘히 삼겨시나: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내린 것임. 연군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함.

특징

- 연시조로, 각 수가 통일된 주제를 향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음.
-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말을 반복해 의미와 운율을 강조함.

㉠

화자는 남이 ‘올다 ᄒ나 외다 ᄒ나’ ‘내 몸의 ᄒ울 일’만 닦겠다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내 일 망녕된 줄’, ‘이 막음 어리기도’라며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내 그것은 입을 위한 일이었다고 밝히며 입을 향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03

화자는 입에게 ‘아뭉 아모리 닐러도 님이 헤여 보쇼셔.’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요청하고 있다.

04

<제2수>의 종장에서 화자는 ‘아뭉 아모리 닐러도 님이 헤여 보쇼셔.’라며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때 ‘아뭉 아모리 닐러도’는 구체적으로 <제1수>의 ‘올다 훗나 외다 훗나’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아뭉’(아무개)는 화자를 모해하는 세력을 의미하고, 화자는 입이 이들의 말을 믿기보다는 직접 상황을 헤아리길 바람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5

화자는 시냇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시냇물의 속성을 통해 입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제3수>에서 주야에 흐르는 ‘시내’를 보며, 화자는 ‘님 향흔 내 뜰을 초차 그칠 뉘를 모로는다.’라며 입 향한 자신의 마음도 그치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07

<제4수>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종장에서 화자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외기러기’에 이입하여, 외기러기가 ‘울고 울고’ 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외기러기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자, 화자의 마음을 대상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08

종장에서 ‘님군을 니즈면 괴 불효인가 녀기봐.’라며 입금을 향한 충정이 부모를 향한 효심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부모와 입금 중 어느 쪽을 더 우위에 둔 것은 아니다.

09

입을 향한 그리움은 <제3수>에서 드러나며, 부모를 향한

그리움은 <제4수>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제5수>는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내용이나, 이는 화자의 님군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제2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는 있으나, 작품 전반에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제3수>에서는 입을 향한 그치지 않는 화자의 충정을 밤낮으로 흐르는 ‘시내’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으며, <제4수>에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외기러기’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12

<제1수>에서는 ‘분별홀 줄 이시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제3수>에서는 ‘주야에 흐르는다.’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체념적 태도가 아닌, 화자의 굳은 신념과 변함없는 충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3

<제1수>의 ‘슬프나 즐거오나 올다 훗나 외다 훗나’, <제4수>의 ‘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에서 대구와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4

<제3수>는 ‘시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제4수>는 독백적 어조로 전개되고 있다.

15

<제4수>의 ‘뜰’은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며, <제5수>의 ‘뜰’은 입금을 향한 충정이다. <제5수>에서 이 두 ‘뜰’이 동일시되며,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16

<보기>를 통해 작가가 이이첨 세력의 모함으로 유배를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은 작가가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았던 일을 가리키며, 이로 인해 작가가 결국 유배를 가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

<보기>를 통해 이 작품을 유배지에서 쓰인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 남에게 잘 해아려 달라고 호소하는 부분 이므로, <보기>에 언급된 결백함의 주장, 자신을 헐뜯는 간신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만흥 (윤선도)

집중 훈련 OX

본문 130~131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 읽기 작가가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해남으로 들어가 자연 속에 묻혀 지낼 때 지은 연시조로, 한문투의 표현 없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혼란한 정계를 떠나 자연 속에 묻혀 산수를 벗 삼아 유유자적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중심 내용

- 제1수: 분수에 맞는 생활
- 제2수: 안빈낙도의 생활
- 제3수: 자연과의 물아일체
- 제4수: 자연에서 누리는 흥취
- 제5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
- 제6수: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정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예찬

중심 시어 및 시구

- 뉘집: 초가집. 자연에 묻혀 사는 소박한 삶을 보여 줌.
- 하얌: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 화자를 가리킴.
- 그 나른 녀나쁜 알: 속세와 관련된 일. 벼슬길을 가리키며, 화자는 속세에 미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음.
- 삼공, 만승: 속세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정승이나 천자의 자리. 화자는 이보다 자연에 묻혀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함.
- 소부 허유: 속세를 거부하고 자연에 은거한 중국의 은자들. 화자는 그들의 삶을 지향함.
- 내 성이 게으르더니 ~ 흥 일도 아니 맛뉘: 속세에 관심이 없음을 '게으르다'라고 표현하며, 자연에 들어온 것을 하늘이 시킨 일로 여김.
- 님금 은혜를 ~ 허을 일이 업세라: 자연에 묻혀 살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은 점에서 유교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음.

특징

-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음.
- 물아일체의 자연 친화 정신이 나타나 있음.

01

화자는 자신이 짓는 '뉘집'을 보고 남들은 비웃지만 어리석은 시골뜨기 같은 자신에게는 이것이 분수에 맞다고 하며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02

초가집을 짓고 사는 화자를 비웃는 '님들'은 자연이 아닌 속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03

화자는 자신의 '하얌', 곧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가 스스로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객관화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4

'알맞게 먹'고 '슬까지 노니'는 것은, 물러난 '나'가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나른 녀나쁜 일'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나'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05

산이 '말씀도 우움도 아녀도(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셔도)' 화자는 그를 좋다고 표현하며 산과 교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교감하지 못한 좌절감이 아니라, 말이나 웃음이 없어도 화자를 흐뭇하게 해 준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제4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이 삼공보다 나은 뿐만 아니라 만승보다도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삼공'과 '만승'에 비교되는 것은 화자의 삶이다. 곧 자연에 거하는 삶이 '삼공'의 삶이나 '만승'의 삶보다 낫다는 뜻이므로, 화자가 '만승'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07

<제4수>에서 중국 고대 인물인 소부 허유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들이 영리했다는 표현을 통해 이들과 같은 자신의 삶 역시 영리한 선택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의 삶이 '소부 허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8

<제5수>에서 화자는 하늘이 자신에게 인간의 일을 맡기

지 않고, 강산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고 표현함으로써, ‘인간 만스’와 ‘강산’을 대조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강산을 지키는 삶, 곧 자연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9

<제6수>에서 ‘강산’과 ‘내 분’은 대비적인 시어가 아니다. ‘강산’은 화자가 머무는 공간이고, ‘내 분’은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이다. 또한 <제6수>에서는 강산에 머물며 사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는,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지, 자연의 위대함을 예찬하고 있지도 않다.

10

<제1수>~<제5수>에는 자연을 즐기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제6수>에는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임금의 은혜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자연의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의 즐거움 대신 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삶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11

‘뽕집’, ‘보리밥 꽃늬물’과 같은 시어를 통해 화자의 안분지족의 삶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작품 전체에 드러나고 있을 뿐, 궁핍한 생활로 인해 고뇌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2

<제3수>에서 화자가 산중에 혼자 앉아 술잔을 들고 멀리 보이는 산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며 느끼는 흥취와 여유 있는 삶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13

‘뽕집’과 ‘보리밥 꽃늬물’은 소박한 처소와 음식으로, 자연에 묻혀 안빈낙도하는 화자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14

각 수의 종장에서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제1수>는 초장과 중장에서 초가집을 짓고 사는 화자와 이를 비웃는 사람들을 언급한 후, 종장에서 그러한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다고 말함으로써, 화자의 자족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15

감각의 전이가 드러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 전반적으로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보다 대조적인 시어와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6

<제3수>의 자연물인 ‘되’(산)가 말쑥도, 웃음도 안 한다는 표현에서 의인화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17

㉠ ‘그 나쁜 녀나쁜 일’은 초장과 중장에서 언급한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 외의 일을 의미하므로, 세속의 일(벼슬살이)과 관련된 시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4수>의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인 ‘님천 한흥’과는 대조적인 관계를 갖는다.

18

㉡ ‘내 성이 게으르더니’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화자의 실제 성품이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만스’와 관련된 일에는 게으르다는 의미이다. 곧 속세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19

<보기>를 통해 작가가 노년 시절, 귀양에서 풀려난 뒤에 이 작품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작품의 ‘그 나쁜 녀나쁜 일’, ‘인간 만스’는 벼슬살이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 나쁜 녀나쁜 일’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인간 만스’를 말지도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벼슬에 대한 미련 없이 자연에 거하는 삶에 자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조흥시가 (박인로)

집중 훈련 OX

본문 132-133쪽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⑲19 ○

작품 읽기 작가가 한음 이덕형의 집에 찾아가 있을 때 흥시를 대접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효도를 다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 풍수지탄의 정을 느끼게 한다.

중심 내용

- 제1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 제2수: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다짐
- 제3수: 부모님이 더디 늙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 제4수: 학자들과 교유하는 자부심 또는 효자들을 본받고 싶은 마음

주제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현인군자와 교유하는 자긍심

중심 시어 및 시구

- 조흥감: 조흥감을 보고 육적의 '회골고사'를 떠올림.
- 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헛다마는: 육적이 원수를 찾아가다가 대접받은 유자를 품고 나오다 떨어뜨리자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다는 중국의 고사. '회골고사'라고도 함.
- 왕상, 맹종, 노래자: 효심이 지극했던 고사 속 인물들. 화자도 이들처럼 '양지성효'를 실천하고자 함.
- 군봉: 봉황의 무리.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현인군자가 모여 있는 것을 말함.
- 외가마기: 현인들 사이에 있는 화자를 가리킴. 겸손함과 동시에 그들과 교유하는 자부심이 드러남. 한편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화자를 지칭하기도 함.

특징

- 고사를 인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효심을 드러냄.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조흥감'이 고사에 나오는 '유자'가 아니어도 품어 가고 싶지만, 품어 가도 반길 사람(부모님)이 없음을 서러워하고 있다. 유자를 구하지 못해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종장의 '품어 가 반기 리 업슬식 글노 설위헛는다'에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수>에서 화자는 '노래자'가 일흔의 나이에도 부모님을 위해 색동옷을 입고 어리광을 부렸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도 노래자처럼 부모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④

<제3수>에서 큰 쇠덩이를 늘어 끈을 꼬아, 구만리 멀고도 넓은 하늘에 지는 해를 잡아맨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부모님이 천천히 늙기를 바라는 화자의 효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군봉'과 '외가마기'는 각각 흰색과 검은색으로 색채가 대비되고 있으나, '군봉'이 모여 있는 곳에 '외가마기'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서로 어울리는 무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대비되지 않으며, 화자가 동조할 수 없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⑥

일반적으로 시조의 종장은 '3-5-4-3'의 음수를 따른다는 점에서, <제4수>의 종장은 '두어라 V 봉황도 비조와 류시니 V 뵈셔 논돌 V 엇더헛리.'로 나눌 수 있다.

⑦

'군봉'을 높은 경지에 이른 학자들이라고 보면, 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외가마기'(화자)가 들어왔다고 표현한 부분은, 자신 역시 이들과 한 무리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뛰어난 이들과 교류하는 삶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⑧

<제1수>~<제4수>는 모두 종장에서 화자의 감정 또는 다짐, 바람 등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⑨

<제1수>~<제3수>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성을 노래하고 있으며, <제4수>는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나 훌륭한 벗들과 교유하는 삶에 대한 자긍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개인적 차원의 삶의 연장선에 있지, 역사적 차원의 삶으로는 볼 수 없다.

10

<제1수>에서는 ‘똥이 가 반기 리’가 없다는 점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임을 알 수 있고, <제2수>와 <제3수>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수>에서 <제3수>까지의 시간의 흐름은 어긋난다.

11

<제2수>의 초장에서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제3수>에서는 대구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12

화자는 ‘설워흐느이다’와 같이 감정을 직접 표현하거나 증자같이 하겠다는 등 자신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3

<제1수>에서는 회궐고사를, <제2수>에서는 ‘왕상’, ‘맹종’과 ‘노래자’의 고사를 인용하여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4

‘조홍감’, ‘유자’, ‘이어’, ‘죽순’ 등 자연물은 여럿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15

‘설워흐느이다’, ‘더디 늘게 흐리이다’ 등 화자는 부모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16

절시에 놓인 빨강계 익은 감은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화자에게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환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17

<제2수>의 ‘일생에 양지성효를 증자긔치 흐리이다.’에서 화자는 평생에 효도함을 증자처럼 하겠다며, 증자를 따르고자 한다.

18

큰 솟덩이를 늘여 내서 지는 해를 잡아매는 것은 부모님이

늙는 것을 더디게 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이는 화자의 부모님에 대한 정성이 지극함을 드러낸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외가마기’는 효를 실천하려는 화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군봉’은 효를 실천한 위대한 사람들로 볼 수 있고, ‘군봉’과 ‘외가마기’가 어울린다는 내용은 화자 역시 위대한 사람들처럼 효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1-9. 단가 육장 (이신의)

집중 훈련 OX

본문 134-135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작품 읽기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담아낸 6장의 연시조로, 광해군 때 작가가 인목 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로 유배되어 5년간의 유배 생활을 할 때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자연물에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장: 장부로서 할 일
- 2장: 난리 이후의 상황과 인제 복귀에 대한 소망
- 3장: 귀양살이를 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
- 4장: 귀양살이로 인한 시름
- 5장: 귀양살이의 외로움
- 6장: 임금을 향한 충정

주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효제충신의 마음

중심 시어 및 시구

- 효제충신: 장부로서 해야 할 일로, 어버이에 대한 효도, 형제 간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벗 사이의 믿음을 가리킴.
- 남산: 조정을 가리킴.
- 술이 어드려 가단 말고.: 화자를 포함한 충신들이 숙청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 난 후 부근이 그대로록 놀날시고.: 임진왜란 이후 또는 인목 대비 폐위 사건 이후, 귀양 가고 처벌 받는 상황을 ‘부근’에 비유함.
- 우로: 비와 이슬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혜택이 다시 올 날을 기대함.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으로, 화자 자신을 가리킴.

- 제비: 객관적 상관물로, <3장>의 제비는 귀양살이를 하는 화자와 대조되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4장>의 제비는 화자처럼 시름을 털어 내고 있으므로 화자의 쓸쓸한 정서가 투영되는 존재
- 명월: 화자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벗
- 매화: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
- 호접: 임금을 상징함.
- 호접이 이 향기 알면 애 쓴출가 호노라: 임금이 귀양살이하면 서도 임금을 생각하는 화자의 마음을 알면 마음 아파할 것이라는 뜻

특징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자연물을 통해 귀양살이의 고달픔을 드러냄.

01

‘사업’은 화자가 대장부로서 해야 할 일을 가리킨다. 중장의 ‘효제충신 밧긔 훗을 니리 쯔 인는가’를 통해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유교 덕목인 어버이에 대한 효, 형제간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 벗 사이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2

<2장>의 초장에서 ‘남산의 만탄 술이 어드려 가단 말고.’라며 현재 ‘술’이 부재하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종장에서 ‘우로 곳 기푸면 다시 볼가 호노라’라며 ‘우로(비와 이슬)’가 깊어지는 조건에서 ‘술’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03

<2장>에서 화자는 ‘난후 부근이 그대도록 놀넨시고’라며, 난이 일어난 이후 당대 현실을 부근(도끼)이 술을 베고 다니는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화자는 스스로를 ‘적객’으로 지칭하고 있다. ‘적객’은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화자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3장>에서 ‘제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나, 화자는 ‘적객(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있다. 즉 <3장>의 ‘제비’는 화자와 대조되어, 화자에게 서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니다.

06

<4장>에서 화자는 ‘제비’를 벗으로 여기며, 자신의 시름이 ‘제비’보다 많다고 표현함으로써 적객으로서의 외로움과 근심을 토로하고 있다.

07

<5장>의 ‘인간의 유정흔 버스 명월 밧긔 쯔 인는가.’에서 인간과 대비하여 변함없는 벗이 되어 주는 ‘명월’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명월’은 귀양살이를 하는 화자에게 반가움을 불러일으켜 위안이 되는 존재라고 볼 수는 있으나, 화자의 시름을 털어 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8

‘호접’은 매화의 향기를 알려주기를 바라는 존재이지, 매화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다. 한편 ‘설월’은 추운 겨울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매화가 눈 속에 섞여 시들고 있으므로,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9

<1장>에서 화자가 자신의 도리를 밝히고 있으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2장>에서는 ‘우로 곳 기푸면’ 술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나, <6장>에서는 매화의 향기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드러낼 뿐이다.

10

<2장>은 난이 일어난 후 ‘부근’으로 인해 ‘술’이 없어진 상황이며, <3장>~<6장>은 화자가 귀양살이를 하는 상황이다. 즉 <2장>은 화자가 난이 일어난 후 ‘부근’(간신)에 의해 배적당하여 유배를 오게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11

화자는 스스로를 ‘적객’이라고 칭하며, 귀양살이를 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두고 자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1장>에서 ‘인도의 훗을 니리 다몬 인가 호노라.’라며 자신이 할 일을 장부의 일로 여기고 있다.

12

<1장>과 <5장>의 ‘쯔 인는가’, <2장>의 ‘어드려 가단 말고’ 등에서 의문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13

<3장>의 ‘더 제비 비비를 보고’에서 ‘제비’의 움직임은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비와 대조되는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14

초월적 존재는 <5장>의 ‘명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월’을 보고 화자는 반가움을 느끼고 있을 뿐,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5

<6장>의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기는 하나, 다른 장에서 계절적 배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16

<2장>의 ‘술’과 <6장>의 ‘매화’는 <보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로 활용되고 있다. 화자는 ‘술’과 ‘매화’를 통해 자신의 지조와 절개, 충정을 밝히고 있다.

17

<보기>를 통해 작가가 정치적 사건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맥락에서 <2장>의 ‘두어라 우로 곳 기 푸면 다시 볼가 흐노라’는 작가가 정계에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기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장>에서 ‘호접’이 매화의 향기를 알기를 바라는 것 역시 임금이 화자의 충성심을 알아달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

<보기>를 통해 인목 대비의 폐위 사건으로 인해 어지러운 정치 상황이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맥락에서 <2장>을 볼 때, ‘남산’은 정계, ‘술’은 충신, ‘난’은 인목 대비 폐위 사건, ‘부근’은 간신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장>은 우의적으로 당대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0. 매화사 (안민영)

집중 훈련 OX

본문 136~138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작품 읽기 조선 말기 전문 가객으로 유명했던 작가 안민영이 스승인 박효관의 운산 산방을 찾아 함께 풍류를 즐기다가 마침 핀 매화를 보고 지어 불렀다는 연시조이다. 매화와 화자를 둘러싼 분위기가 운치 있게 그려져 있는 가운데, 노과 추위를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의 모습을 통해 선비가 지향해야 할 덕목인 지조와 절개를 발견하고 이를 예찬하고 있다.

중심 내용

- 제1수: 매화와 함께하는 풍류
- 제2수: 매화의 지조에 대한 경탄
- 제3수: 매화의 아름다움과 절개
- 제4수: 매화와 함께하는 취락
- 제5수: 매화와 달의 조화
- 제6수: 매화의 굳은 지조와 강인함
- 제7수: 늙은 매화나무의 굳은 의지
- 제8수: 철쭉, 두견화와 대비되는 매화의 독보적 속성

주제 매화의 지조와 절개 예찬

주요 시어 및 시구

- 어리고 성긴 매화: 매화의 연약한 모습, 꽃을 피우리라고 예상하지 못함.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성질이라는 뜻으로, 매화의 맑고 깨끗함을 강조함.
-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매화의 우아함과 동시에 곳곳한 절개를 예찬함.
- 돌: 달빛이 매화와 어우러져 매화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함.
- 바람, 눈, 찬 기운: 매화가 꽃을 피우는 것, 봄이 오는 것을 막는 시련을 상징함.
- 척촉, 두견화: 아직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꽃들. 매화와 대비되는 존재
- 백설 양춘: 흰 눈이 남아 있는 초봄. 이때 꽃을 피우는 매화의 절개를 예찬함.

특징

- 매화를 의인화하여 예찬함.
- 영탄과 설의적 표현으로 주제를 강조함.

01

<제1수>에서는 백발의 노인 두세 명이 거문고를 타고 노

래를 하며 풍류를 즐기는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2

<제1수>에서 ‘매영이 부드친 창에 옥인금차 비겨신저’라고 하였는데, 이는 매화 그림자가 비치는 창에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는 경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03

화자는 매화를 감상하며 고조된 흥취를 함께 즐기기 위해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고 있다.

04

<제2수>의 ‘어리고 성권 매화 너를 맞지 아녜더니’에서 화자가 처음에는 매화가 꽃을 피우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내 매화가 꽃을 피운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며, 매화의 굳은 절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05

‘황혼월’을 기다리는 주체는 화자가 아닌 ‘매화’이며, ‘황혼월’은 매화와 어우러져 매화의 우아함을 부각하는 소재이지, 매화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

06

<제2수>에서 화자는 눈 기약을 지켜 두세 송이 핀 매화를 대견해하며, ‘스랑’하고 있으며, <제3수>에서는 ‘빙자옥질 이어’,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호노라’라며 매화의 아름다움과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07

<제4수>의 화자는 눈 속에 핀 매화를 ‘너’라고 부르고, 매화의 그림자와 향기를 완상하며 술에 취해 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매화에 친밀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8

<제5수>의 종장에서 ‘합리의 즈든 꽃치 향기 노아 맞는고 야.’라며 화자는 매화가 향기를 내는 것이 ‘황혼의 돈는 들’을 맞이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매화와 달이 서로 어우러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09

‘브람’과 ‘눈’은 찬 기운을 보내 매화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

이지만, 매화의 봄 뜻, 즉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10

<제7수>에서 ‘광딴등걸’이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 봄 뜻을 알리는 것을 볼 때, ‘광딴등걸’은 오래된 매화나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딴등걸’에서 매화가 피어난다는 점을 통해 부정적 존재로 볼 수는 없으며, 봄 뜻 역시 알릴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11

눈 속에 피는 꽃은 매화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겨울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척촉(철쭉)’과 ‘두견화(진달래)’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12

화자는 단지 매화를 완상하고 있을 뿐, 화자가 매화처럼 시련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다.

13

<제2수>에서 ‘두세 송이 뿔엿고나.’, <제3수>에서 ‘눈 속에 네로고나.’, <제4수>에서 ‘네 과연 뿔엿고나.’ 등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매화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14

매화를 감상하는 즐거움이 주된 정조를 이루고 있으며, 애상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15

매화를 ‘너’라고 부르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매화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낸다.

16

매화 그림자가 비친 창, 매화의 향기, 거문고와 노래 소리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7

매화의 지조와 절개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이어지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8

‘벼람’은 매화를 얻게 하려는 존재이고, ‘백설’은 매화가 꽃을 피우기 어렵게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벼람’과 ‘백설’은 매화의 생명력을 해치려는 존재로 볼 수 있다.

19

‘거문고와 노래’는 자연물로서의 매화를 감상하며 느끼는 풍류를 담고 있고, ‘아치고절’은 매화에 규범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2-1. 누항사 (박인로)

집중 훈련 

본문 139-143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㉓ × ㉔ ○
 ㉕ ○ ㉖ ○ ㉗ ○ ㉘ × ㉙ ×

작품 읽기 작가가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에, 이덕형이 찾아와 누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문자에 대한 답으로 지은 작품이다. 누항에서 겪는 궁핍한 현실과 선비로서 추구해야 할 삶 사이의 갈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중심 내용

- 서사: 빈곤한 상황에서도 안빈 일념의 의지를 다지는 화자
- 본사 1: 임진왜란에 대한 화자의 회상
- 본사 2: 전쟁이 끝나자 직접 농사를 지으려는 화자
- 본사 3: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가는 화자
- 본사 4: 소를 빌리지 못하고 수모를 겪은 화자의 좌절감
- 본사 5: 아박한 세상에 대한 화자의 한탄
- 결사 1: 자연을 벗삼아 절로 늙기를 소망함.
- 결사 2: 빈이무원과 안분지족의 삶을 향한 열망

주제 누항에 묻혀 추구하는 빈이무원의 삶

주요 시어 및 시구

- 기한: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움.
- 일단심: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이르는 말
- 일노 장수노 노주분을 이겼거든: 전쟁 이후에 신분 제도가 붕괴되어 주인과 종의 경계가 사라진 상황
- 궁경 가색: 스스로 농사를 짓게 된 처지
- 수기차: 수평
- 삼해주: 정월 셋째 해일(亥日)에 빛은 좋은 술
- 풍채 저근 형용에 기 즈칠 뿐이로다: 소 빌리는 데 실패하고 돌아오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함.
- 소뉘: 날이 잘 선 쟁기이지만 쓸모가 없다는 점에서 화자의 처지와 유사함.
- 구복이 위루하야 어지버 이저싸다: 먹고사는 일이 급해 꿈을 잊고 살.
- 닌 빈천 ~ 치다 나아오랴: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님.
- 인간 어니 ~ 밧긔 삼겨시라: 자신의 운명에 따라 삶이 결정될 것이라는 낙천적이고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
- 단사표음을 이도 족히 너기로랴: 안분지족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 온포: 배부르고 따뜻한 생활. 단사표음과 대조되는 가치
- 충효, 화형제, 신봉우: 가족, 벗, 군신 간의 유교적 가치

특징

- 대화체와 일상 언어의 사용으로 전쟁 이후의 궁핍한 삶을 사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 농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와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사용됨.
- 조선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의 과도기적 모습을 지니고 있어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

①

[가]의 ‘주머니 뷔엿거든’, ‘빈곤한 인생’ 등을 통해 화자가 가난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절신하단 일단심을 이질느가’라며 일편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선비로서의 지조와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5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고 하였고, 배고픔과 추위로 괴로워도 충성심을 잊지 않았다고 하였다.

③

<본사 1>에서 화자가 5년 동안 전쟁에 참가했음을 알 수 있고, <본사 2>의 ‘일신이 여가 잇사 일가를 도라보랴.’를 통해 화자가 가정을 돌보지 못한 까닭이 전쟁에 참가했기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다.

04

‘궁경 가색이 너 분인 줄 알리로다.’에서 화자는 종이 아닌 자신이 직접 농사짓는 것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며 받아들이고 있다.

05

화자는 ‘어니 쇼로 갈로손고.’라며 소가 없는 처지를 한탄하며, 소를 빌리러 갈 때 ‘염치 업산 너옴노라.’고 말하며 궁색한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으로서의 서러움이 드러나고 있다.

06

소를 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소 주인을 찾아갔다고 볼 수는 있으나, 화자가 소 주인을 도와줬던 경험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서는 화자가 눈에 물을 대다가 소를 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과 이로 인해 소를 빌릴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소 주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다.

07

<본사 4>의 ‘쇼 업슨 궁가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에서 화자는 소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간접적으로 내비칠 뿐, 친분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08

소 주인은 어제밤의 ‘거넛집 저 사람’은 ‘목 불근 수기치’와 ‘삼해주’를 주었다고 말하며, 그 사람에게 소를 빌려주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화자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09

<본사 4>에서 이웃집 주인은 건넛집 사람에게 소를 빌려주기로 했다고 돌려대며 화자에게 소를 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화자는 궁핍한 처지이나 이웃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10

화자가 전란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직접 농사를 짓고, 농사에 필요한 소가 없어 이웃에게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사 갈래는 시조와 달리, 서사성을 갖는다.

11

[라]에서 소 주인과 화자의 사실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12

‘병이라 담겨시랴’, ‘일단심을 이질는가’, ‘일가를 도라보랴.’ 등에서 화자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나 의지적인 태도를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13

[다]에서 ‘신야 경수 농상 경웅’, 곧 중국 은나라의 이윤과 진나라의 진승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끌어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4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에 술이 담겼겠냐며 인과적으로 내용을 연결하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대구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여유 없는 화자의 궁핍한 생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5

헌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설피설피’ 물러 나오는 모습은 실망감에 젖은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뿐,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6

‘고여 춘급’은 봄이 왔다는 알림을 의미하는데, 이는 화자에게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할 때임을 알리는 소식이다.

17

소를 빌리러 갔다가 무안만 당하고 돌아오는 화자를 향해 짓는 개는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18

[마]에서 화자는 ‘와실(작고 누추한 집으로 화자가 머무는 공간)’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또한 ‘소뿔’은 농사를 짓는 도구인 쟁기를 의미하는데, 날이 좋은 쟁기는 오히려 소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19

‘농가’는 소를 빌리지 못한 화자가 듣는 것으로, 화자에게

는 ‘흥’ 없이 들릴 뿐이다. 즉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화자의 서글픈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지, 화자에게 위안을 주고 있지는 않다.

20

[마]에서는 봄같이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드러나며, 끝내 ‘후리쳐 더더 두자’라며 춘경을 포기하고 있다. 이후 [바]에서 강호의 꿈을 생각하며 현실의 좌절감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21

[바]에서 화자는 현실을 잊고, 자연에 묻혀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님직 업스 풍월강산에 절로 절로 늘그리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22

[사]에서 화자는 ‘이시면 죽이오 업시면 굴물망정’이라며, 죽을 겨우 먹고사는 처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죽’은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23

‘넋 빈천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 남의 부귀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 인간 어찌 일이 명 밧긔 삼겨시리.’에서 가난과 부귀는 모두 운명에 달렸다는 인식과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24

가난하지만 남을 원망하지 않는 ‘빈이무원’은 화자가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모습과 연결되면서 화가의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25

‘단사표음’은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에 만족한다고 하였고, 평생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온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6

[마]~[아]에서 화자는 유학자로서의 당위와 궁핍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나,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며 장부(유학자)의 뜻을 잃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27

[마]~[아]에서는 화자의 내적 독백을 통해 화자의 가난한 처지와 유학자로서의 삶을 택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앞에 제시된 [라]에서는 대화체의 구성이 나타난다.

28

화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농사를 그만두고 자연으로 들어가 살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세상과의 단절을 꾀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된 부분에서는 고사를 인용하지도 않았다.

29

화자는 가난한 현실에 좌절하지만, 자연에서 늙어가겠다는 안분지족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아]에서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을 삼아 / 화형제 신봉우’ 하겠다며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을 뿐, 신분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2. 연행가 (홍순학)

집중 훈련 OX

본문 144~147쪽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 ⑥ 6 ×
 ⑦ 7 ○ ⑧ 8 × ⑨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작품 읽기 총 3,800여구로 된 장편 기행 가사로, 사신단의 일행으로 중국(청나라)을 다녀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압록강을 건너기까지 고국의 산천을 정감 있게 묘사했고, 강을 건너 이후에는 청나라의 문물과 경치를 뛰어난 관찰력으로 그려 내었다. 작품 전체의 여정은 '한양 → 평양 → 의주 → 압록강 도강 → 온정평 → 봉황성 → 연경(돌아오는 순서는 역순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 내용

- [가]: 송객정에서의 전별 잔치
- [나]: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로 갈.
- [다]: 만주에서의 여정과 감회
- [라]: 봉황성의 검문
- [마]~[자]: 봉황성 호인들의 모습과 의복

주제 청나라 연경을 다녀오면서 접한 청나라인들의 생활 문화

주요 시어 및 시구

- 상소별곡: 임을 그리워하나 만나지 못함을 슬퍼하는 노래. 떠나 보내는 이의 마음을 담은 노래로, 당시에 많이 불렸음을 알 수 있음.
- 평일의 이측하여 ~ 이위정이 어려우며: 화자는 부모를 오래 떠나 본 일이 없어 걱정과 불안이 큼.
- 앓가 보든 ~ 아니 본다: 고국을 멀리 떠나왔음을 알 수 있음.
- 적막한 식소리는 처처의 구슬푸고: 화자의 구슬픈 심정을 담은 표현으로 '식'은 객관적 상관물
- 봉황성장 나와 ~ 신칙 엄절하다: 경계가 철저하고 엄숙함을 보여 줌.
- 의복기 괴려하여 처음 보기 놀납도다: 처음 보는 광경에 대한 감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특징

- 시간과 여정에 따른 추보식 구성을 보임.
- 이국(異國)의 문물과 풍속, 인물 등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이 돋보임.
-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함.
- 비유법, 대구법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함.

01

[가]에서 화자는 '방물을 정검하고 횡장을 슈습하여'라며 긴 여정을 위해 가지고 갈 물건과 여행 장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행과 함께 송별연에 참여하여 나라를 떠나는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02

화자가 '사신'으로 떠나는 점에서 화자의 신분인, 임금에게 보고하는 글인 '장계'를 올린다는 점에서 사행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

03

화자는 '빅운은 요요하고 광식이 참담하다.'라며 '빅운'을 멀리 아득하게 느끼고, '광식'을 참담하게 느끼고 있다. 이는 모두 고국을 떠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표현이며, '광식'은 화자가 감정을 이입한 자연물이다.

04

[나]의 '비치 못홀 이니 마음 오날이 무슨 날고(비하지 못할 이내 마음 오늘이 무슨 날인가?)'와 '하고 약흔 기질 말 이 형역 걱정일세.(히약하고 약한 기질에 만 리 여행길이 걱정일세.)'에서 여정을 시작하는 화자의 불안감과 염려가 드러나고 있다.

05

[다]에서 화자는 인적이 없고, 위험한 산을 지나며 범과 표범의 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낯선 땅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염려가 드러날 뿐, 고국을 그리워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가]는 뱃길에 오르기 전의 상황이며, [나]는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 인적이 드문 지역에 도착한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만첩 산중 울밀흔 슈목', '깁흔 골', '힘흔 산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타국의 넓고 험한 산을 건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나]에서는 '광식이 참담하다.'라며 '광식'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참담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식소리니 처처의 구슬푸고'라며 세에 감정을 이입하여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08

'전벽 토인 흐직하니 일산 좌견써만 있고 / 공형 급창 물너서니 마두 셔즈써이로다.', '인가도 아니 살고 전답도 엇다

호되’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이나 화자의 두려운 심리를 드러낼 뿐, 기대와 포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9

화자와 일행이 고국을 떠나기 전에 송별연에서 불러 준 노래이므로, 이별의 내용을 담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노래에는 화자가 아니라 화자의 일행을 떠나보내는 이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0

화자가 압록강 경계를 넘어가며 우리나라를 계속 돌아보는 행동을 통해, 고국을 떠나는 화자의 걱정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11

[가]는 조선을 떠나는 과정을, [나]는 압록강을 건너는 과정을, [다]는 강을 건넌 후 도착한 낯선 땅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다]는 조선을 출발하여 청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보여 주고 있다.

12

[라]에서 국경을 통과할 때 ‘이마를 점검하며 / 차례로 드러오니 범문 신칙 엄절하다.’라며 경계가 엄격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청나라와 조선의 우호적인 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13

[마]에는 청나라 여염집과 호인들의 의복과 외양에 대한 묘사가 드러날 뿐, 평민과 귀족들의 생활 수준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14

[마]의 ‘의복기 괴려하여 처음 보기 놀납도다.’에서 호인들의 낯선 의복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15

[바]에서는 호인들의 저고리와 바지, 두루마기, 덧저고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사]에서는 호인들이 주머니에 부시까지 꺼서 들고 뒷짐을 지는 버릇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6

[아]와 [자]는 모두 청나라 여성들의 의복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계집년들 볼만하다’라며 청나라 여성들의 머리 모양과 장식, 얼굴, 의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의 ‘의복을 볼작시면 사나히 제도로되’는 청나라 여성들이 조선의 남성과 같이 바지를 입는 모습을 언급한 것이다.

17

사실적 묘사를 통해 청나라의 풍물, 세태를 그리고 있으나, ‘거문빔 저구리’, ‘아청 바지 반물 속갯’, ‘청 두루마기’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18

[마]에서 화자가 ‘처음 보기 놀납도다.’라며 호인들의 의복을 낮설어하고 있으며, [사]에서 ‘무어시라 인사하나 호 마되도 모르겟다.’라며 호인들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19

이빨을 ‘황금’으로 표현하며(은유), ‘손톱은 다섯 치라.’라며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호인들의 기괴한 외양을 조롱하고 있다.

20

[마]에서 청나라 사람들의 이와 손톱을 보며, 양치질을 한번도 안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자]에서 청나라의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자]는 청나라 여성들의 의복과 장식품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21

<보기>에서 이 작품은 모두 3,800여 구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사는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기행 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3-1. 조용전 (작자 미상)

집중 훈련 OX

본문 148~151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작품 읽기 조선 후기에 쓰인 대표적인 영웅 군담 소설로, 조용이 간신 이두병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통을 다시 세우는 영웅적 활약상을 일대기의 형식으로 그려 내고 있다. 전반부는 조용의 고행담과 결연담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조용의 영웅적 무용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과 민중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등장인물

- 조용(조 원수):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을 지닌 영웅. 아버지인 좌승상 조정인이 간신 이두병의 모함으로 죽은 뒤 이두병을 피해 도망 다니다 도사에게 병법과 무술을 배움. 그 뒤 서번을 격파하고 태자를 구출하며, 이두병을 처단함.
- 이두병: 간신으로, 조용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게 만들고 태자를 유배 보내고 스스로 황위에 오름. 사자를 보내 태자를 없애려 하나 조용에게 처벌받음.

주제 진충보국(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음.)을 위한 영웅의 활약상과 군신 간의 충의

특징

- 한시의 사용이 두드러짐.
-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드러남.



①

조용의 어머니 ‘왕 부인’은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크게 놀라 실색하’고 있으며, “마땅히 죽으리로다.”라며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또한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가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 나면 죽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주야로 통곡하고 있다.

②

“이두병은 우리의 원수요,”라고 어머니께 말한 것처럼 조용은 이두병과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이두병이 황제에 올라 태자를 유배 보낸 일에 대해 조용은 ‘마음이 아득하고 분

기탕천’하다고 하며, 분노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백성들이 거리에서 부른 노래([A])를 보면, 이두병이 황제가 된 지금을 ‘난세(전쟁이나 무질서한 정치 따위로 어지러워 살기 힘든 세상)’로 표현하고, 하늘에서 소슬히 내리는 비를 ‘충신 원루’나 ‘소란스럽게 구는 사람의 하소연’으로 표현하여 슬픔을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기대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④

‘이두병을 만나서 사생을 결단하고 싶으나 힘이 모자랄뿐더러, 문 안에 군사가 많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용이 이두병과의 대결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조용이 진시황의 이야기를 끌어들이 글을 쓴 이유는, 현재는 비록 힘이 없어 보여도 결국 왕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활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잡시의 권력에 취한 이두병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자 한 것이다.

⑥

이두병은 몹시 흥하고 참혹한 꿈을 꾸 뒤, 조용이 쓴 글을 보게 된다. 그제야 이두병은 조용 모자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고, 이후에 조용 모자가 도망한 것을 알게 되므로, 꿈의 계시를 통해 조용 모자가 자신 몰래 도망간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⑦

이두병은 황제에 오를 만큼 권력을 잡고 있고, 조용은 나이가 어린 상황이다. 이두병이 조용의 영웅적 면모를 알아챈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두병이 조용 모자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간신이라고 한 조용의 글을 보고 크게 노했기 때문이지, 조용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⑧

‘국파 군망하니 무부 지자 나시도다.’를 통해 앞서 벌어진 일을 요약하고 있으며, ‘난세로다’와 ‘슬프구나 백성들아’ 등에서 백성들이 이두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9

‘전조 충신’이라는 말에는 전대의 황제에게 충성하지만, 현재의 황제인 이두병에게는 충성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0

고전 소설의 내용은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 ‘이때’와 ㉡ ‘이날 밤’은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을 드러내어 서사의 단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1

조웅은 간신 이두병이 황제에 오르자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므로, 외부의 불의한 세력(이두병)에 의해 고통받는 인물로 볼 수 있다.

12

조웅은 아직 나이 팔 세의 어린아이로, 영웅으로 성장하기 전이며, 이두병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아직 영웅의 면모는 드러나지 않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는 장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

조웅은 이두병을 욕하는 글을 경화문에 크게 쓰고, 그 내용에도 ‘이 글은 전조 충신 조웅이 삼가 쓰노라.’와 같이 자신이 쓴 글임을 밝히는 등 이두병에 대한 적개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14

고전 소설은 선과 악의 대립 구도가 선명한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 작품도 선한 인물 조웅과 악한 인물 이두병의 대립과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5

‘푸른 하늘이 부르짖는 듯하고 태양도 빛을 잃은 듯하더라.’에서 서술자는 자연물인 하늘과 태양에 감정을 투영하여, 이두병이 황제로 등극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

‘황성 삼십 리를 겹겹이 싸고 곳곳을 뒤져 본들 벌써 삼천리 밖에 있는 조웅을 어찌 잡으리오.’를 통해 서술자는 사건에 개입하여 조웅을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17

‘분기를 참지 못하더라.’,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한지라.’, ‘크게 노하여’ 등과 같이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18

주로 서술자의 진술로 진행된다고 하면 사건 전개는 빠를 것이다. 제시된 부분은 조웅과 어머니의 대화, 황제와 신하들의 대화와 서술자의 진술이 모두 나타나므로 서사 전개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고 있다.

19

제시된 부분에는 조웅이 천상계의 인물이라든지, 천상계의 계시를 받는다는지 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참고로 「조웅전」은 대다수의 영웅 소설과 달리,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조를 설정하지 않았다.

20

조웅은 이두병에게 맞설 만한 힘이 없고, 이두병을 피해 도망 다니는 처지이므로, 제시된 부분은 조력자를 만나기 전에 고난을 겪는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1

이두병은 어린 태자를 내쫓고 자신이 황제가 되었고, 조웅은 이두병에게 힘으로 맞설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소대성전 (작자 미상)

집중 훈련 OX

본문 152-155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작품 읽기 이 작품은 「홍길동전」과 「유충렬전」을 잇는 교량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홍길동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성이 나타나며, 주인공 소대성이 일반적인 영웅과 달리 잠자기만 일삼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소대성의 일대기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다.

등장인물

- 소대성: 동해 용왕의 아들로, 지상에 적당하여 소양의 아들로 태어남.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승상마저 떠난 뒤 위기를 극복하고 영웅의 활약을 펼친.
- 왕 부인: 신분과 처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대성과 딸의 혼사를 반대함.
- 이 승상의 아들들: 왕 부인을 따라 소대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소대성을 죽이고자 함.

주제 고난을 극복하고 지위를 회복한 영웅의 활약상

특징

- 영웅 군담 소설의 모티프를 수용하되 부분적으로 변용함.
- 소대성과 자객의 싸움 장면에서 전기적 요소를 활용함.

①

소생은 ‘승상이 세상을 버리시니, 뉘 대성을 알리오?’라며 승상이 죽은 것과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 승상이 소생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소생은 승상이 죽자 서책을 전폐하고, 의관을 폐하고 잠자기만 일삼는 등 실의에 빠져 의욕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왕 부인은 소생에 대해 “본래 빌어먹는 걸인을 승상이 취중에 망령되이 허하신 바라.”라고 말하며 내치고자 하고, 아들들도 “욕될까 하나이다.”라며 소생 때문에 가문의 체면이 깎일 것을 염려하고 있다.

④

왕 부인은 “여아의 혼사를 거절하고자 하니, 너희들의 소견은 어떠하뇨?”라며 소생과 딸의 혼사를 물리려 하고 있다.

⑤

소생은 이생 등을 보내고 난 뒤 “주인이 객을 싫어하니, 장차 어디로 향하리오?”라면서 그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지만, 왕 부인과 그 아들들이 자객을 보내 해하려는 사실은 점괘를 통해 알아챘다고 볼 수 있다.

⑥

조영은 소생을 처치하는 일을 ‘어렵지 않은 일’이라 하고, 자신의 재주가 십 년을 공부한 것이라서 귀신도 헤아리지 못한다고 자신하지만, 소생과의 결투에서 죽음을 맞는다.

⑦

“무지한 필부야. 금은을 받고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에서 소생은 금은에 매수되어 자신을 해치려는 조영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⑧

“이제 저들을 베어 분한 마음을 풀고자 하나 그렇게 한즉 어진 사람의 후사를 끊어지게 할지라. 아직은 피하리라.”에서 소생은 이 승상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 후사인 아들들을 살려 두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혼약을 한 여인 때문이 아니다.

⑨

소생은 이별사에서 주인, 곧 이 승상의 은혜를 생각하면 태산이 가볍고, 하해(강과 바다)가 얕다고 표현하면서 이 승상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후손이 불초함이며, 원수를 맺었도다.’에서 이 승상의 아들들을 ‘원수’로 표현함으로써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10

이생 등은 소생의 ‘어느 날에 대성의 그림자가 이 집에 다시 이르리오.’라는 시구를 보고, 소생에게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한 일에 대한 후환이 있으리라 예상하며 낙담하고 있다. 왕 부인은 소생을 내보내는 목적을 이룬 것을 기뻐하고 있지만,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A]에서는 항우의 무술이 뛰어났지만 장양의 통소 소리에 항우의 군사들이 흩어졌고, 결국 오강에서 항우가 싸움에 패해 자결했음을 언급하며, 자신을 죽이려 한 조영도 죽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영이 깨닫고 순순히 돌아가기를 경고하는 것이다.

12

[B]에서 소생은 이 승상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생이 글을 보고 뉘우친 것은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

13

‘이때’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데, ㉠는 소생을 죽이려고 모해하는 시간을, ㉡는 소생이 집을 떠난 이후의 시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소생이 머무는 방(㉠)과 서당 밖(㉡)이라는 공간의 변화도 드러내고 있다.

14

왕 부인과 그 아들들은 소생을 무시하고, 혼사를 물리려 하고, 자객을 보내 소생을 죽이려 하는 등 소생에게 고통을 주는 인물들이다.

15

작품 전편에서는 물론이고, 제시된 부분에서도 선악의 대결 구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소생이 선한 인물이며, 왕 부인과 그 아들들은 악한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16

소생이 둔갑술을 써서 몸을 감추고 조영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부분에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생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17

소생이 분한 마음이 들지만 왕 부인과 그 아들들을 살려두는 것은, 이 승상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다. 소생의 영웅적 면모와 관련짓기는 어렵다.

18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른다면, 제시된 부분은 주인공이 이 승상의 도움으로 양육을 받은 뒤 다시 고통받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생이 집을 떠난 이후

에는 나라를 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영웅의 활약을 펼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9

작품 전체를 고려할 때, 소생이 동해 용왕의 아들로 적강했다는 점에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가 드러나지만, 제시된 부분에서는 이원적 구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천상계의 대립 구도가 지상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

소생은 빌어먹는 걸인이었고, 양반답지 않은 행동을 했던 인물이지만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일반 백성들의 욕망이 투영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왕 부인은 신분이나 겉모습 등으로만 소생을 판단하여 딸과의 혼사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의 비판 의식이 반영된 인물로 볼 수 있다.

4. 구운몽 (김만중)

집중 훈련 OX

본문 156~159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작품 읽기 이 작품은 꿈속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한 뒤에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거치는 환몽 구조로 이루어진 몽자류 소설의 효시이다. 주인공 '성진'이 불도에 정진하기까지의 과정과 꿈속에서의 삶에는 불교, 도교, 유교의 사상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인생무상, 삶의 덧없음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등장인물

- 성진: 육관 대사의 제자로, 불교에 회의를 느끼나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
- 소유: 꿈속에서의 성진. 8명의 여인과 인연을 맺고, 임신양명하여 출세한 뒤 인생무상을 느낌.
- 팔선녀: 성진과 더불어 말을 주고받으며 세속 정욕을 느끼다가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

- 진채봉(진 여사의 딸), 계섬월(기생), 정경패(정 사도의 딸), 가춘운(정경패의 시비), 적경홍(하북의 기생), 난양 공주(황제의 누이), 심요연(자객), 백능파(용왕의 딸): 꿈속에서의 팔선녀로, 양소유와 인연을 맺어 그의 처첩이 됨.
- 육관 대사: 성진을 꿈에서 깨우고, 불도를 깨닫게 함.

주제 인생무상의 자각을 통한 허무의 극복과 불교예의 귀의

특징

- 꿈과 현실의 이중적인 환몽 구조를 액자 소설 형식으로 구현함.
-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반영됨.

01

성진이 꿈을 통해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 극락세계로 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02

호승은 곧 육관 대사로, 양소유는 갑자기 나타난 호승이 석장으로 석난간을 두드리자 꿈에서 깨어나 현실의 성진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호승이 양소유가 스스로 성진이었음을 깨닫도록 징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성진은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신고?”라며 꿈속에서는 호승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지만, 꿈에서 깬 후에는 ‘제자가 불초하여~’라며 그가 육관 대사임을 깨닫는다.

04

팔선녀가 대사를 찾아와 “제자들이 비록 위 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배운 것이 없어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였는데,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위 부인에게 하직하고 불문에 돌아왔사오니 사부의 밝은 가르침을 바라나이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성진과 동일하게 세속 정욕을 바라다가 꿈을 꾸고 깨어나 불도에 정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05

[A]에서는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 살았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6

[A]에서는 양소유의 행적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양소유가 어린 나이에 급제하여 서번을 토벌하는 등 영웅의 활약을 펼쳤음을 드러내고 있다.

07

육관 대사는 장주의 나비 이야기를 통해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우쳐 주는 것이지, 성진에게 성진으로서 삶을 살지, 소유의 삶을 살지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08

[B]에서 대사는 장주의 나비 이야기를 통해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니 현실과 꿈,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장자의 사상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생은 만물의 변화상에 불과하므로,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09

㉠에서 호승이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드리므로써 성진(소유)이 꿈에서 깨어나고 있다. 이를 신비로운 분위기로 제시하고 있다.

10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에서 성진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동안 시간이 지나 한밤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꿈속 경험이 단 하룻밤의 꿈이었음을 드러내어, 인생무상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11

㉡은 외양 묘사를 통해 현실로 돌아온 성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성진이 호승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12

㉢은 성진이 꿈을 통해 부귀와 욕망이 덧없음을 깨달았음을 드러내며, 이는 작품의 주제 의식인 인생무상의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

13

성진은 육관 대사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 불도에 정진하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육관 대사를 통해 성진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14

양소유는 호승이 누구인지 끝까지 알지 못한 채 꿈에서 깨

어나 성진으로 돌아오며, ‘이 필연 사부가 ~ 알게 함이다.’에서 성진이 홀로 육관 대사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가 밝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이 작품은 인생무상의 자각과 불교예의의 귀의를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불교적 깨달음을 주제 의식으로 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권선징악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16

성진이 꿈을 꾸었다가 깨어나는 과정을 통해 속세에 대한 욕망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있으므로,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17

호승이 도술로 성진을 꿈에서 깨어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18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제시된 부분에서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 않다.

19

성진이 양소유로서 산 삶은 꿈속 사건이므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

적강 모티프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인물의 삶을 그리는 것으로,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에서 적강 모티프를 활용하여 성진의 서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대화를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 서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서사의 진행이 느리다고 할 수 있다.

22

제목 ‘구운몽’은 작품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아홉 명의 인물이 구름(인생무상) 같은 꿈을 꾸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성진과 팔선녀, 아홉 사람이 꾸는 꿈을 의미하며 인생무상을 자각하는 주제 의식과 관련된다.

5. 사씨남정기 (김만중)

집중 훈련 OX

본문 160~163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작품 읽기 조선 시대의 가부장적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룬 가정 소설의 대표 작품이다. 선과 악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처첩 간의 갈등을 통해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의 교훈을 담고 있다. 한편 집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속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정비로 삼은 것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한다.

등장인물

- 사 씨(사 부인): 유 한림의 부인. 전형적인 현모양처로, 성품이 곧고 착한 인물의 전형
- 교녀(교 씨): 유 한림의 첩. 사 씨를 몰아내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끝내 죽임을 당하는 악한 인물의 전형
- 유 상서(유연수): 가부장적 사회에서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 본성은 착하나 교 씨의 흉계에 넘어가 귀양을 가게 되고, 훗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삶.

주제 처첩 간의 갈등, 권선징악과 사필귀정

특징

- 등장인물이 역사적 상징성을 지님.
- 유, 불, 도교가 상호 결합되어 나타남.
- 대화를 통한 사건 전개가 잦음.

①1

교녀는 유 상서의 꾀에 넘어가 제 발로 유 상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스스로 파 놓은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니다.

②2

교녀는 ‘내 비록 의식의 부족함이 없으나 나이 점점 많아 가니 어찌 종신토록 의탁할 곳을 생각지 아니하리오.’라고 생각하며 매파가 전한 혼담을 흔쾌히 허락하고 있다.

③3

유 상서는 친척을 모으고 축하 인사를 나누며, 교녀를 벌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지는 않다.

④4

사 씨가 임 씨를 불러 두 부인에게 뵈오게 하나, 두 부인은 “비록 어질지라도 불관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과거 교녀와의 경험 때문에 임 씨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05

유 상서가 부인(사 씨)에게 “길에서 명창을 얻어 왔사오니 한번 구경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사 씨는 교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06

“천첩의 잔명을 보존케 하옵소서.”라고 교녀가 간청하자, 사 씨는 “네가 나를 해하려 함은 죽을 죄 아니나 상공에게 득죄함을 내 어찌 구하리오.”라며 유 상서에게 지은 죄를 들어 교녀의 처벌에 동의하고 있다.

07

[A]에서는 교녀가 저지른 악행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악행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점차 큰 죄로 변해 갔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A]에서 유 상서는 교녀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벌어졌던 일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며, 사 씨와 유 상서가 겪은 고통이 드러나고 있다.

09

㉠은 교녀에게 정실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여 교녀를 유 상서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꾸며 낸 말로, 이는 유 상서가 미리 매파에게 일러둔 말이라 짐작할 수 있다.

10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을 호칭할 때, 성과 벼슬(관직)을 함께 부르거나 벼슬만 부르는 등 표현을 달리한다. ‘유 상서, 시랑, 상공, 유 한림’은 모두 동일 인물이며, 상서와 시랑, 한림은 관직명이다.

11

교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선한 인물로 변하여 잘못을 참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녀가 개과천선했거나 성격이 변했다고 볼 수 없다. 교녀는 악한 인물로 끝내 처벌받는다라는 점에서 평면적 인물로 볼 수 있다.

12

[A]에서 알 수 있듯이, 교녀가 첩으로 들어와 사 씨를 참소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고, 제시된 부분에서 교녀가 처벌받고 있으므로, 사건이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선한 인물인 사 씨와 악한 인물인 교녀의 대결 구도를 통해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사 씨는 교녀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끝내 교녀가 처벌받음으로써 갈등이 해결된다.

14

제시된 부분은 작품 말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선한 인물인 사 씨가 돌아오고 악한 인물인 교녀가 죽음으로써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15

제시된 부분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대목은 찾을 수 없다.

16

유 상서가 매파를 통해 교녀를 숙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교녀가 크게 놀라 목숨을 애걸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17

<보기>에서 이 작품에는 ‘당대인들의 보편적 기대 지평에 일치되는 결말이 드러’난다고 하였으므로, 당대인들은 결말인 사 씨의 원상 복귀와 교녀의 처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18

<보기>에 제시된 창작 배경을 고려할 때, 유 상서는 숙종을, 사 씨는 인현 왕후를, 교녀는 희빈 장 씨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서 유 상서가 교녀를 잘못 들어 고통을 겪는다는 설정은, 희빈 장 씨를 중전으로 맞아들인 숙종의 잘못을 풍자한 것이며, 인현 왕후를 옹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1. 운영전 (작자 미상)

집중 훈련 OX

본문 164~167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작품 읽기 조선 시대 신분적 제약을 지닌 궁녀 운영과 김 진사의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내용이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 액자식 소설의 형식을 보이는 점과 당대의 현실적 제약 문제를 비껴 가면서도 고전 소설에서 특이하게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등장인물

- 운영: 안평 대군의 궁녀로, 시를 잘 지음. 궁 안의 삶에서 벗어나 김 진사와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함.
- 김 진사: 글솜씨가 뛰어난 선비로, 운영과 우연히 만나 사랑하느 사이가 됨.

주제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특징

- 봉건적 애정관을 탈피한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 줌.
- 고전 소설 중 유일한 비극 소설임.
- 액자 소설의 형식을 취함.

①

자란은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가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운영을 위로하고,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②

김 진사가 처음 안평 대군을 방문하였을 때는 ‘우리와 상면을 하였으나, 대군은 진사님의 나이가 어리고 착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피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대군이 처음부터 김 진사와 운영의 만남을 경계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대군은 김 진사가 시 짓기를 사양하자, 금련으로 노래하게 하고, 부용으로 거문고를 타게 하는 등 김 진사가 시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시녀들은 김 진사의 시에 감탄한 것일 뿐, 운영과 김 진사

의 사랑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대군은 김 진사가 지은 시를 읊으며 “진실로 천하의 기재로다. 어찌 서로 만나기가 늦었던고.”라며 김 진사와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김 진사도 “외람히도 대감께 사랑을 받고”라고 하였으므로, 대군이 김 진사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대군이 김 진사의 얼굴이 파리해진 까닭을 묻자, 김 진사는 “질병이 몸을 얹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후 운영의 편지를 손에서 놓지 않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탄식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김 진사는 운영에 대한 상사로 병을 앓았음을 알 수 있다.

⑦

“진사는 근심하는 마음이 없을진대, 못가를 거닐면서 시를 읊노라고 파리해졌는가?”를 통해 대군은 김 진사의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군이 김 진사와 운영의 관계를 의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김 진사는 운영에게 편지를 받은 뒤 ‘바로 답서를 닦아 가지고 부치고자 하나 청조가 없어 홀로 근심하고 탄식’하다가 무녀를 찾아가 답서를 전하고 있다. 답서의 내용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운영에 대한 사랑을 단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⑨

무녀가 김 진사의 부탁을 받고 운영에게 편지를 전해 주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랑에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0

‘피꼬리 울음소리에 옷깃을 적시네.’에서 화자의 슬픈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피꼬리를 끌어들여 운영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김 진사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1

운영은 궁녀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궁 밖으로 나가 김 진사를 만나거나 사랑을 나누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12

대군의 궁을 경계로 하여 궁 안에 있는 운영과 궁 밖에 있는 김 진사가 만남을 이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 제약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운영과 김 진사가 대군과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악의 대결 구도도 드러나 있지 않다.

14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려는 운영과 김 진사를 통해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15

운영(‘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므로, 운영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과 자신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김 진사의 상황과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 않거나 추측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16

‘저에게 묻기를’, ‘~라고 하더이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이 과거에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을 유영에게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7

운영은 궁녀라는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김 진사와 사랑을 나누고 있으므로, 기존 질서(신분)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8

<보기>에서 몽유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나 겪은 일을 듣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제시문은 내부 이야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시된 부분에는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6-2. 속향전 (적자 미상)

진중 훈련 

본문 168~171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작품 읽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정을 성취한다는 내용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애정 소설이다. 천상계의 남녀가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웅 소설의 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등장인물

- 속향: 주인공이자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 지상에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됨.
- 이선: 천상계에서 내려온 인물로, 속향과 혼인함.
- 김전(태수): 속향의 아버지이자 원님. 전생에 봉래산의 선관이었음.
- 장 씨: 속향의 어머니. 전생에 봉래산의 선녀였음.

주제 고난을 극복한 사랑의 성취

특징

-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움.
- 속향의 삶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취함.
-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을 설정함.

①

선이 속향과 혼인하게 된 경위를 고모에게 알리자, ‘고모가 크게 반기고 기뻐’했다고 했으므로, 선의 고모는 선과 속향의 혼인에 대해 선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선의 고모가 꿈을 통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선과 속향을 하늘이 맺어 준 인연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선은 “저는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다른 여자와는 혼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당대 유교적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속향과만 혼인할 것이라는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선의 고모는 빈천한 신분인 속향을 선의 부모가 반대하리라 예상하고, “네가 벼슬하면 두 아내를 둘 것이요, 또 네

부친이 서울에 가고 없으니 혼사는 내가 주장하고, 둘째 아내는 네 부친의 뜻에 맡기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선과 선의 부모가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05

선의 고모는 숙향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선이 보여 준 화상(그림)을 본 것이다. 한편 선의 고모가 선에게 ‘신부가 병신이라더니 어머냐고 물었’다고 했으므로, 숙향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6

‘장 승상 님의 영춘당에서 사향의 울음과 함께 저녁까지 울어서 뜻밖의 봉변을 당하였더니’를 통해 숙향이 이전에도까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고초를 겪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7

“넌들 어찌 이 상서의 분부를 거역하라.”, “무죄한 여자를 치려 하니 그런 성싶으되”를 통해 낙양 태수는 이 상서의 명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장 씨가 꿈속에서 숙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낙양 태수가 잡아간 여성이 자신의 딸 숙향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

09

낙양 태수는 부인 장 씨가 “무자식한 우리가 어찌 또 죄 없는 사람에게 적악을 하겠어요.”라고 말하자 숙향을 죽이지 않고 우선 옥에 가두어 형을 미루고 있을 뿐이므로, 숙향이 자신의 딸임을 알아챘다고는 볼 수 없다.

10

낙양 옥중에 갇힌 숙향은 ‘남편 선에게 자기가 죽는 줄이야 알도록 기별하려고 하였으나’ 소식을 전할 길 없어 답답해하던 차에 우연히 파랑새가 들어와 옥중에 갇힌 사연을 적어 보낼 수 있게 된다. 단지 숙향은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알리고자 했을 뿐, 결백을 알리고자 한 것은 아니며 숙향이 선에게 결백을 밝혀야 하는 일도 없다.

11

[A]에서는 숙향이 다섯 살 때에 부모를 잃고 이화정의 노파와 살게 된 처지와 함께, 신분 차이로 인한 부모의 혼사 반대라는 갈등의 원인도 드러내고 있다.

12

㉠을 통해 고모는 숙향이 선녀가 말한 여자임을 알고, 선과의 결혼을 기뻐하고 있으므로, ㉠은 숙향의 자부(머느리)로서의 입지를 굳게 한다. 한편 ㉡을 통해 숙향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은 숙향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한다.

13

선이 고모에게 ‘전생이 월궁소아라는 선녀로서 인간의 이름은 숙향이라는 소녀와 혼인’한다고 했으므로, 숙향이 천상계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숙향은 지상계에서 옥중에 갇히는 등 온갖 고초를 겪고 있다.

14

이 상서는 낙양 태수에게 숙향을 잡아다 죽이라는 엄명을 내렸으므로, 숙향에게 고통을 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과 숙향의 혼인을 반대하여 형벌을 내리는 것이므로, 이 상서는 선, 숙향과 대립적 구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15

장 씨의 꿈에 딸 숙향이 나타나 아버지인 태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태수 부부와 숙향이 혈육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16

제시된 부분에서 배경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가 드러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중략 이후의 ‘원앙새가 푸른 나무숲에 놓고 비취가 연리지에 깃들임과 같아서’는 배경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선과 숙향의 금실이 다정했음을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다.

17

숙향이 겪는 고난은 신분 차이로 인한 혼사 장애이므로 현실적 요소로 인한 것이고, 꿈이나 파랑새의 도움과 같은 비현실적 요소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7. 이춘풍전 (작자 미상)

집중 훈련 OX

본문 172~175쪽

- ① × ② O ③ × ④ × ⑤ O ⑥ ×
 ⑦ × ⑧ O ⑨ × ⑩ O ⑪ O ⑫ ×
 ⑬ × ⑭ × ⑮ O ⑯ × ⑰ × ⑱ ×
 ⑲ × ⑳ O ㉑ O

작품 읽기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춘풍을 통해 조선 후기의 양반과 가부장제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과 달리 지혜롭고 생활력 강한 춘풍의 처를 통해 여성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등장인물

- 이춘풍: 허세와 위선에 찬 인물. 술과 여자를 좋아하여 가산을 탕진하나 후에 개과천선함.
- 김 씨(춘풍의 처): 생활력이 강하며 지혜로운 인물. 남편 대신 집안을 일으키며 남편의 허물을 바로잡음.
- 추월: 평양의 기생. 물질을 중시하며 사람을 돈으로 여김.

주제 방탕한 남성에 대한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상 제시

특징

- 조선 후기의 물질 중심적 세대를 반영하고 있음.
- 서민 문학으로서 당시의 사회상과 양반, 남성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①

춘풍이 자발적으로 수기를 쓰고 있으며, 수기에 ‘후회막급’이라고 밝히며 이후 집안의 일을 김 씨에게 맡기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춘풍이 수기를 쓴 것은 거짓으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아내 덕에 세간이 넉넉해짐 마음의 다시 교만해진 것이다.

②

춘풍은 수기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 버렸음을 인정하였고, 이후로 아내의 치산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행실로 인해 자신에게 있던 집안의 경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김 씨는 “내 어찌 가장을 걸어 송사를 할쏜가.”라며 집안과 가장을 존중하고자 춘풍과의 송사를 거부한 것이지, 생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송사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④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박물군자인 체하고 평양으로 장사 가려 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춘풍은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갈 때 교만하고 허랑된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갔다고 볼 수 있다.

⑤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변화 사치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 반개하고 고운 노래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제 세워 두고 벗긴다는데”에서 김 씨는 춘풍이 기생에게 빠져 호조에서 빌린 돈을 탕진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김 씨는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가려는 춘풍을 만류하며, 수기대로 의식을 자신에게 맡기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춘풍은 평양으로 떠나고 만다. 즉 춘풍이 김 씨의 만류를 듣지 않은 것이지, 김 씨가 춘풍의 말에 설득된 것이 아니다.

⑦

춘풍은 비장이 김 씨인 줄 모르고 추월과 놀다가 돈을 날린 일을 사실대로 고하고 있으므로, 인정에 호소하거나 비장을 속이려 하고 있지는 않다.

⑧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일로 춘풍이 매를 맞고 있으며, 그 돈을 받은 일로 추월도 매를 맞고 있다.

⑨

춘풍이 추월에게 돈을 모두 잃고 비장에게 매를 맞기는 하지만, 이는 춘풍이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춘풍이 고통받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소설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부당하게 고통을 겪는 경우에 해당한다.

⑩

춘풍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의 재산을 주색잡기로 탕진해 버리고, 아내인 김 씨가 집안 살림을 꾸려 가고 있으므로, 무능한 가장으로 볼 수 있다.

⑪

아내가 있는 춘풍이 기생 추월에게 빠진 점에서 춘풍은

부도덕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2

가장인 춘풍이 남장을 한 아내(김 씨)에게 매를 맞고 꾸짖음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춘풍을 희화화하고 있다. 그러나 춘풍이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의 비판, 조롱의 대상이지, 연민의 대상은 아니다.

13

김 씨가 비장이 되어 춘풍에게 찾아간다는 점에서, 김 씨를 진취적인 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장을 한 점, 나뭇돈을 갖고 가장을 구하기 위해 비장이 된 점 등은 당대의 세계관을 따르고 있는 것이므로, 세상의 편견에 맞서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평양으로 장사를 갈 때 춘풍과 김 씨가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김 씨는 궁극적으로 춘풍을 도와 그가 개과천선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춘풍과 김 씨의 대립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사회의 실상을 보여 주면서 허세가 가득한 인물을 풍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5

김 씨가 비장이 되어 춘풍에게 형벌을 내린 것은 호조에서 벌린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남편에게 벌을 줌으로써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이다.

16

김 씨가 추월을 잡아들인 이유는 남편을 풍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남편의 돈이자 호조에서 벌린 돈을 도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이다.

17

김 씨는 춘풍이 가산을 탕진했을 때나, 평양에 가서 돈을 모두 잃었을 때에도 자신이 직접 문제에 뛰어들어 해결하고 있다.

18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9

여성의 능력이 본질적으로 남성에 뒤지지 않음을 보여 주고는 있지만, 김 씨가 남장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제약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0

조선 후기에는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춘풍이 빚까지 내어 장사에 나서는 모습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A]에서는 김 씨가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며 가산을 늘리는 행동들을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는 장면의 극대화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8-1. 춘향전 (작자 미상)

집중 훈련 OX

본문 176~179쪽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 ⑥ 6 ×
⑦ 7 × ⑧ 8 ○ ⑨ 9 ○ ⑩ 10 × ⑪ 11 ○ ⑫ 12 ○
⑬ 13 ○ ⑭ 14 ○ ⑮ 15 × ⑯ 16 ○ ⑰ 17 × ⑱ 18 ○
⑲ 19 ○

작품 읽기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게 소설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가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인 이몽룡과의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신분을 제약하는 사회와의 갈등을 담고 있다. 한편 춘향과 변 사또의 갈등에서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 의식과 유교적 여인의 정절 의식이 드러나며, 이몽룡(어사또)과 변 사또(본관)의 갈등에서는 권선징악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불의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 등의 주제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작품이다.

등장인물

- 어사또(이몽룡): 철없는 양반집 도령에서 점차 성숙한 인물이 되어 감. 암행어사가 되어 변 사또를 벌하고 춘향을 구해 냄.
- 본관(변학도): 남원에 새로 부임한 사또. 탐욕스럽고 어리석으며 여색을 밝히는 부패한 지방 관리
- 운봉: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가 걸인 이몽룡을 잔치에 함께하게 하고, 시를 짓게 하는 등 배려해 주는 인물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불의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 /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인간 해방

특징

- 운문체와 산문체, 서민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혼합되어 있음.
- ‘행복 - 불행 - 행복’의 구조로 서사가 전개됨.
- 표면적 주제(여성의 굳은 정절)와 이면적 주제(신분 제약을 극복한 인간 해방)의 이중성을 지님.

01

근읍 수령이 모여들고, 큰 소를 잡고, 기생들이 춤을 추는 등 본관(변학도)의 생일잔치를 화려하게 묘사함으로써 이후에 벌어질 일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02

어사또는 본관의 생일잔치를 보고 마음이 심란하였으나, “먼 데 있는 걸인이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주호 좀 얻어 먹자고 여쭙어라.”라며 의도적으로 본관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고 있다. 이는 뒷부분에서 어사또가 미리 부하들을 잔치 자리 곳곳에 대기시켜 놓은 점에서도 드러난다.

03

운봉은 쫓겨나는 어사또를 보고, 본관에게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냈어 어떠하뇨?”라며 어사또를 내쫓지 말라고 완곡하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관의 눈에 들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04

본관은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이라며 마지못해 운봉의 의견을 따라 어사또의 참석을 허락하고 있다.

05

한시 짓기를 제안한 것은 운봉이며, 어사또는 한시를 지을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은 것이다.

06

운봉은 어사또가 쓴 시를 본 뒤에야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눈치채지만, 어사또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시켜 이것저것 단속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07

본관은 술에 취해 춘향을 급히 올리라고 한 것이다. 이때

는 암행어사가 출두하기 전이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춘향을 올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

08

[A]는 본관의 생일잔치에 쓰인 술과 안주가 백성의 피와 기름이었음을 비유로 제시함으로써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하여 사치를 누리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사또와 본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09

[B]에서는 열거와 반복을 통해 어사또와 부하들이 본관을 벌하는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판소리 소설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10

[C]에서는 어사가 출두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비극성이 아닌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11

㉠에서는 걸인이라고 문전박대하는 본관의 태도를 ‘명관(정치를 잘하여 이름이 난 관리)’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탐관오리인 본관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2

㉡에서는 운봉의 갈비뼈를 가리키며 음식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라고 하며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고, ㉢에서는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와 같이 어구의 순서를 바꾸는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말장난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3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극에 개입하여 목소리를 내는 서술자의 개입이 자주 드러난다. ㉣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 ‘마는’ 소리 훑입맛이 사납것다.’, ㉥ ‘어찌 아니 통분하랴’, ㉦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것다.’, ㉧ ‘외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엎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뿐만 아니라 ‘등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인가.’ 등에서도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14

어사또와 본관이 선악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어사출두로 악한 자를 벌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5

어사또인 이몽룡이 악한 세력인 본관을 징벌하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이몽룡은 어사출두라는 현실적인 힘으로 본관을 징벌하는 것이지, 초인적인 영웅의 힘을 발휘한 것은 아니다.

16

제시된 부분은 어사출두를 경계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어사출두 이전 사건은 본관의 호화로운 생일잔치가 열리고, 어사또가 백성이 흘렸을 피눈물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사출두 이전 사건은 어사출두의 명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7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므로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8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19

어사또(이몽룡)의 어사출두는 본관(변 사또)에게 잡혀 있는 춘향이 풀려날 계기이자,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기>를 통해 이러한 장면에는 당대 민중들의 지배층을 향한 저항 심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8-2. 흥부전 (작자 미상)

집중 훈련 OX

본문 180~183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작품 읽기 판소리 사설이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착하지만 무능한 흥부와 악하지만 물질적 부를 이룬 놀부의 대조를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 서민 사회의 부농과 소작의 기회마저 얻지 못한 영세 농민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기도 하다. 서민 문학의 발달함과 재미는 물론, 당시 유교적 질서가 흔들리고 물질 중심의 세계가 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등장인물

- 흥부: 농촌 빈민. 선량하고 정직하며 신의가 있지만, 현실 대처 능력이 없음.
- 놀부: 흥부의 형. 심술궂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부유하지만 이기적임.
- 흥부 아내: 선량하나 현실 인식이 빠르고 흥부보다 생활력이 강함.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특징

- 표면적인 주제(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와 이면적인 주제(조선 후기 농촌의 빈부 갈등)를 지님.
- 서술자의 개입이 잦음.
- 해학적, 풍자적인 표현이 자주 나타남.

흥부	놀부
• 어질고 정직함. • 무능력하고 소극적임.	• 악하고 비도덕적임. • 탐욕스럽고 심술궂음.

← 갈등 →

①

흥부가 지은 집은 ‘드러누워 기지개 켜면 발은 마당으로 가고, 대고리는 뒤걸음으로 맹자 아래 대문하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등 매우 작고 허름하다. 또한 흥부가 “어린 자식 젖 달라 하고 자란 자식 밥 달라니 차마 설워 못 살겠네.”라며 우는 소리를 통해 흥부의 궁핍한 처지를 비극적으로 그리지 않고,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내 팔자 무슨 일로 말만한 오막집에 ~ 차마 설워 못 살겠네.”에서 흥부는 가난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03

홍부 가족이 ‘책력을 보아 갑자일이면 한 때씩 먹’는다는 가, ‘새양쥐가 쌀알을 얻으려고 밤낮 보름을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뿔’이 섰다는 등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홍부 가족이 몹시 곤궁한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지, 홍부 가족이 가난한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 맙소. 안자 단표 주린 염치 삼십 조사하였고, 백이숙제 주린 염치 청루 소녀 웃었으니,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 번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읍소.”에서 홍부 아내는 가난한데 청렴을 지키려다 화를 입은 처지와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여 홍부에게 놀부의 집에 가서 식량을 얻어 오라고 독려하고 있다.

05

놀부는 자신에게 쌀과 벼가 많이 있어도 홍부에게는 주지 못하며, 동물들에게 먹일지라도 홍부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의 처지가 홍부보다 더 어려워서가 아니라, 홍부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홍부의 청을 거절하고 있다.

06

홍부는 놀부가 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몽둥이질을 하자, “방약무인 도척이도 이에서 성현이요, 무거불측 관속이도 이에서 군자로다.”라며 고사 속 도척과 관속을 놀부와 비교하며 놀부의 야속함을 비판하고 있다.

07

홍부 아내는 놀부에게 쌀을 얻으러 간 홍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너도 먹고 나도 먹자.”라고 말하고 있고, 세 끼를 굶어 누운 자식들도 홍부 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볼 때, 홍부 아내와 홍부 자식들은 홍부가 놀부에게서 쌀을 얻어 오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서술자는 ‘홍부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이라.’라며 홍부의 성품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홍부 아내는 “부질없는 청렴 맙소. ~ 아주번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읍소.”라며 홍부 가족이 몹시 가난한 처지이고, 성품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지만, 홍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09

홍부 아내는 홍부가 놀부에게 쌀을 얻어 오기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지만, 홍부는 형님인 놀부가 매를 때릴 것을 예상하고 있다. 즉 홍부는 상황이 개선되리라 본다고 할 수 없다. 한편 [A]는 홍부가 놀부를 찾아가 당할 일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10

홍부의 초라한 외양을 열거함으로써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

놀부가 동생 홍부에게 성을 내는 부분에서 놀부의 악독함을 드러내고 있고, 서술자는 놀부를 ‘놀부 놈’이라 부르는 것으로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12

놀부는 홍부에게 곡식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유사한 통사구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등 반복과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며 말하고 있다.

13

가난한 홍부가 집을 대충 짓는 모습을 묘사할 때, 서술자는 무능한 홍부를 ‘이놈’이라 지칭하며 그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14

홍부는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극악한 형 때문에 더욱 비참해지지만, 그 고통의 원인이 시대적 횡포임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홍부가 시대에 맞서 저항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15

가난한 홍부와 부자 놀부가 곡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놀부에게 홍부가 매를 맞고 끝남으로써 홍부의 일방적인 패배를 보여 주고 있다.

16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만, ‘홍부 집 → 놀부 집 → 홍부 집’으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장면을 구분할 수 있다.

17

서술자는 작품 속에서 흥부와 놀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등 작품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18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놀부와 흥부의 극명한 처지 차이가 나타나며, 놀부가 흥부보다 돈을 중시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

고유어와 비속어는 물론 고사나 한문투의 표현이 두루 나타나 있다. 이는 평민과 양반이 함께 향유했던 판소리의 영향으로 창작된 소설이라는 특징을 보여 준다.

20

사실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다.

21

가난한 상황에서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독자들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게 된다.

9-1. 광문자전 (박지원)

집중 훈련 OX

본문 184~187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작품 읽기 재자가인형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던 기존의 고전 소설과 달리 비령뱅이 광문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인간형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인물 설정은 인간성을 긍정하고 남녀 귀천에 관계없이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표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등장인물

- 광문: 거지의 우두머리. 못생겼지만 착하고 신의가 있으며, 분수를 지키며 자유롭게 살.
- 집주인: 광문의 의로움을 보고 약방 부자에게 광문을 천거함.
- 약방 부자: 신중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
- 운삼: 유명한 기생. 신분보다 인간됨을 알아보고 이를 중시함.

주제 양반 사회에 대한 은근한 풍자, 신의 있고 허욕을 부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 주는 새로운 인간형 제시

특징

- 조선 후기 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함.
- 새롭고 가치 있는 근대적인 인물을 제시함.
- 사건의 나열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함.

①

광문은 병든 아이를 혼자서 보살피다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 아이가 불쌍하여 밥을 빌어 왔지만,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광문이 먹인 음식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거지들은 광문이 아이를 죽인 것으로 오해하고 광문을 두들겨 쫓아냈다.

②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라는 광문의 말을 통해, 집주인은 광문이 도적질을 하러 온 것으로 의심하여 광문을 잡아다 묶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 주었다.’를 통해, 광문의 말을 듣고 집주인이 의심을 풀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집주인이 약방 부자에게 광문을 천거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한 것은 드러나 있지만, 집주인이 광문을 천거하기 전에 약방 부자가 광문을 못마땅하게 여겼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다고 하였으므로, 광문은 약방 부자의 돈이 없어졌다는 것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볼 수 있다.

⑤

약방 부자는 광문을 의심했지만, 자신의 처조카가 돈을 가져갔었다는 사실을 알고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하며 사죄했다고 하였다.

⑥

광문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유명세를 얻은 것은, 광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약방 부자가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에게 두루 칭찬하였기 때문이다.

⑦

돈놀이하는 자들이 광문이 빚보증을 서면 천금이라도 내주는 것에서, 광문에 대한 신의가 두터움을 알 수 있다. 또한 광문이 집도 없이 생활하며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으므로, 오히려 광문은 가진 재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⑧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니 형은 달문이다.”라고 놀려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이들은 광문의 못생긴 외모와 부족한 말솜씨를 조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⑨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흘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고,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시늉’을 하면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싸움을 풀고 가 버렸다고 하였다. 이 일화에서 웃음을 통해 다툼을 무마시키는 광문의 지혜로움이 드러나고 있다.

10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마찬가지다.”에

서 남녀 평등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11

기녀 운심은 양반들의 재촉에도 춤을 추지 않다가, 광문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와 콧노래를 부르자 곧바로 춤을 춘다. 이를 통해 기녀 운심이 비록 겉모습은 비루해도 순수하고 자유로운 광문을 양반들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광문은 거지들에게 억울하게 맞거나, 도적으로 의심받는데 여러 외적 요소로 고통받고 있을 뿐, 광문이 내적 갈등을 겪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3

광문이 죽은 거지 아이의 시체를 짊어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통해 그의 인도주의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14

이 작품은 주인공인 광문의 성숙해지는 과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이미 갖춰진 그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에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15

집주인과 약방 부자는 광문을 의심했으나 광문의 진가를 알아보고 광문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식이 바뀌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6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한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참고로 이 작품은 한문으로 쓴 것을 풀어 제시한 것이므로,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17

광문의 일화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갈등의 생성과 해결을 중심으로 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성 단계를 따르지 않는다.

18

광문과 관련된 짧은 일화 여러 개를 나열하여 광문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19

광문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서 다소 희극적인 부분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한 것은 아니다.

20

광문은 거지의 우두머리로, 당대 사회에서 천민 신분임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신분이나 외양, 말투가 당대 사회에서 낮다고 평가받는 인물인 광문이 오히려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허위와 가식 없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밝혀, 명분이나 허례허식만 따지는 양반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위선적인 양반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9-2. 허생전 (박지원)

집중 훈련 OX

본문 188~191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작품 읽기 허생의 비범함과 영웅적 면모를 바탕으로, 당대 사회의 취약성과 양반 계층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허생은 작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허생은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 계책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작가는 집권 관료층이 명분과 예법에 얽매어 실질적인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당대의 정치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등장인물

- 허생: 가난한 선비이나 지략으로 큰돈을 벌.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을 지니고 있음.
- 변 씨: 상인. 허생의 뛰어난 지략을 알아보고 그에게 돈을 빌려주며, 허생과 이완의 만남을 주선함.
- 이완: 정승. 양반 지배 계층을 대변하며, 기존 제도에 얽매어 허생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못함.

주제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

특징

- 작가의 실학사상을 반영하고 있음.
- 평민 의식이 성장하는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음.
-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바탕으로 당대 사회를 풍자하고 있음.

①

변 씨가 허생에게 5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는지 묻자, 허생은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라며 물종을 독점하는 방법으로 큰돈을 벌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는 조선의 현실은 물종을 독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즉 조선의 현실은 경제 규모가 작고 취약하며, 물품이 서로 교환되지 않는 폐쇄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허생은 이러한 독점이 백성을 해칠 것이고,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조선의 현실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③

이완이 쓸 만한 인재가 있는지 변 씨에게 물어 허생을 찾아온 것이므로, 어진 인재를 구하기 위해 허생을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완이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이 세 가지 계책을 알려 주면서 이러한 계책을 통해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완이 국치를 씻기 위해 어진 인재를 구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허생이 이완에게 임금의 와룡 선생 같은 인재를 찾아가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완은 어렵다고 답한다. 이는 임금이 인재를 찾아가 고개를 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인재를 구하는 것보다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당대 지배층의 권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허생이 이완에게 조선에 망명해 온 명나라 장졸들에게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 권귀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⑥

허생이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어서라도 만주 정부의 실정을 정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예법보다 실질적 행동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만주 정부를 치기 위한 방법이므로, 허생의 주장에는 만주 정부에 대한 옹호가 아닌, 적개심이 깔려 있는 것이다.

07

허생은 당시의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함을 간파하여 물건을 독점함으로써 큰돈을 번 것이므로, 허생이 돈을 번 과정에 비현실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보기 어렵다.

08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에서 허생은 자신이 돈을 번 방법, 곧 물건을 독점하여 판매하는 것이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부정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참고로 허생은 과일과 말총을 매점하여 큰돈을 벌었는데, 과일과 말총은 양반들이 쓰는 물건이었다는 점에서 허생이 사용한 독점 방법은 백성의 삶을 해치지 않고 조선의 취약한 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9

[B]에서는 역사적 인물인 번오기가 복수를 하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과 무령왕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려고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사로운 체면이나 형식을 중시하는 당대 집권층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다.

10

변 씨는 허생과 이완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점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완은 대장의 벼슬을 하며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대 집권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1

허생이 사라지는 결말을 통해 독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추리할 수 있다. 허생의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허생이 사라짐으로써 그러한 계책이 계속 주장되지 않을 것이므로, 허생의 생각이 당시 조선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다.

12

이완과 같은 사대부 계층이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지만, 신분 제도와 관련지어 그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3

허생이 반어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허생은 자신의 주장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명나라에 대한 헛된 명분만 지니고 있는 사대부 계층을 비판하고 있다.

14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허생의 기이한 행동이 아니라, 허생은 계책을 내놓고, 이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

15

허생과 변 씨 사이에는 갈등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허생과 이완 사이의 갈등 구조를 통해 허위 의식에 찬 집권층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16

변 씨를 보조적 인물로 볼 수 있지만, 변 씨를 통해 갈등 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7

허생이 이완을 칼로 치려는 행동은 집권층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선을 이루고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 의식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18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중 인물은 서술자로 설정되지 않았다.

19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며 공간은 변 씨와 이완이 만난 장소에서 허생의 집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허생과 이완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므로, 서사가 급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

허생과 변 씨, 허생과 이완의 대화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어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21

인물의 성격은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을 뿐, 비유

적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다.

22

허생의 첫 번째 계책에서는 권위를 중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양반들을, 두 번째 계책에서는 명나라를 따라가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양반들의 허위를, 세 번째 계책에서는 청나라(만주 정부)를 치는 것보다 예법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2장. 현대 문학

1강-A

현대 시의 원리

원리 1 채움

본문 197쪽

01 ○ 02 × 03 ○ 04 × 05 ○

01~05 <보기>에서 「독을 차고」의 화자는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는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감상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화자의 가슴에 찬 ‘새로 뽑은 독’은 외부 세계 곧 일제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저항 의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허무한디!’는 벗이 화자에게 한 말로, 일제에 저항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함으로써 식민지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이리 승냥이’는 화자에게 앞뒤로 덤비는 대상으로, 화자가 독을 품게 된 원인인 식민지 현실로 볼 수 있다. ‘내맡긴 신세’는 화자가 찢기고 할퀴어지는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므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외로운 혼’은 화자가 마지막 날까지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므로, 식민지 현실로부터 지키고 싶은 화자의 내면적 가치, 즉 순수, 정의, 저항 정신으로 볼 수 있다.

원리 2 채움

본문 202~203쪽

01 B 02 B 03 B 04 A 05 A 06 B

01~03 화자는 ‘북쪽엔 /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라고 물으며 북쪽(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4연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현재 북쪽과 떨어진 곳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추운 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너’를 남기고 온 북쪽 작은 마을을 떠올리며(3연)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4연)이라고 표현하는 등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북쪽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린 작품이다.

한편 화자가 북쪽을 향하던 중인지는 알 수 없으며, ‘철길’, ‘화물차’는 힘겹고 고달픈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로 인해 고향이 피폐해졌음을 유추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04~06 시의 앞부분에서 화자는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젊은 여자’를 외롭고 쓸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후 화자는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늙은 의사’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피로감과 고통을 표출하지 않는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젊은 여자가 ‘금잔화 한 포기’를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화자는 희망을 발견하고, 그 여자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따라서 이 시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그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작 시기와 작가를 고려할 때,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서 지식인이 겪는 고통과 그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원리 3 채움

본문 207쪽

01 ○ 02 × 03 ○ 04 ○ 05 ○

01~05 화자가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상이 출발하고 있다. 이때 ‘어둠’은 ‘벌레 소리’를 환하게 만들어 주며,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하며, 작은 소리에 무관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다. 또한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눈과 귀를 채우느라 작은 소리를 간과했음을 반성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풀벌레 소리에 대한 인식 →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모습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단다’와 같은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원리 4 채움

본문 211쪽

01 아우성, 아사달 아사녀, 향그러운 흙 가슴
02 껌데기, 쇠불이

01~02 ‘알맹이’는 화자가 남기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창작 시기 등을 고려할 때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응되는 시어나 시구는 동학 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의미하는 ‘아우성’, 원시 본연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아사달 아사녀’,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순수한 마음인 ‘향그러운 흙 가슴’이다. 반면 ‘알맹이’와 대비되는 시어는, 화자가 버리고자 하는 것으로, 불의와 거짓, 군사

독재 등을 의미하는 ‘껌데기’, ‘쇠불이’이다.

원리 5 채움

본문 215~216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02 화자는 바람이 부는지 알 수 없는 날씨이지만, 높이 들린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모습을 보며 울고 있지는 않다.

05 2연의 ‘현실은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느니보다 빠개어 욕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겠거늘’에서, 현실은 나무를 땀감으로 삼아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물질적 가치’로서 나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13 10행의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 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는 계집아이의 요금을 내지인 가족이 대신 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16행의 내용은 화자가 계집아이의 모습을 보고 손등이 몹시 터질 만큼 내지인 가족의 집안일을 해 주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원리1 채움

본문 219쪽

01 ○ 02 ○ 03 ○ 04 × 05 ×

04 「징 소리」에서 ‘허칠복’은 도시로 나갔다가 아내 순덕이 도망가자 고향인 방울재로 돌아오지만, 방울재가 도시화되면서 마을에서 소외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허칠복’이 처한 부정적 사회 현실은 ‘도시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간 소외’라 볼 수 있다.

05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 ‘나’는 재혼을 하고 서울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중산층이다. ‘나’는 동창회에서 속물적으로 변한 경희를 만나고, 그녀와 일어 학원에 다니던 중 아내원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즉 ‘나’는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는 근대화된 현실에서 이전의 순수함을 잃은 것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가 처한 부정적 사회 현실은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인간성 왜곡’이라 볼 수 있다.

원리2 채움

본문 225쪽

01 × 02 ○ 03 ○ 04 ○ 05 ×

01~05 ‘나’와 장인님이 다투고 있으므로, 개인과 개인이 대립하는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이때 점순과 성례는 울리지 못하고 3년 7개월 동안 장인님 집에서 일만 하는 ‘나’를 중심인물로, ‘나’와 대립하는 장인님을 적대적 인물로 볼 수 있다. ‘나’는 점순과 성례 울리기를 원하지만, 장인님이 성례를 울려 주지 않아서 둘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략’ 이후에 ‘나’는 구장님을 개입시켜 점순과 성례를 울리려고 하지만, 장인님은 여전히 점순이 미쳐 자라지 못했다고 말한다. 끝내 장인님은 ‘나’의 갈비뼈를 치고, ‘나’는 장인님의 궁둥이를 때리며 다투는 것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원리3 채움

본문 229쪽

01 × 02 ○ 03 ○

01~03 형과 동생은 국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잡혀 북으로 이송되는 처지에 있다. 형은 북으로 가던 중 더 이상 견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고, 이를 지켜본 호송병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따라서 형은 고통받다가 죽음을 맞는 인물일 뿐, 부정적 상황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포로가 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형과 동생은 소리 내어 우는 것으로 절망과 슬픈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제목 ‘나상’은 끝내 죽음을 맞이한, 현실에 대해 가장 나약한 ‘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원리4 채움

본문 237쪽

01 A 02 B 03 A

01~03 서술자인 ‘나’가 중심인물인 ‘나’의 행동과 생각, 느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나’는 아내가 자신에게 아달린을 준 일과 아내와 손님의 관계를 보고 집을 나와 걸으며, 아내가 아달린을 준 일과 오해의 과정에 대한 의심과 반감을 느끼고 있다. 이때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나’는 ‘날개야 다시 돌아라. /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라며 과거의 무기력했던 삶과 결별하고,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리5 채움

본문 246~247쪽

01 A 02 B 03 A 04 A 05 A 06 B

01~03 ‘안 초시’가 땅 투기에 실패한 뒤 탄식하며, 때 묻은 적삼을 생각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나, ‘서 참의’가 안 초시가 죽었음을 깨닫는 부분 등을 통해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안 초시’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땅 투기를 하여 돈을 벌고자 했으나, 오히려 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물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중심인물을 패

배로 몰아간 당대의 배금주의적 세태와 식민지 근대화의 부정적 면모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안 초시’와 ‘서 참의’는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으며, 당대의 부유층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04~06 왕 서방과 복녀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품이다. 작가는 극빈한 삶을 살다가 왕 서방에게 질투심을 느껴 그를 죽이려 하는 복녀의 파멸 과정과, 복녀의 송장마저 교섭의 대상으로 삼는 왕 서방과 복녀 남편의 추악함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본문 251~252쪽

01 ㉠ 02 ㉡ 03 ㉢ 04 ㉣

01~04 이 작품은 광복 이후 한 생원이 ‘자기가 일인에게 팔아넘긴 땅이 꿈결같이도 도로 자기의 것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에 신기하고 희한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광복한 날인 팔월 십오일에 한 생원은 조선의 독립에 덤덤해하며, 가지가지의 성가신 공출이 없어지고, 손자가 징용에 뽑혀 나갈 염려가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한 생원은 손자 용길이 징용에 뽑히지 않게 하려고, 구장과 면의 노무계 직원과, 부락 담당 직원에게 온갖 아부를 하고 있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구한국 시절 한 생원네가 피와 땀이 어린 논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고을 원에게 빼앗겼음을 알 수 있다.

2강-A

일제 강점기

1-1. 교목 (이육사)

집중 훈련 OX

본문 254~25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작품 읽기 이육사는 강인하고 의지적인 어조로 독립을 노래한 저항 시인이다. 이 작품에서는 일제 강점하의 암담한 시대 현실에 굽히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교목’이라는 상징적 소재로 형상화하였다. ‘교목’은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곧 화자와 동일시되어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암담한 현실 속 개인적 영화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깨끗한 지조와 기상
- 2연: 후회 없이 신념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결연한 의지
- 3연: 외부적 시련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저항 의지

주제 불의한 현실에도 굽히지 않는 저항 의지

중심 시어 및 시구

- 교목: 부정적 현실에도 깨끗한 의지를 보여 주는 화자의 지조와 기상을 형상화함.
- 세월에 불타고: 일제 강점하의 시련과 고통
-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교목에게 ‘꽃’은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의미함. 일제 강점기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일제에 타협하는 것뿐이므로,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차라리’, ‘말아라’로 표현함.
- 넓은 거미집 휘두르고: 가혹한 현실 상황
- 끝없는 꿈길: 화자가 염원하는 자유와 광복
- 끝없는 꿈길에 ~ 뉘우침 아니라: 광복을 염원하는 설레는 마음은 뉘우침(후회함) 필요가 없는 마음이라는, 후회 없는 삶에 대한 화자의 결의를 보여 줌.
- 검은 그림자: 암담한 식민지 현실
- 바람: 시련, 외부적 유혹
-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냄. ‘못해라’라는 비문법적 표현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강조함.

특징

- 상징적 시어로 화자의 삶의 태도를 형상화함.
- 강인하고 의지적인 어조로 저항 의지를 드러냄.

01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우뚝 남아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푸른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시어이다.

02

교목에게 꽃은 일 년에 단 한 번 피는 것으로 잠시 동안이 나마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수단이다. 즉,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꽃마저 거부하는 것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포기하는 지사적 모습, 즉 나라를 위해 제 몸을 바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03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는 ‘바람’으로 형상화된 어떤 유혹과 고통도 자신을 흔들 수 없다는 의지적 표현으로, 초인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4

‘호수’를 죽음(물의 이미지)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는 현실의 억압 때문에 화자 자신의 의지를 지키지 못할 상황에 이르면 차라리 호수에 거꾸러져(하강 이미지) 죽음을 택하겠다는 화자의 단호하고 비장한 자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5

㉠ ‘꽃’은 교목이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영화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목은 이를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꽃’을 내적 의지를 다지는 매개체라고 볼 수 없다.

06

교목에게 ㉡ ‘낡은 거미집’은 고통을 주거나 성가신 존재이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고달픈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07

바람도 교목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에서 ㉢ ‘바람’은 부정적 세력의 유혹이나 탄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8

1연에서 ‘세월에 불타고’, 2연에서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3연에서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은 교목이 겪는 고통으로, 교목을 화자로 볼 때 이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09

‘푸른 하늘’은 교목이 꿈꾸는 것이고, ‘낡은 거미집’과 ‘검은 그림자’는 교목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이므로, 이들은 대비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0

이 작품에는 ‘그러나’, ‘그런데’ 등의 접속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시상이 전환되고 있지도 않다.

11

이 작품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를 다룬 것으로, 그리움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12

‘푸른 하늘’과 ‘검은 그림자’의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와 고통스러운 상황을 각각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우뚝’, ‘차라리’, ‘아예’ 등의 부사나,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 등의 부정 종결 어미를 통해 강인하고 의지적인 어조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으며,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각 연을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라는 부정어로 종결함으로써 화자의 강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화자가 표면에 등장한다는 것은 ‘나’ 또는 ‘우리’가 작품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표면에 화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16

‘푸른 하늘, 꽃, 거미집, 바람’ 등은 모두 화자의 지향, 개인적 영화, 부정적 존재 등을 상징하는 시어와 시구로,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7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굽히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작품의 창작 시기가 일제 강점기

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제하의 고통 속에서 꺾이지 않는 독립 의지를 드러내고자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

<보기>를 통해 이육사가 독립운동가로서의 태도를 작품으로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교목을 설레게 하는 ‘끝없는 꿈길’은 독립에 대한 꿈을 환기하는 것이다.

19

화자는 죽음 같은 극한적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교목과 같이 곧고 굽게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체화’란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데, 1연에서부터 화자는 이미 자신을 ‘교목’에 비추어 나타내고 있다. 즉, 화자는 ‘교목’의 모습에 자신을 이미 투영하고 있으므로, ‘교목’과 일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2. 수라 (백석)

집중 훈련 OX

본문 256~257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 읽기 1930년대 일제 강점하의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거미 가족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실제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백석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당시 비극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러움의 정서를 점층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다.

중심 내용

- 1연: 거미 새끼 하나를 무심코 문밖으로 쓸어 버림.
- 2연: 큰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며 서러워함.
- 3연: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가족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문밖으로 버리며 슬퍼함.

주제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비극과 회복에의 소망

중심 시어 및 시구

- 수라: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세계 중 하나로, 중생이 자신의 업보에 따라 여섯 세계를 윤회하게 되는데, 그중 한 세계를 가리킴.
- 차디찬 밤: 시간적 배경을 ‘밤’으로 설정하고,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비극적 사태를 암시함.
- 거미 새끼, 큰 거미, 무척 작은 새끼 거미: 화자는 세 마리의 거미를 가족으로 여기며,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서를 드러냄.
- 보드라운 종아: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배려

특징

-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됨.

01

1연에서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서 버린 것일 뿐, 이 행동에 어떤 의도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02

화자는 2연의 ‘큰 거미’를 1연의 ‘거미 새끼’의 어미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거미 가족이 헤어진 것에 대해 연민과 안타까움,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걱정이거나 근심 등에서 탈피하여 초월한 달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03

화자는 2연에서 ‘가슴이 짜릿한다’, ‘서러워한다’를 통해 ‘거미 새끼’와 ‘큰 거미’가 흩어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3연에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발견하자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라고 하며 더욱 심화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4

화자가 손을 내민 행위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거미에 대한 연민이 반영되어 있다.

05

1연과 2연에서 화자가 쓸어 버린 거미와 3연의 거미가 가족 관계라고 추측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화자의 서러움이 가족 해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6

1연의 ‘문밖’은 거미를 무심코 쓸어 버리는 공간에 불과하지만, 3연의 ‘문밖’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엄마와 누나나 형을 만나기를 바라는 공간으로, 공간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07

㉠에서 화자가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보드라운 종이에 고이 받는 행동을 통해 화자의 배려를 확인할 수 있다.

08

1연에서 거미 새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에서 시상이 출발하고 있다. 또한 ‘어니젠가 새끼 거미 끌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찢기도 전이다’를 통해 1연과 2연, 3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다.

09

1연의 ‘거미 새끼’가 나타나는 시간은 ‘차디찬 밤’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2연과 3연의 거미들이 나타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공간은 모두 동일하게 방바닥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0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메이는 듯하다’, ‘슬퍼한다’ 등의 서술어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과 서러움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11

화자는 각각 따로 나타난 거미 세 마리를 보며 가족이 흩어진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화자가 이러한 거미와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거미에게 느끼는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보아 화자가 거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1연에서 무심하던 화자는 2연에서 가슴이 짜릿함과 서러움을 느끼다가 3연에서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며 슬퍼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는 시상이 진행될수록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3연에서 화자는 흩어진 거미 가족이 서로 만났으면 하고 바랄 뿐, 가족애로 자신의 처지를 이겨 내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3연에서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무척 작은 새끼 거미와 만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을 통해 거미에 인격을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차디찬 밤’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거미 가족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16

영탄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아니라 연민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17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거미 가족을 통해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의 가족 해체라는 고통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18

<보기>에 따르면 ‘수라’는 혼란스러운 세계를 가리키므로, 거미 가족의 해체를 그린 이 작품의 제목이 ‘수라’인 것은 가족이 흩어지고 붕괴되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3. 고향 (현진건)

집중 훈련 OX

본문 258~261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작품 읽기 1920년대 일제의 수탈로 황폐화된 농촌의 모습과 수탈당하는 농민의 생활상을 고발한 작품으로, 당시 「조선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고향」으로 제목을 고쳐 단편집에 수록되었다. 서술자 '나'가 열차에서 만난 '그'에게서 들은 슬픈 사연을 통해 일제 강점기 농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민요는 당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등장인물

- 그: 외관상 말수가 많고 다소 천박해 보이는 인물로, 박해받는 식민지 농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줌. 초반부에는 현실을 수용하는 낙관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후반부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저항 의식을 미약하게나마 드러냄.
- 나: '그'와 우연히 같은 열차에서 동승하여 '그'를 관찰하고 '그'의 이야기를 전달함. 당대 지식인으로서 초반에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선의 현실을 재인식하고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
- 그 여자: '그'와 과거에 혼인 말이 있던 여인으로, 농촌의 황폐화로 인해 유곽에 팔려 감.

주제 일제의 수탈로 인한 민족의 비참한 현실 고발, 농촌의 몰락과 유랑민민의 비애

특징

- 서술자 '나'가 만난 주인공 '그'의 이야기가 액자식 구성으로 전달됨.
-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 '나'가 '그'에 관해 서술함.

①

땅의 소유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바뀌면서 그 전에 그럭저럭 살던 '그'의 가족의 형편이 급격히 몰락하게 되었다.

②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그’는 가족들과 서간도로 이주했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신의주, 안동현으로 가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별이를 찾아가 구주(규슈) 탄광, 대판(오사카) 철공장에서 일했다고 하였다.

④

‘그’는 고향으로 갔다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나’와 만나게 된 것이다. 또한 ‘그’가 스물여섯(구 년 전 열일곱 살)이라는 점에서, ‘그’가 말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그’는 타향살이를 하다가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정착을 위해 고향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그’는 예전의 모습이 사라진 고향에서 과거 정혼한 사이였던 여인을 다시 만나는데,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여인은 ‘그’와 마찬가지로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 ‘그’는 여인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가슴을 찢는 듯이 한숨을 쉬고 있으므로, 삶의 기구함을 더욱 느꼈으리라 볼 수 있다.

⑦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나’가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 물이 났다.’고 한 것을 통해 ‘나’가 ‘그’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⑧

‘그 여자’는 몸값 이십 원에 대구 유곽에 팔려 간 뒤 십 년을 두고 그 몸값을 갚았는데, 다 갚지 못하고 있다가 병이 들고 나이가 들자 주인이 놓아주었다고 하였다.

⑨

[A]에는 전토가 신작로로 변했다는 부분에서 농사지를 토지를 잃은 상황이, 말마디나 하는 친구가 감옥소로 갔다는 부분에서 일제의 사상과 자유 탄압이,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갔다는 부분에서 가난한 현실과 여성에 대한 수탈이라는 당대 현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나’는 ‘그’의 삶의 내력과 변해 버린 ‘그’의 고향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 '조선의 얼굴'은 일제 치하의 조선의 현실과 '그'의 어둡고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11

생계 때문에 서간도로 이주했다가 유랑민으로 살게 된 '그'나 가난 때문에 유곽에 팔려간 '그 여자'의 모습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주되게 드러나고 있다.

12

서술자 '나'는 관찰자로서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가 살아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 등을 전달하고 있다.

13

서술자 '나'는 '그'가 말한 삶의 여정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다.

14

서술자 '나'는 '굶주린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와 같이 '그'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한편, '나는 탄식하였다.',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와 같이 자신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15

서술자 '나'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의 삶의 과정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6

서술자 '나'가 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타나고 있다.

17

'그'가 과거에 겪은 이야기를 현재 시점에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역순행적 구성은 시점이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구성을 말한다.

18

'그'와 '나'의 대화를 통해 '그'의 사연이 차례로 밝혀지고 있다.

19

서술자 '나'가 '그'에게 들은 이야기를 '~ 것이었다.', '~ 되었던 것이다.'와 같이 요약적 진술로 제시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20

'그'의 가족이 일제의 수탈로 고향에서 살기 어려워져 서간도로 이주한 것이나, '그 여자'의 아버지가 여인을 이십 원을 받고 유곽에 판 것은 고향이 삶의 터전일 수 없었던 당대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1-4. 만무방 (김유정)

집중 훈련 OX

본문 262-26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작품 읽기 1930년대 일제의 수탈로 황폐화된 농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만무방'은 '염치없이 막돼먹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성실하고 모범적인 '응오'마저 만무방이 되고 마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등장인물

- 응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박과 절도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된 꿈을 꾸는 인물
- 응오: 진실하고 모범적인 소작농. 자신의 벼를 도적질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함.

주제 일제 강점기 농촌의 궁핍한 현실과 농민들의 왜곡된 삶

특징

- 토속적 표현을 통해 농촌 현실을 실감 나게 그려 냄.
- 외부 서술자에 의해 전개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함.
-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01

'지주'와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 응오를 찾아와 벼를 베라고 독촉하는 것에서 응오가 벼를 베지 않는 행동이 그들에게 골칫거리임을 알 수 있다.

02

지난해 타작마당에서 도지와 장리쌀, 색조를 제하고 빈지게로 돌아온 경험이 있던 응오는, 올해 흉작까지 더한

터라 벼를 베도 밋도 정리하지 못할 듯하자 의도적으로 벼를 베지 않은 것이다.

03

응칠은 지주를 만나 그를 설득하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자 지주의 뺨을 때렸다고 하였으므로, 응칠이 봉변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응칠은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지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에 잠복하여 벼 도둑을 잡으려고 한 것이다.

05

응칠이 잡은 벼 도둑이 응오인 상황에서 응오는 형 응칠을 원망하고, 응칠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뿐, 서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진실한 농군이었던 응오가 자신이 기른 벼를 훔친 것은 벼를 수확해도 고된 현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응칠이 자신이 잡은 벼 도둑이 응오라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것은 이러한 비참하고 슬픈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7

응칠은 벼를 도둑맞는 상황이 벌어지자 자신에게 그 혐의가 씌워질 것을 염려해 벼 도둑을 잡으러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08

응오는 지주나 김 참판에게 내뱉는 소리를 하거나, 응칠에게 잡힌 뒤 화를 내는 등 내면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과묵한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09

응칠이 응오를 위해 지주를 찾아간 것이나, 자신에게 대드는 응오를 때린 뒤 그를 업어 주는 모습에서 동생에 대한 응칠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10

응칠은 지주를 때리고, 황소를 훔칠 생각을 하고, 응오는

자신의 벼를 훔치는 등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만,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현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전형적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

표면적으로는 응오와, 응오에게 땅을 빌려준 지주와 장리를 놓은 김 참판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지만, 이는 결국 응오로 대표되는 소작인과 그러한 소작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회와의 갈등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내부의 인물이 아닌 외부의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달되고 있다. 다만, 서술자가 작품 속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13

서술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겉모습을 상세히 묘사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14

작품 외부의 전지적 작가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보여 주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5

응오가 자신의 벼를 훔치는 사건은 소작농이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지닌 당대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16

작가는 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응오를 연민이 느껴지도록 그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대의 비참한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에 따르면 응칠이 지주를 때리고 소를 훔치려 하는 것이나 응오가 자신의 벼를 훔치는 것은 성실히 일해도 생계를 이어 갈 수 없었던 당대의 농촌 현실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제목 '만무방'은 이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순된 사회 구조가 이러한 부정적 인간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2-1.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집중 훈련 OX

본문 266~267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⑲19 ○ ⑳20 ○ ㉑21 ○

작품 읽기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중이던 1942년에 지은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의 고뇌와 성찰이 담겨 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현실적 자아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반성적 자기 성찰을 이루는 성숙한 자아가 화합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암담한 현실 인식
- 2연: 시인으로서의 슬픈 운명
- 3~4연: 현실과 괴리된 삶에 대한 회의
- 5~6연: 현실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무기력한 삶에 대한 자기 성찰
- 7연: 현실과 시 쓰는 일 사이의 괴리로 인한 부끄러움
- 8연: 암담한 현실에 대한 재인식
- 9~10연: 현실적 자아와 성숙한 자아의 화합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

주제 암울한 시대 현실 속 자기 반성과 현실 극복 의지

중심 시어 및 시구

- 밤비: 자아 성찰을 이끌어 내는 매개체
- 육첩방: 일본식 다다미방으로, 화자가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암울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상징함.
- 슬픈 천명: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인의 운명
- 늙은 교수의 강의: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
- 등불: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 어둠: 암울한 시대 현실
- 아침: 조국의 광복
- 최후의 나: 반성적 자기 성찰을 통해 성숙해진 자아
- 최초의 악수: 분열된 두 자아의 화해

특징

- 상징적 시어를 대립적으로 배치함.
-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이 전개됨.

①

1연의 ‘육첩방’은 일본의 다다미방으로 화자가 ‘남의 나라’에 있음을 보여 주는데, 4연에서 ‘대학 노-트’를 끼고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을 통해 화자가 유학 중임이 드러나고 있다.

②

화자는 방 안에서 창밖에 내리는 밤비 소리를 듣고, 자신이 남의 나라에 온 유학생임을 자각하며 내적 성찰을 하고 있다.

③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 한 줄 시를 적어 볼까,’를 통해 화자가 ‘시인’의 삶을 ‘슬픈 천명’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인이 행동으로 현실에 항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라는 언어를 통해 현실에 대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시를 계속 적으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시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3~4연에서는 ‘학비 봉투를 받아’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조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⑤

5~6연에서 화자는 동무들을 모두 잃은 채 현실과 동떨어져 타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무기력한 삶에 회의감을 느끼며 스스로 성찰하고 있을 뿐, 이방인으로서 겪는 고독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⑥

7연에서 화자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에서 살기 어려운 시대 현실과 자신의 모습 간의 괴리감을 느끼며, 이를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

⑦

8연에서는 1연의 내용이 변주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남의 나라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

⑧

‘아침’은 ‘어둠’을 내몰아야 오는 것으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다.

⑨

‘최초의 악수’는 현재의 ‘나’와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사이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악수는 이루어지고 있다.

10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인 ‘나’와 이상적 자아인 ‘최후의 나’의 화해를 의미한다.

11

‘육첩방은 남의 나라’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는 것에서 이상이 출발함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12

5연에서 동무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나, 6연에서 홀로 침전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우울하고 회의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13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식하며 반성한 화자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고자 하는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4

화자는 현실적 자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최후의 나’, 즉 이상적 자아와 화해를 하고 ‘시대처럼 올 아침’, 즉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자아의 갈등으로 제3의 길을 추구하게 된 것은 아니다.

15

㉠의 ‘늙은 교수의 강의’는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지식을 의미하며, ㉡에서 살기 어려운 인생과 달리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따라서 ㉠과 ㉡의 함축적 의미는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16

어둠 속에 있던 화자가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어둠’과 ‘등불’은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두운 시대 현실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7

이 작품에서 미래 지향적인 의식은 드러나고 있지만, 현실

에 매이지 않고 사물을 감상적으로 보는 낭만적 어조는 느낄 수 없다. 오히려 성찰적 어조와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18

의문의 형식을 빌렸으나 질문의 의도가 아니라 내포된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6연의 ‘~침전하는 것일까?’는 스스로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

8연에서 ‘밤비’는 화자에게 속살거리며 깨우침을 주는 존재로 의인화되어 화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20

창작 배경이 일제 강점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어둠’은 일제 강점의 암울한 현실을, 그것을 몰아낸 뒤 찾아올 ‘아침’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

㉠에서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남아 있는 상황을 ‘홀로 침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유학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에서는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며 부정적 현실에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2-2.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집중 훈련 OX

본문 268~269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작품 읽기 제목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남신의주' 지역의 '유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목수 '박시봉'의 집에 있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의 주소를 의미한다.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화자는 편지 형식으로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처지에 대한 고뇌와 회한을 드러내다가 이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로 시련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시는 1948년에 작가의 지인을 통해 발표되었으나, 여기서는 이 시를 일제 말 해방 직전에 쓴 작품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수록하였다.

중심 내용

- 1~8행: 가족과 떨어져 객지에서 세를 들어 살게 됨.
- 9~15행: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회한
- 16~19행: 절망적 현실에 대한 비애와 괴로움
- 20~32행: 운명에 대한 인식과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과 시련을 극복한 새로운 삶의 의지

중심 시어 및 시구

-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화자의 고독한 처지
-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자신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움을 느끼는 무기력함.
- 나는 내 슬픔이며 ~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에서 오는 괴로움을 되새김질함. 회한의 정서
- 그러나: 회한과 반성을 거듭하던 화자의 심리가 전환되는 부분
- 굳고 정한 갈매나무: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

특징

- 편지 형식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 화자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며 시상이 전개됨.
-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함.

①

화자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며 동생들과도 떨어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 해체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유랑하는 처지로 볼 수 있다.

②

화자가 거리를 헤매는 까닭은 어두운 현실에서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이다. 화자가 이상적 자아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날도 저물어서~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의 어둠, 바람, 추위는 화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고난과 시련으로 작용한다. 이후 화자는 어느 목수네 집 방 한 칸에 세를 들어 살게 되었으므로, 고향에 정착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④

화자는 어느 목수네 집에 세를 들어 사는데, 셋방은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으로 열악하고 궁핍한 환경이다. 이곳에서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는 화자는 ‘뜻없이 글자를 쓰’거나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⑤

화자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슬픔과 어리석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고 하며 절망적인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⑥

화자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이며,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자리잡은 슬픔, 한탄 등을 가라앉히고 있다. 이는 주도적이지 못함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더 큰 존재, 즉 운명이 삶을 이끌어간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화자는 눈을 맞는 갈매나무의 모습을 떠올리며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을 뿐, 그와 대조적인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⑧

화자는 마른 잎새에 눈을 맞으며 ‘굳고 정한’ 모습으로 있는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그와 같이 현실을 감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⑨

화자는 가족과 이별하고 집도 없어진 결핍의 상황과, ‘추위가 점점 더해’ 오는 외적 환경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10

이 작품에서 시대적 배경이 직접 언급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1

화자가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눈이 내리는 시련의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12

어느 목수네 집 방에 세 들어 지내게 된 화자가 자신의 슬픔, 어리석음 등을 되새김질하며 회한을 느끼다가, 차차 그러한 어지러운 마음이 가라앉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성찰의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13

추위, 눈 등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부 현실의 암울함을 암시한다.

14

‘그러나’를 기점으로 무기력하고, 죽음을 느끼던 화자가 ‘고개를 들어’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등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시상의 흐름이 하강에서 상승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된 것이다.

15

화자는 자신처럼 시련을 겪지만, 굳고 정한 모습으로 견디는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갈매나무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16

이 작품의 제목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의 주소인 것으로 보아 화자는 편지 형식으로 내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7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가족 해체와 유랑을 겪은 화자, 나아가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여 주는 공간이지,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민족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3. 와사등 (김광균)

진중 훈련 OX

본문 270~27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작품 읽기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도시 문명이 빚어낸 삭막함과 무질서함 속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의 고독과 비애를 그린 모더니즘 경향의 시이다. 모더니즘 경향의 작품에서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황폐해진 도시의 분위기가 이 작품에서도 묻어난다. 도시의 텅 빈 하늘과 풍경, 쓸쓸한 거리가 묘사된 부분에서 화자의 고독이 느껴지며, 1연과 5연의 수미상관을 통해 현재의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화자의 우울감과 쓸쓸함이 한층 극대화되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차가운 등불 아래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화자
- 2연: 무질서하고 창백한 도시의 야경과 답답한 심경
- 3연: 도시의 어둠 속에서 느끼는 비애
- 4연: 군중 속의 고독과 슬픔
- 5연: 차가운 등불 아래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화자

주제 도시 문명 속 지식인의 고독과 불안

중심 시어 및 시구

- 와사등: 삭막한 도시 문명에서 ‘떠남’을 알리는 등불로, 어디론가 떠나야만 하지만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현대인들의 불안과 고독을 암시함.
- 내 호몰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삶의 방향감을 상실한 현대인의 방향
-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도시에 늘어선 고층 건물을 ‘묘석’에 비유하여 현대 문명의 메마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냄.
-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아: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현대인의 소외감
- 길-게 늘인 그림자: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화자의 그림자. 고독한 도시인의 모습을 형상화함.

특징

- 1연과 5연이 반복, 변주되어 수미상관을 이룸.
- 공감각적 이미지(시각의 촉각화)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독한 분위기를 조성함.
- 시적 허용(비인, 호몰로)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01

‘차단-한 등불’은 차단한 등불이라는 의미로, 등불을 따뜻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은 의지할 곳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다.

02

화자가 ‘차단-한 등불’을 보며 자신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슬픔을 느끼는 것에서 시상이 출발하고 있다.

03

‘차단-한 등불’은 ‘빈 하늘’이라는 적막한 배경에 놓인 사물로, 이를 본 화자는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하며 자신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04

화자는 ‘와사등’을 보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 따라서 ‘슬픈 신호’는 방향을 잃은 화자의 고뇌와 상실감을 보여 주고 있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지식인의 상실감을 보여 주고 있다.

05

거리의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를 낮설다고 느끼며 화자는 까닭도 없이 눈물겨워 하고 있으므로, 군중 속에 있으나 섞이지 못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도시인의 비애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6

화자는 ‘와사등’의 신호를 ‘슬픈 신호’라고 인식하고, 군중 속에서 눈물겨움과 비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07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이를 거부하고 버티는 저항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8

㉠ ‘고층’을 ㉡ ‘묘석’에 비유하고, ㉢ ‘찬란한 야경’을 ㉣ ‘잡초’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09

㉤ ‘궁허한 군중’이 일으키는 것이 ㉥ ‘거리의 아우성’이므로, 이 둘은 대응 관계를 지니고 있다.

10

㉦은 화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비애가 크다는 뜻으로, 의인화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11

밤의 어둠과, 등불과 야경의 빛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으나 등불의 빛이나 야경의 이미지도 도시의 황망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어둠과 밝음이 대비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12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에서 시각을 촉각으로 전이한 공감각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보여 주는 것으로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과 관계없다.

13

해가 지는 모습을 날개를 접는다고 표현한 활유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4

1연의 1행과 2행의 순서를 바꾸고 표현을 변주한 5연을 통해 방향성을 잃은 화자의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다.

15

‘차단-한’, ‘길-게’ 등에서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차가운 등불이나 길게 늘어진 그림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시를 읽는 호흡도 조절하고 있다.

16

이 작품에 나타난 자아와 도시 문명(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은 방황, 고독, 우울, 쓸쓸함이다. 그러나 ㉧ ‘늘어선’은 빌딩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뿐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로 보기 어렵다.

17

이 작품에서 ‘와사등’은 ‘슬픈 신호’를 제시하는 사물로, 현대 문명을 상징하며 도시인의 삶의 비애를 환기하고 있다.

2-4.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집중 훈련 OX

본문 272~275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작품 읽기 일제의 문화 정치로 고학력 지식인이 늘었으나 이들이 결국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고등 교육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1930년대 인텔리(지식층)들의 실업 문제를 고발하며, 스스로의 무능함을 자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등장인물

- P: 일본 유학생 출신이지만 직업이 없는, 고학력 실업자의 전형적인 인물. 식민지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함.
- K사장: P의 채용 부탁을 거절하며, 허구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위선적인 인물

주제 식민지 지식인의 비애와 일제의 문화 정치에 대한 비판

특징

- 냉소적 어조와 풍자적 시각이 드러남.
- 서술자의 설명과 주석이 드러남.

①

‘나는 선배인 선생님을 극히 존경하고 양모합니다’ 하는 비굴한 미소를 띠고 K사장과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P가 당당한 태도로 K사장에게 취직자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P는 비굴한 미소로 취직자리를 구걸하듯 부탁하고 있으며 거절당한 뒤에는 새삼스럽게 실망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K사장에게서 취직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③

K사장은 처음부터 “머 어데 빈자리가 있어야지.”라며 P의 취직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④

‘취직운동에 백전백패(百戰百敗)의 노졸(老卒)인지라 K씨의 힘 아니 드는 한마디의 거절에도 새삼스럽게 실망도 아니한다.’를 통해 취업 거절에 무뎌진 것이지, K사장의 거절

이유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⑤

P는 ‘인제는 영영 틀어진 것이다.’라며 K사장의 거절을 알아차렸으나 ‘지금까지 은근히 모시고 있던 태도에 비하여 그것이 너무 낮간지러운 표변임을 알기 때문에 실망이나 하는 체하고 잠시 더 앉아 있’었던 것이지, 일자리를 거둬 부탁하지는 않았다. P와 K사장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한 원인은 K사장이 농촌으로 돌아가라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⑥

청년들이 농촌을 갈 필요가 있다는 K사장의 말에 P가 반박하는 내용만 나타날 뿐, 이러한 의견 대립이 전에도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⑦

P가 K사장에게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밝힌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회회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⑧

[A]는 K사장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나는 대로 언급한 부분으로, 이를 들은 P는 “무얼 먹고 헌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라며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⑨

P는 농촌에서도 청년들이 문맹 퇴치나 생활 개선 등의 운동을 하러 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뿐더러, 농촌 현실이 비참한 원인이 문맹이나 생활 개선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은 이들이 농촌 문제에 무관심한 것이 농촌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⑩

P는 농촌에서도 청년들이 문맹 퇴치나 생활 개선 등의 운동을 하러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조선의 지식 청년들이 모두 인도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⑪

P는 기득권을 가진 K사장의 비현실적인 생각과 제안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12

K사장은 P가 더 이상 취직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눈치채고 P에게 농촌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에 P가 생계 문제를 거론하며 반박하자 “일도 아니하고 번들번들 논다는 것은 그것은 타락된 생각이야.”라며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억지스러운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13

중심인물 P가 취직을 하지 못해 고통받는 것의 궁극적 원인은 지식인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적, 현실적 상황 때문이다.

14

P는 K사장에게 취직자리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K사장은 자리가 없다고 거절하고는 P에게 농촌으로 가라며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친다. 이에 P는 K사장의 말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P와 K사장은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P가 초점 화자라면 그의 입장에서 그의 내면 의식이 직접 노출되어야 하는데,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언행과 심리,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16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할 때 P가 취직하지 못하는 것은 당대의 시대 현실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취직자리를 찾지 못하고 K사장의 말을 비판하면서도 대안은 찾지 못하는 P는 구조적 병폐로 인한 고통과 무기력한 지식인으로서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레디메이드’는 ‘기성품’을 뜻하는 말이다. 이 작품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고도 취직을 하지 못해 무기력하게 지내는 지식인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는 기성품에 빗대고 있다.

2-5.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집중 훈련 OX

본문 276~279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작품 읽기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 도시의 일상을 관찰하며 느끼는 내면 의식의 변화를 그린 작품이다. ‘구보’는 박태원의 필명으로, 이 작품이 작가의 자전적 소설임을 알 수 있다. 무기력하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구보를 통해, 1930년대 암울한 시대 현실 속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등장인물

- 구보: 26세의 미혼인 소설가.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지만 글 쓰는 것 외에는 직업이 없음. 무능력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물로 치부하기도 함.

주제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

특징

-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세태를 묘사함.
-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가 전개됨.

①

구보는 경성역을 자신에게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공간, 즉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간다.

②

구보는 경성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온정을 찾지 못하고, 옆 사람을 믿지 않으며 병자를 멀리하는 이들을 보며 실망하게 된다.

③

구보가 ‘노파’를 육체적, 정신적 생기를 상실한 인물로 보는 것은 맞으나, ‘중년의 시골 신사’는 오만함을 지닌 정신적 질병을 앓는 인물로 보고 있다.

④

‘노동자’는 목의 앞부분이 튀어나오고 안구가 돌출한 모습으로 바세도우병을 앓고 있음이 외형에 드러나고 있고, ‘젊은 아낙네’는 병자 앞으로 굴러간 복숭아 집기를 포기

할 정도로 그를 꺼리는 모습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05

‘양복 입은 사내’는 대합실의 온갖 사람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인물로, 조그만 사건을 기록하려던 구보는 그를 피해 대합실을 떠나고 있다. 따라서 ‘양복 입은 사내’가 구보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06

구보는 젊은 아낙네가 복숭아 집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흥미를 느껴 대학 노트에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온갖 사람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며 감시하는 양복을 입은 사내를 보고 우울 속에 대합실을 떠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보가 ‘조그만 사건’에 대해 기록하지 못한 것은 양복 입은 사내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07

구보는 황금을 찾아 일확천금하려는 이들에 대해 흥미를 갖고 관찰하려 하고 있을 뿐,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구보는 우연히 만난 ‘중학 시절의 열등생’에 대해 ‘그도 벗이라면 벗’이라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가 ‘자네’라고 부르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는 한편, 그의 얼굴을 ‘천한 얼굴’이라고 인식하며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09

구보는 세태를 관찰하고는 있으나 경성역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된다.

10

[A]에서 구보는 온정을 찾을 수 없고 남을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딱하고 또 가엾었다.’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대합실의 사람들의 병든 정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11

구보는 세태에 대한 평가는 하지만, 그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성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12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의 서사가 드러나기보다는 구보가 대상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13

구보는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지는 않지만 그가 관찰하는 대상들(노파, 시골 신사, 노동자, 아낙네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관찰 대상들과 대립 관계라고 볼 수 있다.

14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15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모든 내용이 구보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보를 초점 화자로 설정하여 그의 생각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16

‘나가 보기로 한다.’, ‘가고 싶다 생각한다.’, ‘경성역을 본다.’,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등에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17

인물의 말도 ‘이거 얼마 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직접 화법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18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전개되고 있으나 인과성 있는 사건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건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19

거리를 배회하는 구보가 관찰한 세태가 그의 내면 의식에 따라 드러나고 있다.

20

이 작품은 구보가 집을 나서 이동하며 관찰하고 생각하는 내용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므로, 여로형 구조라고 볼 수 있다.

21

구보가 경성역 대합실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식민지 백성의 모습이다.

22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에서 구보는 서울을 하루 동안 걸으며 그의 눈에 비친 대상들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자조할 뿐인 무기력한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1. 삼대 (염상섭)

집중 훈련 OX

본문 280~283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작품 읽기 1931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조씨 일가 삼대의 삶을 통해 3·1 운동 전후의 시대상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대표적인 봉건적 인물인 조부 조 의관, 신문물을 수용하고 근대적인 것을 따르려 하지만 실제로는 애육에 사로잡힌 과도기적 인간형 아버지 조상훈, 정의감과 선량한 인간성을 지녔으나 조부와 아버지의 부조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인간형 아들 조덕기, 삼대의 갈등을 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상과 인간상을 드러낸다.

등장인물

- 조 의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양반 행세를 하고자 족보까지 사들일 정도로 명분과 형식에 얽매어 삶.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 가문의 명예를 키워 나가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전형적인 구세대 인물
- 조상훈: 조 의관의 아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며, 신실한 기독교 신자. 교회를 통한 사회 운동과 교육 사업에 뜻을 두고 투자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축첩과 노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과도기적 인물
- 조덕기: 조상훈의 아들로, 신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당시 사회주의 운동에 심정적으로는 동조하나 실리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택하는 인물. 조 의관의 유산을 물려받음.

주제 삼대에 걸친 가족을 통해 본 세대 갈등과 계층 갈등

특징

- 인물의 성격과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상세히 묘사함.
- 각 세대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보여 줌.

01

상훈이 친척들에게 “꾸어 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부터 돕는답디다.”라고 한 것은 부친이 양반 족보를 산 것을 비판하려는 의도이다.

02

상훈 부친은 제사상을 차려 놓고 사랑으로 나오다가 종형제간의 말다툼을 듣다가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뛰어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상훈이 오자마자 그를 책망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03

“나이 50줄에 든 놈이 젊은것들을 앞에 놓고 철딱서니 없이 무엇이 어찌고 어찌? 조상을 꾸어 왔어? 꾸어 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만 도와?”에 상훈 부친이 분노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04

상훈 부친이 ‘사천 원 돈이나 드는 줄 모르게 들인 것을 속으로 앓고 또 앞으로 돈 쓸 걱정을 하는 판’이라고 하였으므로, 양반 족보를 사는 데 사천 원이 들었다는 상훈의 말은 거짓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05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를 통해 아들 상훈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06

상훈 부친은 종형제들 앞에서 상훈에게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라며 상훈의 치부를 들춰내어 망신을 주고 있다.

07

창훈은 상훈 부친이 상훈을 비판하는 말에 겉으로는 인사치레로 변명해 주고 속으로는 시원해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갈등을 걱정하며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8

상훈은 “치산만 한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서원을 짓고 유학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라며 상훈 부친이 집안과 관련하여

돈을 쓰는 행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09

상훈 부친이 “내 재산이래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 나머지로 는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 주고 갈 테다. 공증인을 세우든 변호사를 불러대든 하여 뒤를 깡그리뜨려 놀 것이니까 너는 이제는 남 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상훈 부친은 상훈에 대한 신뢰가 없어 재산도 덕기에게 물려주려 함을 알 수 있다.

10

상훈은 상훈 부친이 족보나 치산과 같은 집안과 관련한 일에 돈을 쓰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이에 상훈 부친은 못마땅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갈등의 근본 원인에 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훈과 상훈 부친이 가족 간의 유대 의식 때문에 갈등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1

상훈은 부친의 봉건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고, 상훈 부친은 가문을 중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상훈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상훈은 지식인으로 행세하지만 제자를 유혹해 첩으로 삼은 위선적인 인물이다.

12

‘사천 원 돈이나 드는 줄 모르게 들인 것을 속으로 앓고 또 앞으로 돈 쓸 걱정을 하는 판에 얼 써 해 놓은 일에 대하여 자식부터라도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니 이래저래 화는 더 나는 것이다.’ 등에서 부분적으로 상훈 부친의 시각에 의존하여 서술하고 있다.

13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드러내고 있다.

14

상훈과 종형제들이 함께 있던 방에서만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거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등의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

‘꾸어 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부터 돕는다’는 이름난 남의

조상을 자기네 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일임을 이르는 속담으로, ㉠에서 상훈은 이 속담을 인용하여 족보를 사고 집안을 세우려 하는 부친의 행동을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6

㉡은 장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펄펄 뛰는 상훈 부친의 행동을 묘사한 부분으로, 상훈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17

상훈과 상훈 부친, 주변 사람들의 외양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고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희화화 역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18

상훈과 상훈 부친 사이의 대화로 제시되는 외적 갈등이 중심을 이루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독백이 제시된 부분이나 내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9

상훈의 말에서 상훈 부친은 양반 신분을 얻으려고 족보를 샀고, 상훈 부친의 말에서 상훈은 제자를 꺾어 첩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왜곡된 세계관과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20

<보기>에서 이 작품은 1920~30년대를 배경으로 조·부·손 삼대의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당시의 사회 구조의 모순이나 세대교체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상훈 부친은 보수적인 한말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가문의 명예 욕 때문에 족보를 사들인다. 상훈은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조선어 자전 편찬 등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제자를 꺾어 첩으로 삼는 등 개화기 세대의 정신적 파탄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3-2. 태평천하 (제만식)

집중 훈련 OX

본문 284~287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⑲19 ○

작품 읽기 1930년대 말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착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제에 기생하여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인물 윤 직원 일가를 통해, 부정적 인물상을 풍자한 작품이다.

등장인물

- 윤 직원: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할 만큼 우매하고 윤리 의식이 거의 없는 비정상적 인물
- 윤창식(윤 주사): 윤 직원의 아들로, 개화기에 교육을 받았지만 가치관을 상실하고 향락만 일삼는 타락한 인물
- 윤종학: 윤 직원의 둘째 손자로, 당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구속됨.
- 윤종수: 윤 직원의 큰손자로, 향락을 일삼는 방탕한 인물

주제 개화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퇴락한 삶 비판

특징

- 반어, 희화화를 통해 인물을 풍자함.
- 판소리체와 경어체를 사용함.

①

윤 직원은 “그놈 종학이는 참말루 쓰졌어! ~ 내가 그놈 하나난 꼭 민넌다 꼭 민어.”라며 종학이에게 기대를 걸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너처럼 허랑허지만 말구서, 제 좇대만 실향 양이면 돈을 좀 써두 괜찮은 법이여…….”라며 종수와 종학이를 비교하고 있다.

②

윤 직원은 윤 주사가 찾아오자 “뭇 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라며 무시하듯 말하고 있으므로, 윤 직원이 윤 주사를 대우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윤 주사는 윤 직원에게 전보 내용을 전해 주려 하고 있을 뿐, 돈을 얻어내려 하고 있지는 않다.

④

윤 직원은 종학이가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말보다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말에 더 크게 놀라 뒤로 나동그라질 뻔

하고 있다.

⑤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잡혀 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종학이가 지난달에 윤 직원에게 요청한 오백 원은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자금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⑥

윤 직원은 종학이가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그의 신상을 걱정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일제가 재산을 지켜주는 태평천하와 같은 세상을 망쳐 놓을 부랑당패 같은 인물이 자신의 집에서 나온 것에 놀라고 있다. 이를 통해 윤 직원은 혈육에 대한 정보보다 재물을 지키는 것을 더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⑦

윤 직원이 분노할 때 가족들은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아 있는데, 이는 가족들이 윤 직원의 분노에 반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윤 직원의 분노에 어찌하지 못하고 그저 숨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⑧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라고 한 것에서 드러나듯, 윤 직원은 일제가 조선을 보호해 준다고 여기며 당대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다.

⑨

윤 직원은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고 있고, 종학이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것이므로, 시대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인물들의 대립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⑩

윤 직원이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인물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⑪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 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에서 드러나듯 서술자가 판소리 창자와 같은 말투로 경어체를 구사하면서 작중 인물에 대한 풍

자를 극대화하고 있다.

12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마지막의 응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등과 같이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설명하거나 논평하고 있다.

13

[A]의 윤 직원의 발화는 그가 일제 강점기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즉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윤 직원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화하고 이에 반하는 종학이의 선택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14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왜곡되게 인식하는 윤 직원의 언행을 통해 그를 희화화하며, 그를 풍자 대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15

동경에서 정보가 오기 전 윤 직원은 종학이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전보를 통해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 직원이 종학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므로, 전보는 극적 반전을 일으키는 계기에 해당한다.

16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외적이 아니라 진시황의 아들이었다는 고사를 언급함으로써, 윤 직원을 망하게 하는 것은 화적패나 부랑당이 아니라 손자이며, 윤 직원의 가문도 몰락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17

윤 직원은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오사 육시를 헐 놈’과 같이 비속어를 사용하며 종학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여과없이 표현하고 있다.

18

인물 간의 대화가 주로 드러나 있는데 대화 위주로 사건이 제시될 때는 사건이 빠르게 전개된다고 볼 수 없고, 서술자가 사건의 정황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것을 사건이 빠르게 전개된다고 한다. 또한 잦은 장면의 전환 또한 나타나

지 않고 있다.

19

윤 직원은 일제 강점기가 순사가 조선을 보호해 주는 고마운 세상이며 태평천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대의 부유층으로서 왜곡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윤 직원의 시각일 뿐,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반어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4-1. 생명의 서 (유치환)

집중 훈련 OX

본문 288~289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작품 읽기 인간 본질에 대한 회의와 번민으로부터 자아를 구제하는 공간으로 ‘사막’을 설정한 후, 극한 고독과 시련 가운데 본질적 자아를 추구하려는 비장한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근원적 생명력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죽음에 가까운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중심 내용

- 1연: 생명의 본질에 대한 회의
- 2연: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극한의 아라비아 사막
- 3연: 본원적 생명의 추구를 향한 강렬한 의지

주제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비장한 의지

중심 시어 및 시구

- 독한 회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
- 병든 나무: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인해 삶을 지속할 의지를 상실한 상태
- 아라비아의 사막: 본질적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 향한 곳, 극한의 상황
- 나는 가자: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의지적 태도
- 영겁의 허적: 끝없는 고독의 공간
- 열사의 끝: 극한의 시련과 고독
- 열렬한 고독: 화자가 홀로 자신의 실존과 대면하는 상태
- 나: 본질적 자아
- 원시의 본연한 자태: 근원적인 생명력, 순수한 인간의 모습
- 회한 없는 백골을 쫓아라: 극한적인 고독의 공간에서도 본질적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음을 택하겠다는 각오를 보여 줌.

특징

- 생경한 한자어와 관념어가 많이 사용됨.
- 강인하고 의지적인 어조를 통해 주제를 전달함.

01

1연에서 화자는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애증을 극복하지 못해 고뇌에 빠져 있다.

02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을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낀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03

‘아라비아의 사막’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제시된, 관념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2연의 상황이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막의 극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04

2연에서는 사막이 ‘알라의 신만이 /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극한적 공간이라고 하고 있을 뿐, 화자가 종교적 구도자로 알라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알라의 신은 절대자를 나타낸다.

05

사막에 고독하게 서 있을 때 만나게 되는 ‘나’는 본질적인 자아로서, 병든 나무와 같은 현재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자아라고 할 수 있다.

06

㉠ ‘아라비아의 사막’은 도피적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로,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공간이다.

07

극한의 공간인 사막에서 ㉡ ‘영겁의 허적’, 즉 영원한 허무와 적막을 겪고, ㉢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호율로 서면 비로소 ‘나’와 대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과 ㉢은 ‘나’와 대면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08

㉤은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한다면 백골을 햇빛에 쪼아겠다는 의미로, 죽음을 각오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9

‘병든 나무’는 내적 고뇌에 시달리는 화자의 모습을 빗댄

표현이고, ‘원시의 본연한 자태’는 화자가 추구하는 근원적 생명력을 의미하므로, 이 둘은 대비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10

1연에서 화자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11

화자는 자신을 ‘병든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 자아가 본연한 자태, 즉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12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자세는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워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는 가자’, ‘백골을 쪼이리라’를 통해 화자의 자기 회복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13

화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렬한 고독’ 가운데 놓이게 되면 본연의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 절대 고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14

화자는 1연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고 하고, 그곳에서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아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절망적 현실을 극복하는 것에 실패한 뒤 좌절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15

이 작품에서 화자가 동경의 시선을 보내는 대상은 찾을 수 없다. 화자가 추구하는 ‘원시의 본연한 자태’는 회복해야 할 본질적, 이상적 자아이므로 동경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16

화자는 사막으로 상정된 공간으로 가면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나’와 대면한 것은 아니므로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사상 전개와는 거리가 멀다.

17

1연에서는 삶의 본질이나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본연의 생명을 찾아 나서고, 2연에서는 극한적 상황에서 고행과 수련의 고통을 겪으며, 3연에서는 본연의 생명과 대면하여 이를 찾겠다는 대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8

생명력의 회복을 다루고 있으나, 자연의 섭리나 이에 대한 깨달음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19

‘나는 가자’는 문장 형식면에서는 청유형 문장(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형식)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나는 가겠다’라는 화자만의 의지적 행동을 다짐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문법에는 맞지 않는 표현으로 자기 회복에 대한 의지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

생명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극한의 공간, 즉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야 한다는 역설적인 논리를 통해, 원초적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4-2. 향수 (정지용)

집중 훈련 OX

본문 290~291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 읽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한 작품이다. 각 연에서 고향의 정경을 묘사한 뒤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한가롭고 평화로운 고향의 정경
- 2연: 겨울밤 고향집의 정경과 아버지에 대한 회상
- 3연: 꿈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 4연: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
- 5연: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중심 시어 및 시구

-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의인법을 통해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함.
- 금빛 게으른 울음: 소의 울음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남.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후렴구로, 안정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강조함.

특징

- 토속적 시어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함.
- 후렴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

1연에서는 넓은 벌판, 실개천, 황소의 울음 등을 통해 고향의 평화로운 모습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2연에서는 ‘늙으신 아버지’가 ‘젊은 줄음’에 겨워 짚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

3연에는 화자가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모습이 그려져 있을 뿐, 반성하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를 통해

어린 시절의 꿈과 동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4연에서 누이와 아내는 이삭을 줌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화자에게 애뜻함을 불러일으킨다.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감정인 비애감을 환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5연에서는 별이 떠 있는 밤에 식구들이 불빛 아래에 둘러 앉아 도란도란거리는 정겨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⑦

어린 시절에 그리워한 ㉠ ‘파아란 하늘빛’은 유년기의 꿈과 동경의 대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에는 까마귀가 우짖는 밤의 분위기와 가난한 고향집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가족들이 추위를 피하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⑨

각 연에서 고향의 정경을 회상한 뒤 후렴구에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며 그리움을 드러낸 것에서 화자는 고향을 떠나 있으며 그리워함을 알 수 있다.

10

각 연에 묘사된 고향의 정경은 아늑하고 정겨운 모습이며, 후렴구에서는 그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화자가 현재에 만족한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11

‘금빛 게으른 울음’에서 황소의 울음소리(청각)를 금빛(시각)으로 표현함으로써 청각의 시각화를 보여 주고 있다.

12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에서 바람이 불거나 지나가는 소리를 말이 달린다는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13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을 의미하는 음성 상징어 ‘도란도

란’을 통해 정겨운 가족의 모습과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14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5

4연만 5행일 뿐 나머지는 각각 4행이므로 연이 진행됨에 따라 행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으며, 각 연마다 다양한 고향의 정경을 그리고 있을 뿐 점층적 내용 전개와도 거리가 멀다.

16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나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은 찾아볼 수 없다.

17

각 연을 ‘~는 곳’이나 ‘~던 곳’으로 끝맺음으로써 현재와 단절된, 화자의 기억에 존재하는 과거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8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는 고향을 차마 꿈에서라도 잊지 못한다는 의미를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4-3.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집중 훈련 **OX**

본문 292-296쪽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⑲19 × ⑳20 ○ ㉑21 ○ ㉒22 ○

작품 읽기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봉평의 달밤을 배경으로 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인간 본성에 내재된 순수한 정을 낭만적으로 표출한 작품이다.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장돌뱅이의 삶의 애환과 인간의 근원적 속성인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등장인물

- 허 생원: 장돌뱅이. 솟기가 없고 얼굴병이에 왼손잡이로 외롭게 떠돌며 살. 봉평의 물방앗간에서의 성 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을 잊지 못하고 간직함.
- 동이: 젊은 장돌뱅이. 충주집에서 허 생원과 갈등이 있었으나 같이 길을 걸으며 화해함. 봉평이 고향인 홀어머니에게서 자란 내력과 왼손잡이인 점에서 허 생원의 아들로 암시됨.
- 조 선달: 허 생원과 함께 다니는 장돌뱅이. 허 생원의 이야기를 들어 줌.

주제 장돌뱅이의 삶의 애환과 인간 본연의 순수한 정

특징

- 세밀한 배경 묘사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함.
- 토속적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함.

①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허 생원은 달밤의 분위기에 취해 성 서방네 처녀와의 추억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 동이에게 들려주려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다.

②

허 생원이 물방앗간에서 성 서방네 처녀를 알아본 점이나, 그녀가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허 생원은 물방앗간에서 마주치기 전에 성 서방네 처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애뜻하게 간직하고 있을 뿐, 그녀에게 미안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동이는 자기에겐 아버지가 당초부터 없었으며 생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동이가 원망의 감정을 품는 대상은 의부이다.

⑤

허 생원의 추억 속 성 서방네 처녀는 봉평에서 자랐으며 허 생원과 하룻밤을 보낸 뒤 종적을 감추었고, 동이의 사연 속 어머니도 봉평에서 자라 아버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⑥

동이는 어머니가 제천에 있다고 하며,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몰고 벌면 이럭저럭 살 아갈 수 있겠죠.”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동이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장돌뱅이로 돈을 버는 것이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장돌뱅이로 떠도는 것은 아니다.

⑦

동이에게 어머니와 생부의 이야기를 들은 뒤 둘 사이에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허 생원은 동이의 등에 업혀 ‘따뜻하다’, ‘좀 더 업혔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혈육의 정을 느낀다고 볼 수 있으나, 허 생원의 추억 이야기를 듣지 못한 동이는 허 생원에게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⑧

동이와 이야기를 마친 허 생원이 갑자기 동이의 어머니가 있는 제천행을 결정한 것은, 동이에게 들은 동이 어머니의 행적으로 보아 그녀가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성 서방네 처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⑨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를 찾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의 애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이는 생부를 알지 못한 채 의부의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뒤 장돌뱅이로 살고 있다는 점에서 고통받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은 역사적 상황에서 기인했다기보다 개인적 상황에 따른 것이다.

10

제시된 장면에서는 허 생원과 동이의 인연이 암시되고 있을 뿐, 외적 갈등이나 내적 갈등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11

동이가 왼손잡이임을 묘사함으로써 허 생원과 부자지간 일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으나, 제시된 부분에서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갈등의 해결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2

이 작품의 서술자는 인물의 언행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이다.

13

허 생원이 동이와 함께 동이의 어머니가 있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허 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와 재회하리라는 가능성만 암시하고 있으며, 허 생원과 동이가 부자지간인지 밝혀지지 않고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열린 결말이다.

14

달빛이 비치는 메밀밭과 산길, 밤, 여름과 같은 자연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허 생원으로 하여금 추억을 회상하게 하고, 동이의 사연을 듣게 만드는 등 서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

허 생원과 동이가 과거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한편, 허 생원, 조 선달, 동이 세 사람의 대화와 장면 묘사를 통해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16

[A]에는 달빛이 자아낸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묘사되어 있으며, 달빛을 매개로 허 생원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17

㉠ ‘밤길’은 낮의 장터와 대조를 이루며 자연의 흐릿한 정경에 휩싸여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허 생원에게 ㉠은 평생에 단 한 번 있었던 여인과의 인연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을 회상하는 공간이다.

18

㉡은 폭이 좁아서 꿈무늬에 선 동이가 앞에 선 허 생원의

추억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이는 허 생원과의 인연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연을 밝히게 된다.

19

<보기>에 제시된 길의 속성을 고려할 때, 허 생원의 과거와 현재는 ‘길’로 상징되는 장돌뱅이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속의 이미지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허 생원의 앞으로의 삶도 이 길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과거를 현재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

㉣ 이후 허 생원이 물을 건너다 미끄러져 동이의 등에 업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허 생원이 동이에게 혈육의 정을 느끼며 제천에 가게 된다는 점에서 ㉣은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21

<보기>를 통해 허 생원이 왼손잡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연결하여 볼 때 ㉤에서 동이의 채찍이 왼손에 있는 것, 즉 동이가 왼손잡이라고 암시된 것은 동이가 성 서방네 처녀의 아들, 즉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허 생원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 주고 있다.

22

허 생원이 동이가 아들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나귀가 새끼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허 생원은 나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 꽃뎀불 (신석정)

집중 훈련 OX

본문 298-29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작품 읽기 일제 강점기에서 막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상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해방을 맞이했으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이념 갈등 등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대한 시인의 고뇌가 비유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화자는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서른여섯 해가 ‘드디어’ 지나갔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의 현실은 겨울밤 달이 차가운 상황이므로, 이를 극복해 꽃뎀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태양을 등진 곳에서 태양을 의논하는 현실(일제 강점기 지하에서 독립 운동을 해야 했던 현실)
- 2연: 오롯한 태양을 향한 사람들의 강렬한 열망(조국 해방을 향한 강렬한 열망)
- 3연: 지난 세월 동안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태도(독립투사들의 죽음과 방랑, 변절과 전향)
- 4연: 서른여섯 해가 지나감.(일제 강점기가 끝남.)
- 5연: 혼란스러운 상황의 극복을 향한 화자의 소망(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을 향한 화자의 소망)

주제 더 나은 세계(완전한 독립 국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

중심 시어 및 시구

- 태양: 화자가 염원하는 밝은 미래, 조국의 광복을 의미함.
- 태양을 등진 곳: 암담한 시대 현실, 태양과 대비됨.
- 달빛, 밤, 헐어진 성터: 일제 강점하 황폐화된 조국의 모습
- 오롯한 태양: 완전한 광복
-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광복을 맞았음을 의미함.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가운: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 봄: 이념 대립이 사라진 완전한 광복이 찾아왔을 때
- 꽃뎀불: 민족이 화합한 완전한 독립 국가. 화자가 염원하는 세계

특징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함.
-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냄.

01

‘태양’은 화자가 추구하는 것으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독립(조국 광복)’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그러한 태양을

의논하는 이야기가 태양을 등진,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숨기고 은밀하게 움직여야만 했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02

화자는 헐어진 성터를 해매이면서 태양을 모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허무함을 느낀다고 보기 어렵다. 암담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태양에 대한 더욱 큰 갈망을 보이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3

2연에서 화자는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태양을 모시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안타까워하며 고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벗들을 잃어버리고, 벗들이 멀리 떠나버리고,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 곧 일제 강점기가 가져다 준 비극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화자의 주된 정서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 비애감이다.

05

4연에서는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라고 하여, 36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은 시점임이 드러나고 있다.

06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와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서 조국 광복은 이미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가운’이라고 하며 광복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

07

‘오는 봄엔’ 태양을 안고 꽃뎀불에 아늑히 안겨 보겠다고 한 것에서 봄이 올 것이라는 확신, 즉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드러나고 있다.

08

겉으로는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겨울밤이라고 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9

화자가 추구하는 것은 ‘태양’의 밝음의 이미지로, 화자에게 시련을 안겨 주는 것은 ‘태양을 등진 곳’, ‘겨울밤’의 어둠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10

㉠ ‘태양’은 빛과 관련된 시어이며,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이다. 그러나 ㉡ ‘달빛’은 태양이 없는 상태인, ‘밤’(어둠)과 관련된 시어이다.

11

㉓는 일제 강점기 현실을, ㉔는 일제 강점으로 인해 빼앗긴 조국을, ㉕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현재를, ㉖는 민족이 화합하여 광복의 기쁨을 누릴 미래를 의미한다.

12

해방이 되기 전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해방을 맞았지만 여전히 겨울밤 달이 찬 현재, 꽃땀불에 안길 미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래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번갈아 제시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3

1, 2, 3연에서 해방이 되기 전인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14

3연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러는 동안에~버린 벗도 있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5

화자는 민족이 화합한 진정한 독립 국가를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으나, 역설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16

꽃땀불에 안기는 상황은 현재의 이념 대립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기대하는 바이지 현재의 모습은 아니다.

17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이념의 대립으로 혼란했던 시대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연에서 제시한 ‘태양’은 일제 강점기에 염원하던 조

국 독립으로, 미래에 안길 ‘꽃땀불’은 해방 직후 혼란을 극복한 상태인 ‘민족이 화합을 이루는 나라’로 볼 수 있다.

1-2. 청산도 (박두진)

집중 훈련 OX

본문 300~301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작품 읽기 광복 후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산문시이다. ‘청산’을 의인화하는 한편 ‘철철철’, ‘줄줄줄’, ‘총총총’ 등의 음성 상징어와, 반복과 열거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열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생명력 넘치는 산의 모습과 광복은 되었으나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 2연: 비관적 현실 인식과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그리움
- 3연: 비관적 현실을 극복하게 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4연: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의지

주제 이상 세계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중심 시어 및 시구

-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
- 불이 고운 사람: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으로,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극복한 뒤에 올 평화로운 세상
-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지향과 기다림

특징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묘사함.
- 반복과 열거를 통해 화자의 지향을 드러냄.
-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01

1연에서 ‘산’은 ‘우뚝 솟은’,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을 통해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늘’은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를 통해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고 맑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02

‘산’은 생명력 넘치고, ‘하늘’은 맑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골 골짜기에서 빠꾸기만 우는 상황은 여전히 현실이 부정적임을 드러낸다.

03

화자는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려서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라고 하였으므로, ‘산’에서 찾을 수 없는 ‘불이 고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3연에서는 지금이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불이 고운 나의 사람’이 달려 오리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05

4연에서 화자는 ‘너만 그리노라’를 반복하며 기다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불이 고운 사람’을 찾아 나서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06

‘산’은 화자가 기다리는 ‘불이 고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며, ‘불이 고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오롯한 평화를 맞을 수 있는 공간이다. 도피의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07

‘질푸른 산, 물소리, 빛난 아침,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 등을 통해 청산이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으나, 아직은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불지 않는 적막감이 느껴지는 곳이다.

08

‘불이 고운 사람’은 화자가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존재로,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과 같은 혼란과 대비되는 밝은 세상이다. 따라서 ‘불이 고운 사람’이 온다면 화자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09

2연에서 화자가 눈물을 흘리는 까닭은 ‘불이 고운 사람’이 부재하여, 그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인 ‘불이 고운 사람’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체념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11

화자는 ‘산’의 넘치는 생명력을 드러내면서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불이 고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건강한 ‘산’에서 눈 맑고, 가슴 맑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바란다고 볼 수 있다.

12

‘나는 가슴이 울어라’와 같이 화자 ‘나’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고 있다.

13

1연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에서 부정어를 사용하여 기다리는 대상이 부재하는 적막한 현실을 드러내는 한편, 3연에서 혼탁한 이미지인 ‘티끌, 벌레’를 통해 혼란한 현실을, ‘달, 밤’과 같은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14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15

‘푸른 산, 질푸른 산’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물소리 ‘철철철’, ‘줄줄줄’, ‘총총총’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16

‘산’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하고, ‘산아’라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7

‘산아’, ‘그리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하는 한편,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등에서 열거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18

‘철철철’, ‘줄줄줄’, ‘총총총’ 등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구사

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19

자연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푸른, 숲한, 무성한, 금빛 기름진’ 등은 긍정적 이미지로, 비관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안 오고, 안 불고,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 달, 밤, 눈물’은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20

창작 배경이 광복 직후임을 고려할 때, ‘산’은 독립된 조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을 둘러싼 부정적인 상황, 곧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은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현실로 볼 수 있다.

1-3. 미스터 방 (채만식)

집중 훈련 OX

본문 302~305쪽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⑲19 × ⑳20 ○

작품 읽기 해방 전에는 일제에 기대어, 해방 이후에는 미군의 힘을 빌려 출세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두 인물을 통해 당시 혼란한 사회상을 보여 준 작품이다. 결말의 반전을 통해 요행으로 얻은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풍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등장 인물

- 미스터 방(방삼복): 해방 직후 운이 좋아 권력을 등에 업게 된 인물로, 능력보다는 행운과 요행을 좇아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기회주의자
- 백 주사: 해방 전에는 일제에 기대어 부를 축적했으나 해방과 동시에 빼앗기게 되자, 군중을 상대로 복수를 꾀하는 인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유자재로 태세를 전환하는 기회주의적 인물
- S 소위: 미군 소위. 해방 직후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

주제 광복 직후 기회주의적인 세태 풍자와 비람직한 인간상의 모색

특징

- 판소리 사설과 유사한 문체가 사용됨.
- 풍자적으로 인물을 비판함.

01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일제 강점기에 순사로 일하며 이

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 등을 모았음이 제시되어 있고, 백 주사 역시 백선봉의 돈으로 토지를 사서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며 재산을 모았다고 하고 있다.

02

해방이 된 날 군중들은 백선봉과 백 주사의 집을 습격하여 재산을 빼앗았으나, 백선봉과 백 주사가 일본으로 도망간 것은 아니다.

03

서울로 피신 온 백 주사는 우연히 미스터 방을 만났으며, 미스터 방은 백 주사의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있을 뿐, 백 주사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

04

백 주사가 미스터 방에게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 다 찾구. ~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스터 방은 그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머, 지끔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 다 치면, 기관총 들면 엠피가 ~”라며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미스터 방이 백 주사의 재산을 나눠 가져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5

미스터 방은 “염려 마슈.”라며 백 주사의 부탁을 선뜻 들어주며, 자기 말 한 마디면 엠피가 백 명이고 천 명이고 들 끌어 내려가서 쑥발을 만들어 놓는대거나 이승만 박사도 자기 말 한 마디면 제바리라는 등 허세를 부리고 있다.

06

S 소위가 미스터 방을 찾아 왔을 때는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이었다고 하였으므로, 미스터 방에게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스터 방의 양치기를 얼굴에 맞은 일로 욕과 주먹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다.

07

미스터 방은 백 주사에게 “염려 마슈.”, “죽여 놀 테니, 보슈.”라며 공손하지 않은 말투로 허세를 부리고 있으나, S 소위에게는 버선발로 달려가 손바닥을 짹 짹 비비는 등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08

미스터 방은 S 소위가 오기 전까지 백 주사의 청탁을 들어 주겠다고 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는데, 양치물을 S 소위의 얼굴에 뱉는 실수로 S 소위에게 얻어맞는 결말을 통해 그 허세가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에 몰락하고 있다.

09

신기료장수였던 방삼복이 미군 장교의 통역으로 출세하여 허세를 떠는 모습과 일제 강점기에 득세하던 백 주사 부자가 몰락한 모습 등을 통해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보여 주고 있다.

10

미스터 방은 시대의 부조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인물이 아니라, 기회를 틈타 권세를 부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11

백 주사는 일제 치하에서 부를 누리며 동네 사람들을 괴롭힌 악인인데, 중심인물인 미스터 방이 백 주사의 부탁에 흔쾌히 응한다는 점에서 그 역시 바른 역사의식을 지니지 못한 비판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세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

백 주사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은 군중들과 갈등 관계에 있으며, 미스터 방은 허세에 찬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S 소위와 갈등을 빚게 된다.

13

미스터 방의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미스터 방이나 백 주사가 인물들과 벌이는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14

중심인물인 미스터 방은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권세를 잡아 누리던 인물로, 백 주사와의 관계나 그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부정적인 인물이다. 그러한 그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S 소위에게 얻어맞음으로써 몰락하는 결말은 당대 사회와 기회주의적 인간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버릇이 생겼었다.’와 같이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함으로써 풍자의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

16

서술자는 방삼복의 호칭을 미스터 방이라 바꾸어 칭하며 그가 S 소위라는 권력에 기생하여 허세를 부리며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7

방삼복과 백 주사가 나눈 대화에서는, 마치 해방 이후 백 주사를 습격한 군중들이 악인이며 재물을 빼앗긴 백 주사가 불쌍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왜곡된 언행은 역설적으로 해방 직후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18

군중들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의 품목을 열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19

대화의 과정을 통해 한 인물의 허세와 다른 인물의 비굴함이 함께 나타나기는 하지만 갈등의 고조와 해소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

허세를 부리던 미스터 방이 내뱉은 양치물이 S 소위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이 일로 분노한 S 소위가 욕을 하며 미스터 방을 때리는 우스꽝스러운 결말을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한편 부정적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1-4. 두 파산 (염상섭)

집중 훈련 OX

본문 306~309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⑲19 × ⑳20 ×

작품 읽기 해방 직후 서울을 배경으로, 물질적·정신적으로 파산해 가는 두 인물의 갈등을 통해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보여 준 작품이다. 물질 만능 주의가 만연한 시대 상황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등장 인물

- 정례 모친: 일본 유학을 다녀와 건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여성이지만, 빚에 시달리고 물질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인물
- 옥임: 정례 모친과 함께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지만 친일파 도지사의 후실로 들어가 호강하며 살았으나, 해방 이후 반민법으로 위협을 받아 고리대금업에 빠지며 정신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인물
- 교장: 광복 후 변모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품위를 지키려고 하지만 돈과 이해관계 때문에 이중인격을 보이는 고리대금업자

주제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물질적·정신적 파산

특징

- 사건이 세밀하게 묘사됨.
- 두 인물을 대비하여 물질적, 정신적 파산을 강조함.

①

옥임이 정례 모친에게 “남의 돈을 무쫓같이 떼먹으려 드나보다마는”이라고 한 것에서 정례 모친이 옥임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옥임은 “세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라고 말한 뒤에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든가 뜯어 쓰려구, 이렇게 찢절거리구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욕을 좀 단단히 빼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과 상반된 정례 모친의 처지를 비교하며, 정례 모친이 돈을 갚지 않는 행위를 의리가 없고, 도둑 심보라며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③

정례 모친은 옥임을 달래서 뒷골목으로 데려가려 하나 옥

임이 따라오지 않고 계속 망신을 주자,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오르며 곤란해하고 있다.

④

정례 모친이 옆 골목으로 들어간 것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정례 모친이 “누가 안 갚는대냐?”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정례 모친이 옥임의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⑤

옥임은 정례 모친이 달아나자 그것을 흘겨보고는 종로편으로 향하며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 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피가 제대로 도는 것같이 기분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후회하기보다는 후련해 하고 있다.

⑥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얹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는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와 ‘젊은 영감을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듯이 지성으로 고이는 풀이란 아닌 게 아니라 옆에서 보기에다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지마는’ 등으로 보아, 옥임은 정례 모친이 어려운 살림에 고생하지만 이를 동정하기보다는 내심 정례 모친이 자신보다 팔자가 좋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함을 알 수 있다.

⑦

옥임이 정례 모친에게 “난 돈밖에 몰라. 내일모레면 거리로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라고 한 것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금전적 이해에 의해 어긋났음을 알 수 있다.

⑧

옥임은 동경에서 유학하며 신여성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예전 동무인 정례 모친을 쫓아다니며 망신을 주고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파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⑨

정례 모친이 옥임의 돈을 갚지 못해 옥임에게 봉변을 당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므로, 정례 모친은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로 볼 수 있다.

10

옥임이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돈에 집착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 도지사 대감이었던 남편이 해방 이후 반민자로 지목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놓였기에 살길을 찾으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옥임의 정신적 파산은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관련이 있다.

11

친일파의 후처인 옥임이 자기대로 살길을 찾기 위해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에 해당하며, 서구적인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다운 면모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실내 마님으로서 남편 덕에 호강하는 모습은 신여성의 면모와 반대되는 모습이다.

12

정례 모친과 옥임 사이의, 즉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정례 모친이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옥임의 경우도, 도지사 대감의 후처로 호강을 하다가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놓이자 살길을 찾아 나섰으므로 집단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3

정례 모친과 옥임의 극렬한 갈등은 돈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방 이후 물질 중심주의가 팽배한 혼란한 사회상이 드러나고 있다.

14

친일파로서 상류 계층에 있던 옥임의 처지가 해방 후 몰락한 것은 맞지만, 정례 모친은 계속 가난한 형편에 머물고 있으므로 등장인물들의 처지가 서로 뒤바뀐 것은 아니다.

15

‘지금도 어디가 사십이 훨씬 넘은 중늬은이로 보이랴?’와 같은 표현은 정례 모친의 입장에서 옥임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인물의 언행뿐만 아니라 내면 심리까지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다.

17

정례 모친과 옥임의 다툼이 제시된 후 정례 모친의 입장에서 옥임의 지난날을 서술하는 한편 정례 모친에 대한 옥임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

오고가는 사람들이 정례 모친과 옥임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은 정례 모친에게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시각은 나타나 있지 않다.

19

이 작품에 극적 반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제시된 부분에서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희화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20

옥임의 모진 말과 행동에 정례 모친은 ‘생전에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라’,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옆 골목으로 줄달음질 치고 있다. 따라서 정례 모친은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자 할 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골목으로 숨어 들어간 이유가 서술될 뿐 미묘한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거나 그것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5. 잔등 (허준)

집중 훈련 OX

본문 310-312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작품 읽기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나'의 여정에서 만난 인물에게서 느낀 인간 존재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잔등'으로 형상화하여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등장인물

- 나: 화가이자 지식인으로, 징용에 끌려갔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인물을 만남.
- 노인: 일제에 의해 가족을 잃었지만, 해방 이후 일본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연민의 정을 보임.
- 방: '나'와 함께 귀국길에 오른 친구

주제 해방 이후 혼란한 시대에서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새로운 인간 정신의 모색

특징

-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해방 직후 사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드러냄.
- 여로형 구조로 구성됨.

①

노인이 남의 고궁살이를 다시 시작한 것은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여름' 이후의 일이므로, 자식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

②

노인의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새끼 몇 되던 것 하나씩 돌씩 이리저리 다 때우기는 하였지마는”이라는 말을 통해 병과 액으로 자식을 여러 잃었음이 드러나며,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야”와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을 통해 남은 자식이 일제 강점기 때 감옥에 갇혀 죽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가는 사람도 다 제명이 아닙니까.” 하며 노인의 사연을 들으며 그를 위로하고 있으나, 노인 대신 세상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살인강도

암질이라도 다 옥문을 건어차고 훨훨 튀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와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로 보아 노인은 살인강도도 세상에 다시 나오는데 자식은 죽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그러.”를 통해 자식을 죽인 이들, 곧 일본인들에게 분노가 연민과 동정으로 바뀌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노인이 해방 후 우리나라에 남겨진 일본인들을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다닌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⑥

‘나’는 노인의 일본인에 대한 표현을 들으며 자신이 수성에서 들어오는 길에 마주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을 뿐, 노인에게 대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⑦

노인이 일본인들이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현 너저투기예 강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엮고 안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꼴들’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나’는 일본인 아낙네가 ‘허엿게 통통 부어 오른 뺨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형겔 조각으로 머리를 질근 동이고, 엮고, 달리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켜 서 있었’던 것을 본 경험을 떠올리며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⑧

일본인 아낙네는 행상의 여인네의 손가락만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 개에 오 원인 배를 사 먹을 형편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⑨

‘나’는 ‘뒤에 달린 여덟 살 난 사넬미가 엉겅바치를 움켜잡고 비어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두어 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당기며, ‘엮힌 것이 띠 띠개에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 뻗으며 어미의 어깨 너머를 솟아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몹시 굶주린 상태임을 알아채고, 그들의 모습이 애걸하지는 않았어도 애걸한 것과 같이 비참한 정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0

“엎고 안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꼴들— 어디 매가 잡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딴니까.”에서부터 노인이 일본인들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11

‘나’는 노인의 지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 그의 일생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는 노인의 사연에 공감과 위로를 드러낼 뿐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

서술자인 ‘나’는 관찰자로서, 노인의 삶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은 자식이 모두 죽고 난 후 남은 자신의 목숨을 모진 목숨이라고 언급한 뒤 한숨을 쉬는 모습이므로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며, ㉡은 굶주린 일본인들에 대해 언급한 후 한숨을 쉬는 모습이므로 남겨진 일본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14

해방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남겨진 일본인들의 모습에 대한 노인과 ‘나’의 온정적인 태도가 드러날 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지 않다.

15

서술자인 ‘나’는 노인이나 일본인 아낙네의 말과 행동을 주로 묘사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16

해방 후의 혼란한 시대 배경과 장터라는 공간적 배경은 나타나 있지만, 긴박한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지 않다.

17

해방 후 서술자인 ‘나’가 중국 장춘에서 서울에 이르는 귀로에서 겪은 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로형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노인은 일본인에게 자식을 잃은 고통을 지냈음에도 관용의 자세로 우리나라에 남아 유리걸식하는 일본인들을 측은해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간 정신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 아낙네는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줄 뿐, 새로운 인간 정신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 것은 아니다.

2-1. 견우의 노래 (서정주)

집중 훈련 OX

본문 313~314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 읽기 사랑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연인 간의 안타까운 감정을 ‘견우직녀’ 설화를 소재로 드러낸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이 끝난 상태를 가리키는 ‘이별’이 있어야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위한 이별의 과정을 긍정하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사랑을 위해 있어야 할 이별
- 2연: 사랑을 위해 겪어야 할 시련과 고난
- 3~4연: 성숙한 사랑을 위해 있어야 할 그리움과 고독
- 5~6연: 이별을 견디기 위해 직분에 충실한 삶을 다짐함.
- 7~8연: 재회를 위해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견우와 직녀

주제 이별을 통해 얻게 되는 참된 사랑의 의미

중심 시어 및 시구

- 우리들의 사랑을 ~ 이별이 있어야 하네.: 역설적 표현으로 주제를 강조함.
- 물살, 바람: 이별의 고통
- 푸른 은하물: 화자와 청자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 불타는 홀몸: 고독의 상태
- 칠월 칠석: 재회의 시간
- 검은 암소를 ~ 비단을 짜세: 만날 때까지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다짐함.

특징

- 설화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구조로 전개됨.

01

사랑을 위하여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별의 고통을 감내해야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이다.

02

사랑하는 직녀가 곁에 없는 이별의 상황을 화자는 ‘물살’과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물살’과 ‘바람’은 화자가 이별의 기간 동안 견뎌야 할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3

1연부터의 흐름으로 볼 때 ‘푸른 은하물’은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매개체가 아니라, 화자와 직녀의 만남을 방해하는, 곧 이별의 상황을 만드는 요소이면서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로 볼 수 있다.

04

4연에서는 이별을 ‘돌아서는 갈 수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상황이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05

‘불타는 홀몸’은 성숙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이별의 상황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숙한 사랑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고통과 관련된다.

06

‘직녀여’를 통해 청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서, 화자가 견우직녀 설화에서 직녀와 사랑하는 사이인 견우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또한 제목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07

5연에서는 화자의 역할인 ‘풀썩을 나는 세이고’를, 6연에서는 직녀의 역할인 ‘그대는 벼물에 복을 놀리게’를 언급하며, 서로 해야 할 일을 하며 긴 이별의 시간을 이겨 내자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변찍이는 모래밭’은 설화와 관련하여 견우가 있는 별, ‘허이언 구름’은 직녀가 있는 천상의 세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두 시어는 슬픔을 초월한 자세와는 관련이 없다.

08

7~8연에서 화자는 재회의 순간까지 각자의 직분에 충실

하며 이별의 시간을 이겨 내자고 말하고 있을 뿐, 재회가 곧 오리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9

8연은 견우와 직녀가 재회하는 날인 칠월 칠석이 오기까지 각자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인내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10

이 작품의 구성은 전반부 4연과 후반부 4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있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재회하기까지 서로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11

이 작품의 화자인 견우는 사랑하는 사람이 부재하는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고통받는 존재로 볼 수 있다.

12

㉔는 화자와 청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별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으나, ㉕는 화자와 청자가 만날 수 있는 날로 재회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따라서 ㉔와 ㉕는 대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14

견우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5

화자는 직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오’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으므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6

5연의 말줄임표는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만날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17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한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18

이 작품에서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19

‘오’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놀라움과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2-2. 역마 (김동리)

집중 훈련 OX

본문 315~318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작품 읽기 ‘역마’로 표상되는 한국인의 운명관을 그린 작품으로, 운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적극적으로 순응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등장인물

- 성기: 역마살을 타고난 인물. 계연과의 사랑이 좌절되고 역마살을 극복하지 못하자 운명에 순응하며 엽판을 매고 떠남.
- 옥화: 성기의 어머니. 주막을 운영하면서 아들의 역마살을 없애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운명을 받아들임.
- 계연: 옥화의 이복동생. 성기를 사랑하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 떠남.
- 체 장수: 옥화와 계연의 아버지. 성기와 마찬가지로 역마살이 낀 인물

주제 운명에 대한 순응과 그에 따른 인간성 구현, 역마살이 낀 떠돌이 인간들의 삶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나, 부분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을 보임.
- ‘역마’라는 한국적 운명 의식을 다룸.

01

옥화가 계연에게 체 장수 영감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했으므로 체 장수 영감과 계연은 부녀시간임을 알 수 있다.

성기는 옥화를 ‘어머니’라고 부르므로 옥화와 성기는 모자 시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옥화는 계연이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다고 했으므로 옥화와 계연은 자매시간이다.

02

계연이 성기와 혈연 관계를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계연이 떠나기 전에 엉엉 소리를 내어 울며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03

계연이 “오빠, 편히 사시오.”라고 할 때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고 하였으므로, 성기가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기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자 거의 울음이 다 된 목소리로 “오빠, 편히 사시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성기에 대한 애절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연이 성기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04

옥화가 봄이 오기 전 성기에게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나.”라고 말한 것에서 옥화가 계연이 자신의 동생임을 알고 계연을 떠나보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기는 계연과의 이별에 대한 상심으로 큰 병을 앓은 것이지, 성기가 병을 앓은 것이 계연을 떠나보낸 이유는 아니다.

05

성기가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갈 생각도 없다고 하고, 집에서 장가들어 자신과 살 생각도 없다고 하자, 옥화는 “너 줄 대로 해라.”라며 성기의 선택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있다.

06

옥화는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하며 성기에게 계연과 자신의 아버지가 같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성기가 계연을 떠나보낸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07

계연과의 이별로 병을 앓던 성기는 옥화의 말을 들은 후에 ‘도로 힘을 얻은 모양’으로,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이후 성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었

판을 맞춰 달라고 하였으므로, 계연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8

죽어가던 성기가 자리에 앉아 미음을 먹고, 이후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켰다는 것은 성기가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 원기를 회복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9

성기가 옛판을 만들어 달라는 말은, 옛장수가 되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며 살겠다는 뜻이다. 이를 들은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이후 옛판을 들고 떠나는 성기와 하직하고 있다. 이로 보아 옥화는 성기가 역마살이 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10

계연이 떠난 길은 구례 쪽을 향했다고 하였으므로, 성기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간 것은 계연과의 인연을 단념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11

성기는 계연과의 이별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역마살을 지닌 자신의 운명대로 옛장수가 되어 떠나고 있다. 이는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이지, 현실을 초월했다고는 볼 수 없다.

12

성기와 옥화 등 등장인물들이 대립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건을 이끄는 중심 갈등은 성기라는 개인과 ‘역마살’이라는 운명 사이의 갈등이다.

13

성기가 병에서 회복되어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것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14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바깥의 서술자인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15

옥화가 자신과 계연과의 관계를 말하며 과거 사건을 언급하고 있을 뿐, 현재와 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16

이 작품의 사건은 모두 화개장터라는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17

㉠과 ㉡에서는 햇빛과 버들가지, 빠꾸기 울음의 유사한 내용이 반복됨으로써 시간이 경과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과 달리 ㉡에서는 ‘유달리 맑게 개인’ 화개장터의 배경이 묘사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18

㉢은 계연이 떠났을 때와 유사한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어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을 뿐, 인간의 모습과 자연의 모습을 대조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

‘화개장터’라는 공간적 배경은 여러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이면서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체장수 영감이 과거 화개장터에 하룻밤 들렀던 사건과 연결되어 체장수 영감과 옥화가 부녀 관계인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

‘옛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성기가 자신의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수용하는 선택을 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1

‘역마’에서 나온 ‘역마살’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는 운명을 의미하는 말로, 작품의 제목은 결국 성기가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화개장터나 옥화의 아버지 체장수 영감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상황과도 관련된다.

1-1. 초토의 시 8 (구상)

집중 훈련 OX

본문 320~321쪽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⑲19 ○

작품 읽기 6·25 전쟁 때 중군 시인으로 활동했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작시 중 하나로, 적군 묘지 앞에서 느끼는 연민과 비애를 그린 작품이다. 살아 있을 때는 서로 총구를 겨누고 대치하던 적군이지만 죽음 앞에서 너그러워지는 인간애를 보여 주며, 분단 현실에 대한 통탄과 민족 화해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적군 병사의 죽음에 대한 애도
- 2연: 죽음 앞에서 미움과 갈등을 초월한 연민과 인간애
- 3연: 미움과 사랑보다 너그러운 죽음
- 4연: 분단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중압감
- 5연: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
- 6연: 분단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 7연: 동족 간 전쟁의 비극과 분단 현실에 대한 통곡

주제 분단 현실에 대한 통탄과 통일에의 염원

중심 시어 및 시구

- 줄지어 누웠는 님들: 전쟁에 의해 희생된 적군들의 님
-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은 적군을 애도함.
-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참혹한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냄.
- 무주공산의 ~ 억누르는데: 분단 현실에 답답함과 중압감을 느끼고 있음.
- 구름: 자유롭게 남북을 넘나들 수 있음.
- 은원: 은혜와 원한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함.
- 목 놓아 버린다: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비극과 분단 현실에 대한 통곡

특징

- 평이한 시어를 통해 직설적으로 주제를 표출함.

①

1연에서는 ‘줄지어 누웠는 님들’에 대한 애도를 드러내면서, ‘오호’라는 감탄사로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②

적군들의 시신을 수습해 양지바른 곳에 묻고 때를 입혀 주는 것에서 미움과 갈등을 넘어선 연민과 인간애를 확인할 수 있다.

③

3연에서 화자는 죽음이 미움과 사랑보다 너그러운 것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서로 이념적 갈등으로 대치하던 상황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너그러워진다는 인간애를 보여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덧없다고 느끼는 무상감과 거리가 멀다.

④

삼십 리만 가면 고향 땅인데 그것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에서 국토 분단의 비극과 그에 따른 억울하고 한스러운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⑤

‘나와 너희의 님들이 /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 리면 / 가로막히고’를 통해 고향이 아득하게 먼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국토가 분단된 현실 때문에 죽은 님조차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⑥

‘무주공산의 적막만이 /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전쟁의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 내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분단의 현실 앞에서 답답한 심정을 느끼며 고통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⑦

5연에서는 죽은 적군의 풀지 못한 원한이 화자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통해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⑧

4연에서 적군 전사자의 님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 가로막힌 것과 달리, 6연의 ‘구름’은 북으로 무심히 흘러가고 있다. 이는 인간의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으로, 분단으로 인한 비극성이 심화되고 있다.

⑨

적군 전사자를 애도하며 분단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화자는 포성 소리를 듣고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고 목 놓아 울고 있다. 이는 민족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 줄 뿐,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거리가 멀다.

10

㉠은 전쟁 상황에서 서로 목숨을 겨냥하고 싸우는 모습이고, ㉡은 대치하던 적군 전사자를 위해 양지바른 못자리를 고르는 모습이다. 따라서 ㉠과 달리 ㉡에는 인도주의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11

죽음을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라는 시각과 촉각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여 전쟁의 비극을 드러내고 있다.

12

화자는 전쟁으로 인한 적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전쟁이라는 비극과 분단 현실 앞에서 목 놓아 울며 고통받고 있다.

13

화자가 적군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고,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라고 하며, 미움보다 인간애의 너그러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4

3연에서 화자는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라고 하며, 죽음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너그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죽음’과 ‘사랑’을 대응시키고 있지는 않다.

15

화자는 포성 소리를 듣고 비극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목 놓아 울고 있는데, 이전에도 전쟁의 비극성을 목격하고 안타까워하였지,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16

6연에서 무심히 북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 죽은 시신은 북으로 갈 수 없는 분단의 현실로 인한 화자의 슬픔이 배가되고 있다.

17

4연의 ‘나와 너희의 뉘들이 /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

리면 / 가로막히고’에서 화자와 적군이 분단으로 가로막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며, 6연에서 자유롭게 북쪽으로 넘어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통해 화자의 고향이 북쪽임을 짐작할 수 있다.

18

화자는 적군의 죽음과 분단 현실에 슬픔과 한을 드러내는 한편 ‘오호, ~ 눈도 감지 못하였겠고나,’ ‘목 놓아 버린다’ 등에서 격정적 어조로 감정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19

화자는 분단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천만 근’이 가슴을 억누르는 듯한 답답함과 아픔을 느끼는데, 이러한 처지는 적군의 뉘도 마찬가지로는 점에서 ‘천만 근’은 우리 민족이 져야 할 아픔의 무게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2. 휴전선 (박봉우)

집중 훈련 OX

본문 322~323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작품 읽기 '휴전선'을 소재로 전쟁의 참상과 휴전의 공포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 상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민족의 화합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남북이 대치 중인 현실에 대한 탄식
- 2연: 남북의 대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안감
- 3연: 6·25 전쟁의 상흔과 분단 현실의 불안감
- 4연: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공포
- 5연: 남북이 대치 중인 현실에 대한 탄식

주제 민족 분단의 비극과 극복 의지

중심 시어 및 시구

- 산과 산이 ~ 마주 향한: 분단이 되어 대치 중인 상태를 나타냄.
- 천둥 같은 화산: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전쟁
- 꽃이 되어야 쓰는가: 설의적 표현으로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냄.
- 고구려 같은 정신, 신라 같은 이야기: 진취적인 고구려의 기상과 신라의 통일 의지
-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남북이 분단된 현실과 대비되는 화합의 이미지
-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 모진 겨우살이: 휴전 중에도 지속되는 전쟁의 공포감
-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분단이 된 민족 현실을 반어적으로 비판함.

특징

- 상징적 시어로 전쟁과 분단 상황을 표현함.
-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적 구성을 따름.
- 수미상관 구성으로 안정감을 부여함.

①

1연에서 화자는 남북이 일시적으로 휴전하였을 뿐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을 '산과 산이 마주 향'해 있는 공간으로 비유하고 있다.

②

'천둥 같은 화산'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대치 상태가 지속될 때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을 의미한다.

③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라는 점에서 남북으로 나뉜 우리 민족의 현실과 대비되어 분단의 아픔을 심화하고 있다.

④

'모든 유혈'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하는 것은, '정맥은 끓어진 채 휴식'하는 휴전과 분단의 상황 때문이다. 즉 화자는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⑤

휴전 상황으로 인한 전쟁의 공포감을 '징그러운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⑥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휴전 상황에서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표현을 통해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 민족이 생명력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다.

⑦

화자는 휴전과 분단으로 인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그러한 현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 꽃이 되어야 쓰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⑧

화자는 분단의 해소라는 화합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고 분단과 대비되는 화합의 모습을 '별들이 차지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암담함과 불안함을 개탄하고 있을 뿐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지는 않다.

⑨

화자의 독백적 어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을 뿐, 화자와 청자(대상)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

㉠은 민족의 진취적 기상과 화합, 통일을 의미하고, ㉡는 분단 상황에서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사는 모습을 의미한다.

11

이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12

1연이 마지막 5연에서 반복되는 수미상관으로, 시상 전개에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운율을 형성하며,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

13

‘꽃이 되어야 쓰는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며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14

‘꽃이 되어야 쓰는가’에서 일시적인 휴전 상태를 ‘꽃’으로 표현하는 한편,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보기>에 나타난 창작 배경을 고려할 때 ㉠에서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대치 상황은 휴전 이후 남과 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6

<보기>에 따르면 시인은 이 작품을 통해 남북이 적대하는 상황이 지속될 때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의 ‘징그러운 바람’과 ‘모진 겨우살이’는 전쟁의 공포감을 나타낸 표현으로, 이를 통해 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1-3. 비 오는 날 (손창섭)

집중 훈련 OX

본문 324~327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 읽기 전쟁으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피란민의 현실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전쟁 이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들을 통해 전후의 허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등장인물

- 동욱: 1·4 후퇴 때 장애를 가진 여동생 동옥과 함께 월남하여 미군의 초상화 주문을 받아 생계를 꾸려 나감. 생계가 더 어려워지자 동욱을 두고 가출함.
- 동욱: 불편한 몸으로 초상화를 그려 생계를 유지함. 원구를 믿고 의지하나 오빠가 가출하자 어디론가 떠나 버림.
- 원구: 동욱 남매의 바참하고 절망적인 삶에 격분하고 자책함.

주제 전쟁으로 인한 허무 의식과 무기력한 삶의 모습

특징

- 인물과 배경 묘사에 초점을 맞춰 서술함.
- 원구가 동욱 남매의 삶을 회상하는 구성 방식을 따름.

㉠

비가 내리는 날이면 원구는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 이유는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뇌리를 스쳐가기 때문이다. 원구가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날 동욱 남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동욱은 술을 마시는 등 변한 모습을 보이는데, 원구는 이에 실망하기보다는 ‘동욱의 과거와 그 집안을 그려 보며, ~ 술을 사랑하는 동욱을 더욱 아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욱은 ‘그동안 무얼 하며 지냈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보자기 안에 있던 스크랩북을 보이면서 미군 부대를 찾다니며 초상화 주문을 맡아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04

‘동욱의 그 NingNing한 웃음을 원구는 이전부터 몹시 꺼렸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자조적이요, 어쩐지 친애감조차 느껴지는 그 NingNing한 웃음은, 원구에게 어떤 운명적인 중압을 암시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5

동욱이 ‘동욱이년이 정말 가엾어, 암만 생각해도 그 총기며 인물이 아까워’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서 동욱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동욱은 동욱이 가엾고 아깝다고 말하며, 원구에게 ‘내가 자네람 주저 없이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동욱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담긴 표현이지 원구에게 동욱을 책임질 것을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7

원구가 동욱 남매의 집을 처음 찾아갔을 때 혼자 있던 동욱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거나 노려보는 듯하자, 원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동욱과 매우 친한 사이임을 알려주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

08

원구의 기억 속에 있는 어린 시절 동욱은 자신을 따라다니거나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었는데, 현재의 동욱은 차갑고 우울한 모습으로, 원구가 과거 인연을 밝혔음에도 조소하는 반응을 보일 뿐이다. 이처럼 변해 버린 동욱의 모습은 동욱 남매가 1·4 후퇴 때 월남한 처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물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9

원구가 비 오는 날이면 동욱 남매의 우울한 생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에서 공감과 연민이 드러나고 있다.

10

동욱은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며 그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이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은 아니다.

11

원구가 동욱을 대하는 모습이나 동욱 남매를 떠올리며 연민을 드러내는 것에서 따뜻한 시선과 태도를 엿볼 수 있으나,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볼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바람직한 인간상이 아닌, 소외된 인물들의 비관적인 삶을 보여 줄 뿐이다.

12

동욱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며 찬양대를 지도해 온 것이나 동욱의 어린 시절 모습과 같은 과거 행적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고 있다.

13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부분적으로 원구를 초점 화자로 하고 있으나,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 설정한 것은 아니다.

14

초점 화자인 원구의 눈에 비친 동욱과 동욱의 모습을 서술함으로써 전후의 비참한 삶을 그려 내고 있다.

15

원구의 시각으로 동욱과 동욱을 관찰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나, 원구는 동욱 남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으므로 거리감이나 냉소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16

한국 전쟁 때 피란지였던 부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장마철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전후의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17

장마철, 비 오는 날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전후의 우울하고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암시하는 한편,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

18

백지에 먹으로 그린 초상화에 비유하여 동욱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19

<보기>에서 동욱과 동욱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원인은

전후의 참혹한 현실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

동욱 남매는 전쟁 이후 참혹한 현실 속에서 아픔을 안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데, 제목 ‘비 오는 날’은 작품 전반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삶의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4. 불꽃 (선우휘)

집중 훈련 OX

본문 328~331쪽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⑲19 ○

작품 읽기 3·1 운동부터 6·25 전쟁까지를 배경으로 민족의 수난을 ‘현’이라는 젊은이를 통해 그린 작품이다. 현의 각성을 통해 시대에 순응하는 인간상을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긍정하고 있다.

등장인물

- 현: 3·1 운동 때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아버지와 현실에 무관심한 채 조상의 묘만 돌보는 할아버지의 태도 사이에서 방황하며 도피적 삶을 살아온 인물. 연호가 주도한 인민재판에 분노하여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후 동굴에 숨어 지내다 연호에게 총을 쏜 후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삶에 맞설 것을 다짐함.
- 연호: 현의 고향 친구로, 열성 공산주의자. 기회주의적이고 야비한 인물로 현과 혁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임.

주제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삶의 의지

특징

- 간결한 문체로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달함.
-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춰 내적 독백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함.

①

“그런데 자네 왜 이르고 있나?”, “뛰어나와 일을 해야 할 게 아닌가?”, “이 사람아! 자네가 이처럼 배겨 있는 것도 이때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와 같은 연호의 말을 통해, 연호는 현이 자신처럼 혁명에 뜻을 두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현을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②

현은 자신까지 혁명에 뛰어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귀찮게만 생각이 들고, 분명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용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즉 현은 소시민적 삶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연호는 “그러나 새로운 희망,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시체를 넘어서 전진해야 하지.”라고 ‘원수’들과 ‘인민 전사’들의 죽음을 혁명의 수단이라고 여기며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현은 “도대체 것처럼 많은 시체를 넘어서야 하는 혁명의 목적이란 무엇인가?”라는 말로 혁명의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다.

④

현은 길가에서 어린 군인의 시체를 본 일을 떠올리며 “어째서 그가 이 길가에서 이처럼 생명을 잃어야 했는가”의 의문이 들더군. 살아야 했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죽은 것이다. 어째서, 누구의 탓으로?”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혁명이라는 명분으로도 인간이 생명을 빼앗겨야 하는 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⑤

연호는 혁명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목적 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현은 ‘목적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살아야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며 목적이 아닌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⑥

연호와 달리, 현은 “아니지, 다만 역사가들이 다루기 좋은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 혁명이 없었던들 별로 지금보다 못한 세상은 안 되었을 것이네.”라고 말하고 있다. 즉 현은 혁명을 단지 역사가들의 정당화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혁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연호는 인민재판을 통해 사람들을 처벌하며 현에게 보란 듯이 굴고 있지만, 인민재판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지 현에 대한 복수심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⑧

현이 두 번째 희생자인 ‘조 선생의 부친’이 끌려 나왔을 때 분노한 까닭은, 조 선생의 부친이 ‘다만 어울리지 않는 생

활 양식을 거부하고 남으로 내려온 것 외에 아무런 반항도 피하지 않은, 한 무력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평범한 민중이 반동분자로 몰려 희생되는 모습에 분노한 것이다.

09

현은 인민재판을 진행하는 연호의 부당한 처벌 행위에 분노를 삭이다가 조 선생의 부친이 끌려 나온 것을 보고는 주먹을 뺀 연호를 치게 된다.

10

현은 동굴에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연호를 주먹으로 친 뒤 보안서원의 총을 빼앗아 마구 도망친 것을 떠올리면서 '분명한 기억이 없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와 그 여파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11

현은 인민재판에서 사람들이 부당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낀 것이지, 자신이 인민재판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 한편 현은 과격한 방식으로 혁명을 추구하는 연호와 이념적으로 대립한다고 볼 수 있다.

12

연호와의 대화에서 현실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현은, 혁명이라는 명분으로 벌어지는 인민재판의 부당함을 목격하고 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3

현은 중심인물이고 연호는 반동인물이다. 두 사람은 친구였으나 연호의 언행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14

'중략' 이전에는 혁명에 대한 태도 차이로 현과 연호가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중략' 이후에는 현이 인민재판을 진행하는 연호에게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이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15

주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면 심리가 드러나고 있으나, '가슴에서 타는 분노의 불길 때문이었다.'와 같이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언급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16

'오랜 회상에 잠겼던 현은 ~ 동굴 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서 현이 과거 회상을 마치며, 과거에서 현재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으나, 현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17

중심인물의 과거 행적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원인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8

혁명에 대한 현과 연호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성격과 서로 다른 가치관 및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19

제시된 부분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동굴에 은신한 현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 작품은 현이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은 동굴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내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이야기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현재-과거-현재로 시간이 이동하는 역순행적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나비와 광장 (김규동)

집중 훈련 OX

본문 332~333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작품 읽기 전쟁 직후의 참혹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흰나비'라는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를 내세우고 있다. 전후의 현실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하고, 생존을 위협할 만큼 절망스럽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날갯짓을 계속하려는 '흰나비'를 통해 극복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중심 내용

- 1연 : 나비의 상심(폐허가 된 세상을 바라봄.)
- 2연 : 나비의 막막한 심정(바다의 막막함에 시아가 가린 나비의 모습)
- 3연 : 나비의 무력함(현대 문명에 짓밟힌 나비)
- 4연 : 나비의 미래에 대한 기대
- 5연 : 나비의 현실 극복 의지

주제 전쟁의 참혹함과 이에 맞서려는 극복 의지

중심 시어 및 시구

- 활주로: 전쟁을 상징함과 동시에 기계 문명을 상징함.
- 흰나비: 순수하고 연약한 인간
- 피 묻은 육체의 파편, 허망한 광장, 과묵한 묘자: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
- 어린 나비의 ~ 바다뿐이었기에: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의 극한 상황
- 이즈러진 날개: 전쟁과 현대 문명에 의해 훼손된 인간의 모습
- 아름다운 영토, 화려한 희망: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
- 신도 기적도 ~ 오랜 유역: 신과 기적에도 의지할 수 없는 허무의 공간
- 또 한 번 ~ 대결하여 본다: 현실에 맞서려는 극복 의지

특징

- 상징적 시어의 대비를 통해 전쟁의 비극을 강조함.

①

‘현기증 나는 활주로’는 전쟁과 현대 기계 문명을 떠올리게 하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은 전쟁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②

‘투명한 광선의 바다’는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요소로, 희망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 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조수에 밀려’ 결국 흰나비의 날개 귀퉁이가 떨어져 없어졌다고 함으로써, 흰나비의 연약함과 훼손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흰나비의 날개가 이지러지긴 하였지만, ‘말없이’ ‘파닥거린다’라고 한 것에서 전쟁과 문명의 비정함 속에서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4연은 나비의 독백으로 볼 수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영토’와 같은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화려한 희망’을 찾는 나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유역’은 ‘신도 기적도’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공간이므로, 예전의 생명력 넘치는 국토가 아니라 신도 기적도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에는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 최후의 절정’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흰나비가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이라는 전쟁의 참혹함을 마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⑧

㉡은 ‘신도 기적도’ ‘승천하여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이므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절망적 현실 상황을 드러낸 부분이다.

⑨

흰나비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는 동일시를 통해, 흰나비가 처한 극한적인 상황, 즉 당대 전쟁과 기계 문명으로 인해 피폐해진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0

‘현기증 나는 활주로’, ‘허망한 광장’, ‘제트기의 백선’, ‘신도 기적도 이미 / 승천하여 버린지 오랜 유역’ 등을 통해 전쟁과 더불어 전후의 기계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1

‘흰나비’는 전쟁과 기계 문명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뿐,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계 문명과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지 않다.

12

‘한 모금 샘물’, ‘아름다운 영토’, ‘화려한 희망’은 인간성이 복원된 세계와 관련된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이고, 반면 ‘피묻은 육체’, ‘기계’, ‘제트기’는 전쟁이나 문명의 참혹함과 비정함을 드러내는 부정적 이미지의 시어로 서로 대비되고 있다.

13

‘굽어본다’, ‘파닥거린다’, ‘대결하여 본다’ 등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흰나비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14

흰나비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영토’, ‘화려한 희망’, ‘마지막 종점’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15

‘활주로’는 흰나비가 도저히 날 수 없는, 방향을 잃게 되는 공간으로 질주하는 문명을 의미하며, ‘흰나비’는 문명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므로 이를 통해 문명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6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가 기다리고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하얀 미래’와 ‘아름다운 영토’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흰나비가 염원하고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17

<보기>에서 시인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형상화했다고 한 것을 참고할 때, 이 작품이 현대 문명을 추구하던 화자의 자기 성찰을 보여 준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즉 화자가 현대 문명을 추구하던 과거를 반성하거나 돌이켜 보는 성찰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김규동 시인을 비롯한 모더니즘 시인들은 전쟁 이후, 현대 기계 문명이 가진 불안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의식과 피폐한 인간성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었다.

2-2. 눈 (김수영)

집중 훈련 OX

본문 334~335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작품 읽기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눈’을 소재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노래한 시이다.

중심 내용

- 1연: 순수한 생명력을 가진 눈
- 2연: 불순한 것을 쏟아 내고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 3연: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눈
- 4연: 불순함을 극복하고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기 정화의 의지

주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

중심 시어 및 시구

- 눈: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함.
- 기침: 불순한 것을 쏟아 내므로써 양심을 회복하려는 행위
- 젊은 시인: 양심을 지키며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
-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 현실의 억압과 구속에 굴복하며 살 아온 비겁함, 불순함
- 마음껏 뱉자: 내면을 정화하여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

특징

- 상징적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반복과 변주를 통해 의미를 구체화하고 운율을 형성함.

①

1연에서 1행의 ‘눈은 살아 있다’를 2행과 3행에서 점층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②

‘젊은 시인이여’라고 하여 젊은 시인을 청자로 제시한 뒤 그에게 ‘기침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③

순수와 정의, 순결 등을 의미하는 눈에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 행위는, 순수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며 순결하지 않은 모습을 제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04

기침을 통해 몸속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하자는 제안을 반복함으로써 순수한 내면 의식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5

3면에서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이 살아 있다고 하고 있다.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불의에 맞설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볼 수는 없다.

06

3면에서는 눈이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고 하여 1, 2면에 나타난 눈의 생명력과 순수의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다.

07

4면에서는 ‘눈’을 바라보며 기침을 하고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고 하는 것은 화자를 비롯한 젊은 시인들이 억압적 상황에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부정적 세력에게 반성을 촉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08

‘기침’은 ‘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같이 순수한 존재 앞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배출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09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 행위는 더러움을 정화하려는 행위이므로, 비양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그 것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0

화자가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하고 가래라도 뱉자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없애야 할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11

순수, 순결, 정의를 상징하는 ‘눈’과 불결,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가래’의 대비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2

화자는 내면을 정화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을 뿐,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3

청자에게 ‘기침을 하자’라고 단호하게 권유함으로써, 주제 의식인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4

‘눈’이 ‘살아 있다’고 표현하고, ‘눈더러 보라고’ 기침을 하자는 표현에서 ‘눈’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15

<보기>에서 ‘시인은 청유형 표현을 활용하여 그러한 제안을 드러냄으로써 자신 또한 순수한 모습을 회복해야 할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 것을 참고할 때, 화자가 기침을 하자고 제안한 ‘젊은 시인’에 화자 또한 포함되며 이는 시인 자신을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6

‘젊은 시인’은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배출함으로써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 혹은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로 볼 수 있다.

2-3. 오발탄 (이범선)

집중 훈련 **OX**

본문 336~339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작품 읽기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부조리를 고발한 작품이다.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 양심적인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1950년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

등장인물

- 철호: 박봉이지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소시민으로, 전쟁 이후 월남 가족을 이끄는 가장임.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방황하게 됨.
- 영호: 철호의 동생.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노림.
- 명숙: 철호의 여동생. 전쟁 이후 양공주로 전락함.
- 어머니: 고향을 상실한 아픔과 전쟁의 상처로 실성해 버림.

주제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부조리에 대한 고발.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희생되는 양심적 개인의 비극

특징

- 객관적인 묘사로 궁핍한 시대상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
- 전쟁으로 인해 파멸해 가는 인간성과 내면의 허무 의식을 표출함.

①

철호는 갑자기 이가 썩는 것을 느끼고는 치과에 가 이를 뽑고 다른 쪽 어금니를 뽑고자 하나 거절당하자 다른 치과를 방문해 이를 뽑는다. 이때, 두 치과 모두 철호가 충동적으로 방문한 것이며 앓던 이를 모두 뽑아 달라는 행위도 충동적이다.

②

철호는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소시민으로, 월남 이후 가족을 이끌기 위해 부조리한 현실 속 고통을 참고 견뎌 왔는데, 이는 치통으로 형상화되어 그를 괴롭힌다. 가족들에게 닥친 시련으로 충격을 받은 철호가 앓던 이를 모두 빼 버리는 행위는, 양심을 지키는 삶을 저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③

철호는 갑자기 이가 썩이자 충동적으로 치과에 가고, 음식점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는 행선지를 이리저리 바꾸고 있

다. 이는 목적도, 방향도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해방촌’은 어머니, S 병원은 아내, X경찰서는 동생 영호와 관련된 공간으로, 철호는 방황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족에 관심을 두는 것을 통해 그가 가장으로서 의무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택시 운전사와 조수는 불안하고 비정상적인 철호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뿐,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라는 택시 운전사의 말은 방향성을 상실한 철호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⑦

제시된 부분에는 철호의 내면 심리와 방황하는 모습이 드러날 뿐,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⑧

제시된 부분에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⑨

서술자는 철호의 행동을 관찰하듯 전달하며 그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연민의 시선으로 서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⑩

철호의 무리하게 이를 모두 뽑아 버리고, 설렁탕을 먹으러 갔다가 택시를 타는 등의 행위를 통해 방황하는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⑪

제시된 부분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⑫

치과 의사와 철호의 대화, 택시 안에서의 대화 등은 철호

의 방황하는 내면 심리를 드러낼 뿐, 철호나 특정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형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13

<보기>에서 영호가 법과 양심을 지키는 삶이 철호의 충치와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을 참고할 때, 철호가 이를 뽑고 방황하는 모습은 현실에 패배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보기>에서 영호가 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철호의 충치와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을 참고할 때, 철호가 이를 뽑아 버린 행위는 양심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 주며, 철호가 법과 양심을 지키는 삶을 포기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철호는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 했지만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을 뿐, 비양심적인 인물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6

<보기>에서 이 작품에 형상화된 철호 가족의 모습은 전후 사회의 궁핍과 구조적 모순을 보여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7

<보기>에 따르면 ‘오발탄’은 ‘실수로 잘못 쏜 총알’로, 이 작품에서는 전후 현실 속에서 철호뿐만 아니라 철호의 가족 모두가 제대로 발사되지 못한 오발탄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2-4. 불신 시대 (박경리)

집중 훈련 OX

본문 340~343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작품 읽기 전쟁 이후 타락한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사회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낀 주인공이 아이의 위패를 태우는 행위를 통해, 부정적인 사회를 고발하고 이에 항거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등장인물

- 진영: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부패한 의사에 의해 죽게 된 아들로 인해 사회에 강한 불신을 안고 살아감.

주제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사회에 대한 분노와 고발

특징

- 여성의 시각으로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냄.

①

서장 댁이 온다고 하자 진영의 아들을 위한 제를 대충하는 중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

②

진영은 절에서 제를 올리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종교를 통해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중들의 타락한 행동 때문에 종교를 통한 극복을 단념하게 된다.

③

진영은 꿈에서 ‘내장이 터진 소년병’을 보고 아들 문수와 관련된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소년병은 죽은 아들인 문수를 떠올리게 한다.

④

진영이 죽은 아들 문수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간 절에서 중들은 성의 없이 제를 올리고 돈을 밝히는 모습을 보므로, 진영은 종교가 희망이나 구원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인식하며, 결국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되찾아 오는 것으로 종교에 의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⑤

종교에 의지하여 죽은 아들의 넋을 위로하고 슬픔을 극복하고자 했던 진영이 절에 맡겼던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찾

아 태워 버리는 것은 더 이상 종교에 의지하여 슬픔을 극복하려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06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07

결말에서 진영은 현실에 항거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현실과 격리된 채 살아갈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08

진영은 항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므로, 운명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9

진영은 종교에서 위로나 구원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에 맡겼던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찾아 불태워 버리고, 자신에게는 항거할 생명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진영은 타락한 현실에도 자신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현실에 항거하려 하고 있을 뿐, 인간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10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제를 올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상에 놓인 돈이 얼마인지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서 중의 부정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11

㉠ 앞부분에서 진영은 마음속에서만 버려던 일을 해치울 작정으로 길을 나서고 있으며, 곧장 절로 향해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찾아와 산에서 태운다. ㉡ 이후에는 항거의 의지를 다지며 산을 내려온다. 이 과정에서 가치관이 전환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12

진영은 절에 가기 전 성냥 한 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는데, 이는 그녀가 무언가를 태울 것임을 암시한다. 이후 절에서 아들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받은 진영은 그것을 태워 버린다.

13

진영의 입장에서 전후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4

중의 모습을 통해 타락한 사회상을 고발하는 한편, 혼란한 시대를 틈타 종교를 빌미로 이득을 챙기려 하는 위선적인 인물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15

전지적 작가인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나, 작품 속에 개입하여 인물에 대해 평가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6

<보기>에서 진영은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병원의 불합리한 처사로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17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에 나타난 부정적 인물은 서로를 불신하고 돈을 좇는 타락한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8

‘불신 시대’는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라는 의미로,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진영의 인식과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3-1. 꽃 (김춘수)

집중 훈련 OX

본문 344~345쪽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작품 읽기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를 통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는 행위로서, 대상을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꽃’은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인의 관념을 구현하는 추상적 존재로서, 모든 의미 있는 존재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중심 내용

- 1연: 본질을 인식하기 전의 무의미한 존재
- 2연: 명명 행위로 인해 의미가 부여된 존재
- 3연: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나’
- 4연: 상호 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중심 시어 및 시구

- 하나의 몸짓: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의 무의미한 존재
- 이름: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대상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는 행위임.
- 꽃: 의미 있는 존재
- 빛깔과 향기: 존재의 본질
- 눈짓: 상호 간의 의미 있는 존재

특징

- 추상적 관념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부여함.
- 반복과 변주를 통해 점층적으로 주제 의식을 확대함.

①

1연에서 화자는 대상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대상에게 적대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②

화자는 ‘이름을 불러 주기 전’의 ‘그’가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고 하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③

2연에서 화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하나의 몸짓’에서 ‘꽃’이 된 것을 통해, 화자에게 ‘그’의 의미가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화자가 ‘이름’을 불러 주었다는 것은, ‘그’의 본질을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⑤

2연에서 화자는 이름을 불러 준 대상을 ‘꽃’이라고 하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⑥

1연과 2연에서 화자는 ‘그’라는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그’에게 가치를 부여하였으나, 3연에서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며 인식의 객체로서 자신의 존재의 본질이 상대방에게 인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⑦

‘나의 빛깔과 향기’는 상대방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존재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 즉 본질을 의미한다.

⑧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는 것은 ‘나’와 ‘너’가 각자의 본질을 구현하며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독립적이지 아니라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다.

⑨

주체가 ‘나’에서 ‘우리’로 확대되며, ‘나’와 ‘너’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는 표현에서 본질을 구현하고자 하는 소망이 확산되고 있다.

10

‘꽃’은 본질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꽃’은 관찰을 통해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심미적 대상이 아니다.

11

화자는 존재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소외된 존재를 인식하며 고통에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12

화자가 자신의 본질이 인식되기를 바라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소망을 보여

주는 것이다.

13

화자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탐구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의 의미와 진정한 관계 맺기의 중요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며, 본질을 밝혀내려는 시도를 ‘이름 부르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14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 즉 무의미한 존재였던 대상이 이름 부르기를 통해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이를 통해 서로에게 ‘눈짓’이 되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5

이 작품에서 명명(命名), 즉 이름 부르기는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행위이면서, 서로에게 ‘꽃’, ‘눈짓’이 되어 주며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16

‘몸짓’은 이름 부르기 이전의 무의미한 존재, ‘눈짓’은 이름이 부여된 후의 의미 있는 존재로, ‘몸짓’에서 ‘눈짓’으로의 변화는 대상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이름 부르기를 통해 가능하다.

17

‘몸짓’은 이름 부르기 이전의 무의미한 존재, ‘꽃’과 ‘눈짓’은 본질이 인식되어 이름이 불린 뒤의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하므로, ‘몸짓’은 ‘꽃’, ‘눈짓’과 대비되는 관계이다.

18

존재의 본질이 인식되어 불리기 전과 불린 후가 대비되고 있는 것이지, 존재의 본질과 외양이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19

1연과 2연은 ‘내가 그의 이름을 ~ / 그는’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20

‘그’와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노래하다가 4연에 이르러서는 ‘우리’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1

시구의 반복이나 염원하는 어조를 통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2. 독 짓는 늙은이 (황순원)

집중 훈련 OX

문문 346~348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작품 읽기 일생을 독 짓는 데 바쳐 온 노인의 집념과 좌절을 그린 작품이다. 세계와 갈등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치열하게 대결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송 영감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 송 영감은 자신을 버리고 조수와 도망간 아내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한편 장인으로서의 예술적 집념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가마에서 최후를 맞는 송 영감의 모습에서 비장미가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1950년에 발표되었으나, 1944년에 이미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장인물

- 송 영감: 평생 독을 지으며 살아온 장인 정신의 소유자. 아내가 조수와 함께 달아난 후 가마 속에 들어가 생을 마감함.

주제 독 짓는 노인의 장인 정신과 비극적인 삶

특징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정황을 설명함.
- 인물의 내면 심리가 분석적으로 제시됨.

①

송 영감이 잠꼬대로 하는 독백을 통해 송 영감의 아내와 조수가 함께 도망을 가서, 어린 자식과 송 영감이 남겨 된 과거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②

‘아들 같은 조수에게 동년배의 사내가 느끼는 어떤 적수감이 불길처럼 송 영감의 괴로운 몸을 휩쌌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3

송 영감은 ‘벌떡 일어나 부채 방망이를 들어 모조리 깨부수고 싶은 충동을 받았’으나 ‘다음 순간 내일부터라도 자기가 독을 지어 한 가마 채워 가지고 구워 내야 당장 자기네 부자가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미쳐 독을 깨지는 못하고 있다.

04

송 영감이 앵두나뭇집 할머니에게 ‘요전에 말하던 자리에 아직 애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에서 알 수 있다.

05

송 영감은 삶을 스스로 마감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낼 결심을 한 것이기에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건네는 돈을 받지 않은 것이지, 물질을 초월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06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하다가 저고릿고름으로 눈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다.’고 한 것에서,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송 영감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송 영감은 아이가 미련을 갖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죽은 척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아들이 잘살도록 다른 집에 보내려 하는 부성애를 드러내고 있다.

08

송 영감이 예사 사람으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러서도 멈추지 않고 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삶의 의지를 되살리려는 행동이 아니라, 독 짓는 사람으로 삶을 마감하면서 터진 독을 대신하려는 행동이다.

09

송 영감은 아내가 자신의 조수와 함께 도망을 갔고, 아들마저 양자로 보내게 되었으므로 현실에 패배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송 영감이 이러한 현실 때문에 독 짓는 일을 하는 처지를 비판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10

송 영감은 아내가 도망간 뒤 분노를 표출하는 한편, 자신

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고 아들을 양자로 보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따라서 굳센 의지를 보이는 등의 의연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11

송 영감의 잠꼬대를 통해 아내가 조수와 도망을 가 버렸으며, 송 영감은 그로 인한 배신감과 좌절감으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송 영감은 아내가 떠난 뒤 삶을 지속할 힘을 잃고 아들을 양자로 보낸 후 스스로 죽음을 맞고 있으므로, 그가 혈육의 정보다 예술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볼 수 없다.

13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 나간 자기의 독 대신이라도 하는 것처럼.’에서 송 영감의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해석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가 인물 간의 대화에 개입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4

‘새롭게 꽤썸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눈물일랑 흘리지 않으리라 했다.’ 등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5

집념을 가지고 독을 짓던 송 영감의 좌절과 비극적 죽음을 그리고 있다.

16

전통적 가치에 머무는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17

송 영감이 스스로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 죽음을 택하는 결말이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송 영감의 현실적 삶이 좌절된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송 영감이 아내와 도망간 조수와와의 대결에서 끝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8

‘이튿날’에서 드러나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송 영감의 잠꼬대를 통해 아내와 조수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사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과거 회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19

꿈속 독백을 통해 송 영감은 아내에 대한 분노와 아들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예술적 가치를 지키지 못해 고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

송 영감의 잠꼬대나 송 영감과 앵두나뭇집 할머니의 대화는 모두 따옴표 없이 서술된 설명적 진술이며, 서술자는 인물의 직접 대화 없이 설명적 진술과 서사적 묘사로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2강-D

독재와 산업화 시기

1-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집중 훈련 OX

본문 350~351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작품 읽기 역사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한 작품이다. 4·19 혁명의 희망이 5·16 군사 정변으로 좌절된 후,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2연: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 3~4연: 오래되어 몸에 밴 소시민적 삶에 대한 인식
- 5연: 불의한 현실에 직접 저항하지 못하는 비겁함에 대한 반성
- 6연: 사소한 일에 웅충하게 반항하는 자신의 모습
- 7연: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조적인 자기반성

주제 부정한 권력과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중심 시어 및 시구

- 조그마한 일: 본질적이지 않은 것, 사소한 것
- 왕궁의 음탕: 구조적인 부조리함.
- 웅충하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조적 인식
- 언론의 자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 마땅히 나서야 할 일
- 20원을 받으려 ~ 야경꾼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
- 웅충한 나의 전통: 소시민적 삶이 오래되어 몸에 배어 있음.
-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불의한 현실에 직접 부딪치지 못하는 소시민적 태도
- 이발장이, 야경꾼: 힘 없는 자
-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 권력을 가진 자

특징

-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함.
-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반성적 태도를 드러냄.

①

1연에서 화자는 ‘왕궁의 음탕’, 곧 부당한 정치 권력에 저항하는 대신에 50원짜리 갈비에 기름 덩어리만 나온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고 있다.

②

2연에서 화자는 ‘한번 정정당당하게 / 붙잡혀 간 소설가들

위해서 /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화자는 정작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회적 부조리에는 맞서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만 분개하는 소시민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

③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옹졸한' 삶의 태도가 오래되었다고 하며, 회상을 통해 과거 포로수용소의 병원에 있던 시절부터 시대에 저항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다.

④

4연에서 화자는 왜소하고 나약한 자신의 처지를 개의 울음소리에도 지고, 애늬의 투정에도 지며, 은행나무잎도 가시밭으로 느껴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5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것에 대해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⑥

6연에서 화자는 권력을 가진 땅 주인이나 구청 직원, 동회 직원이 아닌, 힘없는 이발쟁이와 야경꾼에게 반항하는 자신의 옹졸함을 반성하고 있다.

⑦

7연에서 화자는 모래, 먼지, 풀과 같이 작고 힘없는 자연물에게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작으냐고 물으며,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 자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⑧

⑧은 '왕궁의 음탕'에 분개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실에서 설령탕집 주인에게 분개하고 야경꾼들만 증오하는 화자의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옹졸한' 것이라 말하며, 이러한 태도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자신의 전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⑨

⑨에서 '떨어지는 은행나무잎'조차 가시밭으로 느끼는 모습을 통해, 사소하게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0

⑩ '절정 위'는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곳과 대조되는 공간이므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가 아닌,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화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시련이나 고통이 최고조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11

⑪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지만 직접 맞서지 못하는 화자의 대응 방식을 '옹졸하게 반항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12

화자는 분개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에 맞서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만 분개하는 왜소하고 나약한 자아를 지니고 있으며,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에서 드러나듯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13

표면적으로는 화자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은 '왕궁의 음탕', '언론의 자유'가 없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이다.

14

'모래', '바람', '먼지'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자기를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다른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의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

'왕궁'과 '설령탕집', 권력을 가진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과 힘없는 '이발쟁이', '야경꾼' 등을 통해 본질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대상과 비본질적인 힘없는 대상을 대비하고 있다.

16

7연에서 '얼마큼 작으냐'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자신의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17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자문을 통해 자신의 소시민적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8

㉔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서 ‘비켜서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 의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1-2.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집중 훈련 **OX**

본문 352~353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작품 읽기 1970년대 독재 정권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낸 작품이다.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인한 공포감과 불안감, 민중들의 고통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숨죽여 민주주의를 쉼야 했던 화자의 분노와 비통함이 드러나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 2연: 자유가 억압된 현실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
- 3연: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

주제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

중심 시어 및 시구

- 신새벽 뒷골목: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이라는 밝음의 이미지와 그늘진 뒷골목이라는 어둠의 이미지가 대비됨.
- 나: 민주주의를 의인화함.
- 목마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생존의 문제로 연결함.
-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가 금기시된 억압적 현실
- 아직 동 트지 않은 뒷골목: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암울한 시기
-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독재 정권에 의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
- 외마디 길고 긴 ~ 탄식 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당한 고통을 청각적으로 드러냄.
- 떨리는 손 ~ 치떨리는 노여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분노
- 타는 목마름으로 /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한 열망을 반복적으로 표현함.
-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간절한 절규

특징

-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함.
- 동일한 시구의 반복으로 화자의 간절한 태도를 강조함.

①

‘민주주의’를 ‘뒷골목’에서 ‘남몰래 쓴다’고 한 데에서 민주주의가 억압되어 있는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②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라고 하며 민주주의를 잊었다고 표현하지만, 화자는 남몰래 민주주의를 쓰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아직 남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는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으로 절박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드러내며, ‘비명 소리 /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는 민중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독재 정권으로 불안하고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도 화자는 민주주의의 이름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 어둠으로 형상화된 부정적 시대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외로운 눈부심’이라고 표현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3연에서 화자는 ‘숨죽여 흐느끼며’ 민주주의를 쓰며 민주주의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도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⑥

화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드러날 뿐, 민주주의를 잊고 살아가는 민중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⑦

남 몰래 쓰는 대상이 민주주의임을 문장의 앞부분에 제시하지 않고, 도치를 통해 맨 뒤에 제시함으로써 대상에 주목하게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⑧

‘아직 동트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밝음이 오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뒷골목’은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한편 1연의 ‘신새벽’은 언젠가 날이 환하게 밝을 것이라는 신념을 드러낸다.

09

‘외로운 눈부심’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화자의 올곧은 모습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둠 속에서도 올곧게 빛나는 존재임을 나타낸 표현이다.

10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면서 ‘떨리는’이 ‘치떨리는’으로 변주 되고, ‘떨리는 가슴’이 ‘노여움’으로 고조된 것에서 화자의 분노가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11

화자는 민주주의를 몰래 쓰면서 두려움을, 민주주의를 외 치다 고난을 당한 이들을 보면서 분노를, 목마름을 느낄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2

‘신새벽’, ‘동트지 않은’의 시간적 배경과 ‘뒷골목’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어두운 시대 현실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3

민주주의를 ‘너’라고 의인화하고, 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4

‘타는 목마름으로’를 반복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5

‘타는 가슴’, ‘치떨리는 노여움’, ‘숨죽여 흐느끼며’ 등에서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6

‘신새벽 뒷골목’에서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이라는 밝음의 이미지와 그늘진 뒷골목이라는 어둠의 이미지가 대비되는 한편, 민주주의는 ‘눈부심’과 같은 밝음의 이미지, 당대의 어두운 현실은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과 같은 어둠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17

[A] 앞부분에서 ‘너’가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에서 ‘너’를 잊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 정권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1-3. 대설주의보 (최승호)

집중 훈련 OX

본문 354~35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작품 읽기 1980년대 군부 독재 시대의 계엄령 상황을 산과 골짜기를 덮은 눈에 빚대어 표현함으로써 암울한 시대 현실을 드러낸 작품이다.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과 대비되는 연약한 이미지의 ‘굴뚝새’의 모습을 통해 억압적인 시대 속 고통받는 민중을 형상화하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굵은 눈발 속으로 날아가는 연약한 굴뚝새의 모습
- 2연: 계엄령처럼 몰려와 온 세상을 뒤덮는 눈보라
- 3연: 생명을 위협받는 굴뚝새의 위태로운 모습
- 4연: 계엄령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눈보라

주제 자유를 억압하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

중심 시어 및 시구

- 백색의 산, 백색의 골짜기: 폭압적 군사 독재가 뒤덮은 시대 현실
- 굴뚝새: 거센 눈보라와 대비되는 연약한 존재. 군부 독재에 위협을 느끼는 민중을 상징함.
-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군부 독재의 이미지를 ‘눈’, ‘백색’으로 형상화함.
- 쫓고마한 ~ 날개를 파닥이며: 연약하지만 생명력 있는 민중의 모습
- 술개: 위협적인 존재. 군부 독재 세력
-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눈이 내리는 것과 명령을 내리는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함.

특징

- 상징적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반복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함.

01

‘백색의 산들’,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눈보라’를 통해 눈이 휘몰아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혹독한 상황을 통해 절망적인 현실을 드러

내고 있다.

02

‘굴뚝새’는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눈보라 속으로 날아가는’ 연약하고 위태로운 존재이다.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통해 생명을 위협받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 줄 뿐, 현실을 극복하려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03

2연에서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평평 쏟아지는 ‘눈’은 곧 단절을 가져오는 존재이다. 이러한 단절은 곧 굴뚝새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생명성이 아닌 반생명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04

세상을 뒤덮은 ‘눈’을 ‘군단’과 같이 힘 있고, ‘계엄령’과 같이 절대적이고 무서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05

굴뚝새는 ‘쪼그마한’, ‘짧은’, ‘꺼칠한’으로 표현되는 연약한 존재로, 3연에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 이유는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에 나타나듯이 ‘솔개’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06

3연에서는 눈이 내려 산짐승들이 길을 잃고 굶주리고, 소나무 가지들은 부러질 듯하다고 함으로써, 눈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고 고립되어 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눈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눈을 통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눈이 쏟아지는 상황과 그로 인해 단절된 산속, 위태로운 굴뚝새의 모습을 묘사할 뿐 감정은 절제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과 그로 인한 시련과 고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8

‘굴뚝새’라는 대상의 애처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나, 화자의 정서를 ‘굴뚝새’에 비추어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9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나약한 민중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에 맞서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10

2연의 1, 2행과 3연의 5, 6행에서 ‘~르 듯’을 반복함으로써 눈이 엄청나게 오는 상황과 그로 인한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11

군부 독재의 탄압에 시달리는 부정적 현실을 ‘눈’이 쏟아져 내리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12

‘굴뚝새’와 ‘솔개’의 대비적 이미지를 통해 부당한 폭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존재를 드러내며,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3

눈을 치우는 ‘제설차’가 ‘한 대 올 리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절망적 상황을 드러낼 뿐, 제설차를 통해 눈이 일시적 세력임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다.

14

‘내리는’은 눈보라가 쏟아져 내리는 것 또는 계엄령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다.

15

마구 쏟아져 날아오듯 덩벼들며,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눈’을 통해 신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을 드러내고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쏟아지는 눈 때문에 위태로운 처지인 ‘굴뚝새’는 폭압적인 군부 독재에 억압받는 민중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굴뚝새와 대비적인 존재로, 굴뚝새에게 공포를 주는 ‘솔개’는 당시의 권력자인 군부 정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산짐승’은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고 굶주리는 존재로, 권력자가 아니라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 고통받는 민중들을 의미한다.

17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상황을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비유하고 이를 2, 3연의 끝부분에서 반복한 것은 현재 폭압적인 군부가 독재하는 상황임을 고발하는 것이다.

‘대설주의보’란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주의하라는 의미로 기상청이 발표하는 날씨 예보이다. 이 작품에서는 ‘눈’을 시대 상황과 관련짓고 있으므로, 제목 ‘대설주의보’는 결국 군부 독재 정권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내포하는 것이다.

1-4. 회색 눈사람 (최운)

집중 훈련 OX

본문 356~359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작품 읽기 1970년대 유신 체제의 어두운 정치 현실 속에서 한 지하 운동 단체에 연루되었던 ‘나’의 내면세계를 회고의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나’는 조직에 있으면서도 자발적 혹은 의도적 차단으로 조직의 중심에 끼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노력과 투쟁을 이어 나간다. 제목 ‘회색 눈사람’은 ‘나’의 이런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 역사의 한 시기를 살아 냈지만 흔적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투쟁과 내밀한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등장인물

- 나(강하원): 가난한 여대생으로 우연히 안을 만나 그가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근무하게 됨. 안이 지하 조직원임을 알고 그를 도우며 희망을 느끼게 됨.
- 안: 인쇄소를 운영하며 반체제 지하 조직을 이끌. 조직이 적발되자 ‘나’에게 여권을 빌려 김희진을 도피시킴.
- 김희진: 안이 제작하는 인쇄 책자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조직이 적발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후 20년 뒤 객사함.

주제 불안한 시대 현실 속에서 발견한 희미한 삶의 희망

특징

-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며 전개됨.
- 서술자의 체험을 존재론적 인식의 차원으로 다룸.

①

안은 ‘나’에게 “일찌감치 손을 떼는 게 어때니.”, “어떻든 이번 일이 끝나면 당분간 집에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어.”라며 ‘나’가 단체의 일을 그만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전하고 있다.

②

‘나’는 안의 제안을 듣고 난 후에, 한편으로는 안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대화를 끝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안과의 관계 자체를 돌아보며 회의감을 갖는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다.

③

‘나’는 안의 단체의 일을 그만하라는 제안에 ‘하기는 신원도 색깔도 불분명한 나 같은 애가 처치 곤란은 하겠지.’라며 안과 단체에 신뢰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등록금을 도와준다는 안의 말에 “조만간에 나는 이 나라를 떠날 예정”이라고 말하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

④

안은 일이 터지기 전에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나’에게 단체의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하고 ‘나’의 등록금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안의 배려를 인식하면서도 서운함을 느끼며 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⑤

‘나’는 안과의 상상의 대화에서 자신의 가난하고 불행했던 과거를 털어놓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안에게 자신의 과거를 토로하고 위로받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⑥

‘나’는 김희진에게서 안의 사무적인 편지를 전달받고, 연속적으로 의문을 던지며, 안이 편지에 쓴 내용이나 전달 방식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⑦

‘나’가 김희진을 간호하며 ‘그 목소리를 위해 여권을 준비해 놓고 있었잖아.’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때, ‘나’가 김희진을 도피시키기 위해 자신의 여권을 내어 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라며 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하고 있다.

⑧

‘나’가 김희진이 잡은 두 손에서 자신의 손을 뺀 것은 다시 그녀의 손을 잡기 위해서이다. 이는 ‘나’가 김희진의 처지에 공감하며 그녀를 배려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09

‘나’는 ‘하기는 신원도 색깔도 불분명한 나 같은 애가 처치 곤란은 하겠지.’라며 현재의 처지에 소외감을 느끼고, 불행했던 과거를 곱씹으며 슬퍼하지만, 안, 김희진과의 관계를 통해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성장하고 있다.

10

서술자 ‘나’는 지하 운동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도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김희진을 도우며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11

조직이 와해되기 전 ‘나’가 안과 대화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언급한 여권은 이후 ‘나’가 김희진의 도피를 돕는 데 쓰이게 되므로, ㉠은 복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2

‘나’와 안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나’와 김희진 사이의 갈등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인물 간의 첨예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그린 것과는 거리가 멀다.

13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서술자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14

‘나는 그와의 한밤중의 이 드문 ~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었다.’, ‘하기는 신원도 색깔도 불분명한 ~ 증거를 그들은 원하는 것일까.’와 같이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가 자기 고백적으로 심리를 서술함으로써 내면 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그때나 그 후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나는 늘 한 가지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다.’라는 구절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과거를 회상하며 그 사건의 본질이나 의미를 되돌아보는 이야기를 후일담이라고 한다.

16

서술자 ‘나’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이야기가 두 개 존재하는 액자 형식은 아니다.

17

‘나’와 안 사이에 있었던 사건과, ‘나’와 김희진의 만남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18

<보기>를 참고할 때 안과 ‘나’, 그리고 김희진이 불안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까닭은 억압적인 정치 상황 때문이므로, 이들은 모두 독재 정권이라는 외부적 원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나’는 민주화 운동 세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지만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자부심을 느낀다. 제목의 ‘회색’은 중간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서술자의 처지를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1-5. 날개 또는 수갑 (윤홍길)

집중 훈련 OX

본문 360~363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작품 읽기 회사에서 직원들을 통제하고 획일화하기 위해 사복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1970년대 독재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준비위원회를 통해 통제를 합리화하는 회사와, 권력에 반발하지만 결국 지시를 따르는 사원들의 모습을 통해 국가 권력의 부당함과 현대인의 소시민적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등장인물

- 민도식: 회사의 사복 제정을 반대하다가 창업 기념일에 혼자만 사복을 입지 않은 순진한 인물
- 우기환: 회사의 사복 제정에 부당함을 느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다가 결국 회사를 떠나는 인물
- 장상태: 처음에는 회사의 사복 제정에 불만을 갖지만 결국 회사를 따르는 인물

주제 국민들을 획일화하고 통제하는 1970년대 독재 권력에 대한 비판

특징

-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 서술함.
- 사회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함.

01

전 사원의 사복 착용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 ‘창업 기념일의 일제 착용에 차질이 없도록’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복 제정의 취지는 직장 내 평등이 아닌 전 사원의 획일화임을 알 수 있다.

02

명종은 준비위원회에서 사복 제정을 통과시키자, 장상태에게 “사원들을 대표해서 준비위원들이 한 역할은 뭐지?”라고 말하며 사원들을 대표하여 준비위원으로 참석한 장상태 등에게 사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다.

03

명종이 “건의할 틈도 안 주고 비상을 걸듯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일방적으로 전격 통과시키다니”라고 말한 것에서 사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복 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04

사장이 민도식에게 “제복을 입었다고 어제는 있던 창의력이 오늘 짝 죽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민도식은 사복 제정이 창의력을 죽인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기환이 사장에게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할 때는 뭔가 그 이상의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사복 제정이 사원의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이라는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05

사장이 K직물을 언급한 것은 일찍이 제복 제도를 도입한 K직물에 창의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지, 사장이 K직물의 기업 정신에 입각하여 제복을 도입하려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K직물과 사장의 사정이 다르다고 한 우기환의 말을 고려할 때 사장이 K직물의 기업 정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는 없다.

06

사장은 “내가 결정할 문제야.”, “자네들도 적극 협조해야 되잖겠나.”, “이런 일엔 누군가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라며 민도식, 우기환에게 제복 제정에 따르라는 협박과 명령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07

사장은 제복 제정에 따르라는 명령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을 뿐 제안을 한 것은 아니며, 우기환은 이에 반발하여 회사를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민도식은 특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권 씨에 밀려 사장실에서 물러나고 있다.

08

민도식은 자신이 제복을 입지 않아 쫓겨날까 봐 염려하는 아내에게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라며 큰소리를 치지만 끝내 집을 나와 회사 체육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다. 따라서 민도식의 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09

민도식은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사원들이 질서 정연하게 도열하여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분노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뿐, 제복 제정에 반대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10

우기환과 민도식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제복 제정에 반대하는 인물들로, 그러한 의견이 무시되고 획일적인 행동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외부의 힘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볼 수 있다.

11

명종과 장상태의 대화, 사장과 민도식, 우기환의 대화를 통해 제복 제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12

민도식과 우기환은 사장의 일방적 지시(제복 제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권 씨 역시 분노를 품고 사장실에 들어올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서 사장과 대립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13

인물의 처지가 뒤바뀌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으며, 사건에 반전 또한 일어나고 있지 않다.

14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민도식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15

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요약적 설명으로 제시하고 있고, 명종과 장상태, 사장과 민도식, 우기환 등의 대화를 보여 주기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16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와 같은 서술은 등장인물의 독백이 아니라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제시한 부분에 해당한다.

17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끝났다.’와 같은 부분이나, “건의할 틈도 안 주고 비상을 걸 듯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다니”와 같은 명종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준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연 절차에 불과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당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

직원들이 모두 제복으로 단장한 뒤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선 모습은 <보기>에서 언급한 국민들의 의식을 확립화시키려는 부분이다.

19

명종과 장상태의 대화나, 사장과 우기환, 민도식의 대화로 보아 사원들 중에는 사복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결국 사복 제정이 강행된 후 사원들이 제복을 갖춰 입은 것은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는 당대 소시민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이 작품은 제목을 통해 사원들의 제복으로 나타나는 강요된 획일성을 ‘수갑’에, 이와 반대로 개인의 옷에 해당하는 권리와 자유를 ‘날개’에 비유하면서 1970년대의 억압적인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2-1. 종로 5가 (신동엽)

진중 훈련 OX

본문 364~365쪽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 ⑥6 ×
⑦7 × ⑧8 × ⑨9 ○ ⑩10 ○ ⑪11 ○ ⑫12 ○
⑬13 ○ ⑭14 ○ ⑮15 ○ ⑯16 ○ ⑰17 ○ ⑱18 ×

작품 읽기 196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떠난 농민들의 비극적 삶을 다룬 작품이다. 창녀로 전락하거나 도시 노동자가 되어 힘겹게 일하고 있는 당시 민중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 주면서 근대화의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종로 5가에서 만난 낯선 소년
- 2연: 억압적 현실 속에 내던져진 소년의 순박한 외모
- 3연: 시골에서 막 상경한 소년의 모습
- 4연: 노동자들 사이로 사라진 소년의 모습
- 5연: 종묘에서 만난 창녀의 모습에 대한 회상
- 6연: 세종로에서 만난 노동자의 모습에 대한 회상
- 7연: 근대화로 황폐해져 가는 농촌의 모습
- 8연: 근대화로 인해 도시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들의 모습
- 9연: 근대화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절망적인 삶

주제 근대화의 모순과 소외된 민중들에 대한 연민

중심 시어 및 시구

- 이슬비: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함.
- 낯선 소년: 산업화로 인해 붕괴된 농촌에서 상경한 인물로, 산업화와 근대화의 희생자
- 통금에 쫓기는: 억압적인 사회 현실
- 크고 맑기만 한 ~ 비에 젖고 있었다.: 소년과 일체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
- 노동자의 흉수 ~ 보이지 않았다.: 소년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함.
- 눈독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을씨년스럽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부은 한쪽 눈의 창녀: 도시로 와 빈민이 된 민중의 고달픈 삶
- 세종로 고층 건물: 근대화를 상징함.
- 자갈치에 등집하던 노동자 하나: 힘들게 일하는 도시 노동자의 삶
- 세 줄기 강물, 대륙, 섬나라, 새로운 은행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경제적 지원을 한 서구권 국가들의 압박
- 남은 것은 없었다 ~ 토방 한 칸: 산업화와 근대화로 황폐화된 농촌

특징

-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 배경 묘사를 통해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함.
- 실제 지명을 통해 사실감을 드러냄.

01

1면에서는 ‘이슬비 오는 날’, 2면에서는 ‘밤 열한 시 반’이라는 날씨와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2

2면에서 화자는 ‘죄 없이 / 크고 맑기만 한’ 소년의 눈동자와 자신의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고 표현하며 소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03

3면에서 소년은 등허리에 ‘먼 길 떠난 고구마’가 있고, 충청북도 보은이나 전라남도 해남 말씨를 쓰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소년이 먼 시골에서 홀로 종로 5가까지 올라왔음을 알 수 있다.

04

4면에서 화자는 소년에게 길을 알려 준 뒤 걷다 되돌아서서 소년을 찾는데, 소년은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소년이 수많은 도시 노동자의 하나가 되어 살아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소년이 적극적으로 목적지를 찾아 나서는 강인한 모습으로 볼 수는 없다.

05

화자는 노동자가 될 소년과 과거에 본 창녀가 모두 도시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창녀가 소년의 누나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06

6면에서 화자는 도시 노동자로 힘겹게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쓰러진 노동자를 보았던 경험을 떠올리고, 소년과 관련지어 그가 ‘소년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을 뿐, 소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지는 않다.

07

7면에서는 ‘남은 것은 없었다.’라며 나날이 허물어져 가는 농촌 현실에 대한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8면에서는 ‘거머리마을’을 통해 고층 건물이 거머리처럼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빌딩 공사장은 ‘무슨 녀석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른다고 표현하며 산업화된 도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8

9면의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을 통해 화자 역시 노동자로 살아가는 처지임을 알 수 있으며, 화자는 같은 처지에서 소년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화자의 도시락 보자기는 ‘비에 젖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노동자로 살아갈 자신과 소년의 암울한 현실을 토로할 뿐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9

1~4면에서는 소년, 5면에서는 창녀, 6면에서는 허리를 다친 노동자, 9면에서는 소년으로 시적 대상이 바뀌고 있다.

10

5면에서 ‘나는 보았어’, 6면에서 ‘언젠가 보았어’라며 소년처럼 도시에서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본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11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목격한 인물의 모습을 전달하는 절제된 어조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2

1~2면의 내용이 변형되어 9면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

13

[A]에서는 허리를 다쳐 쓰러진 노동자의 이마에 있는 ‘세 줄기 강물’이 ‘대륙의 섬나라의 /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 물결’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싸늘한 땀방울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대륙), 일본(섬나라), 돈 많은 서양 세력(새로운 은행국)’에 휘둘리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임을 드러낸 것이다.

14

통금 시간에 쫓기는 군중의 모습을 통해 당시 억압적인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소년의 절박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15

고구마를 지고 온 소년의 모습에서 자본 없이 도시로 유입된 농촌 사람들의 가난과 고달픔을 알 수 있다.

16

소년, 창녀, 허리를 다친 노동자, 그리고 화자는 모두 독재 정권에 의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민중들이다.

17

6연에서 대륙, 섬나라, 새로운 은행국으로 표현되는 외세 자본이 노동자의 싸늘한 땀방울을 만든다고 함으로써 외세에 휘둘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8

‘이조 오백 년은 끝나지 않았다’는 조선 시대의 백성들이 겪던 고통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2-2. 농무 (신경림)

진중 훈련 OX

본문 366~367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 읽기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피해해지고 파괴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는 동시에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표현하고 있다. '농무'는 본래 농민들에게 흥겨움을 안겨 주는 놀이이나, 이 작품에서는 공동체적 삶이 붕괴되면서 신명은 사라지고 절망과 한탄으로 가득 찬 농민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6행: 분이 얼룩진 얼굴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
- 7~10행: 농촌에 남아 있는 소외된 사람들
- 11~16행: 농촌의 현실에 대한 자조적 탄식
- 17~20행: 농무로 울분과 한을 표출해 내는 사람들

주제 피해해진 농촌 현실에 대한 한과 고뇌

중심 시어 및 시구

-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의 모습을 농무가 끝나고 막이 내린 것에 비유함. 농민의 허탈감이 드러남.
- 텅 빈 운동장: 공허함을 불러일으킴.
- 분이 얼룩진 얼굴: 공연에서 얼굴에 바르는 분, 또는 가슴 속에 있는 울분을 중의적으로 나타냄.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화자의 울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함.
-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농촌의 구조적 모순으로 고통받는 현실
-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울분을 반어적으로 표현함.

특징

-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사실성을 부여함.
- 공간의 이동과 서사적 행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반어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드러남.

㉠

‘막이 내렸다’,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를 통해 ‘우리’가 공연을 마친 상태이며, ‘분이 얼룩진 얼굴’로 ‘텅 빈 운동장’에서 ‘소꿉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

술을 마시며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원통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다.

03

장거리에서 농무를 할 때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이라는 것에서 농촌에 일꾼들이 남아 있지 않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농무를 할 때의 흥겨움이 아닌, 현실에 대한 서글픔이 드러나고 있다.

04

처녀 애들이 농무를 구경하며 ‘철없이’ 웃는다는 것은, 농무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농촌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적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없다.

05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다.

06

농민들의 생업인 농사를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라고 하며 피해한 농촌 경제 현실을 드러낸 뒤,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라며 농촌 현실에 대한 체념을 표현하고 있다.

07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을 돌며 점점 신명이 나 농무를 추는 모습은 현실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농무를 통해 풀어 내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체념과 한풀이에 가까운 행위이므로 분노의 완전한 해소나 현실의 긍정적인 수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08

‘장거리 → 쇠전 → 도수장’으로 공간적 배경이 변하면서 화자는 신명 나게 농무를 추지만 이는 화자의 답답함과 울분을 표출하는 몸짓일 뿐, 농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원통한 심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09

주체를 화자인 ‘나’가 아닌 ‘우리’로 표현함으로써, 상황과 감정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농민 전체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10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자연물은 찾을 수 없다.

11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공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듯이 서술하는 객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2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는 울분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3

‘막이 내렸다’는 하강적 이미지로 공연이 끝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허탈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4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현실이 ‘원통하다’라고 하며 삶의 애환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격정처럼’ 울부짖는다고 하여 임격정처럼 현실에 대한 울분을 표출하는 모습을 드러낼 뿐, 이를 통해 끝내 현실에 패배할 것이라는 비극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16

<보기>에서 ‘서림’은 지배층의 부패에 저항한 임격정의 참모였으나 그를 배신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서림이처럼 해해댄다는 것은 현실에 끝까지 맞서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7

이 작품에서 농민들은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는 여편네에게나 맡겨 둔다며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없다.

2-3.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정희성)

집중 훈련 OX

본문 368~369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작품 읽기 산업화와 근대화로 소외된 도시 노동자들의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드러낸 작품이다. 애상적 분위기와 관조적이고 절제된 어조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4행: 삼을 씻으며 삶의 고뇌를 해소하고자 함.
- 5~8행: 노동자들의 삶의 비애와 무력감
- 9~12행: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삶
- 13~16행: 궁핍한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에 대한 체념

주제 소외된 도시 노동자의 삶의 비애

중심 시어 및 시구

-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노동자의 삶도 흐르는 물과 같음.
- 삼: 화자가 도시 노동자임을 의미함.
- 슬픔도 퍼다 버린다: 슬픔을 잠시나마 잊으려는 시도
- 꾸고려 앉아 ~ 돌아갈 뿐이다: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모습
- 셋강 바닥 썩은 물: 소외된 노동자의 삶,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를 동시에 비판
-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

특징

- 시간의 흐름과 화자의 내면 의식 변화에 따라 사상이 전개됨.
- 화자의 상황을 '강'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제시함.

①

‘삼을 씻’는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노동자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슬픔도 퍼다 버린다’고 한 것에서 ‘우리’가 삶의 애환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에서 ‘우리’는 강변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는 도구였던 삼을 씻으며 자신의 슬픔도 씻겨 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고뇌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B]에서 이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 ‘저물고, 저물어서’ ‘썩은 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고달픈 노동자의 삶과 대응됨을 알 수 있다. 화자를 포함한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를 가리키지만, 화자가 자신의 삶을 책망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다.

④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담배나 피우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무력감과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⑤

노동자의 생애를 ‘저물고, 저물어서’라고 표현함으로써 고된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달’은 날이 어두워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려 주는 소재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화자는 노동자로서의 삶의 비애를 드러내고 있을 뿐, 자부심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⑥

‘우리도 저와 같아서’를 통해 ‘우리’의 처지가 썩은 물에 달이 뜨는 것과 같다고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는데, 이는 썩은 물과 같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비관적 인식을 담고 있다.

⑦

화자가 다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⑧

‘우리’가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궁핍한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

⑨

감정을 절제하여 소외된 노동자인 ‘우리’가 느끼는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

10

날이 저물어 가는 저녁부터 어두워진 밤까지의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점차 심화되어 가는 화자의 체념과 비애를 바탕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11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물고 저물어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12

강물과 달을 보며 ‘우리가 저와 같아서’라고 함으로써 자연물에 화자의 삶을 투영하여 비애와 절망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13

강변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날 뿐, 이와 대비되는 시적 공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

이 작품은 감정이 절제된 어조로 전달하며,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통해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훌륭함을 찬양하는 예찬적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15

날이 저물어 밤이 되기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며, 화자의 태도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로 일관되고 있다.

16

‘강’은 노동자의 생애와 대응되고 있다. 따라서 강이 흐르는 것은 노동자의 삶도 정착하지 못하고 흐른다는 것을,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은 노동자의 삶의 비애가 깊어 가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비애가 심화되는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7

㉠은 오염된 상태, 곧 산업화로 인한 부정적 현실을, ㉡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과 ㉣이 대비적 관계인 것은 아니다.

2-4. 삼포 가는 길 (황석영)

집중 훈련 OX

본문 370~372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품 읽기 197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애환과 인간적 유대를 그려 낸 작품이다. 주인공들은 뜨내기 노동자, 전과자, 술집 작부로, 거대 산업 사회의 구조에서 소외되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우연히 동행하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형상화되고 있다.

등장인물

- 영달: 공사판을 찾아 돌아다니는 뜨내기 노동자. 말과 행동은 거칠지만 따뜻한 인간미를 지녔음.
- 정 씨: 출옥한 후,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는 인물. 생각이 깊고 인정이 많음.
- 백화: 술집에서 도망쳐 나온 작부. 열여덟 살에 가출한 뒤 술집을 전전하며 일함.

주제 급속한 산업화로 고향을 상실한 소외 계층의 삶의 애환

특징

- 간결한 문장과 대화를 위주로 사건을 전개함.
- 여로형 구조로 서사가 전개됨.

㉠

백화는 영달에게 팔시루떡을 내민다거나, 고향에 함께 가자고 말함으로써 영달에 대한 호감을 보여 주고 있다.

㉡

영달은 백화가 좋은 여자 같다는 정 씨의 말에 동의하지만,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라고 한다. 이로 보아 자신의 처지로 인해 고향에 함께 가자는 백화의 제안을 거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백화의 제안에 정 씨가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라고 한 것과 백화가 떠날 때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라고 한 것을 통해, 정 씨가 백화와 동행하지 않은 것은 고향에 가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 때문이지, 적대감 때문이 아니다.

04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밝힌 것은 정 씨와 영달을 신뢰하며 본모습을 밝히는 것이자 자신을 보살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영달과 정 씨가 백화에 대해 오해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5

영달은 백화를 보낸 후 백화가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혼잣말을 한다. 이는 고향에 간 백화가 잘 적응할지 염려하는 마음을 거칠게 드러낸 것이지, 백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비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6

정 씨는 삼포에 관광호텔이 여러 채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에 당황하며 고향의 변해 버린 모습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뿐, 이를 계기로 고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

07

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삼포가 공사판이 되었음이 드러나고, 이에 영달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반가움을 내비치지만, 정 씨는 마음의 정처인 고향이 변했다는 소식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08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주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묘사하면서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와 같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서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9

사건의 경과를 인물 간의 대화나 행동이 아닌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10

간결한 문장으로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11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만 세 사람은 모두 유사한 처지로 유대감을 드러낼 뿐, 서로 갈등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12

장터에서 역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작품 전체적으로도 삼포로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13

장터에서 팔시루떡을 먹으며 세 사람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있으나, 인물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

기차역에서 백화가 떠났으므로 역은 인물들의 동행이 끝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 씨가 변화된 고향 소식을 듣고 목적지를 잃었다는 점에서 역이 새로운 희망이 열린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5

㉠에서는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통해, 정 씨와 영달의 떠돌이 노동자로서의 삶이 여전히 암울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16

눈발 속을 기차가 달려가는 장면으로 결말을 맺음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정 씨와 영달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17

정 씨와 영달, 백화는 모두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정 씨는 마음의 정처마저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이들은 산업화 과정에 의해 고통받는 인물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8

‘삼포’는 정 씨의 고향으로, 세 사람이 ‘삼포 가는 길’을 함께하는 것은 고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 씨가 가고자 했던 ‘삼포’는 이미 근대화로 인해 변해 버렸다는 점에서 ‘삼포’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2-5. 아홉 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집중 훈련 OX

본문 373~375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작품 읽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소외된 계층의 삶과 소시민의 허위인식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권 씨가 전과자가 된 뒤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자인 '나'의 시선으로 전달하고 있다.

등장인물

- 나: 서술자.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음. 어렵사리 집을 마련해 세를 놓음.
- 권 씨: '나'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족의 가장. 생활 능력이 부족하나 자존심이 강함. 자기의 구두를 아주 소중하게 여김.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변두리 사람들의 삶

특징

-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음.
- 상징적 사물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주제 의식을 드러냄.

①

'나'는 강도를 보며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찌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나'가 강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강도가 칭얼거리는 동준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다가 동준이가 잠이 들자 다시 행동하는 점이나 칼을 떨어뜨리는 등 어설픈 행동을 하는 점으로 보아, 강도는 본래 소심하고 선한 인물이며 우발적으로 강도짓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강도가 "피치 못할 사정 땀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고 말하자,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디다."라며 자연스럽게 그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가는 강도를 향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강도의 정체와 강도짓을 벌이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짐작하고 있다.

④

강도는 문간방에 들어가려 한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음을 깨닫고 망연해 있다가 자신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⑤

강도는 '나'가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빔에 물려서……."라며 강도의 사정을 말하자, '나'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음을 알고 강도짓을 그만두고 집을 나가고 있다. 그리고 문간방으로 가려다가 '나'가 대문의 위치를 말해 주자, 자신의 정체가 명확히 탄로 났음을 깨닫고 자신의 학력을 밝히며 사라지고 있다.

⑥

'나'가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강도에 대한 '나'의 연민이 드러나고 있고, 전등을 켜고 강도의 구두를 보고 싶은 충동을 참고, 문간방으로 가는 강도에게 대문으로 나가야 함을 일러 주는 모습에서 강도의 자존심을 지켜 주려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⑦

이 작품은 '나'의 시점으로 '강도(권 씨)'의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⑧

권 씨가 '나'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으나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으며, ㉠을 통해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 따뜻한 성품을 확인할 수 있다.

⑨

'나'는 권 씨를 돕기로 마음먹었으며 ㉡을 통해 이를 넌지시 알려 주고 있을 뿐, 권 씨에 대해 우월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권 씨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⑩

강도는 소심하고 선한 인물이지만 궁핍한 삶으로 인해 강도짓을 벌일 만큼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가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

‘나’와 강도가 상황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나’는 강도에 게 연민을 느끼며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2

‘나’는 집주인이며, 강도는 문간방에 사는 인물이다. ‘나’는 강도의 딱한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는 있으나, 동질감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13

강도는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나’에게 정체가 발각되면서 자존심까지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패배한 인물로 볼 수 있다.

14

‘나’와 강도로 위장한 ‘권 씨’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통해, 선량한 가장이었던 권 씨가 강도짓을 벌이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 도시 빈민의 비애를 보여 줄 뿐, ‘나’의 내면 의식의 성장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15

강도와 ‘나’의 대화를 통해 애초에 강도짓을 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는 강도의 성격과, 자신을 도울 이웃은 없다고 생각하는 강도의 절망적인 상황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16

‘나’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떠나기까지의 장면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

17

<보기>에서 권 씨가 궁핍한 환경에서도 구두만큼은 정성껏 닦고, 제시된 부분에서 권 씨가 강도짓을 하면서도 구두를 벗어 놓고 들어오는 모습은 구두가 그의 유일한 자존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18

권 씨는 산업화 과정의 부조리함으로 인해 도시 빈민으로 내몰렸고, 옥살이까지 하게 된다. 그가 강도짓을 벌인 이유는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닌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연민을 자아낸다. 따라서 작가는 소외 계층의 비윤리적 태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권 씨를 통해 소외 계층의 현실을 보여 줌으로써 산업화 과정에서 서

민들을 빈곤에 빠뜨린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 나무 (박목월)

집중 훈련 

본문 376~377쪽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작품 읽기 유성, 조치원, 공주, 온양 등을 거치며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던 화자가 삶의 본질을 깨닫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나무에게서 수도승, 과객, 파수병이라는 좁고 고독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로 돌아와서는 그러한 고독이 화자의 내면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는다. 고독은 삶의 본질로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심 내용

- 1연: 수도승처럼 묵중하게 서 있는 나무
- 2연: 과객처럼 추위 보이는 나무들
- 3연: 파수병처럼 외로워 보이는 나무들
- 4연: 삶의 본질적인 고독에 대한 깨달음

주제 나무를 통해 깨닫는 삶의 본질적인 고독

중심 시어 및 시구

- 수도승: 늙은 나무의 육중한 이미지
- 어설픈 과객: 때 지어 있는 나무의 좁고 침울한 이미지
- 파수병: 산마루에 있는 나무의 외로운 이미지
-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 화자와 나무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깨달음.

특징

- 여러 화귀형 구조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비유적 표현으로 나무의 이미지를 표현함.

①

화자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길에서 수도승 같은 나무를,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길에서 어설픈 과객 같은 나무를, 공주에서 온양으로 가는 길에서 외로운 파수병 같은 나무를 보고 있다.

②

수도승은 도를 닦는 승려를 의미하는데, [A]에서 화자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보며 수도승을 떠올리고, 묵중함을 느끼고 있다.

03

화자는 [B]에서 가난한 마을 어귀에 몰려 있는 나무들을 보며 추위 보이는 과객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고, [C]에서는 산마루에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며 외로워 보이는 파수병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04

[D]에서 화자는 나무들이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라고 하며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나무와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05

화자는 자기 안에 ‘묵중한’, ‘침울한’, ‘고독한’ 나무를 뽑아낼 수 없이 기르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속성이 인간 본질임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6

화자는 나무를 보며 ‘묵중하게 서 있었다.’, ‘몹시 추워 보였다.’, ‘외로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독과 외로움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07

화자가 본 나무들은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고독한 존재의 모습일 뿐 성장을 멈추고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08

화자는 나무와 자신의 내면 정서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대비적 관계로 볼 수는 없으며,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09

여정에서 만난 나무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을 뿐,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10

의인화된 나무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고독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면서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을 뿐, 인간이 극복해야 할 여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

화자가 유성에서 조치원, 공주, 온양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공간이 대비되고 있지 않으며 일상적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

12

유성, 조치원, 공주, 온양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13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색채 이미지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14

설의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일까’는 추측하는 표현이다.

15

나무에 대한 화자의 생각과 느낌을 수도승, 과객, 파수병에 빗대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6

‘~일까’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면서 나무가 주는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17

화자는 외부에 있는 나무를 관찰하는 데서 출발하여, 마지막에는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II 개념 마스터

개념 마스터

1 회

본문 379~392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⑩	05 ③
06 ③	07 ①	08 ③	09 ⑦, ⑧	
10 ⑧, ⑨	11 ①	12 ③	13 ③, ④	14 ③

[01~03] (가) 강 건너간 노래 (이육사)

작품 읽기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견디며 바람직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화자는 강이 뿔뿔 열 정도의 추위, 밤, 하늘 끝에 달은 사막으로 형상화된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다. 그 현실 속에서 화자는 고뇌하고 방황한다. 그러나 화자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생명력을 부여한 '노래'를 통해 강 건너 어딘가에 있는 삶의 희망에 달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추운 겨울밤에 강을 건너간 노래
- 2연: 하늘과 사막이 달은 곳으로 날아간 노래
- 3연: 가야 할 곳까지 날아갈 힘이 부족한 노래
- 4연: 별들이 위문 오는 가혹한 밤
- 5연: 희망의 의지를 담고 강을 건너는 노래

주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 1연의 시간적, 계절적 배경은 강조차 얼어붙는 추운 겨울밤인데, 이는 화자가 현실을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 화자가 머무르는 현실 공간은 추운 겨울의 절망적인 공간이다. 노래가 강 건너 도착한 공간 또한 '하늘 끝에 사막도 달은 곳', 노래가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을 수도 있는 공간으로 척박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3) 1연의 '밤'과 4연의 '밤'은 '앞내강 뿔뿔 얼어'붙고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으로서 시련과 절망의 이미지를 환기하지만, 5연의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며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환기한다.

4)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에 있는, 집조차 없는 못 잊을 계집애를 위해 강을 건너갔다. 따라서 '노래'는 화자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부르는 노래임을 알 수 있다.

5) <보기>에서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3연의 '계집애'는 작가가 위로와 희망을 전해 주고 싶은 우리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작가가 항일 투쟁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품에서 화자가 죽음을 불사하고 계속 이어 나가는 '노래'는 일제 치하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이면서 조국 광복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다.

6) 1연과 5연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갯소'라는 구절이 변주·반복되며 수미상관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밤', '겨울', '사막'과 같은 부정적 상황과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7) 화자는 계집애를 위해 노래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노래'를 의인화하여 '노래'가 강을 '건너갔다'고 표현하며 이러한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8) 화자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제비'같이, '어린 날개'를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1연, 2연, 5연에서 '소'라는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나) 묘비명 (김광규)

작품 읽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문인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다 죽은 사람의 묘비명을 쓰는 시적 상황을 통해,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세속적 가치에 종속된 문인을 풍자하고 있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시인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중심 내용

- 1~6행: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
- 7~8행: 물질적 가치에 굴복하는 문인
- 9~14행: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1~5행에서 ‘그’는 한 줄의 시나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지 않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세속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2) ‘그’는 정신적 가치를 외면하고 부와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다. 따라서 ‘훌륭한 비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의 삶을 비판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시와 소설을 읽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역시 비판의 의도를 담은 표현이다.

3) ‘묘비명’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는 물질주의적 세태를 반어적으로 풍자하며, 또한 세속적 인물이 미화되는 역사를 풍자하고, 현실과 왜곡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여 후대에 전하는 현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

4) 화자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문인’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한 ‘그를 기리’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유명한 문인이 쓴 묘비명을 ‘귀중한 사료’라고 하며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5) ‘시’, ‘소설’은 정신적 가치, ‘돈’, ‘높은 자리’는 물질적 가치를 가리키며, 시어의 대비를 통해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 압도되는 사회상에 대한 풍자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6) 화자는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를 통해 냉소적 어조와 반어적인 표현으로 물질주의적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7) 화자는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고 물질적 가치가 팽배하여, 역사가와 시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8)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을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반어적 표현으로 풍자하다가 마지막 두 행에서 역사가와 시인의 역할에 대해 성찰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역사와 문학

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9) 작가 자신도 시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라고 묻는 부분은 작가가 자신에게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답하는 부분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10) ‘이처럼’, ‘여기에’, ‘이 묘비’처럼 표현하여 마치 화자가 묘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 삶의 반영으로서 시

작품 읽기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시의 속성을 통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글이다. 시가 반영하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일상적 진실’과 있어야 할 것으로서의 ‘당위적 진실’로 나뉘는데, 시인은 시를 통해 이 두 가지 현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태도를 갖는다.

중심 내용

- 1문단: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시
- 2문단: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시
- 3문단: 시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인

주제 인간의 일상적 현실과 지향을 반영하는 시

01

정답 분석

- ③ (가)에서는 시적 대상인 ‘노래’가 ‘갓소’라고 표현함으로써 노래를 능동적이며 의지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노래’가 뽐뽐 언 강과 사막을 건너 무지개를 곁에 짜내는 밤에 강을 건너 갔다고 하며,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묘비’가 불의 뜨거움을 곳곳이 견대며 살아남는다는 표현을 통해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가)와 (나)는 모두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 듯한 서술을 취하고 있지만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또한 (가)는 풍자와는 거리가 멀다.
② (가)의 경우는 ‘갓소’와 같은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지만, (나)의 경우는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시구가 없다.
④ (가)의 경우는 ‘달 밝은 밤’, ‘사막’ ‘별’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뽕뽕 얼어 조이던’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도 ‘불의 뜨거움’과 같은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만 이는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⑤ (가)에는 반어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에서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02

정답 분석

- ④ [A]에서는 시가 반영하는 현실이 일상적 진실과 당위적 진실로 나뉜다고 하였다. ㉠은 사막이 얼마나 절망적인 곳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별들이 조문을 오는 곳’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여전히 ‘사막’으로 표현된 일상적 현실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에 제시된 시간적 배경은 ‘밤’으로, 강이 얼어 붙는 극한의 추위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에서 ‘사막’은 화자의 분신인 노래가 강을 건너서 가고자 하는 곳인데, 사막이 주는 삭막함과 비생명성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에서 화자의 분신인 ‘노래’가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가 처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인 ‘밤’에 희망을 표상하는 ‘무지개’를 대응시켜 화자의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적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

03

정답 분석

- ⑤ (나)는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할 시인이 물질적 가치를 숭배하는 묘비명을 작성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묘비명’은 시인이 비판하는 대상이지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다. 한 줄의 시를 읽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반어적 표현이다.

오답 분석

- ① (가)의 ‘노래’는 화자의 분신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화자가 부르는 노래이므로 시인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가)의 ‘노래’는 집 없는 계집애에게 다가가고자 부른 노래이다. 따라서 절망적인 사람에 대한 시인의 관점, 즉 연민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에서 ‘묘비명’은 물질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시 한 줄, 소설 한 권 읽지 않은 이의 삶을 기리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
- ④ (나)에서 ‘묘비명’은 물질을 추구한 세속적 인물의 생애를 기리는 것인데, 이러한 부정적인 기록이 ‘귀중한 사료’가 되어 후대에 전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시인으로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04-06] 토지 (박경리)

작품 읽기

총 5부(16권)에 걸친 대하소설이다.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 경남 하동에서 진주, 만주, 일본 등으로 공간적 배경이 확대된다. 최 참판댁 일가의 몰락과 재건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봉건적 가족 제도의 해체, 신분 계층의 해체, 서구 문물의 수용과 식민지 지배, 간도 생활을 통한 민족 이동의 문제 등을 통해 가문의 문제와 민족의 운명이 대응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농민부터 대지주, 지식인, 독립운동가, 일본인, 노동자, 신여성까지 폭넓은 인물 유형을 보여 준다.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유교적 질서의 근간이 해체되고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이며 풍속적인 면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장대한 이야기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는 삶의 애환과 극복 과정

전체 줄거리

- 제1부: 구한말, 지주 최 참판댁과 마을 소작인들이 어울려 사는 평사리에서 최치수가 살해되며, 먼 친척뻘인 조준구는 최 참판댁의 재산을 노려 계락을 꾸민다.
- 제2부: 조준구에게 집안의 재산을 모두 빼앗긴 서희는 가문을 부흥시키려는 일념으로 간도로 이주하여 길상의 도움을 받아 토지 거래를 통해 큰 재산을 모은다.
- 제3부: 귀향하여 진주에 정착한 서희는 조준구에게 빼앗긴 재산과 토지를 되찾고, 서희의 남편이 된 길상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발각되어 투옥된다.
- 제4부: 3·1 운동이 일어나자 서희의 두 아들이 한국과 윤국은 자신들의 풍족한 처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윤국은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정학을 당한다.
- 제5부: 출옥한 길상은 암자에서 탕화를 그리며 지내지만 사상범으로 다시 투옥된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 광복이 멀지 않은 가운데 서희는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갈 것을 결심한다.

특징

- 개성 있는 등장인물과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와 전망을 보여 준다.
- 속담이나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삼수는 조준구 밑에서 하인으로 일하며 이득을 취하고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다가, 윤보가 최 참판가를 습격할 계획을 세운 사실을 알고 윤보에게 미리 찾아가 회유하며 자신이 살아남을 방도를 찾고 있다.

2) 윤보는 삼수를 만난 뒤 ‘날을 다가가겠다(서둘러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다음 날 밤 자정 넘어 최 참판가를 습격한다.

3) 서희는 죽을 생각을 하고 연못에 뛰어들려다가 멈추고 홍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며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한다. 더 이상 홍 씨의 횡포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지 않고자 다짐하는 서희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

4) “길상이 높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를 반복해서 말하는 서희의 모습을 통해 서희가 길상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고 충격에 휩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제시된 부분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보다는 인물 간의 다양한 외적 갈등이 두드러진다. 가장 중심을 이루는 갈등은 서희와 조준구, 홍 씨 사이의 갈등이고, 그 밖에 삼수와 조준구의 갈등, 삼수와 윤보의 갈등도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6)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갑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등을 통해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의미를 밝히며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서술자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사건이 마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윤보가 최 참판가를 습격하는 긴장감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8) ‘서희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다.’는 충격을 받은 서희의 심리를,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는 두려움

과 충격에 휩싸인 삼수의 심리를 외양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9) ‘의병’, ‘헌병, 순사’와 같은 소재를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10) 최 참판댁의 토지 상실과 회복, 즉 몰락과 재기가 구한말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민족사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목 ‘토지’는 일제에 빼앗겼다가 되찾은 우리의 국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4

정답 분석

⑩ [B]는 방에서 연못으로 공간적 배경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방에서 연못으로 공간적 배경이 변한 것이 두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밝혀 주고 있지는 않다. 홍 씨와 서희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앞 장면에서 ‘홍 씨가 화적 무리의 습격이 서희와 관련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이 드러나 있다.

오답 분석

- ① [A]는 침묵을 ‘덩어리 같은’이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A]에는 최 참판댁을 습격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③ [B]는 ‘와락와락’, ‘고래고래’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④ [B]는 서희의 웃고름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르는 홍 씨의 격렬한 행동을 보여 주고 있다.
⑤ [A]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진술은 없고, 서술자의 눈에 비친 장면에 대한 관찰을 보여 주고 있다.
⑥ [B]에는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와 같이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⑦ [A]는 세 번째 문장부터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⑧ [B]는 현재형으로 진술되어 서희와 홍 씨 사이의 갈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⑨ [A]는 자정이 넘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윤보 일행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05

정답 분석

③ 습격이 일어난 다음 날 홍 씨가 서희를 찾으며 “넌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니!” 하고 외치는 부분을 통해, 흥 씨가 간밤의 습격이 서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㉔에서 흥 씨는 윤보 일행을 ‘화적’ 무리라 부르며, 그들과 서희가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삼수는 윤보에게 조준구를 먼저 치면 친일파도 제거하고, 원하는 자금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윤보의 계획을 숨길 수 있다고 알려 주고 있지는 않다.
- ② 삼수는 윤보가 습격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빌미로 윤보를 협박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사람 영악한 것’은 흥 씨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서희 자신의 영악함이 범보다 무섭다는 말이다.
- ⑤ 조준구는 삼수가 간밤의 일에 가담했다고 오해하며 삼수에게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삼수는 간밤에 습격한 일행에 속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준구를 도왔으므로, 삼수가 지난밤 조준구를 습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6

정답 분석

- ③ 봉순이가 서희를 잡아당긴 것은 흥 씨가 서희의 앞가슴을 잡아 흔들었기 때문에 서희를 흥 씨에게서 떼놓으려 한 것이다. 이 표현에서 신분 질서가 흔들렸거나 봉순이와 서희 사이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오답 분석

- ① 윤보는 삼수가 조준구를 먼저 치고 시작하라는 제안을 하지만, 윤보는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여서 돌아가거라.”라고 하며 거절한다. 따라서 윤보는 삼수와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다.
- ② 삼수의 말을 통해 조준구가 친일 세력임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햇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은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라는 표현에서처럼 서희는 죽을 생각을 했지만, 곧바로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나?”라고 말하며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이를 통해 서희와 흥 씨 사이의 대립 관계가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⑤ 삼수는 윤보에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라고 말하며 조준구를 치라고 했다. 이후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삼수는 조준구를 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11] (가) 비가(悲歌) (이정환)

작품 읽기

병자호란의 국치를 겪은 후에 지은 연시조로 총 10수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병자호란의 결과 청나라에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게 된 상황에서 작가가 느낀 수치심과 비통함,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 치욕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한탄 등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제1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왕자에 대한 그리움
- 제4수: 두 왕자를 모셔 오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
- 제6수: 치욕적인 항복으로 인한 아픔
- 제7수: 왕자와 백성들을 볼모로 보낸 것을 근심하는 임금
- 제8수: 국치를 당한 데 대한 아픔
- 제9수: 치욕적인 역사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주제 국치(國恥)에 대한 비분강개

어휘 풀이

- 반(半) 밤중: 한밤중
- 이역: 다른 나라의 땅. 여기서는 청나라를 말함.
- 치술령: 신라 눌지왕(訥祗王) 때 왜에 볼모로 잡혀간 왕의 동생을 구해 보낸 뒤, 그 대신 잡혀서도 신라에 대한 충절을 꺾지 않아 죽임을 당한 박제상과 얹힌 장소로, 치술령에서 박제상을 기다리던 부인이 망부석이었다는 전설이 있음.
- 억만창생: 수많은 백성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화자는 소현 세자를 꿈에서 본 후 일어나서 직접 본 것 같아 반갑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투영한다.

2) ‘늠라서 모려 오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신라의 박제상 같은 충신이 없어 세자를 구해 올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3) 많은 무신이 있음에도 누구를 위해 화친을 한 것이냐고 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4) ‘이역 풍상에 학가인들 이죽쏘냐’에서 임금이 세자에 대해 근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밖에 억만창생’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풀’은 화자와 대조적으로 봄비에 절로 자라나며, 근심이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풀’보다 못하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근심을 강조하고 있지, ‘풀’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조그만 이 한 몸’이 ‘검불’ 갈아 갈 길을 모른다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화자의 무력감, 자괴감을 보여 주고 있다.

7) 박제상이 죽은 후에 임의 시름을 알 사람이 없고, 조구리와 같이 참승할 이가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8) <제7수>의 ‘달 말근 밤’은 임금이 근심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어이고, <제8수>의 ‘봄비’는 풀이 자라나게 하는 것일 뿐, 화자의 현실과 대비되어 비극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9) <제4수>에서 신라의 충신 ‘박제상’을 언급하였고, <제6수>에서는 ‘조구리’라는 충신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과 같은 충신이 현실에 없음을 한탄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인물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10) 작중 상황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한 비극적 현실이며,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나) 풍란 (이병기)

작품 읽기

조선어 학회 사건과 8·15 광복, 6·25 전쟁 등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함께했던 난과의 인연을 소재로 한 수필이다. 작가는 역사의 현장에서 시련을 함께한 난에 대한 애정을 두 수의 시조를 통해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에게 위안이 되어 준 난의 청초함과 고결함이 정신을 기르게 한다며 난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향기를 잃지 않고 고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중심 내용

- 1~3문단: 난을 길러 온 과정
- 4~6문단: 난에 대한 애정

주제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 예찬

어휘 풀이

- 교편: 교사가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사물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 ‘교편을 잡다’는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임.
- 왕왕: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따금

- 방렬하다: 몹시 향기가 질다.
- 피감: 수사 기관에 잡혀감.
- 고해: ‘마른 뼈(해골)’라는 뜻. 여기서는 말라 죽어 형태만 남은 난초의 흔적을 이룸.
- 등갈: 줄기를 잘라 낸 나무의 밑동
- 다복다복: 풀이나 나무 따위가 여기저기 아주 탐스럽게 소복한 모양
- 객관: 음식이 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
- 청상하다: 맑고 시원하다.
- 삼공: 삼정승. 의정부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맡아 보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룸. 여기서는 정신적 가치와 대비되는 의미로 물질적 가치를 이룸.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 4문단에서 작가가 난의 영롱한 자태와 기품을 예찬하여 적은 시를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서화’나 ‘뽕’과 대비되는 난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1문단의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를 통해 작가가 바쁜 가운데 난으로부터 위안을 얻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 작가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된 것으로 보아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난을 키우는 일을 현실에 참여하는 삶보다 중요하다고 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4) 작가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누워 있다가 난의 향을 맡으며 시를 짓게 되었다.

5) [A]에서 난은 썩은 향나무 껍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숲속에 숨어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5문단에서 작가는 스스로 난연이 있고 난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6문단에서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난을 보았을 때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그 사람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두실 와옥’이라도 괜찮다는 것에서, 작가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물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빵과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는 난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화보다는 고서나 난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고서나 난이 지니는 정신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9) 마지막 부분에서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른다는 표현을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7

정답 분석

- ① (가)의 화자는 병자호란으로 인해 소현 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고뇌를 ‘슬허호노라’, ‘슬프다’, ‘시름겨워 호노라’ 등의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8수>에서는 국치를 당한 것에 대한 아픔을, <제9수>에서는 치욕적인 역사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 ② (가)의 <제9수>에서 화자는 자신을 바람에 지나는 ‘검불’에 비유하여 시대적 고난에 속수무책인 자신을 한탄하고 있을 뿐, 낙담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 ③ (나)에 작가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난을 돌본 이야기는 있으나, 인간의 삶의 유한성과 그것을 한탄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나)의 작가는 고난의 순간마다 난과 함께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난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의 화자는 치욕적인 현실로 인해 고뇌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바라는 삶과 다른 현실에 회의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나, (나)의 작가는 고난을 함께한 난을 예찬하고 있을 뿐,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08

정답 분석

- ③ 화자는 <제9수>에서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라고 말하고 있다. 화자가 ‘하늘 밖’에 떨어졌다는 것은 화자가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서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것에서 화자는 극

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뇌하고 있을 뿐,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 하고 있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제1수>에서 ‘학가 선객’은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를 의미한다. ‘꿈’에서 ‘학가 선객’을 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현 세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이 강함을 드러낸다.
- ② <제4수>에서는 신라의 충신이었던 박제상을 떠올리며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라고 탄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자호란으로 인해 청나라에 잡혀간 두 왕자를 모셔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작가는 조선어 학회 사건, 8·15 광복, 6·25 전쟁 등의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 ‘난’을 어렵게 길러 내었다. 이를 통해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엿볼 수 있다.
- ⑤ 작가는 ‘화려 광활’한 ‘요릿집’과 대조되는 ‘두실 와옥’이 고서와 난, 그리고 술 한 병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는 존재라며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09

정답 분석

- ⑦ ㉠은 봄비에 저절로 자라는 것으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화자와 달리 고민이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⑧ ㉡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존재로, 부정적인 역사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무력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은 근심이 있는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이고, ㉡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이다. 따라서 ㉠과 ㉡은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와는 거리가 멀다.
- ② ㉠이 저절로 자란다는 것은 근심이 없다는 의미이며, ㉡이 바람에 날려 갈 곳 모른다는 것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과 ㉡ 모두 세월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으며 인생의 무상함과도 거리가 멀다.
- ③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키나 울분을 심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은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라기보다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⑤ ㉠이 전란 후의 치욕적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⑥ ㉠은 현재의 화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일 뿐, 과거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라고 볼 수 없다.

10

정답 분석

- ⑧ <제7수>는 달 밝은 밤에 왕자와 백성들을 볼모로 보낸 것을 근심하는 임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적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는 담겨 있지 않다.
- ⑨ <제8수>에서는 국치를 당해 시름하는 자신의 처지를 ‘풀’이라는 자연물의 근심 없는 모습과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다. ‘봄비’는 단지 풀을 길러 내는 것일 뿐, 부정적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가 담긴 시어는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는 화자가 꿈속에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를 만났다는 의미이므로,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는 청나라에 잡혀간 세자를 모셔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제4수>에서 박제상과 같은 충신이 죽은 후에 왕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님의 시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을 통해 충신이 없는 현실을 애석해하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④ <제6수>에서 ‘조구리’와 같이 충신이 죽은 후 세자를 호위하여 모셔 올 이가 없다는 것을 통해 충신이 없는 현실을 애석해하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6수>에서 조정에 ‘무신’이 많음에도 화친을 하여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 수 있으며, ‘신고훈 화친’을 맺은 결과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 ⑥ <제7수>에서 화자는 달 밝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임금을 떠올리고 있다.
- ⑦ <제9수>에서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가’라며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11

정답 분석

- ① [A]에서 난이 자라는 열악한 환경을 의미하는 ‘썩은 향나무 껍질’은 고고한 기품을 지닌 난초의 ‘옥 같은 뿌리’와 대조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난이 ‘화려 광활’한 ‘요릿집’과 어울리는 대상이 아니라 ‘두실 와옥’

과 어울리는 대상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분석

- ② 작가는 난이 피워 낸 하얀 꽃의 ‘방렬·청상한 향’을 맡으며 [A]와 같은 시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은 풍란의 속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속성 때문에 작가는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 ③ [A]에서 ‘아는 이’는 풍란의 높고 조출한 품(品)과 향(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어느 집에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라며 난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작가 자신을 난연이 있고 난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자신도 풍란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작가는 바닷게를 먹고 병이 나서 병석에 있으면서 풍란을 곁에 두었는데 그 향이 좋아 글을 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A]의 창작 배경을 알 수 있다.
- ⑤ 작가는 병상에서 옆에 둔 난초에 대해 글을 쓰면서 ‘옥 같은 뿌리’,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을 갖춘 ‘난’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2-14] 홍길동전

작품 읽기

「홍길동전」은 영웅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한글 소설이다. 부패한 사회의 문제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이상 세계인 율도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적서 차별의 문제와 관리들의 부패상을 함께 그려 냄으로써 모순된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는 혁명성과 서민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인물, 배경, 소재 등을 중국에서 취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무대로 삼아 현실성을 높였으며, 한글 표기를 통해 독자층을 서민층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진정한 한글 소설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제시된 작품은 「홍길동전」의 19세기 이전으로, 당대 독자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변형을 통해 작품의 흥미를 높이고, 다음 권으로의 독서를 유도하는 상업적 전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전체 줄거리

조선 세종 때 좌의정 홍상직(洪尙直)과 시비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洪吉童)은 무예와 예의를 익혔으나 서자(庶子)로 태어나 자신의 뜻을 다 펴지 못함을 한탄한다. 한편, 홍 의정의 또 다른 첩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 당할 위기를 모면한 길동은 집을 떠나 도적의 소굴로 가 재주를 보이고 우두머리가 된다.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이라 자칭하고 탐관오리와 패악하고 타락한 승려를 징치하여 전국에 이름이 알려지자 조정은 홍길동을 잡기 위해 군사를 동원한다. 나라에서는 홍길동의 신기한 재주로 인해 도저히 잡을 수 없자, 아버지인 홍 의정을 회유하여 길동을 병조판서에 제수하려 하니 불려들이라 한다. 이에 임금 앞에 나타난 길동은 병조판서 제수를 사양하고 무리를 이끌고 나라를 떠날 것을 알리고 공중으로 몸을 띄워 홀연

히 사라진다. 이후 길동은 양반 출신인 아버지와 형은 조선에 남겨 두고 어머니만 모신 채 수하들을 이끌고 울도국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운다.

등장인물

- 길동: 홍 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 당대의 모순된 현실에 정면으로 항거하고, 자신의 이상을 성취해 나가는 영웅적 인물이다.
- 홍 의정: 홍길동의 아버지. 명문 가족의 후예로 전형적인 양반이다. 길동의 재능을 아끼워주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나 적서 차별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관념과 질서를 따르는 보수적인 인물이다.
- 춘섬: 홍길동의 어머니. 홍 판서의 시비로 길동을 임신하고 첩이 된다. 온갖 고난을 겪고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상이다.
- 초란: 홍 의정의 첩. 길동을 음해하고 길동과 갈등을 빚는 인물이다.

주제 모순된 사회 제도의 개혁과 이상국의 건설

특징

- 사회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최초의 한글 소설
- 영웅의 일대기라는 서사적 구조가 드러나며 전기적 요소가 강함.

////////////////////////////////////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 천근의 돌을 들어 던지는 장면, 오백 근의 철관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는 장면, 분신술을 부리는 장면을 통해 홍길동이 범상치 않은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 도적들 앞에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고, 분신술을 발휘하여 잡히지 않고 직접 왕에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여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전기적 요소가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홍 의정은 상의 명령에 아들의 신체적 특징을 설명하며 길동을 잡으려고 한다. 길동을 보호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4) '신의 몸이 천비(賤婢)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으매'를 통해 적서 차별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 봉건 체제의 상징인 상이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고, 천비의 몸에서 난 홍길동에게 병조판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당대 신분 제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상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6)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에서만 늙는 것이 아니라 병조판서의 자리에 올라 충성을 다해 상을 받들겠다는 길동의 발언을 통해 당시에는 장부가 출세하여 자신의 능력을 맘껏 펼치는 입신양명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7) 홍길동은 신분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사회 제도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갖고,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된다.

8) 자신의 신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능력에 합당한 지위를 얻으려는 과정이지, 버려진 영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없다.

9) 홍길동은 자신의 행적을 압축하여 요약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도적질과 지배층에 대한 저항이 자신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하고 있다.

12

정답 분석

③ '중략' 다음 부분을 보면 상이 홍 의정에게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고 하자 곧바로 홍길동의 왼쪽 다리에 일곱 점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홍 의정이 길동을 찾으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을 미루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길동이 찾아간 활빈당 모임에서 청포 입은 사람은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뉘라 하느뇨?"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 길동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청포 입은 사람의 질문에 길동은 자신을 홍 의정(홍정승)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나와 시험할 쏘냐?"와 같이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많은 길동이 홍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수한 길동은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 ⑤ 길동은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와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13

정답 분석

- ③ ‘활빈당’의 우두머리는 길동에게 ㉠ ‘글’을 보여 주며 자신이 적은 글에 쓰인 대로 행하면 길동을 ㉡ ‘상장군’ 자리에 앉게 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 ‘상장군’은 활빈당 우두머리가 쓴 ㉠ ‘글’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에 해당한다.
- ④ ㉠ ‘시험’은 길동이 활빈당에게 제안하여 능력을 펼칠 기회가 되므로, 길동의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 ‘시험’은 길동이 활빈당 무리에게 제안한 것이므로 그들과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우두머리가 건넨 ㉠ ‘글’은 길동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
- ⑤ ㉠ ‘글’과 ㉡ ‘상장군’은 각각 길동이 수행해야 할 과제와 그것을 수행했을 때 오를 자리이므로 자아실현을 방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⑥ 길동이 ㉠ ‘시험’을 제안하자 우두머리가 세 가지를 행할 것이냐고 제안을 하고 있으므로, 길동과 활빈당이 갈등하게 되는 계기는 아니다. 오히려 화합하는 계기가 된다.
- ⑦ ㉠ ‘글’과 ㉡ ‘상장군’은 각각 우두머리가 제안한 세 가지 과제와 그것을 수행하면 얻을 자리를 의미하므로,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 분석

- ③ 길동은 상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아뢰고 있다. 군기, 즉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탈취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신의 책략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이 대목이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를 통해 윗글이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보기>의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라는 표현으로 보아 기존에 없던 인물을 추가하여 흥미를 높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이전에는 길동이 씩씩한 힘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

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다.

- ④ <보기>를 통해 길동이 상에게 ‘병조판서’의 자리를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내용은 당시 독자들의 욕망이 작품에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흥미로운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하고 다음 권을 보라는 것은 궁금증을 유발한 후 책을 빌리거나 사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01 ①	02 ⑦, ⑧	03 ⑤, ⑥	04 ②	05 ④
06 ⑤	07 ①, ②, ⑥, ⑧	08 ④	09 ③	
10 ②	11 ⑤	12 ⑤	13 ⑤	14 ④

[01~03] (가) 플라타너스 (김현승)

작품 읽기

자연물인 '플라타너스'를 의인화하여 플라타너스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플라타너스'와 '나'는 운명적으로 고독한 존재이지만, '나'는 '플라타너스'를 꿈을 가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타너스'와 '나'는 모두 유한한 존재임에 안타까워하며, 마지막 날까지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함께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하늘을 지향하며 서 있는 플라타너스
- 2연: 그들을 드리워 은혜를 베푸는 플라타너스
- 3연: '나'의 삶에 동반자가 되어 준 플라타너스
- 4연: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싶은 플라타너스
- 5연: 플라타너스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람.

주제 고독한 삶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1연에서 화자가 플라타너스에게 꿈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플라타너스의 머리가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파란 하늘'을 순수, 이상의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이는 화자가 플라타너스를 꿈을 가진 존재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2) 2연의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린다.'에서, 화자가 플라타너스를 나뭇잎과 가지로 그들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3연에서 화자가 '홀로 되어 외로울' 때, 플라타너스가 함께 길을 걸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를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4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어 합일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신이 아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5) 4연에서 화자 자신과 플라타너스가 신이 아님을 인식한 뒤, 5연에서 수고로운 인생길이 끝나는 어느 날(죽음의 시간)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화자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검은 흙이 있는 먼 곳(죽음의 세계)을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로 표현하며, 이상과 사랑과 소통이 있는 영혼의 안식처로 묘사하고 있다.

7)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라고 하며 삶의 끝에 대해 생각한다는 점에서 무한성을 지닌 신과 달리 인간과 자연은 유한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화자는 플라타너스(자연)를 대화의 상대이자 삶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곧 인간과 자연 사이에 위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9) 플라타너스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아 유한한 존재로서의 고독을 견디며 살겠다는 겸허한 삶의 자세가 깔려 있다.

10) 화자는 시적 대상인 플라타너스를 꿈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의인화하여 예찬하고 있다.

11) 1연의 '파아란 하늘'을 통해 플라타너스의 꿈과 이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5연의 '검은 흙'을 통해 죽음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2) 플라타너스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걸고 있지만, 플라타너스와 말을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가 플라타너스를 계속해서 부르는 것은, 플라타너스와의 내면적 대화를 통해 스스로 삶의 본질을 사색하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장치이자 플라타너스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나) 달 (정지용)

작품 읽기

달빛에 비치는 풍경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달빛에 이끌려 한밤중에 밖으로 나온 화자는 달빛을 받아 더 함초롬해 보이는 흰 돌과, 달그림자로 인해서 수묵색으로 보이는 녹음 등의 시각적 이미지

를 통해 달밤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달밤의 고요함을 깨는 비둘기의 울음소리나 오동나무의 꽃향기 등 청각적,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달밤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함초롬', '설키다', '미웁한' 등 순우리말의 묘미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며, 직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달빛에 비치는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각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구조적 안정감과 리듬감을 형성한 점이 특징이다.

중심 내용

- 1연: 영창에 비친 달빛
- 2연: 달빛에 이끌려 나감.
- 3연: 마당에 가득찬 달빛
- 4연: 달빛을 받아 함초롬한 흰 돌
- 5연: 달그림자로 인해 수목색으로 보이는 녹색
- 6연: 향그러운 오동나무 꽃향기

주제 달빛에 비친 조화로운 풍경에 대한 감흥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 달빛이 창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밀물'에 비유하여 역동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2) 2연의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가다' 같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누가 부르지 않았지만 달빛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3) 화자는 달밤에 마당에서 자연물을 보며 느낀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4) 대비되는 시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5) 방에서 마당으로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만, 화자의 정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6) '넘치노나', '고와라', '설키도다' 등 영탄적 어조를 통해 달밤의 풍경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화자의 의지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7) '밀물처럼'(직유), '호수같이'(직유), '흰 돌도 /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의인) 등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달밤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8) 시각(흰 돌, 수목색), 청각(달밤에 우는 비둘기 소리 '구

구'), 후각(향그러운 오동나무 꽃)의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9) 흰 돌을 의인화하여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곱다고 표현하고 있다.

01

정답 분석

① (가)의 화자는 모든 연에서 '플라타너스'를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심 대상인 '플라타너스'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오답 분석

- ②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플라타너스의 이중성을 드러낸 부분 역시 찾을 수 없다.
- ③ 1연에서 '파아란'이라는 색채어를 통해 플라타너스가 꿈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것이 플라타너스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젖어 있다', '늘인다' 등과 같은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를 힘차고 활발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⑤ 플라타너스가 '하늘', '별' 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상승적인 이미지와 연관 지을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02

정답 분석

- ⑦ (가)의 화자는 ㉠을 통해 운명적으로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⑧ (나)의 화자는 달빛이 비추는 마당을 '홀로 보는' 상황으로 고즈넉한 달밤의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관조'란 대상과 거리를 두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으로, ㉠이 (가)의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관조적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나)의 화자는 달빛이 가득한 뜰을 보며 감흥에 젖은 뿐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③ (가)의 화자가 존재의 고독함을 인식하는 것이며, 화자가 경험한 시련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나)의 화자는 현재 달빛을 보고 느끼고 있으므로 추억을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가)의 화자는 홀로 되는 것에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⑥ (나)의 화자는 달밤의 풍경을 보고 감흥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담담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 ⑨ ㉠은 (가)의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내는 하나 현실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⑩ (나)의 화자는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 서서 달밤의 풍경을 감상할 뿐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3

정답 분석

- ⑤ (가)에서 ‘창’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이루는 요소라고 볼 수는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⑥ (나)에서 화자는 ‘영창’을 통해 들어온 달빛을 보고 있으므로 영창은 방안과 바깥의 매개체이지만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다고 볼 수 없으며, ‘영창’ 자체가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분석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길’을 ‘같이’ 걸으며 동반자로 느끼는 등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달빛에 비친 ‘흰 돌’을 관찰하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까지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했으므로,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삶의 여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밀물’처럼 밀려온 ‘달’을 접하고 마당에서 달빛에 비친 ‘한밤’의 정취를 느끼고 있으므로,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⑦ (가)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아름다운 별’이 있는 곳이라고 하며, 그곳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⑧ (나)의 화자는 ‘마당’에 달빛이 가득한 모습을 ‘호수’에 비유함으로써 달빛이 가득 찬 밤 풍경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⑨ (가)의 화자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이라며, 플라타너스와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⑩ (나)의 화자는 ‘오동나무 꽃’을 ‘못 견디게 향스럽다’고 표현함으로써 달빛에 어우러진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러내고 있다.

[04~07] 비 오는 길 (최명익)

작품 읽기

독서와 사색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해 있는 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심리주의 소설이다. 주인공 병일은 하숙방에서 도시의 공장으로 도보로 출근하는 노동자로서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비록 가난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일은 월급을 아껴 니체나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사서 읽으며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함으로써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일반적인 현실로부터 소외된 병일은 가끔 책상 앞을 떠나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내세우는 현실적인 삶의 태도에 관심과 흥미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현실에서 병일은 계속해서 괴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다가 사진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다시 독서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다.

전체 줄거리

병일은 성 밖 빈민굴에 살면서 맞은편 성 밖에 있는 공장에 사환 겸 사서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집에서 공장에 이르는 길을 왕복한다. 그는 비 오는 어느 날 비를 피하려고 사진관 앞에 서 있다가 사진관 주인, 이철성과 어울리게 된다. 이철성은 병일에게 술을 권하면서 큰 사진관을 열겠다는 그의 꿈, 사람 사는 재미를 추구하는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집으로 돌아온 병일은 사진사의 소박한 꿈에 대해 조소하지만 다음 날 또다시 사진관을 찾아가게 된다. 병일은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만이 지향 없이 고독을 느낀다는 생각을 한다. 공장에서 오면 늘 책을 보던 버릇도 그만두고 병일은 신문사의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평양에 장타푸스가 돌 때 이철성이 죽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병일은 노방(길가)의 타인은 언제까지나 노방의 타인하기를 원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더욱 독서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등장인물

- 병일: 자의식이 강한 지식인이다. 평범한 소시민적 삶의 방식을 거부하지만 자신의 삶에 안착하지 못하고, 자신은 노방의 타인이라는 의식에 젖어 있다. 독서에서의 몰입을 통해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관념적 태도를 드러낸다.
- 사진사(이철성): 남의 사진관에서 소주로 일하다가 독립하여 자신의 사진관을 경영하고 있는 인물. 사진관이 잘되어 돈을 모아서 처자와 단란한 생활을 꾸려 가는 소시민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주제 현실적 삶과 독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모습

특징

-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함.
- 심리적·사상적으로 허무적이고 절망적인 색채를 지님.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 인물의 대화나 행동보다는, 공장에서 그리고 퇴근한 뒤 느끼는 병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2) 당시의 도시가 변해 가는 모습을 ‘누렁던 길이 매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 꺼멓게 멍들기 시작한 이 거리’라고 묘사하고 있는 데서 도시의 발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 병일이 하는 일은 마루를 쓸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이다. 이는 병일이 단순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병일을 성실한 도시 노동자로는 볼 수 있으나, 주인의 감시로 현금이나 금고 속 서류에 손을 대지 못하므로 공장의 중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병일은 신원 보증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계속 의심하는 주인에게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왔으며, ‘그리고 못 미더워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병일은 신원 보증인을 구하고자 다시금 궁리하고 있다.

5) 병일에게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은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있다는 점에서 독서를 즐겨했음을 알 수 있고, 요즈음에는 이를 ‘무거운 짐같이 거뒀다.’라고 하였으므로 독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병일은 예전과 다르게 독서에 피로감을 느끼고,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아졌다. 이는 그가 독서나 사색과 같은 정신적 가치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7) 하숙방은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히 뛰어오르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병일은 발길을 돌려 사진관으로 향하고 있다.

8) 사진관으로 발걸음을 옮긴 병일은 사진사와의 술과 한담에 만족하며 여지껏 경험해 보지 못한 ‘취흥에 대한 향락’을 경험하였다.

9) 병일은 사진사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러한 생활은 ‘일시적’이며 ‘장마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병일 스스로 이러한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04

정답 분석

2) 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병일의 생각과 공장에서 일하는 병일이 공장의 주인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누면서 병일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병일을 초점 화자로 내세워 그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풍자적 어조와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병일의 우울하고 부정적인 내면 심리가 나타나 있을 뿐, 과장된 언행이나 비극적인 분위기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자연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환상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 ⑤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병일의 모습이 나타날 뿐, 장면 전환이 빈번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05

정답 분석

4) 병일은 반복되는 공장 사무실에서 하숙방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발을 멈추고 성문을 바라보곤 하였는데, ‘누각’은 지나치다가 보게 된 성문의 일부일 뿐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도시가 발전하면서 누렁던 길이 매연과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검게 변하고 있는 거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병일은 ‘소사’와 ‘급사’,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는 ‘서사’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은 벌써 2년째 반복되는 일이다.
- ③ ‘장마’는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곤한 병일의 일상에 지루함을 더하고 있는 배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사진사의 ‘코 고는 소리’는 직접 듣는 소리가 아니라, 이른 아침 출근하기 위해 자야 하는 병일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06

정답 분석

- ⑤ 병일은 사진사의 수다를 듣는 중에 자신의 하숙방에서 자신을 기다릴 책을 떠올리고 있다. 책은 병일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으로, 병일은 타인과 시간을 보내는 중에 자기만의 세계를 잠시 떠올린 것이다. 따라서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실망을 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병일은 신용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주인으로부터 늘 감시를 받는 상태이다. 따라서 병일이 신용 보증인을 궁리한다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② 주인은 신용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병일을 늘 감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병일은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병일의 심리적 불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
- ③ 병일은 자신과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인을 부럽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병일은 돈을 아껴 책을 모으고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몰두하던 자기만의 세계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7

정답 분석

- ① 병일의 하숙방은 ‘시꺼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곳이며,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는 곳이다. 병일은 하숙방을 뒤로하고 사진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책과 마주 앉을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하였으므로, 하숙방은 자신을 만나는 고독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병일은 하숙방에서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 사진관을 찾아가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하숙방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사진관은 병일에게 일시적인 도피처라고 할 수 있다.
- ③ 사진관에서 병일은 사진사와의 술과 한담을 주고받으며 만족감을 느끼므로, 사진관은 병일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병일은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분석

- ③ 병일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니체에 대한 상

상을 하고 있다.

- ④ 도피처인 사진관에서 병일은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눌 뿐 그를 동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병일은 하숙방에서 고독한 자신을 대면할 뿐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 ⑦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은 공장 사무실이다.
- ⑨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고 있는 곳은 공장 사무실이다.
- ⑩ 사진관은 병일에게 일시적인 도피처일 뿐,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는 곳이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8-11] (가) 오륜가 (주세붕)

작품 읽기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연시조로, 서사를 포함하여 6수로 이루어져 있다. <제1수>에서 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밝힌 후,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임금에 대한 신하의 도리,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 형제간에 지켜야 할 도리, 웃어른에 대한 아랫사람의 도리와 관련된 유교적 덕목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교 이념의 전파를 목적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설교조의 어조이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심 내용

- 제1수: 오륜의 실천 권유
- 제2수: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
- 제3수: 임금에 대한 신하의 도리
- 제4수: 지아비(아버지)에 대한 지어미(아내)의 정성
- 제5수: 형제간의 불화에 대한 경계
- 제6수: 노인(어른)에 대한 공경

주제 인간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여휘 풀이

- 가아: 끝이
- 뉘랴서 삼기신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 문저: 먼저
- 반상: 밥상
- 불공하면: 공경하지 않으면
-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절하고야 말 것입니다.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 <제1수>에서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대상으로 교화하기 위해 이 노래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말삼’, 즉 오륜을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님을 이유로 내세워 오륜을 배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제2수>는 부자유친(父子有親), <제3수>는 군신유의(君臣有義), <제4수>는 부부유별(夫婦有別), <제5수>는 형제우애(兄弟友愛), <제6수>는 장유유서(長幼有序)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2수>부터 <제6수>까지는 오류의 내용에 따라 연이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2수>는 부모의 은혜가 끝이 없으므로, 그 덕을 갚는 것 역시 끝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4) 종(신하)과 주인(임금)의 구별은 벌과 개미의 질서처럼 하늘의 뜻이므로, 도리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5) <제4수>에는 아내가 남편을 손님처럼 공경하고 정성껏 대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6) <제5수>에서는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개, 돼지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개와 돼지는 덕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이므로 이와 대비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7)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짐승과) 다르고’를 통해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8) <제1수>에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을 대상으로 교화하기 위해 이 노래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자 개인의 학문 수양과 정치인의 의지보다는 유교적 윤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9) <제1수>에서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라는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오류를 배우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오류를 배워야 하는 당위성이 드러나고 있다.

(나) 차마설 (이곡)

작품 읽기

말을 빌려 탄 일상의 경험을 통해 소유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다. 빌린 물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짐을 경험한 작가는 자기 소유일 때는 심리 변화가 더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을 통한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작가는 힘, 권세 등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이 빌린 것에 불과하다며, 소유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상적 체험을 제시한 ‘사실’과 체험을 일반화한 ‘의견’의 2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중심 내용

- 사실: 말을 빌려 탄 경험
- 의견: 소유에 대한 깨달음

주제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어휘 풀이

- 노둔: 늙어서 재빠르지 못하고 둔함.
- 준마(駿馬): 잘 달리는 좋은 말
- 환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비복(婢僕):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미혹: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림. 정신이 헛갈려서 갈팡질팡 헤맨.
- 백승(百乘): 백 대의 수레. ‘백승지가(百乘之家)’의 준말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1) 노둔하고 야원 말을 빌렸을 때와 준마를 빌렸을 때 느낀 점의 차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2) 글쓴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라며 모든 것이 참소유가 아닌, 빌린 것임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돌려주게 되면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소유에 대해 허망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참소유와 거짓소유의 구별이 아닌 소유 자체를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이 결여된 당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당대인들이 왜 그러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다.

4)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미혹된 일이라고 하고 있다.

5)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에서는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변화가 심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에서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에서는 소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6)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잘못된 소유 관념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고 있다.

7) 소유의 본질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금, 신하, 자식, 지어미, 비복(婢僕) 등 다양한 경우에 대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8) 화자의 경험인 ‘말을 빌려 탄 일’에서 화자는 노둔한 말을 빌렸을 때와 준마를 빌렸을 때의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남에게서 무언가를 빌렸을 때에도 거침없는 자세를 보였는데 자신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더 함부로 대하여 더욱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에 대한 보편적 깨달음을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토대로 이끌어 내는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08

정답 분석

- ④ (가)의 화자는 제목에서처럼 오류의 덕목, 곧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소유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가)에 ‘어와’와 (나)에 ‘아’ 등에서 영단적 표현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와 (나)에는 작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이 드러나 있지만 이와 상반된 세계관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대구의 형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이나 삶의 태도를 추론할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 연민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에서 이상향에 대한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가)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는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9

정답 분석

- ③ (나)의 작가는 준마(駿馬)와 둔마(鈍馬)를 빌려 탄 일상의 경험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빌린 것임에

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인 양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과 깨달음을 전하며,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임금,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주인과 비복 등 사회 전반의 관계로 일반화하여 소유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삶이 참되고 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가)는 <제2수>부터 <제6수>까지 오류인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형제우애, 장유유서를 순차적으로 열거하여 유교적 덕목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각 덕목이 지닌 모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② (가)는 유교적 덕목의 실천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지켜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가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며, 욕망의 실현을 돕거나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⑤ (가)와 (나)는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10

정답 분석

- ② (가)의 <제4수>는 지아비(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노래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이 나타나 있다. <제4수>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뿐,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답 분석

- ① <제3수>는 상하 질서를 갖추고 있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임금에 대해 신하가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을 유추하고 있다.
- ③ <제5수>는 형님과 아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경험을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형님 자신 젖을 내 조처 먹나이다’에서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 ④ <제5수>의 종장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에서 ‘개돼지’란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유한 표현으로, 오류를 지키며 실천하는

바람직한 사람과 대비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 ⑤ <제2수>의 ‘부모’는 자신을 낳은 사람을 의미하며, <제5수>의 ‘형님’은 동생에 대비하여 형을 의미한다. <제6수>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는 ‘늙은이’는 ‘부모’에, 어른은 ‘형’에 빗댄 표현이다. 종장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를 통해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유교적 덕목을 실천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초장의 비유적 표현은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1

정답 분석

- ⑤ 5문단에서 ‘나’는 맹자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 맹자가 한 말인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어 이 글을 썼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맹자의 말을 통해 오래도록 빌리고서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작품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1문단에서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려 탄 경우 전전긍긍하기 일쑤이고,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말에서 내리곤 한다고 하였을 뿐, 그 말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또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과 ‘준마’를 탄 경험을 통해 2문단에서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준마’를 소유할 때 ‘의기양양’한 감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 ③ 3문단의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에서 ‘미혹된 일’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 ④ 4문단의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에서 ‘독부’는 빌린 권력을 돌려주고 외로운 처지가 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2~14] 임장군전 (작자 미상)

작품 읽기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인 임경업 장군의 영웅적 일생과 비극적 죽음을 그려 낸 역사 군담 소설이다.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 무능하고 사리사욕에 빠진 당대 집권층에 대한 분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병자호란의 역사적 치욕을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당대 민중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영웅적 승리로 귀결되는 대부분의 군담 소설과는 달리 임경업 장군의 불행한 결말을 보여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체 줄거리

임경업은 무과에 장원 급제한 후 사신 이시백을 따라 명나라에 간다. 그리고 명에 원조를 청해 온 호국을 도와 싸움을 승리로 이끌며 명성을 중국에까지 떨치고 귀국한다. 이후 호국은 강성해져서 우리나라에 침입해 인조의 항복을 받아 낸다. 경업이 의주에서 세자 일행을 인질로 끌고 가던 호국병을 격파하자, 호국 왕이 진노하여 인조에게 경업을 호국으로 보낼 것을 명한다. 경업은 호국으로 보내져 청병으로서 명군과 싸우지만 친구였던 명나라 장수를 만나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 역으로 호국을 치려 하다가 실패하여 호군에게 생포된다. 호왕은 그의 충의에 감복하여 그와 세자 일행을 조선으로 돌려보낸다. 이때 간신 김자점이 인조에게 경업을 모함하는 간계를 꾸미다가 실패한 후 경업을 암살한다. 그 후 꿈속에서 경업의 현신을 본 인조가 김자점을 처형하고 경업의 충의를 포상한다.

등장인물

- 임경업: 병자호란의 치욕을 극복한 인물로 민족적 영웅으로 살아가는 간신 김자점의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영웅
- 김자점: 임경업을 제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이들의 수장. 임경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도 죽임을 당함.

주제 임경업 장군의 충의 정신과 비극적 죽음

특징

- 주인공이 민족적 영웅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창작됨.
- 역사적 사건인 병자호란의 사실적 내용과 소설적 변개가 조화를 이룸.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상은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뇨?’,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라고 말하는 등, 경업이 자점의 거짓 조서로 역적으로 몰려 옥에 갇힌 사실을 모르고 있다.

2) 이 작품은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한 복수심과 민족적 보상 심리에 부응하면서 창작된 것이다. 특히 호왕을 배어 병자년 원수를 갚으려 했다는 설정을 통해 실제 남한산성에서의 굴욕적인 항복에 대한 정신적 보복을 이루어 내고 있다.

3) 자점이 심복 수십 명을 매복시켰다가 경업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아 경업의 능력을 알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점이 경업을 끝내 죽게 하지만, 이는 자점이 비겁하게 얻은 승리이지, 경업의 능력이 부족하여 패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상의 꿈에 경업이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자점의 죄를 고한다. 이에 결국 자점은 벌을 받게 되고 상은 경업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려 한다. 이를 통해 ‘꿈’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상은 자점의 자복을 듣고, 자점의 삼족(부모, 형제, 처자)을 불러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경업의 자식을 불러 원수를 갚도록 하교하고 있으므로, 자점을 응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경업이 죽는 비극적 결말이지만 결국 자점의 악행이 드러나 벌을 받고 경업의 억울함도 풀리게 된다는 점에서 권선징악의 교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7)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흥계를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등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8) 경업이 자점의 흥계로 옥에 갇힌 것이라는 말을 듣고 통분을 이기지 못해 바로 몸을 날려 옥문을 깨뜨려 궤에 들어가 상을 찾아뵙는 장면에서 영웅으로서의 임경업의 초월적인 능력이 드러난다.

9) 임경업과 같은 민중적 영웅은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통한 죽음을 맞는다는 점에서, 중략 이후 부분은 경업이 영웅으로서 큰 위기를 극복해 낸 부분이 아니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통하게 죽었으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부분이다.

10) ‘대명(大明)과 함께 호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 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옴더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옵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顔)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에서 경업이 자신의 지난 과거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2

정답 분석

⑤ 주인공 경업이 자점의 흥계로 인해 옥에 갇히고, 결국은 자점의 계략에 의해 경업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적대자 자점과 경업이 뛰어난 슬기와 계략을 뽐내며 다투는 지략 대결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경업은 죽임을 당했으므로 대결을 통해 초월적 능력도 보여 주지 못한다.

오답 분석

- ① 경업과 자점의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하여, 자점에 대한 상의 징벌까지 나타나 서사적인 흥미가 잘 드러나고 있다.
- ② 충신인 경업이 간신 자점에게 모해를 당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장면은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시킨다.
- ③ 경업이 상 앞에서 그간 자신이 겪고 행한 일을 설명하는 대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알 수 있다.
- ④ 경업을 죽인 악인인 자점이 상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점에서 악인의 횡포를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13

정답 분석

⑤ 자점에 의해 경업이 죽임을 당한 이후 경업이 상의 꿈에 나타나 자점을 국문하라고 요청한다. 이에 다음 날 상은 자점을 국문하여 자복을 받아 내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경업은 자점의 흥계를 모르기 때문에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는고?’라고 생각하며, 전옥 관원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자점의 흥계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 ② 옥졸은 자점의 명령으로 옥에 갇힌 경업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옥졸이 상에게 경업의 죄를 밀고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③ 대군은 경업이 궤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지만 시자가 모른다고 답하자, 의심하여 급히 상을 찾아 자점을 엄하게 다스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대군은 자점의 흥계를 의심하고 있기는 하나 경업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 ④ 우의정 이시백은 유배를 간 자점이 반심을 품는 등 불측지심이 나타나자 이를 상에게 아뢰다. 우의정 이시백이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A]는 경업이 자점의 계락에 빠져 난타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옥에 갇히는 장면이다.㉠에서 이를 읽은 평민층이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고 반응한 것은 자점이 아니라 경업에게 보내는 연민이다.

오답 분석

- ① [B]는 경업이 자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식자층은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② [A]는 경업이 자점의 흥계로 심복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다시 옥에 갇히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식자층은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는 표현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는 경업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평민층은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라는 표현을 통해 경업이 자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업의 죽음을 하늘의 운으로 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임경업의 죽음에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 ⑤ [B]는 경업이 자점의 흥계로 매를 맞아 죽음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평민층은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의 말임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표현을 통해 충신인 경업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01 ①	02 ②	03 ⑤	04 ④	05 ①
06 ④, ⑦, ⑧, ⑨	07 ②	08 ①		
09 ⑤, ⑥, ⑧, ⑨	10 ④	11 ③	12 ③	
13 ④	14 ③			

[01~04] (가) 문학적 시간

작품 읽기

문학적 시간의 재구성에 따른 미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과거형과 현재형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한다. 특히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의 분리 없이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자연적 시간의 변형과 재구성을 통해 나타나는 문학적 시간

(나) 고풍 의상 (조지훈)

작품 읽기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의 우아함과 동적인 곡선이 나타내는 아름다움에 도취된 화자의 감동이 드러난 시이다. 고가(古家)와 봄밤을 배경으로 '호장저 고리, 기인 치마, 운혜 당혜'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통 의상의 고풍스러운 우아함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고유어와 예스러운 말투 등을 통해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중심 내용

- 1~3행: 깊어 가는 봄밤
- 4~6행: 저고리의 우아한 아름다움
- 7~8행: 치마 선의 아름다움
- 9~12행: 옷맵시와 춤사위의 아름다움
- 13~14행: 고풍 의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됨.

주제 고풍 의상을 입은 여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고전적 아름다움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1)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봄밤’이라는 계절적·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파르란 구슬빛’, ‘자줏빛 호장’, ‘하얀 동정’이라는 색채

이미지로 저고리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저고리와 치마의 색채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와 춤을 추는 ‘그대’를 ‘한 마리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4)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라는 부분에서 현재(이 밤)와 과거(옛날)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고통 의상을 보며 과거를 떠올려 잃어 가는 고전미를 느끼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5) ‘가는 버들인 양 손을 흔들어지이다’에서 대상을 ‘버들’에 빗대어 동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6) ‘곶아라’를 ‘고아라’로 변주해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7) ‘그대’라는 가상의 청자가 나타나지만 말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8) ‘-나지고’, ‘-소이다’, ‘-어지이다’와 같은 종결 어미를 통해 예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다) 결빙(結氷)의 아버지 (이수익)

작품 읽기

어른이 되어 아버지가 된 화자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아버지가 된 화자가 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추억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화자는 하얗게 결빙된 한강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하얗게 결빙된 한강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미지로, 화자는 이를 통해 추위로 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떠올리고 동시에 한 줌 뱃가루가 되어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1연: 어릴 적 추위를 막아 주던 아버지께 대한 회상
- 2연: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돌보며 느끼는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
- 3연: 얼어붙은 한강을 보며 느끼는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

주제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버지께 대한 애절한 그리움

////////////////////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어머님’을 구체적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2) 추위에 떨던 화자의 유년기가 가난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으나, ‘벌레처럼 파고들어’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어린 화자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괴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3) 1연에서는 어린 시절 화자의 추위를 막아 주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4) 1연에서는 어린 시절 즉 과거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2연은 ‘요즈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 현재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5) 어린아이였던 화자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뱃가루’가 되어 ‘붉은 흙’에 묻혔다는 것을 통해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에 묻혀 있음을 알 수 있다.

7)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인한 슬픔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을 뿐, 걱정적 어조로 보기 어려우며, 2연의 마지막 행으로 보아 그리움의 정서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그런데’는 화제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접속어로, 화자는 3연에서 문득 아버지를 떠올린 계기를 말하고 있다.

9)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영하의 한강교’를 통해 아버지를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10)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를 통해 ‘얼음’은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1

정답 분석

- ① (가)에서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은 ‘봄밤’이라는 자연적 시간을 작가의 의식에 따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여 ‘두견이 소리’에 빗대어 형상화함으로써 미적 효과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 ②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는 호장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현재형 어미로 진술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는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한다.
- ④ ‘이 밤에 옛날에 살아’는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표현한 구절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이지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⑤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거지이다’는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02

정답 분석

- ② [A]에서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에서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은 화자가 ‘예닐곱 살 적 겨울’에 살았던 과거의 공간이므로, 화자의 현재 위치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어머니를 청자로 하여 화자가 아버지와의 추억과 그리움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 ③ ‘옛날처럼 나는’은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으로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추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가는 것은 현재이고, ‘영하의 한강교’를 보며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가 현재로 통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과거에 이미 돌아가신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현재 시점에서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는 표현에서 과거와 현

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다.

03

정답 분석

- ⑤ (나)의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아미를 숙이고’ 있는 여인의 자태와 ‘호접’의 이미지와의 조화를 통해 고전적 아름다움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함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말줄임표의 사용이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곱아라’, ‘파르란’에서 의도적으로 시어를 변형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호장저고리’, ‘운혜 당혜’, ‘거문곶줄’ 등의 전통적 소재와 ‘아름다운지고’, ‘밝도소이다’, ‘흔들거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를 통해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여인의 움직임은 자연물인 ‘한 마리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파르란 구슬빛’, ‘자줏빛’, ‘하얀’과 같은 색채어를 사용하여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04

정답 분석

-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은 어린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며, ‘팡팡 얼어붙은 잔등’은 추위로부터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내면의 의도와 일치하는 행동이지,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자식을 지켜 주는 화자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며,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것은 유년 시절 화자를 보호해 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이다. 두 모습의 호응을 통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아버지에서 화자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 ② ‘늘 그런 추억’은 자식들의 추위를 막아 주느라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아버지의 헌신을 떠올린 것으로, 이로 인해 화자는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애틋

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한 줌 뽕가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하여 ‘하얗게 얼음으로 얹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 화자의 마음과 ‘아버지 가래’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의 기억을 연결하여 어린 화자를 추위에서 지켜 주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05~07] 한계령 (양귀자)

작품 읽기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으로, 작가가 1980년대 부천 원미동에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서술자와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나’는 옛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25년 만에 연락하여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는 ‘은자’의 요청에 쉽게 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결국 ‘나’는 ‘은자’가 일하고 있다는 새 부천 클럽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한 여가수가 부르는 ‘한계령’을 듣는다. 그 노래를 들으며 ‘나’는 ‘큰오빠’와 동시대를 살았던 소시민들의 고달팠던 삶에 대해 연민과 위로로 보낸다.

전체 줄거리

어느 날, 나는 선 목소리의 전화를 한 통 받는다. 25년 전 전주의 철길 옆 동네에 살던 찌뽕집 딸 박은자였다. 은자는 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머뭇거리는 기색이었으나 나는 25년 전 그녀를 도련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던 은자는 지금 밤무대 가수 미나 박이 되어 있었다. 부천의 나이트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은자는 다음 주에 신사동에 카페를 개업하게 되어 이번 주까지만 부천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꼭 자신을 찾아오라는 당부를 한다. 나는 전화를 끊고 옛 추억에 잠긴다. 과거의 나의 집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생계를 큰오빠가 도맡아 꾸려 가고 있었다. 가난했던 시절, 용돈을 털어 사 먹었던 은자네 찌뽕은 별미 중에 별미였다. 나는 그런 은자의 전화가 반가웠지만, 은자를 찾아가는 일을 왠지 망설이게 된다.

다음 날, 은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 재회를 재촉한다. 은자는 한때 고생했지만, 지금은 아들을 둘 두었으며 성공해서 꽤 잘살고 있다고 한다. 은자의 전화를 끊은 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다. 전주의 옛 고향집에서 큰오빠와 살고 있는 어머니는 큰오빠가 매일을 술로 지낸다는 이야기를 한다. 나는 은자를 찾아가기로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은자가 마지막으로 나이트클럽에 출연한다는 일요일, 나는 큰오빠가 고향집을 팔기로 했다는 동생의 전화를 받는다. 끝까지 고향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큰오빠가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은자를 찾아가는 길에 화장을 한 여가수가 부르는 한계령을 듣는다. 노래를 들으며 나는 큰오빠가 살아온 세월과 고단한 삶의 무게가 떠올라 눈물을 흘리며 노래에 빠져든다. 나는 그 여가수가 은자라고 생각하며 그냥 돌아온다. 사흘 뒤 은자는 전화를 걸어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나의 무심함을 질타한다. 그리고 신사동에 ‘좋은 나라’라는 카페를 개업했다며 그곳에 들을 일이 있으면 꼭 찾아오라고 말한다. 나는 ‘좋은 나라’라는 카페 이름에 감탄한다.

등장인물

- 나: 작품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이며 소설가. 섬세한 성격이며 소심한 면

도 있어, 옛 친구 은자와의 조우를 자꾸만 망설임.

- 은자: 주인공인 ‘나’의 어린 시절 단짝 친구로,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하는 인물. 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자 ‘나’의 무심함을 탓하며 원망하지만, 본심은 착해서 이해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함.
- 큰오빠: 주인공의 큰오빠로,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 온 인물.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찾아온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에 힘겨워함.

주제 소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위로 / 간직하고 싶은 추억의 소중함

특징

- 뛰어난 관찰력과 묘사로 교차되는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함.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나’는 은자의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술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라는 말을 듣고, ‘박은자’에서 미나 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부천으로 옮겨와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라고 하며 은자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고 있다.

2) ‘굳건한 쇠문, 높은 산봉우리’는 서민들이 몸으로 밀어 가며 인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고단한 삶, 인생의 고난을 의미한다.

3) ‘창가에 붙어 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를 통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귀 기울이는 ‘나’의 공감의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부딪치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인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였다.’ 등을 통해 서민들의 삶에 연민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 중략 뒷부분에서 ‘나’는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해 버려 일 년에 한 번씩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5) ‘나’는 고향을 확인하는 마지막 하나 남은 표지판이 은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은자를 ‘만나 버린 뒤에는 내

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나'는 변한 은자를 만나면 유년 시절의 소중한 기억이 훼손될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6) 은자가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유년 시절의 소중한 기억이 훼손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은자와의 만남을 미루는 것이다.

7) 현실의 은자와의 만남과 소중한 추억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8) 주인공 '나'가 서술자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9) 부천, 원미동 등 실제 지명을 이야기에 활용하여 허구의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10) '나'는 은자의 연락을 받고 고향과 은자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한다. '나'에게 있어 은자는 행복했던 고향의 이미지를 환기시켜 주는 존재이다.

05

정답 분석

① 어린 시절 친구인 은자의 전화를 받고 난 후의 '나'의 내면을 서술자인 '나'가 독백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는 은자를 통해 고향을 떠올리고 있으며, 그녀를 막상 만나게 되면 고향의 모습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 ② '나'는 은자의 전화를 받고 그녀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중략 이후에는 그녀를 통해 고향에 대한 옛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 삽화처럼 나열되어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다.
- ③ 이야기 내부의 1인칭 서술자 '나'에 의해 전개되고 있으며, 사건의 의미를 직접 제시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시종일관 유지되고 있으며, '나'의 은자와의 재회와 관련된 내적 갈등을 '나'의 시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을 뿐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지 않다.

⑤ 서술자 '나'는 은자에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다만 은자의 고단한 삶을 추측하는 진술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06

정답 분석

- ④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 보려니까 되게 힘드네.”와 같은 진술을 통해 은자는 나와 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⑦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를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를 통해 은자는 '나'가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 것을 체면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⑧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술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등을 통해 은자는 현재의 자신을 보여 주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⑨ 은자는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고향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은자의 현재 모습을 볼 자신이 없다. 즉 '나'는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은자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자가 가수로서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은자의 말은 찾을 수 없다.
- ② 서술자 '나'가 작가로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은자의 전화로부터 '나'가 심리적 위안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은자의 전화를 받고 고향을 떠올리고 있기는 하나 심리적 위안을 받아야 할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나'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를 통해 '나'는 은자의 요청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림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은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⑥ '나'는 은자가 살아온 날들을 상상하며 그녀에게 연민을 보내고 있으므로 그녀를 도도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7

정답 분석

- ② 화자가 부천에 살면서 본 '그들'의 모습에 대해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

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부친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시민들에게 인생이 ‘밀고 두들겨야’ 하는 것이지, ‘탐구하고 사색’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답 분석

- ①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하는 ‘그들’과 그 길을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오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삶이 지닌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일 년에 한 번씩’ 고향을 찾으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쓸쓸함을 느끼는 ‘나’의 생각에서 고향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변해 버린 현재의 큰오빠와 은자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옛 고향을 간직하기 위해 은자를 만나지 않으려는 ‘나’와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

[08~10] 일동장유가 (김인겸)

작품 읽기

작가 김인겸이 일본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오기까지 약 11개월에 걸친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장편 기행 기사이다. 조선을 출발하면서부터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일본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보고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기행 기사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문물, 제도, 풍속 등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 조선 후기 기행 기사의 모범으로 일컬어진다. 제시된 부분 역시 일본으로 가는 배 안의 상황과 일본 선비와의 필담 상황을 제시하면서 기행 기사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심 내용

- 중략 앞부분: 일본으로 가는 길에 풍랑과 파도로 인해 고통을 겪음.
- 중략 뒷부분: 일본 문인과의 필담

주제 일본 방문의 여정과 견문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 중략 앞부분에서는 배 방에 누워 있던 화자가 ‘대풍’이 일어나서 배가 요동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2) 화자는 여정을 떠난 신세에 심란해 하고, 풍랑을 만나 고통을 겪지만 화자가 배에 홀로 남겨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

3) 큰 풍랑을 만난 상황을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와 같이 과장하여 드러내고 있다.

4)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뚫은 반달처럼 배불렀네’에서 직유적 표현이,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에서 은유적 표현이 활용되어 악화된 날씨로 거세진 풍랑과 주변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때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거세진 물결과 파도를 의미한다.

5) ‘이윽고 해 뜰거늘’을 통해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6) 중략 뒷부분에는 전승산이 화자가 글 쓰는 모습을 바라본 뒤, 필담으로 화자의 글 재주에 감탄하고 글 값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7) 전승상이 ‘나’에게 은화로 글 값을 주려 하자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며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8) 화자와 전승산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9) 중략 앞부분에서는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 선두 폭 초석(草席) 뚫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중략 뒷부분에서는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 아롱보(櫛)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등 유사한 통사 구조를 나란히 배치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8

정답 분석

① 일본으로 가는 중에 화자는 큰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의 모습을 ‘성난 고래 동한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라고 표현하며 동물에 비유하고 있으나, 이는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위태로운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지 않다.

오답 분석

- ②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을 통해 기상 상황이 악화된 모습을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③ 화자가 탄 배를 ‘나뭇잎’이라는 식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풍량으로 인해 화자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에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배가 물결에 따라 높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는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화자가 전승산과 대화하는 상황을 ‘필담으로 써서 보되’, ‘승산이 다시 하되’를 통해 ‘전승산’의 행동을, ‘내 웃고 써서 보되’,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보되’를 통해 화자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9

정답 분석

- ⑤ ㉠은 큰 풍량과 파도가 잠잠해진 후에 배 방에서 나온 화자가 눈앞에 펼쳐진 해돋이 풍광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⑥ ㉡은 전승산이 화자의 글 쓰는 능력에 감탄하여 한 말이다.
- ⑧ ㉢은 화자의 글 쓰는 능력에 대한 전승산의 평가를 보여 주고 있다.
- ⑨ ㉣은 눈앞에 펼쳐진 해돋이 풍광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② ㉠과 ㉡은 풍광과 글에 대한 감탄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③, ④ ㉠과 ㉡은 화자가 보고 있는 대상의 실체를 보여 주고 있다. ㉠은 해돋이 풍경, ㉡은 화자의 글쓰기 솜씨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다.
- ⑦ ㉣은 해돋이 풍경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 것으로 타인의 평가와는 상관이 없다.
- ⑩ ㉢에는 화자의 감정이 아니고 전승산의 감정이 담겨 있으며, 아쉬움이 아닌 감탄이다.

10

정답 분석

- ④ 전승산이 화자에게 퇴석 선생이 맞는지 묻는 부분을 통해 ‘퇴석’은 작가 김인겸의 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이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이다.

오답 분석

- ① [A]는 전승산이 화자가 글 쓰는 모습을 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고, 이를 통해 전승산과 화자 사이의 필담이 시작되고, [B]~[D]에서는 서로 글을 주고받으며 전승산이 화자의 글에 감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 ② [B]에서 전승산은 화자의 글솜씨에 대해 ‘빠른 재주’라며 높게 평가하고 있고, [C]에서 ‘나’는 자신의 글을 ‘높고 병든 듯한 글’이라며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보되’는 내용은 전승산이 화자에게 퇴석인지 묻는 내용이며, [C]의 ‘내 웃고 써서 보되’는 그에 대한 화자의 대답이다. 이를 통해 화자와 전승산 사이의 문답을 통한 의사소통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을 가리키며,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화자에 대한 찬사를 드러내고 있다. [E]에서 전승산은 화자에게 은화로써 글 값을 주려고 하는데 화자는 이에 대해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라며 거절하고 있다.

[11~14] 적성의전 (적자 미상)

작품 읽기

이 작품은 크게 성의가 일영주를 구하려 오는 과정, 공주와 결혼하는 과정,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집을 떠나서 → 모험과 고난 끝에 무엇을 찾고 → 돌아와 명예를 얻는 서사 구조를 따른다. 성의는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친화(親和)의 힘으로 지향하는 욕망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도덕적으로 선하면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존재의 우월성을 인정받아 기존 세력에 영예롭게 편입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전체 줄거리

강남 안평국에 두 왕자가 있었다. 형인 향익은 성품이 고약한 반면, 아우인 성의는 효심이 깊어 왕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병을 얻게 되자 동생인 성의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서역으로 가서 온갖 고생을 한다. 우연히 한 도사를 만난 성의는 일영주를 얻고 동방삭의 도움으로 파초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직접 서천에 가서 약을 구해 오겠다며 사공과 무사들을 이끌고 나간 향익은 집으로 돌아오는 성의를 만나 일영주를 빼앗고, 성의의 눈을 멀게 한 후 바다에 던져 버린다. 그러나 성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안남국 사신인 호 승상에게 구출되고, 천자의 딸 채란 공주를 만나게 된다. 성의는 자신의 어머니가 기러기 편으로 보낸 편지를 읽어 주는 채란 공주의 소리를 듣고는 눈을 뜨게 된다. 공주와 함께 안평국으로 돌아가던 성의는 공주와 기러기의 도움으로 향익의 방해를 이겨 내고 무사히 귀국한다. 향익은 무사 태연에게 죽임을 당하고 성의는 안평국으로 돌아와 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린다.

등장인물

- 성의: 안평국의 둘째 왕자로, 인품과 재덕을 겸비한 인물.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서역으로 일영주를 구하려 가는 효심 깊은 인물
- 향익: 안평국의 첫째 왕자로, 성품이 고약하며 동생인 성의와 갈등을 겪지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함
- 호 승상: 향익로부터 버려진 성의를 구출하는 인물

- 채란 공주: 중국의 공주이자 성의의 아내로, 선견지명이 있으며 용의주도함.

주제 효의 실천과 권선징악

어휘 풀이

- 재계: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함.
- 삼재팔난: 삼재와 팔난이라는 뜻으로, 모든 재앙과 곤란을 이르는 말
- 위친지성(爲親至誠): 부모를 위한 지극한 정성
- 만경창파: 만 이랑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으로,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
- 사고무인(四顧無人):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 삼삼하다: 바람이 몹으로 느끼기에 쌀쌀함.
- 시동: 귀인(貴人)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

////////////////////////////////////

개념 적용 OX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1) ‘속객이 어찌 오시나잇가?’를 통해 서방 세계는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다.
- 2) 성의가 소원을 이루고자 보탑존자를 찾아간 점과 보탑존자가 성의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성의가 찾던 일영주를 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3)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 곤액(困厄)이 있으나’는 성의에게 항의가 전세에 원한이 있던 묘일성신이었는데, 금세(현세)에 형제가 되어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이다. [종락 줄거리]에서 보탑존자의 말대로 성의는 형 항의에 의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멀게 됨을 알 수 있다.
- 4) 보탑존자가 성의에게 약을 주며 한 말은 조언보다 예언에 가깝다. 또한 성의가 보탑존자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성의는 항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겨 부모에게 일영주를 썼는지 알 수 없는 처지를 안타까워할 뿐이다.
- 5) 성의는 항의에 의해 눈이 멀고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한다고 한 점에서 선한 품성이 부각된다.
- 6) 항의는 성의를 공격하여 눈을 멀게 하고 일영주를 빼앗은 점에서 성의와 대립하는 부정적 인물로 볼 수 있다. 그

리나 호 승상은 성의의 피리 소리를 듣고 ‘선동’이라 여기며 그를 찾고 있으므로 부정적 인물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7) ‘천성대효(天性大孝)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오.’ 등을 통해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성의의 인품을 ‘천성대효’라고 높이 평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8) 서방 세계에 들어가서 보탑존자를 만나고 일영주를 받는 사건은 전기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으로 성의의 초월적 능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9) 성의를 중심으로 하여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이 서술의 중심이 되고 있다.

11

정답 분석

- ③ 화상의 “작일에 존자 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 건대 그대를 이르심이라.”에서 ‘안평국 왕자’는 성의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보탑존자는 화상에게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미리 일러두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나”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의 정성을 가늠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상이 성의의 능력을 시험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물러가 칠 일 재계 후에 대사를 보소서.”라는 화상의 말을 들은 성의는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같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엿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존자를 당장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지, 죽어서라도 존자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성의의 피리 소리를 듣고는 ‘선동’이 부는 피리 소리라고 생각하여, 시동에게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뒀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시동은 호 승상의 명령을 받고 피리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나설 뿐, 혼자 나서기 두려워하거나 호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지 않다.

12

정답 분석

-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형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뒀에 곤액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성의가 전생에 천상계의 존재였으나 묘일성신과 갈등이 있었고, 이번 생에 묘일성신과 형제로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세의 묘일성신’은 현세의 형 ‘항의’로 볼 수 있다. [B]에서 성의는 형 항의가 무죄한 인명을 해치고 자신도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는 [A]에서 제시된 묘일성신과의 전세 악연이 현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분석

-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환약 일봉을 주며 “이 약이 일영주니 바빠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B]에서 성의는 어머니의 병세가 어떠한지, 일영주를 썼는지 등을 물라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B]에서 성의는 약을 빼앗기고는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없이 황천에 돌아가시겠도다.”라며 통곡하고 있다. 성의 자신이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금세에 형제 뒀에 곤액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B]에서 성의는 형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죽을 고비를 넘긴 채 적막한 바위 위에서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B]에서 성의는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과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만든 형 항의 때문에 슬피 통곡하고 있으며 ‘창천이 욕열하고 일월이 무광’하다는 것에서 자연물인 ‘창천’과 ‘일월’로부터 공감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형에 대한 통한을 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에서 언급된 ‘원한을 풀 날’은 항의가 죽는 권선징악적 결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정답 분석

- ④ 여러 소리 중에 ㉠의 소리는 눈이 먼 채로 적막한 곳에 홀로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성의의 처량한 심사가 투영된 소리이다. 따라서 ㉠의 소리가 성의가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의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 두 눈이 먼 채 적막한 바위 위에서 한탄하던 성의는 ㉠을 듣고는 그 소리가 대밭에서 나는 것임을 근거로 그곳이 축나라 땅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 ② ㉡은 대 소리를 쫓아 내려가려던 성의가 문득 듣게 된 오작이 우짚는 소리로, ‘손에 우연히 짚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과라.’로 미루어 보아 성의의 주위에 실과가 있음을 알려 준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금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는 ㉢의 대 소리를 따라 대밭에 온 성의는 대를 더듬어 찾아 피리를 만든다.
- ⑤ 호 승상 일행은 혼자 심회를 달래던 성의가 내는 ㉣의 처량한 피리 소리를 듣고는 성의와 만나게 된다.

14

정답 분석

- ③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라고 말한 사람은 존자가 아니라 화상이다. 존자는 오히려 성의가 올 것임을 화상에게 미리 알리고, 오는 즉시 아뢰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권선징악적 성격을 지닌 이 작품의 내용을 고려하면 성의는 선악 대결 구도에서 선인에 해당하므로 존자가 만나지 않으려 하는 부정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존자는 성의에게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이 작품이 초월적 존재 혹은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는 내용과 연관 지을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이 작품이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금강경과 같은 불경이나 백팔염주,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부처의 제자를 높여 이르는 말인 ‘존자(尊者)’ 등을 통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바위 위에 앉아 탄식하고 있는 성의의 모습은 <보기>의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내용과 연관 지을 수 있다.
- ⑤ 성의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고 일영주를 얻으러 서역까지 간 것은 <보기>의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